

국립국어원 2006-1-12 제주(2)

2006년  
제주 지역어 조사 보고서

- ◆ 연구 책임자 : 강영봉
- ◆ 연구 보조원 : 오창명 · 김순자
- ◆ 조사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호근동

국립국어원

2006년

제주 지역어 조사 보고서

국립국어원

##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2006년도 제주 지역어 조사 및 전사’에 관하여  
귀원과 체결한 연구 용역 계약에 의하여 최종 보고  
서를 제출합니다.

2006년 12월 20일

연구책임자 : **강영봉**

## 목 차

1. 조사 과정 .....	3
2. 전사 원칙 .....	9
3. 전사 자료	
제 1 편 구술 발화 .....	13
제 2 편 어 휘 .....	106
제 3 편 음 운 .....	159
제 4 편 문 법 .....	194
4. 제출 자료(별첨)	
1) 보고서 100부	
2) 디지털 녹음테이프	
3) 보존용 48,000hz, 전사파일용 16,000hz 파일 및 전사 trs 파일	
4) 조사된 질문지	
5) 지역어 조사 정보 파일	
6) 제보자 조사표	
7) 지역어 자료 활용 동의서	





# 1. 조사 과정

## 1.1. 조사 지점 개관

2006년도 제주 지역어 조사지로 선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호근동은 제주도 남쪽 서귀포시에 속한 중산간 마을 중 하나이다. 마을 위쪽은 한라산이 자리하고 아래쪽은 바다를 끼고 있는 중산간 마을이다. 바다를 끼고 있으나 배를 댈 수 있는 포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부터 지금까지 호근동 바다는 인근 법환동 어촌계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촌이라기보다 밭농사를 주로 하는 농촌이라 할 수 있다.

이곳은 물이 귀한 지역이지만 마을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통물, 원통, 세미 등 통물이 발달해 있어 이를 이용하여 일찍부터 마을이 성립된 곳이다. 조선시대에는 ‘원통과원’이라는 과수원도 있었다. 조선시대 때 제주도가 삼읍(제주목, 정의현, 대정현)체제로 운영될 때, 한라산 남동쪽의 정의현에 속했지만, 정의현의 서쪽 끝에 있는 마을 중 하나로, 서쪽은 대정현과 경계를 이루는 곳에 형성된 마을이다.

이 마을은 주로 1970년대까지 ‘하논[大畝]’과 ‘섯서위리’ 일대의 논에서 논농사를 짓고 논이 아닌 밭에서는 보리, 조, 고구마, 감자 등의 농사를 지었고, 마을 위쪽의 들판을 이용하여 소규모의 목축업도 하던 마을이었다. 그러다가 1970년대부터 감귤나무를 식재하기 시작하면서 논농사와 목축업은 거의 하지 않게 되었다. 그 이후 오늘날까지 주로 감귤 농사를 짓고 있다.

주제보자는 이 마을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이 마을에 있는 서호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서귀포시 구시가지에 있는 서귀중학교를 다녔다. 중학교를 졸업한 뒤 아버지 일을 돕다가 해병대 4기생 학도병으로 군대생활을 했다. 제대 후 제주사범학교 6개월 속성 교원양성과정(강습과)을 마치고 17년 동안 초등학교 교편생활을 했다. 교편생활에 대한 수입이 여의치 않은 데다 1970년대부터 일기 시작한 감귤농사에 매력을 느껴 40대 초반에 17년 동안의 교편생활을 그만두고 감귤농사를 짓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이 지역 사람들의 통혼은 마을 안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웃마을끼리 이루어지기도 한다. 주제보자의 선조는 호근동에서 살았지만, 주제보자의 아내인 보조제보자는 이웃 마을인 서귀포시 대포동 출신이다. 대포동은 해안 마을 중 하나이지만, 어촌보다도 농촌 성격이 강한 마을이다. 이 마을도 호근동 마을과 같이 1960-70년대부터 주로 감귤농사를 짓기 시작하여 오늘날까지 감귤농사를 짓고 있다. 대포동은 조선시대 때 대정현 소속이고, 1970년대 후반까지도 중문면에 속하여 서귀읍에 속했던 호근동과 언어와 풍습이 많이 다를 듯하나 실제 많이 다르지는 않다.

조사지점인 호근동은 현재 서귀포시 신시가지와 구시가지 사이에 형성되어 있어서 빠르게 변모하는 마을 중 하나이나, 생활면을 보면 서귀포시 중심지 마을과는 달리 외곽 농촌마을 성격을 띠고 있다. 마을에는 마을회관과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있고, 교회가 하나 있다. 마을 학생들의 경우, 중학교는 서귀포시 신시가지와 구시가지가 있는 학교를 이용하고, 고등학교는 대부분 서귀포시 구시가지에 있는 학교를 이용하고 있다. 구시가지와 신시가지로 나갈 때는 주로 버스를 이용하는데, 20-30분 정도 걸린다. 주제보자와 보조제보자는 자가용이 있어서 근래에는 주로 이것을 이용한다.

## 1.2. 조사 기간

2006년 7월-2006년 8월

## 1.3. 제보자

### (1) 주제보자

- 이름 : 김석규(金碩奎)
- 성별 : 남
- 나이 : 77세(실제 나이는 1930년 庚午生, 호적 나이는 75세)
- 출생지 : 일본 오사카(2살 때 제주도로 귀향)
- 거주지 : 제주도 서귀포시 호근동(2살 때부터 호근동 거주)
- 선대거주지 : 제주도 서귀포시 호근동
- 직업 : 농업
- 경력 : 초등학교 교사생활 17년
- 학력 : 중졸. 사범학교 강습과(숙성) 6개월 이수
- 병역 : 해병대 4기생(학도병)
- 제보자 소개 과정 : 자체 물색
- 제보자의 특기 사항 : 대답할 때 표준어형으로 얘기하려는 성향이 있으나, 제주어 발음을 그런 대로 유지하고 있음. 해병대 제대 후 사범학교 강습과(숙성)를 이수하고 초등학교 교편생활을 한 뒤, 주로 감귤농사를 짓고 살았음. 교육을 받아 박식한데다가 제주방언 구사가 무난하고 발음이 비교적 정확하여 주제보자로 선정함.
- 제보자의 음성 특징 : 발음이 매우 양호함

### (2) 보조 제보자 사항

- 이름 : 김춘옥(金春玉)
- 성별 : 여
- 나이 : 77세(1930년 庚午生)
- 출생지 : 제주도 서귀포시 대포동
- 거주지 : 제주도 서귀포시 대포동에서 살다가 서귀포시 호근동으로 시집 음
- 선대거주지 : 제주도 서귀포시 대포동
- 직업 : 농업
- 경력 : 농업
- 학력 : 없음
- 병역 : 없음
- 제보자 소개 과정 : 제보자의 아내

## 1.4. 조사자

(1) 이름 : 강영봉(제주대학교 교수)

오창명(제주대학교 강사)·김순자(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대학원 박사과정생)

(2) 조사 일시 : 2006. 7. - 8.(2개월)

(3) 조사 장소 : 주제보자의 집

(4) 조사 일시 및 내용 : 총 14일 조사

- ① 6월 25일(일) 제보자 탐색
- ② 7월 1일(토) 제보자 면담, 조사 일정 논의
- ③ 7월 2일(일) 09:00-18:00 1차 조사(어휘)
- ④ 7월 15일(토) 09:00-16:00 2차 조사(어휘)
- ⑤ 7월 16일(일) 09:00-16:00 3차 조사(어휘)
- ⑥ 7월 22일(토) 09:00-16:00 4차 조사(어휘)
- ⑦ 7월 23일(일) 09:00-15:00 5차 조사(어휘)
- ⑧ 7월 29일(토) 09:00-16:00 6차 조사(구술발화)
- ⑨ 7월 30일(일) 09:00-13:00 7차 조사(구술발화)
- ⑩ 8월 5일(토) 09:00-15:00 8차 조사(구술발화, 문법)
- ⑪ 8월 6일(일) 09:00-16:00 9차 조사(구술발화)
- ⑫ 8월 12일(토) 09:00-16:00 10차 조사(구술발화)
- ⑬ 8월 13일(일) 09:00-16:00 11차 조사(음운)
- ⑭ 8월 19일(토) 09:00-16:00 12차 조사(음운)
- ⑮ 8월 20일(일) 09:00-16:00 13차 조사(문법)
- ⑯ 8월 27일(일) 09:00-17:00 14차 조사(보충조사)

(3) 조사결과

테이프 수: 24개(어휘 테이프 11개, 구술발화 테이프 8개, 음운 테이프 3개, 문법 테이프 2개)

총 2426분(40시간 26분)

- 어휘 01 1시간 48분(2006년 7월 2일 일 10:30-12:30)
- 어휘 02 1시간 29분(2006년 7월 2일 일 13:30-15:30)
- 어휘 03 1시간 9분(2006년 7월 2일 일 15:50-17:00)
- 어휘 04 1시간 35분(2006년 7월 15일 토 10:30-12:30)
- 어휘 05 1시간 50분(2006년 7월 15일 토 13:30-15:30)
- 어휘 06 1시간 55분(2006년 7월 16일 일 10:30-12:30)
- 어휘 07 1시간 58분(2006년 7월 16일 일 13:30-15:30)
- 어휘 08 1시간 52분(2006년 7월 22일 토 10:30-12:30)

어휘 09 1시간 38분(2006년 7월 22일 토 13:30-15:30)  
어휘 10 1시간 34분(2006년 7월 23일 일 10:30-12:30)  
어휘 11 1시간 8분(2006년 7월 23일 일 13:30-15:30)

구술발화 01 1시간 56분(2006년 7월 29일 토 10:30-12:30)  
구술발화 02 1시간 57분(2006년 7월 29일 토 13:30-15:30)  
구술발화 03 1시간 53분(2006년 7월 30일 일 10:30-12:30)  
구술발화 04 1시간 56분(2006년 8월 5일 토 10:30-12:30)  
구술발화 05 1시간 1분(2006년 8월 6일 일 10:30-12:30)  
구술발화 06 1시간 54분(2006년 8월 6일 일 13:30-15:30)  
구술발화 07 1시간 45분(2006년 8월 12일 토 10:30-12:30)  
구술발화 08 1시간 24분(2006년 8월 12일 토 13:30-15:30)

음운 01 1시간 55분(2006년 8월 13일 일 10:30-12:30)  
음운 02 1시간 52분(2006년 8월 19일 토 10:30-12:30)  
음운 03 1시간 52분(2006년 8월 19일 토 13:30-15:30)

문법 01 1시간 40분(2006년 8월 5일 토 13:30-15:30)  
문법 02 1시간 25분(2006년 8월 20일 일 13:30-15:30)

- (4) 조사 장소 : 주제보자의 집 안방
- (5) 조사 시간 : 40시간 26분
- (6) 녹음기 : SONY DAT
- (7) 마이크 : SURE SM11

## 1.5. 전사

- (1) 전사자 : 강영봉 / 오창명·김순자  
전사 일시 : 2006년 8월 ~ 10월(3개월)  
소요 시간 : 250시간  
특기 사항 :
- (2) 1차 점검자 강영봉·김순자  
1차 점검 일시 2006년 9월 20일 ~ 10월 15일  
소요 시간 190시간  
특기 사항



(3) 2차 점검자 강영봉·오창명

2차 점검 일시 2006년 10월 15일 ~ 10월 30일

소요 시간 130시간

특기 사항

(4) 3차 점검자 강영봉

2차 점검 일시 2006년 11월 2일 ~ 11월 20일

소요 시간 80시간

특기 사항

(5) 파일정보(총 24개 파일)

·구술발화

	녹음시간	1차 전사시간	2차 전사시간
구술발화01	1시간 56분	24시간	10시간
구술발화02	1시간 57분	24시간	10시간
구술발화03	1시간 53분		
구술발화04	1시간 56분		
구술발화05	1시간 1분		
구술발화06	1시간 54분		
구술발화07	1시간 45분		
구술발화08	1시간 24분		

·어휘

	녹음시간	1차 전사시간	2차 전사시간
어휘01	1시간 48분	9시간	5시간
어휘02	1시간 29분	8시간	4시간
어휘03	1시간 9분	7시간	3시간 30분
어휘04	1시간 35분	8시간	4시간
어휘05	1시간 50분	9시간	5시간
어휘06	1시간 55분	9시간	5시간
어휘07	1시간 58분	9시간	5시간
어휘08	1시간 52분	9시간	5시간
어휘09	1시간 38분	8시간	4시간
어휘10	1시간 34분	8시간	4시간
어휘11	1시간 8분	7시간	4시간

·음운

	녹음시간	1차 전사시간	2차 전사시간
음운01	1시간 55분	10시간	5시간
음운02	1시간 52분	10시간	5시간
음운03	1시간 52분	10시간	5시간

·문법

	녹음시간	1차 전사시간	2차 전사시간
문법01	1시간 40분	8시간	5시간
문법02	1시간 25분	7시간	4시간 30분



## 2. 전사 원칙

### 2.1. 구술 발화 전사

구술 발화는 4시간 정도의 분량을 선정하여 전사한 것이다. 구술 발화는 문장 단위로 분절(segmentation)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따라서 각 분절 단위의 끝은 반드시 문장 종결 부호(마침표, 물음표, 느낌표)로 마무리하였다. 제보자의 이야기 중에 조사자의 말이 들어가더라도 하나의 주제로 이야기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제보자와 조사자 사이에 문장부호를 찍지 않았다. 내용이 전환될 경우, 조사자의 말과 제보자의 말을 모두 전사하였다. 이야기가 중간에 끊겨 내용이 전환되면 문장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문장부호를 사용하여 문장을 마무리하였다. 의미 내용상 분절이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분절 내에서 문장이 끝날 때까지 입력하고 문장부호를 넣은 다음 이어서 { } 안에 지역어 문장에 대한 표준어 대역을 넣고 문장 종결 부호를 넣었다.

표준어에 대응되는 어휘나 표현이 없거나 어감이 달라서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그 내용을 기술하였다. 분절을 하고 전사하는 경우 분절 단위로 전사 번호를 부여하였다. 전사 번호는 분절된 문장의 맨 앞에 입력하고, 발화자 표시는 전사 번호 다음에 한 칸을 띄고 “@”(조사자)나 “#”(제보자)와 같은 부호를 입력하였다. 구술 참여자가 여럿일 경우에는 각 구술자를 구별하기 위해 발화 단위 앞에 “#1, #2……” 등의 발화자 표시 부호를 입력하였다. 음성 전사의 경우 잘 들리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추측이 가능한 부분은 [x x]안에 전사하고 음성 청취와 전사가 불가능하면 음절, 혹은 모라(mora) 수만큼 \*\*\*로 표시하였다. 표준어 대역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하였다. 구술 발화 질문지와 무관한 내용은 항목 번호로 “=1”을 부여하고 문장 단위로 전사하였다.

### 2.2. 어휘 항목 전사

① 조사 항목에 대응하는 지역어 어휘는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따라서 곡용 어미나 활용 어미가 연결된 경우에는 그들 어미가 포함된 부분까지 전사하였다.

② 지역어 어절이 표준어형으로는 띄어 써야 할 경우라도 하나의 발화 단위로 판단되면 지역어의 음성 전사에 서는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③ 하나의 표제어에 여러 개의 방언형이 나타나는 경우 동일한 항목 번호를 부여하고 전사하였다.

④ <주의>를 통하여 조사된 지역어형은 별도의 항목으로 전사하지 않았으나,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표제 항목과 관련된 지역어 정보를 (+ ) 안에 기록하였다.

⑤ 질문 항목과 대응되지 않는 지역어형은 항목 번호로 “=2”를 부여하고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⑥ 지역어형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어 응답란에 “\*” 표시, 지시 대상은 없는데 이름만 있는 경우에는 응답형 뒤에 “&” 표시를 하였다.

⑦ 지역어 응답형이 두 개 이상인 경우 신구형은 응답형 뒤에 (+ 신), (+ 구)로 표시하였다.

- ⑧ 사용 빈도의 차이가 있는 경우는 응답형 뒤에 (+다), (+소)로 사용 빈도 차이를 표시하였다.
- ⑨ 지역어형이 비칭과 존칭으로 구별될 때 비칭은 응답형 뒤에 (+비)로, 존칭은 응답형 뒤에 (+존)으로 표시하였다.
- ⑩ 조사 항목에 대한 지역어형이 두 개 이상이고 사용 계층이 노년층과 젊은층으로 구분되는 경우 응답형 뒤에 (+노), (+유)로 표시하였다.

### 2.3. 음운 항목 전사

- ① 조사된 지역어의 어간과 어미가 통합된 음성형을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② 어미를 선택하여 조사하도록 제시한 항목에서는(‘-고(-더라)’, ‘-아/어서(-아/어도)’) 조사하기 쉬운 어미를 선택하고 그 결과를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③ 질문 항목과 대응되지 않는 지역어형은 항목 번호 “=3”을 부여하고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2.4. 문법 항목 전사

- ① 표제 항목에 대응하는 지역어가 포함된 부분을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② 표제 항목에 대응되지 않는 지역어형은 항목 번호로 “=4”를 부여하고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2.5. 표기 방법

- ① ‘위’가 단모음 [y]로 실현되거나 상향 이중모음 [wi]로 실현되더라도 모두 ‘위’로 전사하되 (+ ) 안에 그 사실을 밝혀주었다.
- ② ‘외’가 단모음 [ø ]로 실현되면 ‘외’로 전사하고, 이중모음 [we]로 실현되면 ‘웨’로 전사하였다.
- ③ 비모음은 해당하는 음절 다음에 ~ 표시를 하였다.
- ④ 장음은 “:”, 인상적 장음은 “::” 등으로 표시하였다.
- ⑤ ‘오’와 ‘아’, ‘어’와는 분명하게 구분되는 것으로 보이는 아래 아(·)와 이중모음 ‘으(·)’의 경우, transcriber 상에서는 ‘/오’와 ‘/요’로 표기했으나, 인쇄물에서는 가능한 한 ‘으’와 ‘으’로 바꾸어 표기했다.



2006년 제주 지역어 조사 보고서

### 3. 전사 자료



# 제1편 구술 발화

## 1.1. 조사 마을의 환경과 배경

### 1. 마을 들여다보기

10101 @1 예. 오느른 우선 예 삼추니 사람뎨 .{예. 오늘은 우선 예 삼춘이 살았던.}

10101 @1 이 마을 환경허고 예.{이 마을 환경하고 예.} #1 예.{예.}

10101 #1 예.{예.} @1 이 마을 배경에 대해서 예 예. 좀 듣겠습니다. 우선.{이 마을 배경에 대해서 예 예 듣겠습니다. 우선.}

10101 @1 이 마으른 언제 혹씨 어떠케 형성뉘얼따고 혹씨 드른 저기 인꺼나 그러면.{이 마을은 언제 혹씨 어떻게 형성되엇다고 혹씨 들은 적이 있거나 그러면.} #1 예.{예.}

10101 @1 그걸 좀 말쓰메 주십씨오?{그걸 좀 말씀 해 주십씨오?} #1 네 네.{네 네.}

10101 #1 그 우리 므스른 이 설촌뉘지가 약 한 육백녀네서 혼 칠백년 뉘젠 해 마썸.{그 우리 마을은 이 설촌뉘지가 약 한 육백년에서 한 칠백년 되엇다고 합니다.}

10101 @1 예.{예.} #1 게서 맨 처음에 그 사람뎨 조상이 그 한씨 조상허고 조씨 조상이 이 므을 설촌뉘따고.{그래서 맨 처음에 그 살앗던 조상이 그 한씨 조상하고 조씨 조상이 이 마을 설촌뉘엇다고.} @2 예.{예.}

10101 #1 헤마썸. 겐디 지금.{합니다. 그런데 지금.}

10101 #1 지그른 그 자손드른 혼사름도 얼꼬.{지금은 그 자손들은 한 사람도 없고.}

10101 #1 예. 그 후에 그 이 므으를 그 오성바지 초넨 허여 마썸. 오성바지촌. 게서.{예 그 후에 그 이 마을을 그 오성바지 촌이라고 합니다. 오성바지촌. 그래서.}

10101 #1 군위 오씨 이 양천 허씨 광산 김씨 연주 현씨 또 김씨가 둘 드러갑니다. 경주 김씨.{군위 오씨 이 양천 허씨 광산 김씨 연주 현씨 또 김씨가 둘 들어갑니다. 경주 김씨.}

10101 #1 예예. 이러케 해서 오성바지 조상이 이 사라서 그 자손드리 즈손드리 이 지금도 마니 이 므으레 사라 마썸.{예예. 이렇게 해서 오성바지 조상이 이 살아서 그 자손들이 자손들이 이 지금도 많이 이 마을에 삽니다.}

10101 #1 게서 이 므으레 살고 인는 사람드리 거의가 이 다설뉘 바지에 소케서 이제 오성바지초니엔 힘니다. 이딜.{그래서 이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가 이 다섯 성 바지에 속해서 이제 오성바지 촌이라고 합니다. 여길.}

10101 @1 그 오성바지초넨데 지금도 이 오성바지 초넨 주로.{그 오성바지 촌인데 지금도 이 오성바지 촌이라고 주로} #1 예. 지금도 그.{예. 지금도 그.}

10101 #1 으 그거슨 그대로 유지뉘는 썸입썸.{어 그것은 그대로 유지되는 썸입니다.}

10101 #1 예.{예.} @1 혹씨 그럼 이.{혹씨 그럼 이.}

10101 @1 이 마으레 이름 예.{이 마을에 이름 예.} #1 예.{예.} @1 므을이름.{마을 이름.}

10101 #1 예.{예.} @1 이르메 대한 거 흑씨.{@1 이름에 대한 거 흑씨.}

10101 #1 이 므스른 처으 처멘 이 저 호근리라고 현 호근뎡 호근뎡 호근뎡 허는데 아마.{이 마을은 처음 처음엔 이 저 호근리라고 한 호근마을 호근마을 호근마을 하는데 아마.}

10101 #2 호근니가 아니고 호근.{호근리가 아니고 호근.}

10101 #2 호근뎡.{호근마을.} #1 호근뎡.{호근마을.}

10101 #1 호근뎡 허는데 이건 아마 저 여기에 머 근는 걸 보며는.{호근마을 하는데 이것은 아마 저 여기에 뭐 말하는 것을 보면.}

10101 #1 므루가 절따 또는 이 돌더리 마나서 그런 걸 칭해서 뎡제가 부뎡따 이러케 이 예기뎡 합니다. 현디. 호근나라는 마른 어떠케 예 부뎡뎡고 허니 그 여기서 본 저 범섬.{마루가 졌다 또는 돌들이 많아서 그런 걸 칭하여 마루 자가 붙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허나 호근리라는 말은 어떻게 예 붙였는가 하니 그 여기서 본 저 범섬.} @2 예.{예.}

10101 #1 저가 호도엔 합니다. 호도엔도 허곡 영 범섬엔도 허곡 허는데.{저기가 호도라고 합니다. 호도라고도 하고 이렇게 범섬이라고도 하는데.}

10101 #1 버미 저 버를 범서미 가깝게 일따 해서. 아 켈 처으멘 호랑이 호짜를 쓰고 가까이 일따 해서 가까울 근해서 호근 이런 므으를 부뎡뎡 건데.{범이 저 범을 범섬이 가깝게 있다고 해서 아 제일 처음엔 호랑이 호자를 쓰고 가까이 있다고 해서 가까울 근 해서 호근 이런 마을을 붙였던 것인데.}

10101 #1 그케 그 그 후 그 므으레 멍칭을 쓰고 나서부터는 어린 예기드리 잘 주거가니까아.{그것이 그 그 후 그 마을에 멍칭을 쓰고 나서부터는 어린 아기들이 잘 죽어가니까}

10101 #1 죽꼬 허니까 그 호째가 춤 글짜가 사납다 해서 가까울 호째로 이제 춤 저 조을 호째로 조을 호째로 고첸첸 합니다.{죽고 하니까 그 호자가 참 글자가 사납다해서 가까울 호자로 이제 참 저 좋을 호자로 좋을 호자로 고쳤다고 합니다.}

10101 #1 월래 지금 예. 게서 호근니.{원래 지금 예 그래서 호근리.}

10101 #1 현재 서호 호근으리면서 서호가 서쪼그로 서헌데 이거시 증가네 와서 호 뎡년 저네뎡 그 동네 사람더리 그 세력다툼을 헤 가지고 므으를 두 개로 갈라부려서 마씨. 이거시 갈라분 거시 약 호 뎡 뎡일녀닌가 뎡이년바끼 안뎡니다.{현재 서호 한 마을이면서 서호가 서쪽으로 서호리인데 이것이 중간에 와서 한 뎡년 전에들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세력 다툼을 해가지고 마을을 두 개로 갈라버렸 습니다. 이것이 가른 것이 약 한 뎡 뎡일 년인가 뎡 이년 밖에 안뎡니다.} @2 예예.{예예.}

10101 #1 그런 그 그래서 통트러서 호근뎡 호근뎡 합니다. 호근이나 서호리나. 요세 와서는 또 더욱 이거를 가깝게 허자고 허는 데서 호서마우리라고 쓰기도 합니다. 호서.{그런 그 그래서 통들어서 호근마을 호근마을 합니다. 호근리나 서호리나 요세 와서는 또 더욱 이것을 가깝게 허자고 허는 데서 호서마을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호서.} @2 두 므을.{두 마을.}

10101 #1 두 마을 합쳐서 호서믄을.{두 마을 합쳐서 호서마을.}

10101 #1 그건 그 므을 하나로 춤 엔나레 호근므으를 그래도 호나로 무껴서 쓰자허/는데서 호서 므을 호서믄을 어떤 딱 정해진 건 연꼬 가령 어떤.{그것은 그 마을 하나로 참 옛날에 호근마을을 그 래도 하나로 묶어서 쓰자하는데서 호서마을 호서마을 어떤 딱 정해진 것은 없고.}

10101 #1 친목계를 한다든지 갑장계를 한다든지 정관상에 호서 무슨 예 뎡뎡허자 뎡뎡허자. 또 노 인회도 호서노인회 이러케 뎡고 인썸니다.{친목계를 한다든지 갑장계를 한다든지 정관상에 호서 무슨 예 뎡뎡허자 뎡뎡허자 또 노인회도 호서노인회 이러케 뎡고 있습니다.}

10102 @1 이 므스레 사나 오름드른 어떤 거시 이신고 예?{이 마을에 산이나 오름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10102 #1 예 사는 저 이제 뒤쫓그로 각쭈. 이 호 우리 호그니 바로 우쫓겐 각쭈바위가 인쭈다. 각쭈바위.{예 산은 저 이제 뒤쪽으로 각시 이 호 우리 호근리 바로 위쪽에는 각시바위가 있습니다. 각시바위.}

10102 #1 또 글로 쫓금 멀게 떠러져 인쭈다마는 시오름이 인꼬 두에는 바로 크다만 우리 할라사니 인꼬 그 아페.{또 그리로 쫓금 멀게 떨어져 있습니다마는 시오름이 있고 뒤에는 바로 커다란 우리 할라산이 있고 그 앞에.}

10102 #1 가까이는 각쭈바위가 인꼬 또 서북쫓그로 고공사니 바로 이 큰 고공사니 이러한 사니 인쭈니다.{가까이는 각시바위가 있고 또 서북쪽으로 고공산이 바로 이 큰 고공산이 이러한 산이 있습니다.}

10102 @1 흑씨 각쭈바위하고 시오름하고 고공사네 팔런텐 전서리나 유래가 인쓰면 쫓 말쭈해 주십씨 예?{흑씨 각시바위하고 시오름하고 고공산에 관련된 전설이나 유래가 있으면 쫓 말쭈해 주십씨오?} #1 예.{예.}

10102 #1 그 각쭈바위에는 우리 어린 때 들 듣는 호나이 전서리 인는데 할마니가 늘 나안테 우리 할망이 나안테 늘 들려준 이야기가 경치가 쫓 조은답쭈. 예.{그 각시바위에는 우리 어린 때 들 듣는 하나의 전설이 있는데 할머니가 늘 나한테 우리 할머니가 나한테 늘 들려준 이야기가 경치가 참 좋은 곳이쫓. 예.}

10102 #1 쫓디 어느 어느 사또가 그 각쭈바위 꼭대기에서 에 초서글. 거기 가보며는 이러케 큰 저 돌 예. 바윗돌 이러케 에 쫓쫓헨 도리 아마 호 너넨쫓름 안자 놀 쫓 인는 등돌이 인쭈니다 도리 바위가 인는데.{그런데 어느 어느 사또가 그 각시바위 꼭대기에서 에 초석을 거기 가보면 이렇게 큰 저 돌 예 바윗돌 이렇게 에 쫓평한 돌이 아마 한 네댓 사람 앓아 놀 수 있는 등돌이 있습니다. 돌이 바위가 인는데.}

10102 #1 거기에서 그 자연 경과늘 그 소위 경치를 보면서 또 아마 그 연나른 그 뭐쫓헨니까. 그 저 기쫓이 아니고 저저저저 여자드를 그 막 기쫓이나 그튼겍쭈. 그 저 과네서 쫓발해다가 허는 그 여쫓덜.{거기에서 그 자연 경관을 그 소위 경치를 보면서 또 아마 그 옛날은 그 빛이라고 합니까 그 저 기쫓이 아니고 저저저저 여자드를 그 막 기쫓이나 같은 거지요. 그 저 관에서 쫓발해다가 하는 그 여자들.} @1 관기.{관기.} #1 어 관.{어 관.}

10102 #1 관기드를 데려서 거기서 아주 유흥에 즐기다 놀다보니 초서기 7라난디 초서기 미끄러져서 그 알로 떠러절따고 헤 마쫓. 그 여자 그 관기가?{관기드를 데려서 거기서 아주 유흥에 즐기다 놀다보니 초석이 깔았던 곳 초석이 미끄러져서 그 아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여자 그 관기가.}

10102 #1 게서 그 바위를 각쭈바위라고 한다. 각쭈가 이제 경 경 근는 걸 드린쭈다. 예.{그래서 그 바위를 각시바위라고 한다 각시가 이제 그렇게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

10102 #1 그런 거쫓 도라 뫼열꼬 그게 저게 에 멩칭이 호나는 각쭈바위. 월래 우리 어린 뫼 각쭈 바위쭈. 겨고 한짜으므로는 각쭈바위엔 쫓니다. 각쭈바위 이 빨각 쫓에 그 빼어날 수쫓. 각쭈바위. 또 모가지 수쫓을 쓰기도 헨니다. 각쭈바위.{그런 것을 \*\*되었고 그것이 저게 에 멩칭이 하나는 각시바위 원래 우리 어린 뫼는 각시바위였쫓. 그리고 한자음으므로는 각수바위엔 쫓니다. 각수바위 이 빨각 자에 그 빼어날 수자 각수바위 또 모가지 수자를 쓰기도 합니다. 각수바위.}

10102 #1 또 또 호나는 학쭈바위라고도 헨니다. 건 하기새가 안즌 형국이다해서 지리학 지리쫓설 저그로 저긴 학수바위다 멩칭을 서너 개로 칭헨쭈.{또 또 하나는 학수바위라고도 합니다. 그것은 학이 앓은 형국이라고 해서 지리학 지리쫓설적으로 저기는 학수바위다 멩칭을 서너 개로 말하지요.}

10102 @1 흑씨 하기새 팔런헨서 전서리나 유래는 흑씨 또 업쭈과?{흑씨 학과 팔런헨서 전설이나 유래는 흑씨 또 없쫓니까?} #1 예. 그 전서른 나가?{예. 그 전설은 내가.}



10102 #1 트기허게 나가 드른 거슨 그 우리 그 조상이 무더미 조상 산소가 그 상에받디 상악전. 거기 이서서 그 이야길 늘 드른 이야기우다 마는.{특이하게 내가 들은 것은 그 우리 그 조상이 무덤 이 조상 산소가 그 상여밭에 상악전 거기 있어서 그 이야기를 늘 들은 이야기입니다 마는.}

10102 #1 그 지리 풍서레 그 하기새가 바로 완 안즌 자리가 어디나허면 그 각씨바위 뒤쫓게 조꼐 도툼헌 동사니 인쭈다 거기.{그 지리 풍설에 그 학이 바로 와서 앉은 자리가 어디나하면 그 각시바위 뒤쪽에 조금 도툼한 동산이 있습니다 거기.}

10102 #1 그 하기새가 그디 완 턱 아즌 형구기라 마씨. 게니까 거기를 상악전 상여밭 이러케 그름 니다.{그 학이 거기 와서 턱 앉은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상악전 상여밭 이렇게 말합니다.}

10102 #1 게서 거기에서 나온 말입쭈. 거기 강보민 아닌게 아니라 냥.{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말이 지요. 거기 가서 보면 아닌게 아니라 예.}

10102 #1 바로 하기새가 이러케 해서 특커게 춤 독쭈리가 하기새가 특 안즌 형국이우다게.{바로 학이 이렇게 해서 특하게 참 독쭈리가 학이 특 앉은 형국입니다.}

10102 #1 게서 이제 학쭈아미라고 학쭈아미라고도 허고 그런 말로 드러왈쭈다.{그래서 이제 학수 암이라고 학수암이라고도 하고 그런 말로 들어왔습니다.}

10102 @1 그 각씨바위는 그 관기 팔린 얘기 하나인꼬.{그 각시바위는 그 관기 관련 얘기 하나 있고.} #1 인꼬.{있고.} @1 하기새 관련 인꼬.{학 관련 있고.} #1 팔린 인꼬.{관련 있고.}

10102 @1 혹씨 그 뒤에 인는 시오름 혹씨 그런 이야기가 혹씨 어신가 마씨?{혹시 그 뒤에 있는 시오름 혹씨 그런 이야기가 혹씨 없는가요?}

10102 #1 시오르메 대해서는 머 벨다른 전서리나 이런 건 들쭈 몰테쭈다.{시오름에 대해서는 뭘 별다른 전설이나 이런 것은 듣지 못했습니다.}

10102 @1 어꼬 예.{없고 예.} #1 예예.{예예.} @1 그럼 이제 서초게 인는 고공사는 예?{그러면 이제 서쪽에 있는 고공산은 어떻습니까?}

10102 #1 고공 저게 고공사는 예 요즘 그 웨로울 고쭈를 썬서 웨로울 고쭈에 뿌리 근쭈를 썬서 고근산.{고공 저것이 고공산은 예 요즘 그 외로울 고자를 썬서 외로울 고자에 뿌리 근자를 썬서 고근산.}

10102 #1 고근산 아마 이거슨 기냥 그 글쭈를 그대로 분다며는 어디 영 쭈 즐기를 이어져서 쭈 내려오는 이런 산맥 형태로 행 오는 거시 보통 머신데.{고근산 아마 이것은 그냥 그 글자를 그대로 분다면 어디 이렇게 즐기를 이어져서 쭈 내려오는 이런 산맥 형태로 해서 오는 것이 보통 무엇인데.}

10102 #1 기자 오다가 뿌리 어시 특 노픈 사니 특 서 일쓰니까 저걸 고공사니라고 헐따.{그저 오다가 뿌리 없이 특 높은 산이 특 서 있으니까 저것을 고공산이라고 했다.}

10102 #1 또 하나는 고공사니라고도 헐니다. 노플 꼬쭈에 예 하늘 공쭈 굴 공쭈. 이제도 썬고 헐니다.{또 하나는 고공산이라도 합니다 높을 고자에 예 하늘 공자 굴 공자 이제도 썬고 합니다.}

10102 #1 게난 저 저건 또 올라가보면 그 꼭대기가 그 분화구로 돼 이서 둥그라케 구려이서 마썬 양. 게서 고공사느로도 허고.{그러니까 저 저것은 또 올라가보면 그 꼭대기가 그 분화구로 되어 있어 둥그렇게 비어 있어 예. 그래서 고공산으로도 하고.}

10102 #1 우리 두린 때는.{우리 어린 때는.}

10102 #1 기자 고공 고공산 고공산 영 헐는데 예 커서는.{그저 고공 고공산 고공산 이렇게 헐는데 예 커서는.}

10102 #1 저게 적 그 저켜 인는 문허네 의해서 고근산 고근산 이러케 썬고 요즈문 주로 고근산 고근산 이러케 마니덜 썬 마썬.{저것이 적 그 적혀 있는 문헌에 의해서 고근산 고근산 이렇게 썬고 요즈문 주로 고근산 고근산 이렇게 많이들 썬니다.}

10102 @ 1 혹시 이 막스레 굴.{혹시 이 마을에 동굴.} #1 예.{예.} #1 땅굴 예.{땅굴 예.} #1 예.{예.} @1 동굴이라고도 하는데 예.{동굴이라고도 하는데 예.} #1 예.{예.} @1 그리고 퀘 .{그리고 굴.} #1 퀘.{굴.} @1 혹시 굴허고 퀘에는 어떤 퀘가 이신고 예?{혹시 동굴하고 굴에는 어떤 굴이 있는가요?}

10102 #1 퀘는 예. 지금 고공산 그싸 거느린 고공산 바로 서쪽 그 기슭 기슭 강생이구리엔 헌디가 인쑤다. 강생이굴. 강생이구리 인꼬.{굴은요. 지금 고공산 아까 말한 고공산 바로 서쪽 그 기슭 기슭 강생이굴이라고 한 곳이 있습니다. 강생이굴 강생이굴이 있꼬.}

10102 #1 또 그 강생이구리 인꼬. 또.{또 그 강생이 굴이 있고. 또.}

10102 #1 저기 모뽀테기 그디고라 무신 구리엔 헌다마는.{저기 모뽀테기 거기보고 무슨 동굴이라고 한다만.}

10102 #1 또 그 나 간 보곡 그 저 굴 조사하는 분덜 완 그리쳐드렌 허난 현장까지 강 보명 헨는 데. 그 구를 무신 굴엔 헌다마는 이저버렘쨌 곤젠허난.{또 그 내가 가서 보고 그 저 굴 조사하는 분들 와서 가리켜 달라고해서 현장까지 가서 보면서 했는데 그 동굴을 무슨 동굴이라고 한다마는 잊어버렸네 말하려고 하니.} #2 고공산.{고공산.} #1 아니 아니 모뽀테기 아페 인는 굴.{아니 아니 모뽀테기 앞에 있는 굴.}

10102 #1 거꼬라 무신 구렌 헌다마는.{그것보고 무슨 동굴이라고 한다마는.}

10102 @1 모뽀테기 아피면 고공산 동쪽기우짜?{모뽀테기 앞이면 고공산 동쪽입니까?}

10102 #1 예 고공산 동북쪽뉘주.{아 고공산 동북쪽되지.}

10102 @1 그기.{거기.} #1 각쑤바위 서남쪽.{각시바위 서남쪽.} @1 영창퀘짜?{영창동굴입니까?} #1 영창.{영창.} @1 영창퀘.{영창굴.}

10102 #1 영창에는 아녀고. 무신 무신 저 저저저저저.{영창에는 아니하고 무슨 무슨 저 저저저저저.}

10102 #1 뉘뽀이 아 뉘뽀이구렌 흐는가? 아 무신 겐꼬.{말방아 아 말방아 동굴이라고 하는가? 아 무슨 것일까.}

10102 #2 아 그거 일르른 몰르고 저 서쑤진 기자 강생이굴 강생이굴.{아 그것 이름은 모르고 저 서쪽에 그저 강생이동굴 강생이동굴.} #1 강생이구른 건 뜨난디.{강생이동굴은 그것은 다른데.} #2 게메.{그러게.}

10102 #1 건 고공사네 인는 거고.{그것은 고공산에 있는 것이고.}

10102 #2 그거마라 당신 간 그리쳐시든.{그것 말고 당신 가서 가리켰으면.} #1 나 그리친디 이르믈 동동 웨우단 곤젠허난 이저범쑤게.{나 가르켰는데 이름을 달달 외우다가 말하려고 하니까 잊어버리고 있지.}

10102 @1 예. 조쑤다. 예. 그 강생이굴 팔런해서 전서리 혹시 드른 거 인쑤가?{예. 좋습니다. 예. 그 강생이동굴 팔런해서 전설이 혹시 들은 것이 있습니까?}

10102 #1 전서른 어 벨다른 전서른 업꼬.{전설은 어 벨다른 전설은 없고.}

10102 #1 그딘 그 이젠 간보난 낭더리 막 기냥 밀집뉘어네 이선 /츄끼도 어렵꼬 헌디 그.{거기는 그 이젠는 가보니까 나무들이 막 그냥 밀집뉘어서 있어서 찾기도 어렵고 한데 그.}

10102 #1 시청에서 보니까 가서 주위에 딱허게헤네 폐말 박꼬 며 드러가지 몬터게 저 뭐인가 죽 그 머스로 헤네.{시청에서 보니까 가서 주위에 딱허게 해서 팻말 박고 뭐 들어가지 못하게 저 무엇인가 쑤 그 무엇으로 해서.} @2 경고.{경고.} #1 예예 경헤네 싸 이선게 지금 거기 가면 어두컴컴 나무가 어떠케야 무성한지 그런 상태인데 .{예예 그렇게 해서 싸 있었는데 지금 거기 가면 어두컴컴 나무가 어떻게나 무성한지 그런 상태인데.}

10102 #1 연나렌 우리 어린 땀 강 보민 원 낭 하나 얼쭈게 그디가?{옛날에는 우리 어린 땀 가보면 원 나무 하나 없지요 거기가.}

10102 #1 이 동사니면서 낭 하나 어성으네 개가 꿩사냥을 허영 착 시키면 꿩조창 달려가당 그 거 인는 거슬 몰라그네 그레 떠러질 쟁도.{이 동산이면서 나무 하나 없어서 개가 꿩사냥을 해서 착 시키면 꿩 쫓아서 다려가다가 그 그것 있는 것을 몰라서 그쪽으로 떨어질 정도.}

10102 #1 어 게서 강생이굴. 그 후제는 개덜 허여그네 저 절럼뻥이나 걸러그네 이제 살지 아님직 해가민 또 그레 강 드리쳐 부러.{어 그래서 가생이동굴 그 후에는 개들 해서 저 전업병이나 걸러서 이제 살지 앓을 것 같으면 또 거기에 가서 떨어뜨려 버려.}

10102 @2 으으.{으으.} #1 경해서 강생이굴 강생이굴 허여.{그렇게 해서 강생이동굴 강생이동굴 해.}

10102 @1 흑씨 경헨 꿩사냥 갠땀 강생이가 그디 빠지면 범섬 또꼬냥으로 나왓따는 애기 흑씨 드 른 거 얼쭈가?{흑씨 그렇게 해서 꿩사냥 갠땀 강아지가 거기 빠지면 범섬 똥구멍으로 나왓다는 애기 흑씨 들은 것 없습니까?}

10102 #1 하하하. 그건 게메 더 부치는 마린테 어떤고 허니 그 놈 저게 신시가지를 저거 허여네 우의 기를 이러케 파면서 영허단 보니까.{하하하 그것은 그러케 더 붙이는 말인데 어떠한가 하니 그 놈 저것이 신시가지를 저거 해서 위쪽 길을 이렇게 파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102 #1 그 메기 흘러나온 그 굴 다른 형태를 줄기를 발견헌 헨 때가 발견헨땀 허여.{그 맥이 흘러나온 그 굴 닳은 형태를 줄기를 발견한 한 때가 발견했다고 해.}

10102 #1 신시가지 북쪽그로 게난 저거시 예.{신시가지 북쪽으로 그러니까 저것이 예.}

10102 #1 그 강생이굴로 그레 연결헨 거시다 그런 마른 우리 최그네 들얼쭈.{그 강생이동굴로 그 쪽으로 연결헨 것이다 그런 말은 우리 최근에 들었지.}

10102 @1 이 므스레 내는 어떤 내가 일쭈가?{이 마을에 내는 어떤 내가 있습니까?}

10102 #1 내는 예 바로 이거주 이거 이거 구멍.{내는 예 바로 이것이지 이거 이거 구멍.} @1 그 거 뭇엔 불릅니까?{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10102 #1 이걸 상류쪽 중간쪽 다 틀러.{이것을 상류쪽 중간쪽 다 달라.} @2 예.{예.} #1 예.{예.}

10102 #1 요디 요 율로 알려레 가면 이디선 아녀고 저 알려레 가민 간탱이풀 간탱이꼬렌 허고 간 탱이풀.{여기 여 여기로 아래쪽으로 가면 여기서는 앓고 저 아래쪽으로 가면 간탱이굴 간탱이굴이라고 하고.}

10102 #1 또 우의는 지 ㄹ라지커라? 세 그딘 샘 세미 나니까?{또 위에는 자기 말해지겠어? 세 거 기는 샘 샘이 나니까.}

10102 #2 저 세미서.{저 샘에서.}

10102 #1 세미서 나는 거나네.{샘에서 나는 거니까.}

10102 #2 세미로 이레 ㄴ려오는 내가 아니우파?{샘에서 이쪽으로 내려오는 내가 아닙니까?} #1 게메 세미서 내려오나네 거 오 교수가 잘 알테지.{그러케 샘에서 내려오니까 그것 오 교수가 잘 알테 지.}

10102 #1 그 호그니허고 서흥리 경계를 흐르는 내 이찌 아녀파? 저 할라산 우에서부터 내려왕으 네 그걸 먼 내라 합니까?{그 호근리하고 서흥리 경계를 흐르는 내 있지 않습니까? 저 할라산 위에서 부터 내려와서 그것을 무슨 내라고 합니까?} #1 거 선반내주.{그것 선반내주.}

10102 #1 @1 선반내 예.{선반내.} #1 선반내.{선반내.} @1 위쪼근 또 이쪽ㄱ라 흑씨 진진내라고 안허여마씨?{위쪽은 또 이쪽보고 흑씨 진진내라고 안합니까?} #1진진내 내가 기니까.{진진내 내가 기 니까.}

10102 @1 혹시 그 진진내와 선반내 관련한 혹시 이야기가 혹시 어신가 마씨?(혹시 그 진진내와 선반내 관련한 혹시 이야기가 혹시 없을까요?)

10102 #1 선반내하고 진진내 관련된 이야기 에 며 이실 테주마는 난 드른 바가 어서 무신 전서리 나 무신 거슨.{선반내하고 진진내 관련된 이야기 에 뭐 있을 테지만 나는 들은 바가 없어 무슨 전설 이나 무슨 것은.} @1 조쑤다.{좋습니다.}

10102 @1 이제 그 수도가 드러오기 저네는 무를 머견쓸텐데?(이제 그 수도가 들어오기 전에는 물을 마셨을텐데?) #1 예예.{예예.}

10102 #1 그때 이 호근 므으레서 머견편 물통은 어떤 거시 이서신고 예.{그때 이 호근 마을에서 먹었던 물통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10102 #1 게 저 무른 그 저 호그네선 에 호그니나 서호나 마찬가지로진디.{그게 저 물은 그 저 호근리 에서는 예 호근리나 서호나 마찬가지로진디.} #2 원통물.{원통물.} #1 원통물. 원통물하고 통무를 먹언쑤 호그네서도 또 이 알똥네는.{원통물. 원통물과 통물을 먹었지 호근리에서는 또 이 아랫 동네는.}

10102 #1 이 저 머레기똥네나 이 스방은 가까우니까 통물 가 먹고 또 웬통무른 이 동똥네 에 온 똥네 사는 분드리 또 웬통물 저다 먹꼬.{이 저 머레기 동네나 이 근처는 가까우니까 통물 가서 먹고 또 원통물은 이 동똥네 에 웃동네 사는 분들이 또 원통물 저다 먹고.}

10102 #1 그 경해서 우리 어린 때도 웬통도 강 놀곡 통물. 통무레도 강 놀고. 경헨. 물 나는 디니 까 경헨.{그 그렇게 해서 우리 어린 때도 원통도 가서 놀고 통물 통물에도 가서 놀고 그렇게 해서 물 나는 곳이니까}

10102 @1 혹시 그 통물하고 그 웬통물 관련한 혹시 이야기는 어신가 예?(혹시 그 통물하고 그 원통물 관련한 혹시 이야기는 없을까요?)

10102 #1 아하.{아하.} @1 건 특별리 업꼬.{그것은 특별히 없고.} #1 특별히 이슨 거 답찌 아년 디. 거기.{특별히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거기.} #2 원통 원통 통물 통물 기자 경만.{원통 원통 통물 통물 그저 그렇게만.}

10102 #1 그 하꼬 초등학교 알력웬드레 가머는 그 으드레당 지낭 예.{그 학교 초등학교 아래쪽으로 가면 그 여드레당 지나서 예.} #1 예.{예.} @1 가면 그걸 난드르라고 험니까?(가면 그것을 난드라라고 합니까?)

10102 #1 에 저.{에 저.} #2 으드레당 지낭 지낭은 저 그디가 흘탐.{여드레당 지나서 지나서는 저 거기가 흘탐.} #1 흘탐 저.{흘탐 저.} #2 흘탐.{흘탐.} #1 흘타멘 헨 디가 일쑤.{흘탐이라고 한 데가 있지.}

10102 #1 그 으드레당 지낭.{그 여드레당 지나서.} #1 흘타물 지나그네 지금 그 일쑤도로 인는 그 앞쪽테레를 난드르엔 허쑤.{흘탐을 지나서 지금 그 일쑤도로 있는 그 앞쪽으로 난드르라고 하지.}

10102 @1 난드리.{난드리.} #1 예 난드리.{예 난드리.}

10102 #1 혹시 이 난드리 관련해서는 혹시 어떤 이야기가 어신가 마씨?(혹시 이 난드리 관련해서는 혹시 어떤 이야기가 없을까요?)

10102 #1 난드르에 뭐 별다른 마른 우린 들쩨 몰터고.{난드르에 뭐 별다른 말은 우리는 듣지를 못하고.}

10102 #1 드른 이야기는 어린 때 드른 이야기는 그레.{들은 이야기는 어린 때 들은 이야기는 그쪽으로.}

10102 #1 이젠 그디가 받떠리 아주 토양이 아주 조아서 비오킨 땅으로 농사 진는데 가장 그 이젠 다 밀감농사주마는 밀감농사 허기저네 보리 조 이거시 아주 잘똥서 일토지더리 거기에 집궂똥연쑤 게.{이제는 거기가 받들이 아주 토양이 아주 좋아서 비옥한 땅으로 농사 짓는데 가장 그 이젠는 다

밀감농사지만 밀감농사 하기 전에 보리 조 이것이 아주 잘 되어서 가장 좋은 토지들이 거기에 집결되었지.)

10102 #1 겐디 그거시 아주 연나래는 박토란따고 해.{그런데 그것이 아주 옛날에는 박토였었다고 해.}

10102 #1 박토라서 원 농살 안뒀다가 아 글 근대에 와서 그 그디가 아까 아주 조은 땅이 뒀었다. 연나래는 그 춤물만 받꼬 또 농사해도 원 무신거 씨아시 잘 사지도 아녀고 게서 버려진 땅이나 다름 어선편 마라.{박토라서 원 농사가 안 되다가 아 근 근대에 와서 거 거기가 아까 아주 좋은 땅이 되었다. 옛날에는 그 찐물만 받고 또 농사를 지어도 원 무슨 거 씨앗이 잘 서지도 않고 그래서 버려진 땅이나 다름없었다고 말해.}

10102 @1 아까 각씨바위 뒤쪼게 널븐 벌파는 상여밭.{아까 각시바위 뒤쪽에 너른 벌판은 상여밭.}

10102 #1 상여왓.{상여밭.} @1 상여왓.{상여밭.} #1 상여왓.{상여밭.}

10102 @1 그리고 그 머리 동쪽에는 불칸동산.{그리고 그 머리 동쪽에는 불탄동산.}

10102 #1 불칸.{불탄.} @1 불칸동산.{불탄동산.} #1 불칸동사는 어디냐 허며는 각씨바위 바로 동쪼게 위치한 이제 그 연날.{불탄동산은 어디냐 하면 각시바위 바로 동쪽에 위치한 이제 그 옛날.}

10102 #1 그 호.{그 호.} #2 불칸동산.{불탄동사.} #1 울근 공동묘지 이설뎌 그 그디를 불칸동산 이렌 허주.{울근 공동묘지 있었던 그 거기를 불탄동산이라고 하지.}

10102 @1 그기를 무사 경 불르논고 예?(거기를 왜 그렇게 부를까요?)

10102 #1 그기 아메 화 연나래 그디 화재를 잘 잘 나뎌 모양이라.{거기 아마도 화 옛날에 거기 화재가 잘 잘 났던 모양이라.}

10102 #1 산뿔 게서 불 부리 카.{산불 그래서 불 불이 타.}

10102 #1 게서 불칸 거머게 타니까 불칸동산 불칸동산 헐헐하고 경은 그르른 허연게.{그래서 불칸 거머게 타니까 불탄동산 불탄동산 했다고 하고 그렇게 말하기는 했어.}

10102 @1 호근니 바당ㄱ이에 이름도 이실 켜 아니우파 예?(호근리 바닷가에 이름도 있을 것 아 냅니까 예?) #1 바당ㄱ이에 허주 이름.{바닷가에 많지 이름.} @1 그거 어떤 이름덜 이신고 예?(그것 어떤 이름들 있을까요?)

10102 #1 바당ㄱ르에는 가른녀가 인꼬 이.{바닷가에는 가른여가 있고 이.}

10102 #1 가른년 섰씨오리엔도 허곡 이 섰씨 서 섰씨위리 서위리.{가른여는 섰씨오리라고도 하고 이 섰씨 서 섰씨위리 서위리.}

10102 @1 예.{예.}

10102 #1 가린녀 하면 바로 바당을 말하는 바당에 인는 가린녀를 지칭허는 거고 그 우쪼그로 논 인는 딴 에 서위리.{가린여 하면 바로 바다를 말하는 바다에 있는 가린여를 지칭하는 것이고 그 위쪼으로 논 있는 곳은 에 서위리.}

10102 #1 게서 서쪼게 인는 논 인는 디는 섰씨오리 또 동쪼그로 가면 저 또 논덜 인짜녀 이?(그래서 서쪼에 있는 논 있는 데는 섰씨오리 또 동쪼쪽으로 가면 저 또 논들 있잖아 이?)

10102 #1 거길 동쪼오리라고 허고.{거기를 동서오리라고 하고.}

10102 #1 또 바당ㄱ뎌만 글쭙 저 아페는 그 웨돌게 인는 쪼근 저 거긴 웨돌게 뭐 망압 머 경 그 르메.{또 바닷가에만 말하지 저 앞에는 그 외돌개 있는 쪽은 저 거기는 외돌개 뭐 망앞 뭐 그 그렇게 말해.}

10102 #1 @1 동베낭굴도 인꼬.{동베낭동굴도 있고.} #1 동베낭굴도 인꼬.{동베낭동굴도 있고.}

10102 #2 글로 서쪼디레 오민.{그리로 서쪼쪽으로 오면.} #1 건 서쪼게 동베낭굴.{그것은 서쪼에 동

배낭동굴.}

10102 #2 소꼴. #1 또 머 소꼴 소꼴로 조꼴 서로레 오민 주거물.{또 뭐 소꼴 소꼴로 조금 서쪽으로 오면 주거물.}

10102 #1 또 서레로 가민 남메.{또 서쪽으로 가면 남메.}

10102 #1 건 버판 지경 남메 에 남메 바당.{그것은 법환 지경 남메 에 남메 바다.}

10102 @1 흑씨 가르너 가린너.{흑시 가르여 가린여.}

10102 #1 가린 가르 가린년디 가르너 가르너 허주.{가린 가르 가린년디 가르여 가르여 하지.}

10102 #1 흑씨 그거는 무사 경 불르는고 예?{흑시 그것은 왜 그렇게 부를까요?}

10102 #1 그 여가 이러케 가려져서 여가 두 개로 이러케 뉘여 영 두 개.{그 여가 이렇게 갈라져서 여가 두 개로 이렇게 되어 이렇게 두 개.}

10102 #1 봉을 두 개로 이루니까 가르너주.{봉을 두 개로 이루니까 가르여지.}

@2 나눠지니까?{나눠지니까?} #1 예예. 나눠지니까{예예. 나눠지니까}

10102 #1 요러케 요러케 뉘어쥬.{요렇게 요렇게 되었지.}

10102 #1 겐 무리 무리 듬뿍 들며는 그거시 저 문 차불 때가 인꼬.{그래서 물이 물이 듬뿍 들면 그것이 저 모두 차버릴 때가 있고.}

10102 #1 보통 평상시에 기자 허며는 이제 두 개로 이러케 보입니다 여가 보이다가 완전히 이제 무리 마니 빠정 허며는 뚜렷터게 그케 보이고 무리 반쯤 들며는 요게 여가 이러케 두 봉우리만 보여 게서 가린너. 가린너.{보통 평상시에 그저 하면 이제 두 개로 이렇게 보입니다 여가 보이다가 완전히 이제 물이 많이 빠져서 뚜렷하게 그케 보이고 물이 반쯤 들면 요것이 여가 이러케 두 봉우리만 보여 그래서 가린여. 가린여.}

10102 @1 돛배낭굴.{돛배낭굴.}

10102 #1 겐세. 윈 저 돛배낭굴엔 흰케 윈.{글세. 윈 저 돛배낭굴이라고 한 것이 윈.}

10102 #1 나도 저거 그 물 물 그 무레 대한 조사를 왓길레 그분덜 허고 ㄹ치 가서 겐 설명헤드렌 허니까 윈 아 거.{나도 저것 그 물 물 그 물에 대한 조사를 왓길래 그분들하고 같이 가서 그것을 설명헤달라고 하니까 윈 아 거.}

10102 #1 돛배낭굴.{돛배낭굴.} #2 물 아구리 여가 여가.{물 입구에 여가 여가.} #1 그 아페 아페 돛배 다른 그 여가 인쥬게 케니까 바로 아페 돛배 이 저 그거가 뭐 그겠 표준말로 뉘엔 힘니까?{그 앞에 앞에 도마 닳은 그 여가 있지 그러니까 바로 앞에 도마 이 저 그것이 뭐 그것을 표준말로 무엇 이라고 합니까?} @2 도마.{도마.}

10102 #1 도마 제주마른 돛뵈쥬게.{도마 제주말은 도마지요.}

10102 #1 돛배 돛배 헤서 그 돛배가 아페 인꼬 낭구렌 흰 마른 이진 나 난 낭떠러지가 아닌가? 확실힌 모르쿠다. 저건.{도마 도마 헤서 그 도마가 앞에 있고 낭굴이라고 한 말은 이것은 나 난 낭떠러지가 아닌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저것은.}

10102 #1 거기가 이 저 낭떠러지 절벽기 아주 건사협쥬게 아주.{거기가 이 저 낭떠러지 절벽이 아주 건사하지요 아주.}

10102 #1 아주 그 절경을 이룹니다 게.{아주 그 절경을 이루지요.}

10102 #1 케난 그겠 두를 합쳐서 그케 돛배낭구렌 흰 거시 아닌가?{그러니까 그것을 들을 합쳐서 그것이 돛배낭굴이라고 한 것이 아닌가?}

10102 #1 거기에 무리 또 쥬습니다.{거기에 물이 또 쥬습니다.} @2 아.{아.} #1 예.{예.} #1 무리 잘 나셔.{물이 잘 나셔.}

10102 #1 여름에덜 강 물마지허곡 경허는 디가 이십쥬.{여름에들 가서 물맞이하고 그렇게 하는 곳

이 있지요.}

10102 @1 웨들께는 무사 웨들께라 마씨?{외돌개는 왜 외돌개입니까?}

10102 #1 웨들께는 도리 하나구 짝 하나로 소스니까. {외돌개는 돌이 하나가 곧게 하나로 솟으니까.}

10102 #1 웨돌 웨돌. {외돌 외돌.} 그디 돌 팔련한 전서리나 유래가 흑씨 드른 거 이씀니까? {거기 돌 팔련한 전설이나 유래가 흑씨 들은 것이 있습니까?}

10102 #1 그 머 요새드른 미화허기 위해서 벨벨 말더를 부치는데 우리 어린 땐 무신 마리 어선주다. {그 뒤 요새들은 미화하기 위해서 벨벨 말들을 붙이는데 우리 어린 때는 어떤 말이 없었습니다.} (웃음)

10102 #1 예. {예.} @1 망 아픈 무사 망 아피라? {망앞은 왜 망 앞이라고?}

10102 #1 망 아픈 웨 망 아피엔 허느냐 지금 그 사매봉 사매봉에 엔나레 그 이조 말려베 이 일본 웨 웨구드리 그냥 막 여길 왕 약탈허곡 침버를 험땀니다. {망앞은 왜 망앞이라고 하느냐 지금 그 삼매봉 삼매봉에 옛날에 조선 말엽에 이 일본 왜 왜구들이 그냥 막 여기를 와서 약탈하고 침범을 했답니다.}

10101 #1에 게니까 예 우리 할머니 ㄹ른 마린데. {예 그러니까 예 우리 할머니 말한 말인데.}

10102 #1 저 수평선 쪼게 바다 쪼게 배가 보여가며는. {저 수평선 쪽에 바다 쪽에 배가 보여가면.}

10102 #1 이제 여기 장정더리 소위 우리 여기에 군사더리 마니 인따 수비허고 인따 현 거슬 허나 시위 과시허기 위해서 게서 그 사매봉에 집결헌담니다. 산꼭대기에. {이제 여기 장정들이 소위 우리 여기에 군사들이 많이 있다 수비하고 있다 한 것을 하나 시위 과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삼매봉에 집결헌담니다. 산꼭대기에.}

10102 #1 집결허영 불싸그네 야허고 막 헤가문 그 놈드리 오당도 도라가별젠 허여마씨. 게서 그 망을 보는 디라 마씨. 망. {집결해서 불싸서 야하고 막 해 가면 그 놈들이 오다가도 돌아가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망을 보는 곳입니다. 망.}

10102 #1 거기에 그 망이 인쥬게. 저 아주 요새 ㄹ트민 초소대 그거시 이젠 그거 업썩쥬다 엔나른 우리 어린 때도 거 이선썩니다 인썩는데 거기에 망을 보니까 그 아피니까 망앞. {거기에 그 망이 있지요 저 아주 요새 같으면 초소대 그것이 이제는 그것 없었습니다 옛날은 우리 어린 때도 그거 있었습니 다 있었는데 거기에 망을 보니까 그 앞이니까 망앞.}

@1 이 망아픈 사매봉 망아플 망아플 얘기허는 겁니까? {이 망앞은 삼매봉 망 앞을 망 앞을 얘기하는 겁니까?} #1 사매봉 압쪼글 가리켜서 압 쪼글 바다 쪼글 가리켜서 망앞. {삼매봉 앞 쪽을 가리켜서 앞 쪽을 바다 쪽을 가리켜서 망앞.}

10102 @1 이게 호그니 서호리 경계 바당에 소플 요러케는 망 아페라고는 안힘니까? {이것이 호근리 서호리 경계 바다에 소플 요러케는 망앞이라고는 안합니까?} #1 그딘 망아피라고 아녀. {거기는 망앞이라고 안해.} @1 그딘 망아피라고 아녀고. {거기는 망 앞이라고 안하고.}

10102 @1 소꼬른 무사 소꼬리라고 힘니까? {소플은 왜 소플이라고 합니까?}

10102 #1 소플 글썩우다 거 소꼬리란 원 생각이 안 나네 이. {소플 글썩니다 그거 소플이라고는 원 생각이 안 나네 이.}

10102 @1 주거무른 예? {주거물은요?}

10102 #1 무리 그디 주거무른 무리 나는데 우에 논 혼 에 뻤 파니 노니 그 인는데 거길 보며는 무리 늘 미지그랑허영 생수가 아닙니다. {물이 거기 주거물은 물이 나는데 위에 논 한 에 몇 판에 논 이 그 있는데 거기를 보면 물이 늘 미지근해서 생수가 이닙니다.}

10102 #1 무리 나도 게서 주거물 주거물 허는 거 가테. {물이 나도 그래서 주거물 주거물 하는 것

같아.}

10102 @1 주거물 예.{주거물 예.}

10102 #1 으 무리 미지그랑헌 무리 납니다.{아 물이 미지근한 물이 납니다.} @1 예.{예.} #1 씹  
씩헝질 못터영 무리.{씹씩하지를 못해서 물이.}

10102 @1 그 이 므으레 특벼란 낭이나 머 흑씨 오래웬 낭 가튼 거는 업찌 예?{그 이 마을에 특  
별한 나무나 뭐 흑씨 오래된 나무 같은 것은 없죠?}

10102 #1 특벼란 오래웬 낭은.{특별한 오래된 나무는.}

10102 #2 막 오랜 낭 셔난는디 그차부런.{막 오래된 나무 있었는데 잘라버렸어.} #1 문 기차부런  
덜 양.{모두 잘라버렸어 예.} #2 문 그차부런.{모두 잘라 버렸어.} #1 기차부런 연나레 웨정 때만 허  
드래도 이 저 오봉여 씨 살고 인는 그 좀 지반 일가지만 그디 그 뒤에 큰 돛박낭이 이서가지고.{끊어  
버렸어 옛날에 일제강점기 때만 하더라도 이 저 오봉여 씨 살고 있는 그 조금 집안 일가지만 거기 그  
뒤에 큰 동백나무가 있어가지고.}

10102 #1 뭐 기 머 기념 무신꺼꼬. 그 머스로 해서 이제 머 보호허켄따고 해서 그 웨정 팬디 일본  
사름터리 와서 문 사진 찍꼬 문 그디 무신거 폐말 부치고 행 가명헌 바가 우리 어린 때 보멍 헤난는  
디 그 낭터른 문 잘라부런쑤다.{뭐 기 기념 무엇이지. 그 무엇으로 해서 이제 뭐 보호하겠다고 해서  
그 일제강점기인데 일본 사람들이 와서 모두 사진 찍고 모두 거기 무슨 거 팻말 붙이고 해서 가면서  
한 바가 우리 어린 때 보면서 했었는데. 그 나무들은 모두 잘라버렸습니다.}

10102 #1 우리 므으린 예. 하이튼 낭은 제주도치고 낭을 쥘 므을치고는 낭 그 마나편 므으리우  
다.{우리 마을은 예. 하여튼 나무는 제주도치고 나무를 제일 마을치고는 나무 그 많았던 마을입니다.}

10102 #1 게서 나가 예촌도 도라보고 토평도 도라보고 허열는데.{그래서 내가 상하예리도 돌아보  
고 토평도 돌아보고 했는데.}

10102 #1 우리 므슬만큼 춤 큰 나무드리 어셔날쑤다. 므을 안네 폭낭 돛박낭 머 이런 낭드리 직작  
해서 헝민.{우리 마을만큼 참 큰 나무들이 없었습니다. 마을 안에 팽나무 동백나무 뭐 이런 나무들이  
뻑뻑해서 하면.}

10102 #1 다른 므으레 가보며는 토평이나 예추는 그러케 만텐 헝짜 가보민 우리 므을로 보민 아  
무 걸또 아니라 게서 나가 어린 때 야 우리 므스리 역씨 므을 아네 나무는 쥘 오래고 하구나 헝 걸  
느껴는디 이젠 그런 흔저기 업씨점서. 그런 문 잘라부런.{다른 마을에 가보면 토평이나 상하예리는 그  
렇게 많다고 했사 가보면 우리 마을로 보면 아무 것도 아니라. 그래서 내가 어린 때 야 우리 마을이  
역시 마을 안에 나무는 가장 오래고 많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 이제는 그런 흔적이 없어지고 있어  
그런 모두 잘라버렸어.}

10102 @2 계난 조을 호째 쓰는 거 아넙니까?{그러니까 좋을 호자 쓰는 것 아넙니까?} 헤헤{웃음}

10103 @1 옛날 어르신때부터 지금까지 이 므스른 주로 어떤 일 허멍 살아와신고 예?{옛날 어른  
신때부터 지금까지 이 마을은 주로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왔을까요?}

10103 #1 여기는 다 농삽쑤게. 농사 기자 반농사 논농사 겐디 나 여기 보태고 시픈 말쓰른 그 여  
기가 산초니면서 이 농토가 족쑤다게.{여기는 다 농사지요 농사 그저 밭농사 논농사 그런데 내가 여  
기 보태고 싶은 말씀은 그 여기가 산촌이면서 이 농토가 작습니다.}

10103 @2 조바 예.{줍아 예 #1 예 조바.{예 줍아.}

10103 #1 해안서니 가깝게 인찌 아녀꽈? 너무.{해안선이 가깝게 있지 않습니까? 너무.}

10103 # 1 오히려 이게 헝디 겐디 여길 아주 부초노로 봄니다 부초노로 보는 그 이유는 제일 받  
든 디 낭 이 므으레서 제일 제일 /보든디 하논이엔 헝 논 그 논.{오히려 이것이 한테 그런데 여기를  
아주 부촌으로 봄니다 부촌으로 보는 그 이유는 가장 가까운데 예 이 마을에서 가장 가장 가까운데



하논이라고 한 논 그 논.} @2 예.{예.} #1 그게시 이십쭈.{그것이 있지요.}

10103 #1 하논노네 그 지주드리 거자가 저 우리 밭을 사람드리우다게예.{하논 논에 그 지주들이 거의가 저 우리 마을 사람들입니다요.}

10103 #1 게서 지그른 논농사덜 머 타산 안 마즈니까 논농사 아녕 다 내불고 인는데.{그래서 지금은 논농사들 뒤 타산 안 맞으니까 논농사 않아서 다 내버리고 있는데.}

10103 #1 연날 귀중허게 육지허고 이제 교통이 영허난 허주 경 아년 때는 양. 이 나록쓰리 얼마나 귀헬쭈과?{옛날 귀중허게 육지하고 이제 교통이 이렇게 하니까 하지 그렇게 아니 한 때는요. 이 법쌀이 얼마나 귀했습니까?}

10103 #1 게서 그걸로 해서 우리 밭으리 부초느로 아이고 호그닌 나록 부제 밭을 나록 부제 밭을 영 헤십쭈. 예.{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우리 마을이 부촌으로 아이고 호근리는 벼 부자 마을 벼 부자 마을 이렇게 했지요. 예.}

10103 @1 하논 말씀하시니까 하논 팔런해서 쭈 에 아는 데 일쓰민 그라줍쭈.{하논 말씀하시니까 하논 팔런해서 조금 에 아는 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10103 @2 하논도 흑씨 호근니.{하논도 흑씨 호근리.}

10103 #1 예예. 호그니 지경허고 바는 서흥 찌경이우다마는 우리가 가참끼 때무네 우리 논덜 소유허는 그 경작찌가 하논을 떠나서 저 남성리 걸메까지.{예예 호근리 지경하고 받은 서흥 지경입니다마는 우리가 가잡기 때문에 우리 논들 소유하는 그 경작지가 하논을 떠나서 저 남성리 걸메까지.}

10103 #1 걸메까지 다 우리 밭을 사람드리 소유가 그러케 만쭈다.{걸메까지 다 우리 마을 사람들의 소유가 그렇게 많습니다.}

10103 #1 나도 걸메논 에 혼 오백평 벌다네 쭈 프라벤쭈다마는 우리 걸메 간 논농서허연 .{나도 걸메논 에 한 오백평 벌다가 쭈 팔아버렸습시다 마는 우리 걸메 가서 논농사했어요.} @2 으.{으.}

10103 @1 하논니 나왔스니까 그 하논 팔런해서 게민 특별한 건 업따 예. 그냥 큰 논이라고.{하논이 나왔으니까 그 하논 팔런해서 그러면 특별한 것은 없다 예. 그냥 큰 논이라고.}

10103 #1 예 큰 논이다 게서 아니 연나라에 그런 말 드러십쭈.{예 큰 논이다 그래서 아니 옛날에 그런 말 들었었쭈.}

10103 #1 저게 에 보르미 보르미해서 그 저 하논 논 알력페니 이런 나즈막컨 동사니 일쭈다게.{저 것이 에 보르미 보르미 해서 그 저 하논 논 아래쪽에 이런 나지막한 동산이 있습니다.}

10103 #1 걸 보르미엔 허는데 그 보르미에 에 저 그레 양 그레 그레 뚜게마니 그디까지 무리 무리 췌어서 물 위에 그레 뚜게마니 보르미가 보열젠 힘니다. 게서 보르민데.{그것을 보르미라고 하는데 그 보르미에 에 저 멧돌 예 멧돌 멧돌 뚜게만큼 거기까지 물이 물이 고여서 물 위에 멧돌 뚜게만큼 보르미가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르미라고 하는데.}

10103 #1 췌디 에 연날 그 어느 목사가 어느 목사가 트키 어느 목사가 아 지나다가 그걸 보고 요 무를 빼불며는 이 무를 빼어 불며는 에 노니 노늘 노니 웨어서 노늘 웨나 하여튼 어떤 농사짓는 땅이 웨지 아느냐 헤어서 어 정시 두 사라물 불러서 문지를 헬땀니다.{그런데 에 옛날 어느 목사가 어느 목사가 특히 어느 목사가 아 지나다가 그것을 보고 요 물을 빼면 이 물을 빼 버리면 에 논이 논을 논이 되어서 논을 되나 하여튼 어떤 농사짓는 땅이 되지 않겠냐 해서 아 지관 두 사람을 불러서 물어 봤다고 합니다.}

10103 #1 문지를 하니까 아 그 어느 혼 사라문 동쭈그로 동쭈그로 저 동쪽 동사를 파헤쳐며는 무리 이제 그 숨 알숨바내 쭈그로 저레 내려가서 조치 아녀냐 경 헨꼬.{물으니까 아 그 어느 한 사람은 동쪽으로 동쪽으로 저 동쪽 동산을 파헤치면 물이 이제 그 숨 알선반내 쪽으로 저리로 내려가서 좋지 않느냐 그렇게 했고.}

10103 #1 혼 사라믄 에 지금 저 동서호리 목 건꼬라 무신 모기엔헌다마는 이 동서호리 목꼬라 조른.{한 사람은 에 지금 저 동서호리 목 그것보고 무슨 목이라고 한다 마는 이 동서호리 목보고 조른.}

10103 @1 조른목.{조른목.} #1 조른목.{조른목.}

10103 #2 조름재 조름재.{조름재 조름재.} #1 조름재 조름재목 글로 저 운하를 파 파서 글로 무를 빼야 조타 허니까?{조름재 조름재목 그리로 저 운하를 파 파서 그리로 물을 빼야 좋다 허니까?}

10103 #1 아 이젠 그 목사는 두 사람 말 가운데 어느 걸 테컬까 허다가 절로 해볼라고 처으멘 헨는데 그거시 너무 공사가 어려우니까 그 사라믄 버를 쥘텐 힘니다. 저 년 모른 놈이다 해서.{아 이제 는 그 목사는 두 사람 말 가운데 어느 것을 택할까 허다가 저리로 해보려고 처음에 했는데 그것이 너무 공사가 어려우니까 그 사람을 벌을 줬다고 합니다. 저 너는 모른 놈이다 해서.}

10103 #1 게서 동쪼그로 이젠 판판 마려. 동쪼그로 파니 이리 수월헨판 마려.{그래서 동쪽으로 이젠은 판판 말예요. 동쪽으로 파니 일이 수월했다 말예요.}

10103 #1 게나네 그 그디 인는 고기드리 남성리로 경혈꺼 아니우파? 무래 무를 확 헨 터부니까 이디 셔편 췌기 췌기더리 기냥 에 남성리 쪼그로 드라날판 마려. 드라나나네 그디를 그 드라난 쪽 동네를 지칭해서 주어동. 드라날 주췌에 고기어췌를 췌서 고기는 그 쪼그로 드라날따 해서 주어동.{그러니까 그 거기 있는 고기들이 남성리로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물에 물을 확 해서 터버리니까 여기 있었던 고기 고기들이 그냥 에 남성리 쪽으로 달아났다 말예요. 달아나니까 거기를 그 달아난쪽 동네를 지칭해서 주어동. 달아날 주자에 고기 어자를 췌서 고기는 그 쪽으로 달아났다 해서 주어동.}

10103 @2 으.{어.} 그 맛을 이르믄 동네 이르믄 주어동으로 부췌텐 힘니다. 그런 거시 인췌니다. {그 마을 이름을 동네 이름을 주어동으로 붙였다고 합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10103 @1 그 아까 보르미 예?{그 아까 보르미 예?}

10103 #1 예.{예.} @1 보르미가 하나 인췌가? 두 개 인췌가? 세 개 인췌가?{보르미가 하나 있습니까? 두 개 있습니까? 세 개 있습니까?}

10103 #1 보르미가 머 큰 꼭데기야 거 머 난 하나로 아는데 거 뭐 확실히 그건 모르쿠다. 지금 난 하나로만 보는데.{보르미가 뭐 큰 꼭대기에 거 뭐 나는 하나로 아는데 거 뭐 확실히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나는 하나로만 보는데.}

10103 @1 아까 그 보르미가 무리 차난.{아까 그 보르미가 물이 차난.}

10103 #1 무리 차나네 무리 딱 지그른 그 등 이디까지 나렷췌마는 연나렌 무리 이만큼 올라오니 까니 이 사름 그트민 목 우의까지 목 무리 올라 오니까니 일로 우터레는 그레짜 그레짜마니 보연따해서 보르미다.{물이 차니까 물이 딱 지금은 그 등 여기까지 내렸지마는 옛날에는 물이 이만큼 올라오니까 이 사름 같으면 목 위에까지 목 물이 올라오니까 여기서 위쪽으로는 멧돌췌 멧돌췌만큼 보였다 해서 보르미다.}

10103 #1 그런 말로 드린췌다.{그런 말로 들었습니다.}

@1 그 그레짜마니 보이난 보르미다 게민 이 보르미라고 허는 마리 무슨 마린고 마췌.{그 멧돌췌만 큰 보이니까 보르미다 그러면 이 보르미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10103 #1 췌세 예.{글췌요.} @1 그레짜허고 가튼 마린가 마췌?{멧돌췌하고 같은 말인가요?}

10103 #1 그레짜 그건 아라지커라 당신? 보르미.{멧돌췌 것은 알겠어 당신? 보르미.}

10103 #2 나 보르미엔 말만 들었췌. 그 무신 거세긴 모르쿠다.{나 보르미라고 말만 들었지 그 무슨 거시긴 모르겠습니다.} #1 보르미.{보르미.}

10103 @1 그 하는 경헨 이제 파네 걸메로 무를 빠부난.{그 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파서 걸메로 물을 빼버리니.} #1 예.{예.}

10103 #1 그게 소가 하나 췌겜췌 아녀췌가?{그게 소가 하나 췌겼지 앓았습니까?}

10103 #1 예.{예.} @1 그 소는 머라고 혹씨 그 팔련한 유래가 이신가 예?{그 소는 무엇이라고 혹시 그 팔련한 유래가 있는가요?}

10103 #1 저 그디 소고라 무신 소엔 허여? 견또 이저부네 윈.{저 거기 소보고 무슨 소라고 해? 그것도 기억이 아지 않네 윈.}

10103 #1 소 하나 인쥬게. 그 저 머레기에.{소 하나 있지. 그 저 머레기에.}

10103 #2 어 어디 머레기에.{어 어디 머레기에.}

10103 #1 하논 논 우의 저 제일 큰 소가 인쥬 아녀게.{하논 논 위에 저 가장 큰 소가 있지 않아.}

10103 #2 아.{아.} #1 저수지.{저수지.} #2 아 제수지.{아 저수지.}

10103 #1 그걸꼬라 무시거에.{그것보고 무엇이라고.} #2 그걸꼬라 저.{그것보고 저.} #1 자꾸 곤판 걸 다 이저부리.{자꾸 말하던 것 다 잊어버려.} #2 나도 곤판.{나도 말하던.} @1 들망소.{물망소.} #1 아 들망소.{아 물망소.} #2 알암서.{알았어.} #1 들망소.{물망소.} #2 들망소.{물망소.} #1 들망소 들망소가 거 윈 윈치너주 그디.{물망소 물망소가 거 윈 윈천이지 거기.}

10103 @ 1그 들망소 팔련해서 어떤 이야기가 어신가 마씨?{그 물망소 팔련해서 어떤 이야기가 없을까요?}

10103 #1 거 물.{그것 물.} #1 물망이 이시난 물망소엔 현거주게.{모자반이 있으니까 물망소라고 한거지요.}

10103 #2 그딘 물나고 가는 거난.{거기 물 나고 가는 것이니까.} #1 예.{예.} #2 들망소 들망소.{물망소 물망소.} #1 물망소 들망소 해.{물망소 물망소 해.}

10103 @1 그 들망소 서쪼게 또 세미드리 맨 게 인쥬게 예.{그 물망소 서쪽에 또 샘들이 몇 개 있지요.} #1 이서.{있어.} @1 그건 머라고 험니까?{그것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10103 #1 아 그 우리 논 이서난 덜보고 며셴 굳는고?{아 그 우리 논 있었던 곳 보고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10103 @1 언세미.{원세미} #1 언세민 저 어디고 그디가 언세미.{원세미는 저 어디고 거기가 원세미.} #2 원세민 이 우의가.{원세미는 이 위쪽이.} #1 메메 우의고.{맨 위쪽이고.}

10103 #2 우리 논 신 우쪽 .{우리 논 있는 위쪽.} #1 길 여페.{길 옆에.} #2 질 여페 물나는 거.{길 옆에 물 나는 것.} #1 그게 원세미 .{그것이 원세미.} #2 거 물 나는 거.{그것 물 나는 것.}

10103 #1 원세미 글로 내려왕 우리라라 우리 논 이션텐 디고라 무신 디 엔 라라. 나 이저별쥬. 무신디엔.{원세미 그리로 내려와서 우리 보고 우리 논 있었던 데보고 무엇이라고 말해? 나 잊어버렸다. 무슨 데라고.}

10103 #2 운꺼지. 운꺼지.{웃거지. 웃거지.}

10103 #1 아니 건 운꺼지엔 현 건 영 둘러싼 디를 말 현거고.{아니 그것은 웃거지라고 한 것은 이렇게 둘러싼 곳을 말하는 것이고.}

10103 #1 이 저 물 나는 코 물 나는 디 말이주게 원세미 다투메 난 무리 인쥬 아녀?{이 저 물 나는 곳 물 나는 곳 말이지 원세미 다음에 나는 물이 있지 않아?}

10103 #1 그 우리 논 논 거느릴 때 자꾸 우리 저 우린 어느 페니우다 ㄹ르명 늘 헤난는데 이저별쥬. 우리 논 이스난 나가 서녀케 거기도 논 이서나싹쥬게. 우리 노니.{그 우리 논 논 말할 때 자꾸 우리 저 우리는 어느 쪽입니다 말하면서 늘 했었는데 잊어버렸다. 우리 논 있으니까 내가 선하게 거기도 논 있었었지요. 우리 논이.}

10103 @1 조쥬니다. 아까 농스를 지어남따고 험짜나 양.{좋습니다. 아까 농사를 지어났다고 했잖아요.} #1 예예.{예예.} @1 농스를 지으른 농스엔 어떤 걸떠리 이서신고 예?{농사를 지으면 농사에 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10103 #1 옛날 농사.{옛날 농사.} @2 예. 이 마으레서.{예. 이 마을에서.} #1 이 므스레서 농사엔  
헌 건 그싸 헐쭈만 논농사 그거시 나록허는 농사가 인쎄꼬 이 보리 조 어어 또 모믈.{이 마을에서 농  
사라고 한 것은 아까 했지만 논농사 그것이 벼하는 농사가 있었고 이 보리 조 어어 또 메밀.}

10103 #2 산디.{밭벼.}

10103 #1 산디 밀도 해여서 밀도 밀.{밭벼 밀도 했어 밀도 밀.}#2 밀도 허곡.{밀도 하고.}

10103 #1 예에 보리 저 나록.{아아 보리 저 밭벼.} #2 고구마 저 감저.{고구마 저 고구마.} #1 나  
록 보리 조 모믈.{밭벼 보리 조 메밀.}

10103 #2 산디.{밭벼.} #1 산디 또 밀 미른 그자 여간 주 떠기나 허여 먹쎄 허주 주어브론 아년  
꼬.{밭벼 또 밀 밀은 그저 여간 주 떡이나 해 먹으려고 하지 주업으로는 안 했고.}

10103 #1 밀도 해서. 밀도허곡 그 다음 감자 감저 감자 농사가 아주 대대저그로 해난쭈. 건 건 쪼  
끔 신세대가 나서.{밀도 했어. 밀도 하고 그 다음 고구마 고구마 고구마 농사가 아주 대대적으로 했었  
지. 그것은 그것은 조금 신세대가 나서.}

10103 @1 지슬도 해신가 마씨?{감자도 했습니까?}

10103 #1 지슬 지스른.{감자 감자는.} #2 지스른.{감자는.} #1 지스는 해여도.{감자는 해도.} #1  
여간.{여간.} #2 여간 그거는.{여간 그것은.} #1 대정드레더른 마니 허영딜 요즘 흥는다 이디는 기자  
이녀 반차나나 헐 께. 지슬 여간.{대정쪽에는 많이 해서들 요즘 하는데 여기는 그저 자기 반찬이나 할  
것. 감자 여간.}

10103 #1 @1 누에도 해난쭈게.{누에도 했었지요.}

#1 아 누에딜 헐쭈.{아 누에들 했지.} #2 아이고 누엔 저너브로.{아이고 누에는 전업으로.}

10103 #1 우리 이 므스리 그 누에 누에를 흥는데 그 여자 여자덜까지도 이 게간 그 뽕나무 점모  
글 해그네 키우는 거주 받디 쭈루룩흥게.{우리 이 마을이 그 누에 누에를 하는데 그 여자 여자들까지  
도 이 그러니까 그 뽕나무 점목을 해서 키우는 거지 밭에 쪽하게.}

10103 #1 게영 이 호근몰 사람드른 다른 므스렌 놀렘니다.{그래서 이 호근마을 사람들은 다른 마  
을에서는 놀랍니다.}

10103 #1 여자덜또 집또 카를 들러서 점모글 헐 쭈 아는 므으른 호근 므으리엔 헐쭈.{여자들도 집  
도 칼을 들고 점목을 할 줄 아는 마을은 호근 마을이라고 하지요.}

10103 #1 게난 그걸 주어블 해버니까 게서 그걸로 이 므스리 아주 발전뎡집쭈.{그러니까 그것을  
주업을 해버리니까 그것으로 이 마을이 아주 발전되었지요.}

10103 #1 뽕 또 제충국 춤 웨정뎡 제충국 제충국 마니 헐꼬.{뽕 또 제충국 참 일제강점기에는 제  
충국 많이 했고.}

10103 #1 게서 경제저그로 이젠 여유인은 므으리라고 이제 다른 므으레 나도 그 면서기도 좀 허  
단 말안쭈다마는 다른 므으레 가민 아이고 호그니 상당히 경제 몰근 므을 경제 몰근 므슬 영힙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이제는 여유 있는 마을이라고 이제 다른 마을에 나도 그 면서기도 좀 하다 말았  
습니다마는 다른 마을에 가면 아이고 호근리 상당히 경제 맑은 마을 경제 맑은 마을 이렇게 합니다.}

10103 @1 담배도.{담배도.} #1 담배도 예.{담배도 예.} #2 담배도.{담배도.} #1 담배도 해나고 담  
배 담배는 그 전매청에서 허가 바다 가지고 계속 허질 안코 그 계약 제베로 계약 제베로 해방 광복  
쿠에 흥 멘 년 해나서.{담배도 해나고 담배 담배는 그 전매청에서 허가 받아 가지고 계속 하지를 앓  
고 그 계약 재배로 계약 재배로 해방 광복 후에 한 몇 년 했었어.}

10103 @1 쉼 질루는 거는?{소 키우는 것은?}

10103 #1 오 쉼 질루는 건 뭐 아주 농사에 쉼 게서 쉼는 집쭈마다 쉼 어신 지비 어선쭈.{아 소 키  
우는 것은 뭐 아주 농사에 가장 그래서 소는 집쭈마다 소 없는 집이 없었지.}

10103 #1 다 쉼을 가져서.{다 소를 가졌지.}

10103 @1 몰도 허여납디까?{말도 했었습니까?} 몰 므른.{말 말은.} #2 므른.{말은.} #1 므른 허는데 나도 몰도 질화받쭈마는 이 쉼은 집짚마다 인꼬 므른 기자.{말은 하는데 나도 말도 키워봤지만 이 소는 집짚마다 있고 말은 그저.}

10103 #1 집짚마다 으션.{집짚마다 없어.} #1 집짚마다 으성 허 허 삼십 가구에 허 가구 아니면 허 오십 가구에 허 가구 기자 건.{집짚마다 없어서 한 한 삼십가구에 한 가구 아니면 한 오십 가구에 한 가구 그저 그것은.}

10103 #1 소위 뭐라 흘까? 그 벨도로 기자 영 취미 가정 치는 데가 이서서 사름도 이서서.{소위 뭐라고 할까? 그 벨도로 그저 이렇게 취미 가져서 치는 데가 있었어. 사람도 있었어.}

10103 @1 쉼나 므른 어디 올려나신고 마썰.{소나 말은 어디 올렸었을까요.}

10103 #1 쉼 저 중위니케에 올리주.{소 저 중원이 지경에 올리지.}

10103 @1 무사 중위니케엔 헤여 마씨?{왜 중원이 지경이라고 합니까?}

10103 #1 그 중위니케는 그 일본 사라미 이르민데 일본사람 그 나카하라엔 현 사르미 와서 그 저 그 지대를 댜 사네.{그 중원이 지경은 그 일본 사람의 이름인데 일본 사람 그 나카하라라고 한 사람이 와서 그 저 그 지대를 모두 사서.}

10103 #1 그 저 축다물 두르고 해서 이제 하게 헤네 그 줌 그 노려기 \*\*\*\* 다 우리가 그 당시 우리드리 당헤여쭈마는.{그 저 축담을 두르고 해서 이제 하게 해서 그 줌 그 노력이 \*\*\*\* 다 우리가 그 당시 우리들이 당했지만.}

10103 #1 게서 그 중위니케렌 현 건 일본 사르미 지주 이르물 따서 중위니케 중위니케 허주.{그래서 그 중원이 지경이라고 한 것은 일본 사람의 지주 이름을 따서 중원이 지경 중원이 지경 하지.}

10103 #1 일본말로는 나카하라엔 현 사라민데 예.{일본말로는 나카하라라고 한 사람인데 예.}

10103 @1 그 여러 사라미 모여그네 뭉 조지글 만드는 거슬 표준말로 계라고 하는데 양?{그 여러 사람이 모여서 무슨 조직을 만드는 것을 표준말로 계라고 하는데 예?} #1 계 계.{계 계.} @1 우리는 계라고 합니까?{우리는 계라고 합니까?}

10103 #1 어.{아.} @1 기냥 계 합니까?{그냥 계합니까?} #1 계엔도 허곡 제영도 헤여. 그냥 제영도.{그냥 계라도 하고 계라고도 해. 그냥 계라고도.}

10103 @1 우리 호근 므스레 팔런텐 그 계는 어떤 겐뜨리 이서신고 예?{우리 호근 마을에 관련된 그 계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10103 #1 계더리 이 산 돌 담는 그런 계가 이션꼬 이. 돌 헤그네덜 조직케그네.{계들이 이 산 돌 쌓는 그런 계가 있었고 이 돌 해서들 조직해서.}

10103 @1 그건 무슨 계라고 합니까?{그것은 무슨 계라고 합니까?}

10103 #1 보통.{보통.} #2 침목계엔 아넘니까?{침목계라고 안합니까?}

10103 #1 건 친목계주마는 저 뚜려탄 멍칭이 이시카.{그것은 친목계지만 저 뚜렷한 명칭이 있을까}

10103 @1 그거 허고 예?{그거 하고 예?} #1 그거허고.{그거 하고.}

@1 상연계도 허고.{상여계도 하고.} #1 으.{어.}

10103 #1 상여 상여제도 인쭈 상여계 상여계 이 상여계.{상여 상여제도 있지 상여계 상여계 이 상여계.}

10103 #1 또 물방에덜 계도 인꼬 물방에덜 허영 동네별로 딱 겐또 정허연그네 댜 규정 정허고 댜 허곡 나도 거 ㄱ찌 허다네 이젠 거 물방에 업써져부난 뉘헨쭈다 마는.{또 연자매들 계도 있고 연자매들 해서 동네별로 딱 그것도 정해서 모두 규정 정하고 모두 하고 나도 거 같이 하다가 이제는 거 연

자매 없어져버리니 뭐합니다마는.}

10103 #1 그 \*\*\*\*므례 제도 지내지 아십니까?{그 \*\*\*\*마을에 제도 지내자 않습니까?} #1 으 포 제 그걸도 인꼬.{아 포제 그것도 있고.}

@2 포제 예.{포제 예.} #1 예.{예.}

10103 @1 그 포제할 때는 나중에 상연제하고 그거 담단은 제하고 들방에 흐곡.{그 포제할 때는 나중에 상여계하고 그거 담 쌓는 계하고 연자매 하고.} #1 들방에.{연자매.} @1 또 다른.{또 다른.} #1 다른 건또 이쓸 겨우다 뭐.{다른 것도 있을 겁니다 뭐.}

10103 @2 그럼 자식덜 혼인시킬 겨론 시킬려고 하면?{그럼 자식들 혼인시킬 결혼 시키려고 하면?}

10103 #1 예 건 친목썸썸 .{예 그것은 친목계지요.} @2 아 건 친목계.{아 그것은 친목계.}

10103 #1 예 친목계덜 합니다. 서로 도라가명 예. 예 연나른 그 그걸 허젠허며는 장자기 어떠케나 귀혜신지 양. 꼭 규정에 그런 게 올릅썸.{예 친목계를 합니다. 서로 돌아가면서 예. 예 옛날은 그 그것을 하려고 하면 장작이 어떻게나 귀했는지 예. 꼭 규정에 그런 것이 오르지요.}

10103 #1 서로 예 장작 저.{서로 예 장작 저.}

10103 #2 멘 단.{몇 단.} #1 예 장작 멘 건또 다뉘 칭호가 인썸다 멘 멘 쥘레 멘쥘레.{예 장작 몇 그것도 단위 칭호가 있습니다. 몇 몇 묶음 몇 묶음.} @2 #1 쥘레.{묶음.}

10103 #1 멘 쥘레. 가령 세 쥘레민 세 쥘레. 우리 친목계에서 가령 갑이란 아 사람 친목계워니 에 기를 풀 때는 장작 다섯 쥘레와.{몇 묶음. 가령 세 묶음이면 세 묶음. 우리 친목계에서 가령 갑이란 아 사람 친목계워니 아기를 결혼 시킬 때는 장작 다섯 묶음과.}

10103 #1 술 두 추니. 으 예 이런 거술 내준다 흐는 이런 규정을 행으네 서로 친목계로 경허여 흐 여 갑니다.{술 두 동이. 아 예 이런 것을 내준다 하는 이런 규정을 해서 서로 친목계로 그렇게 해서 하여 갑니다.}

10103 #1 그 우리 으드레당이 유명허자넌니까 예?{그 우리 여드레당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1 예.{예.} @1 그거에 대해 흑씨?{그것에 대해서 흑씨?}

10103 #1 으드레당에서 뭐 이 할망더리 더 잘 알주 뭐.{여드레당에서야 뭐 이 할머니들이 더 잘 알지 뭐.} #2 으드레당.{여드레당.}

10103 #1 으드레 으드레 으드레만 으드레 날만 가니까 으드레당이주게.{여드레 여드레 여드레만 여드레 날만 가니까 여드레당지이요.}

10103 #1 또 이 저 서호리 통물 여폐는 일레당라고 허여. 일레당. 일레당.{또 이 저 서호리 통물 옆에는 이레당이라고 해. 이레당. 이레당.}

10103 #1 건 일레만 날짜를 정헌 거라. 바로 당에 기도 드 기도 가는 나른 날짜가 딱 정헤져 인 썸. 게서 으드레 낫 으드레날 가니까 으드레당. 일레는 일레날만 가니까 일레당.{그것은 일레만 날짜를 정한거야 바로 당에 기도 드 기도 가는 날은 날짜가 딱 정헤져 있어. 그래서 여드레 낫 으드레날 가니까 여드레당. 일레는 일레날만 가니까 일레당.}

10103 @1 아까 바당 ㄱ이에 주거무레도 인썸게 예?{아까 바닷가에 주거물에도 있지 예?} #1 예. {예.}

10103 #1 주거무레는 인는데 저거슨 연나레는 우리 므으레선 안 갠썸.{주거물에는 있는데 저것은 옛날에는 우리 마을에서는 안 갠.}

10103 #1 안 가다가 안 가다가 이젠 해외 추립호ㄴ 뭐허고 바다에 가서 바다에서 또 조요허고 이.{ 안 가다가 안 가다가 이제는 해외 출입하고 뭐하고 바다에 가서 바다에서 또 일찍 죽고 이.}

10103 #1 무레서 어떠케 쥘 액싸를 당허고.{물에서 어떻게 쥘 액살을 당하고.}

10103 #1 이런 일드리 이젠 시대가 뭐 뭐해 가니까니 그런 일드리 우리 온뜨리에 살면서도 헛니까 이제는 바다에 가서 허면 역시 바다에 그디 강 기도 아널 쭈가 업판 마려 게서 이젠 이디서도 텡기주. 이젠 바당에 간.{이런 일들이 이젠 시대가 뭐 뭐해 가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 산동네에 살면서도 하니까 이제는 바다에 가서 하면 역시 바다에 거기 가서 기도 안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여기서도 다니지요. 이제는 바다에 가서.}

10103 @1 계난 여기는 으드렌 날마다 가니까 뭐마씨?{그러니까 여기는 여드레 날만 가니까 뵈이라고요?}

10103 #1 으드레당.{여드레당.} #1 여기는 일레마다 가는 거.{여기는 일레마다 가는 거.} #1 일레당 @1 계민 아까 주거물에 이신 건.{그러면 아까 주거물에 있는 것은.} #1 주거물에 이신 거슨.{주거물에 있는 것은.}

10103 #1 으드레당이나 일레당에 간 기도 간 때에 거기서 일 마치곡 부인드리 그딜 기자 날짜 그 날짜에 이왕에 준비된 날짜에 그디까지 강 텡겨오주.{여드레당이나 일레당에 간 기도 간 때에 거기서 일 마치고 부인들이 거기를 그저 날짜 그 날짜에 기왕에 준비된 날짜에 거기까지 가서 다녀오지.}

10103 #1 그건 뭇엔 불러마씨?{그것은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10103 #2 주거물.{주거물.} #1 주거물땅.{주거물당.} #2 주거물.{주거물.}

10103 #1 주거물.{주거물.} #2 에헴

10104 @1 그 흑씨 요새는 다 어서져벼쭈다마는 우리 호근 므으레서만 특벼리 헨편 전통 민속노리 ㄱ튼 거시 이서신가 마씨? 가령 새 철 들기 저네 머 마을 사람드리 모영 현다든가?{그 흑씨 요새는 다 없어졌습시다마는 우리 호근 마을에서만 특별히 했던 전통 민속놀이 같은 것이 있었을까요? 가령 새 절기 들기 전에 뭇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한다든가?}

10104 #1 뚜련던 민속노리 쥔세 윈. 그건 윈 흐 거 답쩡 안헤 뵈데. 우리 그 호근 므으레서는 그 전국 그 무신 거 나가네 그 견꼬라 무신 거엔 헨짜마는.{뚜렷한 민속놀이가 글썽 윈. 그것은 윈 한 거 같지 않아 보이는데. 우리 그 호근 마을에서는 그 전국 그 무엇 나간서 그 그것보고 뭇라고 했다마는.} @2 민속경기.{민속경기.}

10104 #1 경기헨 일똥 머거 날쭈다.{경기해서 일등 했었습니다.}

10104 #1 예예 일똥까지도.{예 일등까지도.} @1 그거 화반노리.{그거 화반놀이.} #1 아 화반노리. 화반노리. 화반.{아 화반놀이. 화반놀이. 화반.}

10104 @1 그런 얘기 좀 해주실 쭈 인쭈광?{그런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10104 #1 계메 그 나 보멍은 헤나짜마는 그 영호늘 조금 영 모성 영 위로허고 달래는 그런 그런 거 영장 메가곡 뭇 그러거세 비스턴 노리답다. 나도 헤보니까.{그러게 그 나 보면서는 했었다마는 그 영혼을 조금 이렇게 모셔서 이렇게 위로하고 달래는 그런 그런 거 상여 매 가고 뭇 그런것에 비슷한 놀이였지요 나도 헤보니까?}

10104 @1 흑씨 호근 므으리 이우터는 베퍼나나 서흥리나 이런 므으슬허고 비교해 가지고 독특하게 두드러지는 어떤 특쟁 가튼 거시 이실건가 마씨?{흑씨 호근 마을이 이웃하는 법환이나 서흥리나 이런 마을하고 비교해 가지고 독특하게 두드러지는 어떤 특징 같은 것이 있을까요?}

10104 #1 무서거세 대해서 므을.{무엇에 대하여 마을.} @1 예예.{예예.}

10104 #1 므으레서 트벼리 내세울 만한 거.{마을에서 특별히 내세울 만한 거.} #1 내세울 만한 거.{내세울 만한 거.}

10104 #1 역사저그로 내세울 만한 거슨 이십쭈.{역사적으로 내세울 만한 것은 있지요.}

10104 #1 이젠 머 거의 일반화 뵈엔짜마는.{이제는 뭇 거의 일반화 되었지마는.}

10104 #1 예 이 므으른 그 저 문나며네서 이 전기 예 이이 전기 제주도에서 전기 농촌치고 쥔 먼

저 이 면소재지보다도 더 먼저 전기가 시설된 마을이우다 이디가?{에 이 마을은 그 저 문화면에서 이 전기 예 이 전기 제주도에서 전기 농촌치고 가장 먼저 이 면소재지보다도 더 먼저 전기가 시설된 마을입니다 여기가.}

10104 #1 게고 그 보단 압써서는 수도가 또 삼 이 천구백삼십 년대에 에 요즘 흐는 이 신식수도를 뽀바서 시 가설해서 수도물 수도 이용헌 므으리우다. 이디가?{그리고 그 보다는 앞서서는 수도가 또 삼 이 천구백삼십 년대에 에 요즘 하는 이 신식수도를 뽀바서 시 가설해서 수도물 수도를 이용한 마을입니다. 여기가.} @2 삼십 년대에.{삼십 년대에.} 삼십 년대.{삼십 년대.}

10104 #1 스십 년대에 스십 년도 가니까 해방이 뵈 지쿠에 또 전기를 가설헌 므으립니다.{사십 년도에 사십 년도 가니까 해방이 된 직후에 또 전기를 가설한 마을입니다.}

10104 @2 그럼 전기를 사십오 년도에 헨따고.{그러면 전기를 사십오 년도에 했다고.} #1 스십칠 년도든가 예.{사십칠 년도든가 예.}@2 아.{아.} #1 예예.{예예.}

10104 #1 그런 거시 이서서 어 그런 며네서 이제 압선꼬.{그런 것이 있어서 아 그런 면에서 앞섰고.}

10104 #1 또 인물덜토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잘 저 뭐 그 저 훌륭한 분더리 마니 배출뵈십쥬 이 므으레.{또 인물들도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잘 저 뭐 그 저 훌륭한 분들이 많이 배출되었지요 이 마을에.}

10104 #1 에 그런 거 뭐 어느 므으리나 인물더른 나게 마련입쥬 마는 자랑할 만한 건 역사저그로 그런 게 인쥬니다.{에 그런 거 뭐 어느 마을이나 인물들은 나게 마련이지만 자랑할 만한 것은 역사적으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10104 #2 특산무른 어떤 게 인쥬습니까?{특산물은 어떤 것이 있쥬습니까?}

10104 #1 특산무른 이제 머 요즈믄 머 업쥬니다. 그자 다 일반화뵈 뵈감 뵈감어베만 다 주어비 뵈니까. 특산무리라고 뭐 이제 인는 건 어십쥬.{특산물은 이제는 뭐 요즘은 뭐 없쥬니다. 그저 다 일반화 뵈 뵈감 뵈감업어만 다 주업이 되니까. 특산물이라고 뭐 이제 인는 것은 없지요.}

10104 @2 아 지난버네 말씀해 주쥬뵈면 그 대나무로 바구니를 여꼬 하는.{아 지난번에 말씀해 주쥬뵈던 대나무로 바구니를 여고 하는.} #1 예예 그거시 또 톡특합니다 건.{예예 그것이 또 톡특합니다.}

10104 #1 에 지금 대나무 저 막 기능공인가 문화재로 내세울 만한 부니 에 마 건 제주도에서 마 제일인자라고 볼 쥬 인는 사라미 흐 사람 지금 인쥬니다. 게서 지금 우리 노인회에서도 그 부늘 중시 므로 해서 지금 죽공예 일짜리 사어블 허고 인쥬다마는.{아 지금 대나무 저 막 기능공인가 문화재로 내세울 만한 분이 에 마 그것은 제주도에서 마 제일인자로 볼 수 인는 사람이 한 사람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노인회에서도 그 부늘 중심으로 해서 지금 죽공예 일짜리 사어블 하고 인쥬다마는.}

10104 #1 게서 이 대나무 죽공예는 옛날부터 여기가 그 요 츠 산간지대가 뵈다보니까 대왈뜨리 만코 대가 만쥬니다. 이제 요새.{그래서 이 대나무 죽공예는 옛날부터 여기가 그 요 츠 산간지대가 되다보니까 대밭들이 많고 대가 많쥬니다. 이제 요새.}

10104 #1 게서 그런 자료도 인꼬 허니까 경해서 이제 거 발달뵈겍쥬. 옛날에는 대그릇뵈 대 문질 쥬 아는 사름드리 지금도 뵈 칠십뵈 사름드른 거의가 합니다.{그래서 그런 자료도 인꼬 하니까 그래서 이제 거 발달뵈 것이지요. 옛날에는 대그릇뵈 대 문질 쥬 아는 사름들이 지금도 한 칠십뵈 사름들은 거의가 합니다.} @2 예예.{예예.} #1 예예.{예예.}

10104 @1 삼촌 어렸을 때 하고 지금허고.{삼촌 어렸을 때 하고 지금하고.}

10104 @1 비교를 허면 아까 성바지드리 흑씨 달라진 게 흑씨 인는지 예? 그리고 풍스비 흑씨 달라진 거시 인는지 예?{비교를 하면 아까 성바지들이 흑씨 달라진 것이 흑씨 인는지요? 그리고 풍습이



혹시 달라진 것이 있는지 예?)

10104 @ 1 혹시 그 생활에 상태가 예 달라진 거시 인는지? 그런 건뜨른 쯤?(혹시 그 생활에 상태가 예 달라진 것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쯤?) #1 그건 머 아주 마니 달라져십쭈. 예. 그건 머 건도무지.{그것은 뭐 아주 많이 달라졌지요. 예. 그것은 뭐 그것은 도무지.} #2 연날 께 하나도 어서. {옛날 것이 하나도 없어.} #1 아이고 연날 께 얼마나 달라져쭈가? 다 모든 게 다 달라져십쭈.{아이고 옛날 것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다 모든 것이 다 달라졌지요.}

10104 @2 계난 구체저그로 흐 멘 께만.{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한 몇 개만.} #1 구체저그로 걸 어느 걸 흐나를 지칭 뉘해서 말허민 뉘겜고.{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느 것을 하나를 지칭 뉘해서 말하면 뉘겜 것인가.}

10104 @1 성바지는 아까 오성바지가?{성씨는 아까 오성바지가.} #1 오성바지 예.{오성바지 예.} @1 아까 마을을 설촌헐따고 허는데 예? 요새는 주로.{아까 마을을 설촌헐따고 하는데요? 요새는 주로.} #1 요새에 그 후에 이 뉘으레 살고 인는 마니 이디 와서 그 후에 번성뉘 썸족더리 이 고씨허고 진씨 예 이 두 성바질 께우다.{요새에 그 후에 이 마을에 살고 인는 많이 여기 와서 그 후에 번성뉘 썸족들이 이 고씨허고 진씨 예 두 성바지일 겐니다.}

10104 #1 고씨허고 진씨 강씨도 인꼬 예. 강씨도 강씨 이 세 성 세 성드른 게도 메 으라 세테드를 거느릴 쯤도로 이제 번성뉘 헐십쭈.{고씨허고 진씨 강씨도 인고 예. 강씨도 강씨 이 세 성 세 성들은 그래도 몇 여러 세대들을 거느릴 쯤도로 이제 번성뉘 헐지요.}

10104 #1 계니까 어렷을 때는 오성바지가 주로 이루는데.{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오성바지가 주로 이루는데.} #1 예.{예.}

10104 #1 요새는 삼성이 또 드러와 가지고 여덟 썸 정도.{요새는 삼성이 또 들어와 가지고 여덟 썸 정도.} #1 예예예. 그런 쯤도.{예예예. 그런 쯤도.}

10104 #1 혹시 풍습 그 저 장례식 풍습이나 겨룬식 풍속 혹시 달라진 거시 이시면.{혹시 풍습 그 저 장례식 풍습이나 결혼식 풍속 혹시 달라진 것이 있으면.} #1 예 아주 아주 독특터게 달라진 거시 우선 장례식.{예 아주 아주 독특터게 달라진 것이 우선 장례식.}

10104 #1 장례식근 연날 춤 장사가 나며는 그 지베서 지베서 정성궐 헤서 지베서 모든 그 장예 절차를 지베서 허고 일포라든지 요즈믄 일포그튼 거 뉘 지비 뵤드르터게 이서도 다 저 어디 의료원엔가 어디 강으네 허지 아님니까? 지베서 헐꼬.{장례식은 옛날 참 장이 나면 그 궐에서 궐에서 정성궐 헤서 궐에서 모든 그 장례 절차를 궐에서 하고 일포라든지 요즘은 일포같은 거 뉘 궐이 뵤드르터게 있어도 다 저 어디 의료원엔가 어디 가서 하지 않습니까? 궐에서 헐고.}

10104 #1 으 장사 나른 상예게가 인썸니다. 계 상예 상예 상예로 헤서 운상을 헐니다. 공 저 묘지까지.{아 장삿날은 상예게가 인썸니다. 계 상예 상예 상예로 헤서 운상을 헐니다. 공 저 묘지까지.} @2 예.{예.}

10104 #1 묘지까지 허는 데 전부 그 일꾼들 일꾼들 머 이제 저 보통 상디 상디 상디라고도 헐니다마는 상디덜로 헤서 이디 메어가지고 상디로 하여금 장지까지 모셔 가그네 장사허곡 헤어오고. 또. {묘지까지 하는데 전부 그 일꾼들 일꾼들 뉘 이제 저 보통 상두 상두 상두라고도 헐니다마는 상두들로 헤서 여기 메어가지고 상두로 하여금 장지까지 모셔 가서 장사허고 헤어오고. 또.}

10104 #1 소상 대상 머 담제 이터케 헤서 삼년상을 허고.{소상 대상 뉘 담제 이터케 헤서 삼년상을 허고.}

10104 #1 또 이 초흐르 보르메 아 초흐르 보르메 상망을 헐썸니다. 초흐르허고 보름날 궐궐 나도 이제 저 늑썸 부모를 모셔서 그 이겜 그 행사를 치룬는데 삼년상 초흐르 보르메 상망허고.{또 이 초하루 보름에 아 초하루 보름에 삭망을 헐썸니다. 초하루허고 보름날 궐궐 나도 이제 저 늑썸 부모를

모셔서 그 이것을 그 행사를 치렀는데 삼년상 초하루 보름에 삭망하고.)

10104 #2 삼우제.{삼우제.} #1 삼우제 허곡. 문 문 해서 이제 헨는데.{삼우제 하고. 모두 모두 해서 이제 했는데.}

10104 #1 요세는 완저니 달라진 거시.{요세는 완전히 달라진 것이.} #2 영장받디서 다 허여부난. {장지에서 다 하니까.} #1 영장 저 이료워네 가서 이제 그 허곡 또 조객도 거기서 받꼭 머 차로 상에 이런 거슨 원 이젠 업써저불곡. 어 차량으로 해서 거기까지 가서 기냥 으 해서 그자 당일로 해서 문 모차부는 이런 시대가 헨는데 아주 달라져십쥬. 그런 거시 예.{영장 저 의료원에 가서 이제 그 하고 또 조객도 거기서 받고 뭐 차로 상여 이런 것은 원 이제는 없어져버리고. 어 차량으로 해서 거기까지 그냥 으 해서 그자 당일로 해서 모두 마쳐버리는 이런 시대가 됐는데 아주 달라졌지요. 그런 것이 예.}

10104 #2 백일 탈쌍 해불곡.{백일 탈상 해버리고.} #1 예 그리고 혼사 혼사도 달라진 거시 연나레 우리 커 우리 커 우리 우리가 장계 갈 때만 해도 경헨쥬니다.{예 그리고 혼사 혼사도 달라진 것이 옛날에 우리 커 우리 커 우리 우리가 장가 갈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10104 #1 새각씨를 우린 이제 여기서 실랑은 뭉 탕 뭉 탕 갑니다.{새색시를 우리는 이제 여기서 실랑은 말타서 말타서 갑니다.}

10104 #1 신부허고 영 떡 사모관대 딱 입꼭 행 예.{신부하고 이렇게 떡 사모관대 딱 입고 해서 예.}

10104 #1 게서 그 므른 또 그 므으레 하이니 이제.{그래서 그 말은 또 그 마을에 하인이 이제.} @2 구중.{구중.} #1 구중이 이제 이끌게 허곡 허여그네 게영 강.{구중이 이제 이끌게 하고 해서 그래서 가서.}

10104 #1 예 처 그 신부치베 강 상받꼭. 게서 거기서 다 끝나며는 이제 신부는 또 어떻게 오느냐 허며는 그.{예 처 그 신부집에 가서 상을 받고. 그래서 거기서 다 끝나면 이제 신부는 또 어떻게 오느냐 하면 그.} #2 도교.{독교.} #1 데끼.{독교.}

10104 #2 데끼.{독교.} #1 뤼께 데끼앵도 허곡.{독교 독교라고도 하고.}

10104 #1 뭉 므를 뭉 두 두 개를 아주 순헌 뭉 두 개를 압똬에 뇌서 게서 그 사이에 이제 그 데끼를 딱허게 이제 뻤니다. 매영 게민 그 그 데끼 우에 신부를 이제 그 올라가게 헤영 거기서 이제 그 때 안쥬주.{말 말을 말 두 두 개를 아주 순헌 말 두 개를 앞뒤에 놓아서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그 독교를 딱하게 이제 매지요. 매어서 그러면 그 그 독교 위에 신부를 이제 그 올라가게 해서 거기서 이제 그때 앓게 하쥬.}

10104 #1 안쥬곡 이제 구중은 또 이제 그 므를 이제 든든히 장정덜 아주 뭉 잘 흐는 사름덜 떡커 영 영 오게 지브로까지 허여 오는데.{앓히고 이제 구중은 또 이제 그 말을 이제 단단히 장정들 아주 말 잘 하는 사람들 딱하게 이렇게 오게 집으로까지 해서 오는데.}

10104 #1 또 쉬안한게 하나 입쥬다. 연나레는 예.{또 희한한게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는 예.}

10104 #1 요세는 예 그 우측 보행은 머 우측 통행 머 차는 좌측통행 아니우파? 헌디 연나렌 그런 질씨가 업쥬단 말여.{요세는 예 그 오른쪽 보행은 뭐 우측 통행 뭐 차는 좌측 통행 아닙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질씨가 없었던 말예요.}

10104 #1 게며는 이제 새각씨를 저 서초네 가서 예 새각씨를 모셔 영 오곡.{그러면 이제 새색시를 저 서촌에 가서 예 새색시를 모셔서 이렇게 오고.}

10104 #1 또 요쥬게서는 또또 그날 이 잔친나른 혼 그 다 길니리 뤼기 때문에 서로 혼사가 겹치지 아납니까? 또 이쥬게서 영영 간다 마려.{또 요쥬에서는 또 또 그날 이 잔칫날은 혼 그 다 길일이 되기 때문에 서로 혼사가 겹치지 않습니까? 또 이쥬에선 이렇게 이렇게 한다 말이에요.}

10104 #1 조분 조분헌 기레 마주치며는 어떠케 허느냐.{좁디좁은 길에 마주치면 어떻게 하느냐.}  
@2 으으.{아아.}

10104 #1 아 그 어떤 교통법규가 그땐 어서 노니까 세 쓴 사라마 우의로만 가젠 험다고.{아 그 어떤 교통법규가 그때는 없으니까 세력 쉰 쓴 사람이 위쪽으로 가려고 한다고.}

10104 #1 세력 세력 쉰 헤헤(웃음) 가문 지바네서는 그 털썩으로 우의로 웨 알로 가느냐 이거야 위로 경허멍 한참 시비가 버러지고 뽀뽀뽀 뽀뽀 다 생겼따고 하니.{세력 세력 쉰 하하 가문 집안에서는 그 텃세로 위로 왜 아래로 가느냐 이거야 위로 그렇게하면서 한참 시비가 벌어지고 뽀뽀뽀 뽀뽀 일이 생겼다고 하니.}

10104 #1 경헨디 에 나 어린 때엔 우리 동네에서들 우리 뽀뽀도 다 경헨꼬.{그런데 에 내가 어린 때엔 우리 동네에서들 우리 뽀뽀도 다 그렇게 했고.}

10104 #1 나 장게갈 때는 스삼사건 나던 해에 바로 나가 장겘 간는데.{나 장가 갈 때는 사삼사건 나던 해에 내가 바로 장가를 갔는데.}

10104 @1 잠깐만 양. 그디까지만 일딴 고맙쑤다.{잠깐만요. 거기까지만 일단 고맙습니다.}

## 1.2 일생 의례

### 1. 제보자의 태생과 성장

10201 @1 요버네는 예.{요번에는 예.} #1 예.{예.} #1 주로 삼추니 태어나서 지금까지 어떠케 해왔는가를 그라 주셔야 될꺼라 예.{주로 삼촌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가를 말해 주셔야 될 거예요.}

10201 @1 우선 태어난 고순 어디고 나이가 메시고 태어난 해는 무슨 해로써 지금 떠가 뽀고 경해서 이제 어렸을 땐 어떠케 지내고 초등학교 중학교 어떠케 텡건 군데 가따완 가따완 지거븐 어떠케 허고 겨로는 어떠케 해서 예기는 뽀 나코 하는 거슬 그라쑤쑤 예?{우선 태어난 곳은 어디고 나이가 몇이고 태어난 해는 무슨 해로서 지금 떠가 무엇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렸을 때는 어떻게 지내고 초등학교 중학교 어떻게 다녀서 군대 다녀와서 다녀와서 직업은 어떻게 하고 결혼은 어떻게 해서 아기는 뽀 낳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1 예예.{예예.}

10201 @1 태어나서 떠 허고 쑤 그라쑤쑤.{태어나서 떠 하고 쑤 말씀해 주십시오.}

10201 #1 그 나가 나키는 저 이디서 안 나네 그 일본 오사카에서 날쑤 합니다.{그 내가 낳기는 저 여기서 안 나서 그 일본 오사카에서 낳다고 합니다.}

10201 #1 나네 그 우리 부모님미 일본 당시에 일본 사람쓰니까 게서 일본 그 오사카에서 나서 에 두 설 뽀가 예 .{나서 그 우리 부모님이 일본 당시에 일본 살았으니까 그래서 일본 그 오사카에서 나서 에 두 살 때인가 예.}

10201 #1 또 우리 부모님더리 다시 또 이제 귀환을 헤쑤쑤. 이디 완 에 이디완 사란.{또 우리 부모님들이 다시 또 이제 귀환을 했지요. 여기 와서 에 여기 와서 살안.}

10201 #1 에 이디 완 사란 난 그 어린시절 쑤장히 쑤 지반이 부른기에 닥쳐서 그 어버이더리 다 조요헨쑤다 게.{에 여기 와서 살안 난 그 어린시절 쑤장히 쑤 집안이 불운기에 닥쳐서 그 어버이들이 다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2 예예.{예예.} #1 아버지가 나 세 설 쑤게 도라가고.{아버지가 나 세 살 적에 돌아가시고.}

10201 #1 케니까 어머니는 나 우이 또 누이가 이십쭈.{그러니까 어머니는 나 위에 또 누이가 있지요.}

10201 #1 누이가 인는다 그 시대 그 춤 흘 청청과부 드러서 어 춤 살 끼리 막막헝 허자널거파? 이 저 뭐 재산도 월래 우리 제사니 하르바지 떼는 제사니 조안쭈다 마는 아버지네 삼형제가 다 실패 자글 해서 마씨. 다 겨론헌 후에.{누이가 있는데 그 시대 그 춤 흘 청청과부 들어서 아 춤 살 길이 막막합 하잖겠습니까? 이 저 뭐 재산도 원래 우리 재산이 할아버지 때는 재산이 좋았습니다마는 아버지네 삼형제가 다 실패작을 했습니다. 다 결혼한 후에.}

10201 #1 경허다 보니 재산도 탕진 돼여부리고.{그렇게 하다보니 재산도 탕진 되어 버리고.}

10201 #1 게 어머니는 살 끼리 막막커니까 그 당시는 그 일본네 공장에 가서 이제 부떠서 어 돈 델토 벌고 돈 보냄도 고 이디 고향에 보내곡 영덜 허는 시테라쭈다. 그 시대가?{게 어머니는 살 길이 막막하니까 그 당시는 그 일본에 공장에 가서 이제 붙어서 어 돈들도 벌고 돈 보냄도 고 여기 고향에 보내고 이렇게들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가.}

10201 #1 게서 어머니가 에기 두를 데령 가면 그 겨념 머 흘 쭈가 업찌 아널꺼우파? 케나네 세 설짜린 나를 할머니에게 위타케서 마쭈. 우리 할머니에게.{그래서 어머니가 아기 둘을 데리고 가면 그 돌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세 살 짜리 나를 할머니에게 위탁했어요. 우리 할머니에게.}

10201 #1 케난 할머니가 나를 키와 줘쭈니다. 할머니가.{그러니까 할머니가 나를 키워줬습니다. 할머니가.}

10201 #1 게서 에 어린 시저른 할마니 푸메서 이제 에 성장을 허고 영.{그래서 에 어린 시절은 할머니 품에서 이제 성장을 하고 이렇게.}

10201 #1 이제 혼 일고으담 썰 돼가니까 하교를 그때는 좀 느정 느정 부뚱니다 게.{이제 한 일곱 여덟 살 되어가니까 학교를 그때는 좀 늦어서 늦어서 붙습니다.}

10201 #1 이제 서당 서당엘 보내젠 헤네 서당엘 부찌쭈는데.{이제 서당 서당에를 보내려고 해서 서당에를 붙여쭈는데.}

10201 #1 아 서당에는 우리 그 우리 넉하르버지가 이제 스장지를 해십쭈.{아 서당에는 우리 그 우리 넉할아버지가 이제 사장을 했지요.}

10201 #1 풍원 풍원 하르방인데 스장을 헐는데.{풍원 풍원 할아버지인데 사장을 했는데.}

10201 #1 어디 간 허느냐면 너벅술 너벅쭈리엔 헌 디가 일쭈다. 저 홍리 목장인데 집 서너 가오 사는데 그딜 가서 사올마네 그냥 일본 순사드리 어떠케야 아는 지 들려드런 그냥.{어디 가서 했냐면 너벅술 너벅술이라고 한 데가 있습니다. 저 홍리 목장인데 집 서너 가오 사는데 거기를 가서 사올만에 그냥 일본 순경들이 어떻게야 하는 지 달려들어서 그냥.}

10201 #1 아 그 스머가젠 허고 양. 더러 게 스장은 시머가고 우리드른 그걸 보면서 혼비백산해서 도망치곡 헤네.{아 잡아가려고 하고 예 더러 게 사장은 잡아가고 우리들은 것을 보면서 혼비백산해서 도망치고 해서.}

10201 #1 케네 그 후젠 이제 그 서당공부도 모터고.{그래서 그 후에는 그 서당공부도 못하고.}

10201 #1 인따가 아홉 썰 연나렌 그 취항열령이나 이런 걸떨 아녕 기냥 나이 머거도.{있다가 아홉 살 옛날에는 그 취학 열령이나 이런 것들 안해서 그냥 나이 먹어도.}

10201 #1 열 썰 너멍 에 그 당신 국민학교엔 해십쭈. 국민학교 드러간 아 소학교 소학교에 드러간 사름도 인꼬 또 열 썰 쯤메 드러간 사름도 인꼬 이리케 열령차가 심해쭈다. 헌디.{열 살 넘어서 에 그 당시는 국민학교엔 했지요. 국민학교 아 소학교 소학교에 들어간 사름도 있고 도 열살 쯤에 들어 들어간 사름도 있고 이렇게 열령차가 심했습니다. 그런데.}

10201 #1 쯤 난 그때 우리 그 고모부가 그 춤 우리 므으레 그 유지 어르니라서 그 어르니 어떻게

여네 그 나를 우리 할머니가 요 부찌주렌 허난 부찌 겁주마는.{그래서 나는 그때 우리 그 고모부가 그 참 우리 마을에 그 유지 어른이라서 그 어른이 어떻게 해서 그 나를 우리 할머니가 요 붙여달라고 하니까 붙여준 거겠지만.}

10201 #1 게네 서귀 그 서귀포 에 소하꾼가 국민학교에 이제 부쳐줍디다.{그래서 서귀 그 서귀포 에 소학교인가 국민학교에 이제 붙여줍디다.}

10201 #1 부찌쥬 헌디 그때 흐꼬 드러가기가 쟁장히 그 어려워쥬다.{붙여주어서 했는데 그때 학교 들어가기가 쟁장히 어려웠습니다.}

10201 #1 에 어려워는데 그런 어떤 머스로 해서 날 부찌쥬. 겐 서귀 서귀학 그 초등학교를 요즘 말하는 서귀초등학교를 에 용년 간 땡겨쥬쥬.{에 어려웠는데 그런 어떤 뿔으로 해서 날 붙여쥬쥬. 그래서 서귀 서귀학 그 초등학교를 요즘 말하는 서귀초등학교를 에 육년 간 다녔지요.}

10201 #1 용년 간 땡겨는데 참 그 일제시대는 어려웁쥬다.{육년 간 다녔는데 참 일제강점기에는 어려웠어요.}

10201 #1 요 오류 게니까 스항년 땡가 그 일차대저니 생기고.{요 오류 그러니까 사학년 때인가 그 일차대전이 생기고.}

10201 #1 게서 그 유강년 조립될 때가 에 그 파월 따레 일보니 폐전 뉘서 우리가 해방뉘는데.{그래서 그 육학년 졸업할 때가 에 그 팔월 달에 일본이 패전 되어서 우리가 해방뉘는데.}

10201 #1 에 사뉘따레 그 해 사뉘 따레 조려블 쉰는데 스항년부터 유강년7진 학교 가면 이진 순 어린 꼬마드를 완전히 그 노동 강요라 마씨.{에 삼월 달에 그 해 삼월 달에 졸업을 했는데 사학년부터 육학년까지는 학교에 가면 이것은 순 어린 꼬마들을 완전히 그 노동 강요입니다.}

10201 #1 머 퇴비 증사니엔 허영으네 퇴비 흐 사름 안테 머 열다선 골체.{뉘 퇴비 증산이라고 해서 퇴비 한 사람한테 뉘 열다섯 삼태기.}

10201 #1 스각 슬각 해오라.{송진 송진 해와라.}

10201 #1 무슨 멀리쥬 해 오라.{무슨 머루쥬 해 와라.}

10201 #1 또 이 뉘낭 꺾뉘기 해 오라.{또 이 뉘나무 꺾질 해 와라.}

10201 #1 머 테여게 그 테역씨 잔디씨 테역씨를 뉘 해오라.{뉘 잔디에 그 잔디씨 잔디씨 잔디씨를 모두 해와라.}

10201 #1 이러케 해서 공부는 시키지 안코 그자 노동 강요라 마씨.{이렇게 해서 공부는 시키지 않고 그저 노동 강요입니다.}

10201 #1 이러케 해서 그 기가 메킨 흐면서 게서 조려블 사뉘 따레 허고 파월 딸 뉘난 해방이 뉘뉘다 게.{이렇게 해서 그 기가 막힌 하면서 그래서 졸업은 삼월 달에 하고 팔월 달 되니까 해방이 뉘뉘습니다.}

10201 #1 게난 뉘 그뉘 중학교도 인는 걸또 아니고 예.{그러니까 뉘 그때는 중학교도 있는 것도 아니고 예.}

10201 #1 머 어디 가 또 지비 가난해서 어디 그때도 이 제주도내에는 농업학교가 제주 그때 성네 에 성네 해쥬다. 성네에 그 농업학교가 이쉰는데 거 아무나 그딘 갈 쥬가 어서쥬쥬.{뉘 어디 가 또 집 이 가난해서 어디 그때도 이 제주도내에는 농업학교가 제주 그때 성 안에 성 안에 했습니다. 성 안에 그 농업학교가 있었는데 그거 아무나 거기는 갈 수가 없었지요.}

10201 #1 게서 나는 그자 뉘 방버비 어스니까 지베 인는데.{그래서 나는 그저 뉘 방법이 없으니까 집에 있는데.}

10201 #1 창꼬 창고중학 속칭 창고중학헌 현 거서 에 그 후에 이제 해방뉘고 한참 후에 쉰겨납뉘다.{창고 창고중학 속칭 창고중학이라고 한 것이 에 그 후에 이제 해방뉘고 한참 후에 쉰겨났지요.}

10201 #1 케난 건 이 그 당시에 그 일본 가서 공부하고 이러케 그 춤 절문 청년덜 게도 으 그 사 름덜 까네는 나 생각해 보며는.{그러니까 그것은 이 그 당시에 그 일본 가서 공부하고 이렇게 그 참 젊은 청년들 그래도 아 그 사람들 땀에는 나 생각해보면.}

10201 #1 에 어떤 거 후배드를 그 육성 양성시키자는 그런 목저카에 그 뽀쌌람더리 모아져서 이 멘드는 데 창꼬허던 자리에 창 흐꼬 자린 어스니까 창꼬허던 자리를 테케서 후 그 중학생 모지블 해서 거기서 흐꼬를 허니까 우리드른 보통 부르믄 창꼬중학 창꼬중학 헤싹쥬.{에 어떤 거 후배들을 그 육성 양성시키자는 그런 목적하에 그 몇 사람들이 모아져서 이 만드는데 창꼬허던 자리에 창 학교 자 리는 없으니까 창꼬허던 자리를 택해서 학 그 중학생 모집을 해서 거기서 학교를 하니까 우리들은 보 통 부름을 창꼬중학 창꼬중학 했지요.}

10201 #1 겐디 그 하꼬가 거의가 사회주의자덜로 구성된 그런 그 당시 시대가 그런 여기 ㄱ트면 김태봉 며 이 고중흥 이창홍 이런 분드리 주를 이루는 교사더리라 마썸 양.{그러는데 그 학교가 거의가 사회주의자들로 구성된 그런 그 당시 시대가 그런 여기 같으면 김태봉 뭐 이 고중흥 이창홍 이런 분 들이 주를 이루는 교사들입니다.}

10201 #1 아 경헨 텅겨가니까 어떤 뽀 윈 조아베지 아넵떠다. 그때만 허더레도.{아 그렇게 해서 다녀가니까 어떤 때는 윈 좋아보이지 았았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10201 #1 아 게서 흐다가 나는 또 그 후에 어떻게 헨나 허며는 호열짜가 생깁디다 게. 호열짜 생 견 막 커는 헤란 게.{그래서 하다가 나는 또 그 후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호열자가 생겼습니다. 호열 자 생겨서 막 하는 해였는데.}

10201 #1 우리 누이가 일본서 겨론하고 해방웨니까 이디 와서 에 씨가는 예초닌 디 예춘 간 살다 가 우린 매부는 일본서 채 미차 오지 모터고.{우리 누이가 일본서 결혼하고 해방되니까 여기 와서 에 시가는 상하예리인데 상하예리 가서 살다가 우리 매부는 일본에서 채 미치 오지 못하고.}

10201 #1 흐니까니 일보늘 이제 가궤따 헤네 누이가 가궤따고 허니까 나도 일본도 춤 일보는 생 소헙쥬게. 어린 때 와부니까. 게서.{하니까니 일본을 이제 가궤따 해서 누이가 가궤따고 허니까 나도 일본도 참 일본은 생소합지요. 어린 때 봐 버리니까. 그래서.}

10201 #1 에 누이 따라 가고 시픈 심정으로 헨 ㄱ치 조치니까니 케연 일본 가네 한 일년 살안쥬 다.{에 누이 따라 가고 싶은 심정으로 해서 같이 쫓아가니까 그래서 일본 가서 한 일년 살았습니다.}

10201 #1 일년 간 사란. 아 일본 가니까니.{일년 간 살았어요. 아 일본 가니까.}

10201 #1 어머니영 며 그디 식싸 모든 건 춤 이디 광 뭐 얼마나 우리 여기선 보리밥 먹기도 어려 운데 일본 가니까 춤 백바네 반찬 즐렁 어머니가 헤 주시고 생활 춤 풍족허긴 헙쥬마는.{어머니하고 뭐 거기 식사 모든 건 참 여기와는 뭐 얼마나 우리 여기서는 보리밥 먹기도 어려운데 일본 가니까 참 백만에 반찬 차려서 어머니가 헤 주시고 생활 참 풍족하긴 하지만.}

10201 #1 아 나는 어린 그게 어린 ㄱ으미고 지금 그 어떤 생각허민 춤 가스미 며헤지는 데 할머 니 생각만 나지는 거라 마썸. 고양이.{아 나는 어린 그것이 어린 마음이고 지금 그 어떤 생각하면 참 가슴이 뽀헤지는데 할머니 생각만 나지는 겁니다. 고양이.}

10201 #1 할머니 생각만 나져서 아이 나 고양이 가쿠다. 가쿠다. 헤네.{할머니 생각만 나서 아이 나 고양이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해서.}

10201 #1 할망만 나 여성 손지 그리멍 사는 생각 허니 나 아메도 가쿠다. 가쿠다. 헤네 어멍이 경 말리는 걸 뿌리치고.{할머니만 나 없어서 손주 그리면서 사는 생각하니 나 아무래도 가겠습니다. 가겠 습니다. 해서 어머니가 말리는 것을 뿌리치고.}

10201 #1 야 그뽀 그 저 밀랑으로만 텅길 떼우다. 에.{야 그때는 그 저 밀랑으로만 다닐 뽀니다. 에.}

10201 #1 밀랑 오는 배가 일찌가지고 완.{밀항 오는 배가 있어가지고 와서.}

10201 #1 갹 오당 보니간 중하교가 증가네 그른뉼지 안헐쑤가? 텡기던 데가 완 보니 그 하교가 따시 또 병하비 뉼벼서. 중학 서귀중하교로.{그렇게 오다 보니까는 중학교가 중간에 잘못되지 안헐습니까? 다니던 데가 와서 보니 그 학교가 다시 또 병합이 되어버렸어. 중학 서귀중학교로.}

10201 #1 병하비 뉼변 나 처지에 또 그 텡길 쏜 언꼬.{병합이 되어 네 처지에 또 그 다닐 수는 없고.}

10201 #1 게서 이젠 망무가네로 흐교도 문 텡기고.{그래서 이제는 막무가내로 학교도 못 다니고.}

10201 #1 게서 으 그 청년 절믄 청소년 시저른 그러케 허는데 마침 해방이 뉼고 이러케 허니까니 막 글덜 배우지 못터언 한글덜 배우지 못터언 막덜 험디다게.{그래서 으 청년 젊은 청소년 시절은 그렇게 하는데 마침 해방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막들 배우지 못해서 한글들 배우지 못해서 막들 합니다.}

10201 #1 켜 난 그 한그를 쏼 쏼 터득커여서.{그래서 난 그 한글을 쏼 쏼 조금 터득해서.}

10201 #1 에 해방이 뉼과 동시에 중학생도 가가겨겨 국민학생도 가가겨걸 배웁쑤다. 그때 가가겨겨로 시작헐쑤게.{에 해방이 됄 동시에 중학생도 가가겨겨 국민학생도 가가겨겨를 배웠습다. 그때 가가겨겨로 시작헐습다.}

10201 #1 켜디 하 어른덜토 그를 문 배완 막 허니까{그런데 하 어른들도 글을 못 배워서 막 하니까.}

10201 #1 이젠 난 그때도 이 동네 산 떼우다. 요 서녁 퍼니 요 받 하나 거리엔 너먼 저기 사란디 동네 처너덜 하도 부타커니까 동네 처녀 아가씨덜 모아네 혼 대여숄 모여네 한글 그르치는 노르슬 해취쑤쑤.{이젠 나는 그때도 이 동네 산 뉼니다. 요 서쪽에 요 받 하나 거리에 넘어서 저기 살았는데 동네 처너들 하도 부타하니까 동네 처녀 아가씨들 모여서 한 대여섯 모여서 한글 가르치는 노릇을 해주었지요.}

10201 #1 아 경영저녕 흐단보니까니 거 그리치던 여자 아이히고 어뉼허언 누니 마자서.{아 그렇게 저렇게 하다보니까 거 가르치던 여자 아이히고 어뉼게 눈이 맞아서.}

10201 #1 또 여내 심정으로 도라가서 (웃음) 아아 이런 쓸데업는 마른 허지 마라야 뉼 거 아나 에. 뉼쑤요?{또 연애 심정으로 돌아가서 웃음 아아 이런 쓸데업는 말은 하지 말아야 뉼 것인데 에. 뉼 어요?}

10201 #1 게서 허니 에 어머니안티 나가 퍼지를 아 할머니는 나이가 팔쑤비 이뤄가고.{그래서 하니 에 어머니한테 내가 편지를 아 할머니는 나이가 팔쑤이 이뤄가고.}

10201 #1 어뉼 나가 아 장계를 가서 에 가정을 건설헤야 뉼텐데.{어뉼게 내가 아 장가를 가서 에 가정을 건설헤야 뉼텐데.}

10201 #1 지븐 다 아버지네 다 쓰러져 불고 나가 하나로 이젠 우리 지블 건설허지 아너믄 안뉼게 뉼 켜 나 기가 메킵다. 어린.{집은 다 아버지네 다 쓰러져버리고 내가 하나로 이제는 우리 집을 건설하지 안하면 안뉼게 뉼 건디 나 기가 막힙다. 어린.}

10201 #1 궁민하교 삼항년부터 제사 녁기는 법 출렁 그디 뉼 올리는 법 다 미를 아란쑤니다.{국민학교 삼항년부터 제사 지내는 법 차려서 거기 뉼 올리는 법 다 미리 알았습다.}

10201 #1 그거 나 누가 헐 쑤르미 언기 때무네.{그거 나 누가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10201 #1 게난 나가 직쑤 지반 어른더리 왕 걸 그르쳐주고 영 허니까니 그걸 터드컨쑤쑤.{그러니까 내가 직쑤 집안 어른들이 와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니까니 그것을 터드한 것이지요.}

10201 #1 게서 현디 나 이제 빨리 장계 가서 지반 건설헤야 뉼게따 쑤가기.{그래서 한테 내가 이제 빨리 장가 가서 집안 건설헤야 되겠다는 생각이.}

10201 #1 그 어린 가스메 납니까마는 나가 너무나 웨롭꼬 그 지반이 그러케 쓰러져서.{그 어린 가슴에 납니까만 내가 너무나 외롭고 그 지반이 그렇게 쓰러져서.}

10201 #1 그러케 허니까 냥 그런데서 어디지는 그 그런 생각이 드려 납디다게. 난 게메 예.{그렇게 하니까 예 그런데서 얻어지는 그 그런 생각이 막 나더군요. 나서 그러니까 예.}

10201 #1 어머니안티 거진말헨 편지를 네십쥬. 편지를 네나네.{어머니한테 거짓말해서 편지를 냈지요. 편지를 내서.}

10201 #1 더뻑 장 아덜 장계간 덴 허난 더뻑 달려와십디다.{단박에 장 아들 장가간다고 하니까 단박에 달려왔었습니다.}

10201 #1 완 보니 거진마리라.{와서 보니 거짓말이라.}

10201 #1 테길도 아년 걸 테길 헨젠.{택일도 아니 한 것을 택일 했다고.}

10201 #1 아 나 이만저만 예 허켄 허난.{아 나 이만저만 해 하겠다고 하니까}

10201 #1 아 그 춤 이 연나레 이 스주팔짜엔 현 거 책보는 거시 먼싼디 예.{아 그 참 이 옛날에 이 사주팔자라고 한 거 책보는 것이 무엇이기에.}

10201 #1 우리 할머니가 게네 그 여자 그 생년위리를 말해주니까 나가 아따네 그걸 헨 허난 우리 또 넉하르바님이 지관허곡 책보는 어르이라마씨.{우리 할머니가 그러니까 그 여자 그 생년월일을 말해주니까 내가 가져다가 그것을 해서 하니까 우리 또 넉할아버님이 지관하고 책보는 어른입니다.}

10201 #1 아 봐네 흙치 안 뤄켄.{아 봐서 아예 안 되겠다.}

10201 #1 원 나보다 나이가 허나 우웁쥬.{원 나보다 나이가 하나 위쥬.}

10201 #1 어 그딘 뱀헤치고 난 뭉헤친디 냥.{어 거기는 뱀띠이고 난 말띠인데.}

10201 #1 나가 경오생 천구백삼십년니 그 경오생 뉘는 헨데.{내가 경오생 천구백삼십년이 그 경오생 되는 해인데.}

10201 #1 허나 우원데 참 아원 나가 ㄹ리치는 중에서 제일 춤 키는 쪼그만헨짜 얼굴도 예쁘고 춤 상냥하고 이러케 므으메 폭 드는데.{하나 원데 참 아이는 내가 가르치는 중에서 가장 춤 키는 자그마해도 얼굴도 예쁘고 춤 상냥하고 이렇게 마음에 폭 드는데.}

10201 #1 아 스주가 마찌 아녀다는 거라. 게난 난 할머니허고 항상 그때 스주가 머시파?{아 사주가 맞지 않다는 거라 그러니까 난 할머니하고 항상 그때 사주가 뵈십니까?}

10201 #1 나 므으메 들민 뉘쥬 스주가 머쉬파 허명 막 우견 난 아메도.{나 마음에 들면 뵈지 사주가 뵈니까 하면서 막 우겨서 나는 아무래도.}

10201 #1 주그나 사나 그 그 인기리 인기리 현 여잔덴 오인길이다 .{죽으나 사나 그 그 인질이 인질이 하는 여자인데 오인길인데.}

10201 #1 그 여자안티 나가 장갈 묻까민 난 머머 주거부쿠다 헨 정도로 막 헤가난.{그 여자안테 내가 장가를 못가면 마 뉘뉘 죽어버리겠다 할 정도로 막 헤가니까?}

10201 #1 아 이젠 어머니 완 보난 그 모양이난 어머 또 우리 할머니 또 이제 메느릴 뉘 우리 어머니안티.{아 이제는 어머니는 와서 보난 그 모양이니까 어머 또 우리 할머니 또 이제 며느리 될 우리 어머니한테.}

10201 #1 아 이만저만헨네 경헨 헨젠 허난.{아 이만저만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10201 #1 게민 나 혼 번 보켄 헨.{그러면 나 한 번 보겠다고 해서.}

10201 #1 아이 보난 우리 어멍 우리 어멍은 이 키영 덤덤허고 춤 아주 기상이 난 이 어멍으로 비허민 우리 아버지가 쪼끌락. 즈가 나고.{아니 보니까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니는 이 키하고 덤덤하고 춤 아주 기상이 난 이 어머니로 비하면 우리 아버지가 작고. 작았었고.}

10201 #1 우리 어멍은 아주 쪼/ 범사마니 커난 어르이라쥬다게.{우리 어머니는 아주 참 범상히 컷



던 어른이었습니다.}

10201 #1 계난 어머니 다만 나가 이 이 오늘날 이 몸체격도 요 정도 뿔쭈 아버지 보민 나가 쫓 꼬마십쭈.{그러니까 어머니 닳아서 내가 이 이 오늘날 이 몸체격도 요 정도 뿔지 아버지 보면 내가 쫓 꼬마였쭈.}

10201 #1 어멍은 에에 거 쎅마게마니 현 거 쟈끌락현 거 해놔.{어머니는 에에 거 병마개만큼 한 거 자그마한 거 해 놓아서.}

10201 #1 저 흐머는 일루제 손지 헤그네 무르베 아찌민 노미 손지는 등글등글 크곡 그거 쎅마게 마니 현 거 나 그런 메누리 아녀켜 아녀켜 허멍 아 어멍마저 반대헌다 마려.{저 하면 이날 이후 손주 해서 무릎에 앉히면 남의 손주는 등글등글 크고 그거 병마개만큼 한 거 나 그런 며누리 안 하겠다 하면서 아 어머니 마저 반대헌다 말여.}

10201 #1 아니 방버비 어서 마썰.{아니 방법이 없어요.}

10201 #1 계난 이젠 스주를 다른 디 가 보켄 허헌 다른 오지관안티 간 또 베우나네.{그러니까 이 제는 사주를 다른 데 가 보겠다고 해서 다른 오지관한테 가서 또 보이니까}

10201 #1 똑 혼 디로 혼 사름 말허든 그튼거라 이젠.{꼭 한 군데로 한 사름 말하듯 말하는 거라 이젠.}

10201 #1 게 삼살지고 어떡고 그 여자허곡 결론 해멍은 지반이 망허고 너도 너도 이제 유지가 안 쁘다.{그것 삼살지고 어떡고 그 여자하고 결혼 했다가는 집안이 망하고 너도 너도 이제 유지가 안 된다.}

10201 #1 이젠 흘 쭈 업씨 춤 그게 나이가 그때 열아홉 나는 헨디 흘 스무 서리 너멍 흘 스물단 뉘시민 그런 겉또 물리칠 쭈 인는 그런 용기도 가결쭈마는 냥.{이제는 할 수 없이 참 그게 나이가 그때 열아홉 나는 해였는데 한 스무 살이 넘어서 한 스물다섯 뿔으면 그런 것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가졌지마는 예.}

10201 #1 이 어려노니까 자기 므으미 강허게 머거도 경은 못헙디다게.{이 어리니까 자기 마음이 강하게 먹어도 못헙디다.}

10201 #1 기영 어떡다 보니까 어른덜 말 드려진 거시 잘 쁘거고.{그렇게 어떡다 보니까 어른들 말 들은 것이 잘 된거고.}

10201 #1 그 여자 결과 결노늘 말허민 결론부터 말허민 그 여자허고 결혼헨따민 난 오늘 이 이승 에 사라 인썰 싸라미 아니다. 아니엔 헤십쭈.{그 여자 결과 결론을 말하면 결론부터 말하면 그 여자하고 결혼했다면 난 오늘 이 이승에 살아 있을 사람이 아니다. 아니라고 했지요.}

10201 #1 에 시구그로 비취서 냥.{에 시국에 비취서 예.}

10201 #1 겐디 게네 이젠 해 가는 게 그 여자 애삭허지 마는 이젠 물리쳐네 허난 쯔.{그러나 그리 니 이제는 해 가는 것이 그 여자 애삭하지만 이제는 물리쳐서 하니까 쯔.}

10201 #1 그때도 냥. 그러케 여내 감정 가정 그러케 흘 삼년 썩르는 여내를 해도 예.{그때도 예. 그렇게 연애 감정 가져서 한 삼년 썩는 연애를 해도 예.}

10201 #1 슬 흘 번 대질 아년쭈다. 우린 연나렌 그런 거시 인쭈다.{살 한 번 대질 앓았습니다. 우리는 옛날엔 그런 것이 있습니다.}

10201 #1 그저 순수헌 요센 아이더른 여네 헤가민 벌써 몸부터 데곡 뉘 그런 헨디 우린 여넬해도.{그저 순수한 요새 아이들은 연애 헤가면 벌써 몸부터 데곡 뉘 그런 헨디 우리는 연애를 해도.}

10201 #1 참 손 흘 번 못 자바 받 므으광 므으므로만 여네헤십쭈.{참 손 한 번 못 잡아 받 마음과 마음으로만 연애를 했지요.}

## 2. 결혼하기까지의 과정

10203 #1 게네 이젠 우리 이모가 대포에 사는 디 이 사람말 험쭈 장개든 말.{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이모가 대포에 사는 데 이 사람말 하지요 장개든 말.}

10203 #1 이모가 저 대포에 갈판 와네 아 이젠 우리 어머니안턴 흐르 시난 그 동생되는 우리 이모가 우리 어머니 동생 되는 우리 이모가 완 언니안티 소곤소곤 ㄹ라.{이모가 저 대포에 갔다가 와서 아 이제는 우리 어머니한테 하루 있으니까 그 동생 되는 우리 이모가 우리 어머니 동생 되는 우리 이모가 와서 언니한테 소곤소곤 말해.}

10203 #1 무신 거엔 ㄹ는 거. 하 동네에 뭐 대포에 뭐 조은 규수가 일따 새각씨가 인는다 그디 구행으네 나 ㄹ르민 웹니텐 허연.{무슨 것이라고 말하는 거. 하 동네에 뭐 대포에 뭐 좋은 규수가 있다 새색시가 있는데 거기 구해서 나 말하면 된다고 해서.}

10203 #1 ㄹ란게 된나른 우리 어명이 나산 글렌.{말하여서 뒷날은 우리 어머니가 나서서 가자고.}

10203 #1 가그네 그땐 새각씨 강 보는 걸 친심 친심엔 험니다. 친심 강 친심 봐살 거 아니넨. 친심.{가서 그때는 새색시 가서 보는 것을 친심 친심이라고 합니다. 친심 가서 친심 봐알 거 아니냐고. 친심.}

10203 #1 아 이젠 어디 춤 어디 명령이우짜? 저 어명이 일본서 왕 그 아덜 흐라뵙 가켄 허는 데. {아 이제는 어디 춤 어디 명령입니까? 저 어머니가 저 일본에서 와서 그 아들 장가보내고 가겠다고 하는데.}

10203 #1 따라야 뵙 거 아니우짜? 게 대포에 연나렌 차도 언꼬 거렁만 뵙겨십쭈.{따라야 뵙 거 아넵니까? 대포에 옛날엔 차도 없고 걸어서만 다녔지요.}

10203 #1 거리네 이젠 대포 저 동조게 동쪽 동넵쭈. 동뵙네 삽쭈.{걸어서 이제는 대포 저 동쪽에 동쪽 동네지요. 동뵙네 살지요.}

10203 #1 아 어명이 먼저 가 어명이 먼저 가그네. 영허영 쭈 아 어명이 먼저 간 거지 아니고 흐 하루 먼저 간 완.{아 어머니가 먼저 가 어머니가 먼저 가서 이렇게해서 쭈 아 어머니가 먼저 간 것이 아니고 하 하루 먼저 갔다 와서.}

10203 #1 먼저 간 완 이 사르를 받 온거라 마씨.{먼저 갔다 와서 이 사람을 봐서 온 겁니다.}

10203 #1 갈 뵙 어명허연 그 근는 걸 드르나네.{갈 때는 어떻게 해서 그 말하는 것을 들으니까}

10203 #1 우리 어명도 꿬를 네연 간 나 이디 뵙총이나 풀 거 이쭈과 허명 근꼬렌. 뵙.{우리 어머니도 꿬를 내서 가서 나 여기 뵙총이나 팔 거 있습니까 하면서 말했다고. 말.}

10203 #1 뵙 여자가 무신 뵙 ㄹ를 경헤넨 험시난 이제 베주레기 나오란 봐네 이젠 흐고렌 허명 완.{말 여자가 무슨 말 말을 경해서 하고 있으니까 이제 비쭈 나와서 봐서 이제는 했다고 하면서 와서.}

10203 #1 께 조타. 께 조타. 허명 된나른 날 이젠 ㄹ랑 간겍쭈.{꽤 좋다. 꽤 좋다. 하면서 뒷날은 날 이제는 데려서 간 거지요.}

10203 #1 가난 이젠 드러가네 드러가는 디 어떤 아 쭈 뵙 도리 몽탕 허민 뵙 도리 몽탕은 아니주 마는 기자.{가니까 이제는 들어가서 들어가는 데 어떤 아 조금 뵙 작고 통통한 뵙 작고 통통한 것은 아니지만 그저.}

10203 #1 윈 여자가 영허영 올레레 저레 나가 올레가 김니다게. 긴디.{윈 여자가 이렇게 골목 쪽으로 저레 나가 골목이 길어요. 긴데.}

10203 #1 아 나 생각 절로 오명 요 여잔가 윈. 요 여자 ㄹ뜨민 쵸차녀다 마는.{아 내 생각 저리로 오면서 요 여자인가 윈. 요 여자 같으면 쵸찮다마는.}

10203 #1 나 생가계(웃음) 가나네 이젠 안티레 아 우리 장모뎀 어르니 저 구들러레 강 아지라 아 지라 허명 허난 그디 간 아잔 시나네.{내 생각에 웃음 가니까 이제는 안으로 아 우리 장모뎀 어른이 저 방으로 가서 앉아라 앉아라 하면서 하나까 거기 가서 앉아 있으니까.}

10203 #1 정심쌍을 출런 온건 보난 이 사르미라.{점심상을 차려서 온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이라.}

10203 #1 정심쌍을 들런 오는 디 얼구리 바로 흥당무라.{점심상을 들고 오는 데 얼굴이 바로 흥당 무라.}

10203 #1 (웃음) 흥당무난.{웃음 흥당무니까.}

10203 #1 그때 그 사르미 감정이 이상헌 거.{그때 그 사람의 감정이 이상한 거.}

10203 #1 ㄹ튼 사르믄 노코 저 사르미 나 사르미다 혈 때는 조금 얼굴 썸 겨카시켄 봐지는 겁디 다. 거 예.{같은 사람을 놓고 저 사람이 내 사람이다 할 때는 조금 얼굴 썸 격하시켜서 봐지는 겁디 다. 그거 예.}

10203 #1 올레레 저영 나갈 뎀 하이 곤 사르미다. 웃음. 아이 뭐 아주 조은 사르미다 영 생각켄는 데.{글목으로 저렇게 나갈 때는 하 예쁜 사람이다. 웃음. 아니 뭐 아주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 는데.}

10203 #1 상 드러올 때는 얼구리영 빠강허영 들리오난 ㄹ튼 사르믄 노코도 예구 벨로로구나 현 생각을 가져전 그때.{상 들고 올 때는 얼굴이랑 빨강게해서 들고 오니까 같은 사람을 놓고도 예그 벨 로로구나 한 생각을 가져져서 그때.}

10203 #1 경혜네 이젠 장게는 춤 켜 존테 중메 아니우파? 중메로 혜네(쯏) 결로늘 테기를 바다 네.{그렇게 해서 이제는 장가는 참 그런데 좋은데 중매 아닙니까? 중매로 해서 썸 결론을 택일을 받 아서.}

10203 #1 춤 그때가 우린 음력 사멸 열나흔 날 우리가 그 겨로늘 현 나린데.{참 그때가 우리는 음 력 삼월 열나흔 날 우리가 그 결혼을 한 날인데.}

10203 #1 이젠 ㄹ싸 그 장게갈 때 마를 혜십쭈마는 저 다른 디 장게가는 마를 혜십쭈마는.{이제 아까 그 장가갈 때 마를 했습니다마는 저 다른 데 장가가는 말을 했지마는.}

10203 #1 우리 장게 가믄 그 차로 갈쭈다. 차로 혜쭈다. 차로 허는데.{우리 장가 갈 때는 그 차로 갔습니다. 차로 했습니다. 차로 했는데.}

10203 #1 요새치룩 그 차가 아니라 저 트럭차 양.{요새처럼 그 차가 아니라 저 트럭 예.}

10203 #1 트럭 그 짐차를 두에 영 혜서 그 포장헨 만든 거.{트럭 그 짐차를 뒤에 이렇게 해서 만 든 것.}

10203 #1 게난 엔날 버스덜토 예 혜방 후에 버스덜도 그 추러글 짐차를 혜서 영허영 마가그네.{그 러니까 옛날 버스들도 예 혜방 후에 버스들도 그 트럭을 짐차를 혜서 이렇게 해서 막아서.}

10203 #1 버스로 대신 일주도로 텅기곡 혜나쭈다 게.{버스로 대신 일주도로 다니고 했습니다.}

10203 #1 얼마나 어려운 떼우까? 거?{얼마나 어려운 때입니까? 그거?}

10203 #1 게영 버스도 스삼사건 떼니까 군대에서 몬 차드리 증발뎀곡 몬 혜부난 차 빌기가 썸장 히 어려완는데.{그래서 버스도 사삼사건 떼니까 군대에서 모두 차들이 징발되고 모두 헤버리니까 차 빌리기가 썸장히 어려웠는데.}

10203 #1 그 당시에 그 나의 팔촌 형 가운데 조폼 그 공지게 인꼬 이러케혜서 어 저 썸 그런 교 서비 수월해 가지고.{그 당시에 그 나의 팔촌 형 가운데 조금 그 공직에 있고 이렇게 혜서 어 저 썸 그런 교섭이 수월해 가지고.}

10203 #1 그 황수 교육 이제 전직 그 교유까미 우리 팔촌형이우다게.{그 황수 교육 이제 전직 그 교육감이 우리 팔촌형입니다.} @2 김황수.{김황수.} #1 예예예.{예예예.}

10203 #1 그 부네 의에서 이제 비러서 게서 이제 나가 대포에 장계를 가십쭈.{그 분에 의해서 이제 빌려서 그래서 이제 내가 대포에 장가를 갔지요.}

10203 #1 장계 가네 에 오슨 뭐 연날 그 실랑덜 임는 그 /초례로 헨 그냥 구시그로 구시그로 헨 쭈다.{장가가서 에 옷은 뭐 옛날 그 신랑들 입는 그 차례로 해서 그냥 구식으로 구식으로 했습니다.}

10203 #1 이 사르른 또 쪽뚜리 쓰고 헤네 마주오고 헤네 그 구시그로 헤넨 그 혼사를 해십쭈.{이 사람은 또 쪽뚜리 쓰고 해서 마주오고 해서 그 구식으로 해서 그 혼사를 했지요.}

10203 #1 허여네 사라오는 게 그자 어떻 어떻 사는 디 마는 디 양.{해서 살아오는 것이 그저 어떻게 게어떻게 사는지 마는지 예.}

10203 #1 경허당 보니.{그렇게 하다 보니.} 웃음

10203 #1 스삼사꺼니 스월 사밀 터지지 아넵디까? 그 시대가 사름덜 심어당.{사삼사건이 사월 삼 일 터지니 았았습니까? 그 시대가 사람들 잡아다가.}

10203 #1 켌디 스삼사건 우리가 경 혈 무려베는 에 가을뜨러서 허막헨쭈 냥.{그런데 사삼사건 우리가 그렇게 할 무렵에는 에 가을들어서 험했지요.}

10203 #1 그 헤 그자 숨어강 답말허곡 심어강 족치곡 그런 사꺼는 막 처 막 발전해도.{그 헤 그저 잡아가서 담달하고 잡아가서 족치고 그런 사건은 막 처 막 발전해도.}

10203 #1 팡팡 주기거나 험 허기 시자근 가을부터 시작뵈따다게.{팡팡 죽이거나 함 하기 시작한 가을부터 시작됐습니다.}

10203 #1 케네 스사메는 뭐 우리 므으레는.{그래서 사삼에는 뭐 우리 마을에는.}

10203 #1 에 산싸름드리 내려온 사름 주긴 디도 얻꼬 헨디.{에 산사람들이 내려온 사람 죽인 곳도 았고 한테.}

10203 #1 그 이 흥리 이런 디서더른 직쩍 와넨 문 자바단 주겨분가 막 허연 주건져 머헤져 막 허 는디.{ 그 이 흥리 이런데서들은 직쩍 와서 모두 잡아다가 죽여버림이간 막 해서 죽었다 뭐했다 막 하는데.}

10203 #1 우리 므으른 에 그런 눈 아폐서 이 팡팡 주기곡 헨 거슨 우리가 몰봐십쭈. 헨디 가을 뜨 러가난 이건 뭐 아주 완전히 이건 뭐.{우리 마을은 예 그런 눈 앞에서 이 팡팡 죽이고 한 것은 우리가 못 봤지요. 그런데 가을 들어가니까 이것은 뭐 아주 완전히 이것은 뭐.}

10203 #1 아주 전쟁터나 다름업는 그런 비그글 뵈해서 마썸.{아주 전쟁터나 다름업는 그런 비극을 뵈했지요.}

10203 #1 그런 와중에 우리가 어떻 어떻 성따를 다코 뵈 허멍 사라왈쭈다.{그런 와중에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성담을 두르고 뵈 하면서 살아왔습디다.}

10203 #1 궂젠. 흐니 어십쭈게.{말하러니. 한이 없지요.}

10203 @1 겨론헌 다으메 예기드른 메슬 두고 예 그 예기는 어떠케 키운 거 그걸 쪼꼬만 쭈 마라 줍써 예?{결혼한 다음에 아기들은 밋을 수고 예 그 아기는 어떻게 키운 것을 그것을 조금만 쭈 말해 주십시오?}

10203 @1 겨론헌 다으메.{결혼한 다음에.} #1 거랑 지가 마라부러?{그것은 자기가 말해버려?}

10203 #2 나 문 문 마릅디다. 하르방이 마릅써?{나 모두 못 말합니다. 할아버지가 말하세요.}

10202 @1 예청 삼추니 이제 그를꺼민 냥. 쪼꼼만 예. 어디서 나고 어디서 커서 겨로할 저 겨로할 때 까지만 예.{여자 삼촌이 이제 말할 것이라면 예. 잠깐만요. 어디서 나고 어디서 커서 결혼할 저 결혼할 때 까지만 예.}

10202 @1 잠시 마라줍써?{잠시 말씀해주십시오?}

10202 @1 어디 출신이고 어디서 쭈 커신지 예?{어디 출신이고 어디서 쭈 컸는지 예?}

10202 #2 원 ㄱ픈 이젠 거세기난 ㄱ자 사라 살긴 살아겘쑤다.{원 같은 이제 거시기니까 여태 살아 살기는 살았습니다.}

10202 #2 태어나기는 그 걸까라 어디 창 창꼬네엔 허는가?{태어나기는 그것보고 어디 창 창고내 라고 하는가?} @2 창꼬네.{창고내.} #1 창꼬네.{창고내.} #2 예.{예.} @2 창천?{창천?}

10202 #2 아 창천이 아니고.{아 창천이 아니고.} @1 큰개.{대포.} #2 아니 말짜이.{아니 나중에.}

10202 @1 태어나기는 창고내에서 태어난?{태어나기는 창고내에서 태어났어요?} #2 예.{예.}

10202 #2 창고내서 태어 그디서 나고 이제 어어 어머니가 아버지 어스나네 대폴 대포 오란 사라 부난.{창고내서 태어 거기서 나고 이제 어머 어머니가 아버지 없으니까 대포리 대로 와서 살아버리니까}

10202 #2 어머니 딱란 오라가는 게 차 차 창고내서 살다가.{어머니 따라 와가는 것이 차 차 창고내서 살다가.}

10202 #2 아 예닐곱 나 나는 해엔 어머니 딱란 대포 오란 살안.{아 예닐곱 나 나는 해에는 어머니 따라 대포 와서 살았어.}

10202 #2 사 사 대포 오란 살다가 열나홑 열나홑 쫄 나는 해엔 호그니 호그니 씨쩍산디 무신거 산디 {아아 웃음} 오란쑤다 오란쑤다.{사 사 대포 아서 살다가 열나홑 살 나는 해에는 호근리 호근리 시집인지 무슨 것인지. 웃음. 왔습니다. 왔습니다.}

10202 @1 삼촌 태어난 해 하고 띠 한 번만 ㄱ라쑤쑤?{삼촌 태어난 해 하고 띠 한 번만 말해주십시오?}

10202 #2 나 띠 저 혼디 그 난 날짜?{나 띠 저 함께 그 난 날짜?}

10202 #2 난 날젠 임러그론 ㄱ르민 과쑤 열을쑤 날 나고 따시.{난 날짜는 음력으로 말하면 팔월 열엿새 날 #1 삼십 년 물띠주.{삼십 년 말띠지.}

10202 #2 따시 저 동가비난 띠는 물띠고.{다시 저 동갑이니까 띠는 말띠고.}

10202 @1 겨론한 님메 예기드른 어떠케 나고.{결혼한 다음에 아기들은 어떻게 나고.} #2 네. 예긴.{예. 아기는.}

10202 #2 이제 곧 쑤무레 나코 딸 따 그 님드론 그 다섯 쫄 모지나네.{이제 곧 스물에 나고 딸 다 그 다음은 그 다섯 살 터울이니까}

10202 #2 예 큰 딸광 아덜 세엔 다섯 쫄 모지지.{예 큰 딸과 아들 사이에는 다섯 살 차이지.}

10202 #1 네 설 머지 아니라 무사.{네 살 차이 아니라 왜.} #2 아 네 설 모지로구나 .{아 네 살 차이로구나.}

10202 #2 나 구닌 간 완 그거 난 거난.{난 군인간 와서 그거 난 것이니까.} #2 게메.{그러게.}

10202 #2 그거 다섯 다섯 쫄 쑤 쑤 때 나나네 거 네 설 머지로구나. 네 설머지. 따시 그 그루후젠 따시.{그거 다섯 다섯 살 된 때 나니까 그거 네 살 차이로구나. 네 살 차이. 다시 그 후에 다시.} #1 또 아덜.{또 아들.}

10202 #2 또 또 아덜 건 또 아덜 경헨 둘 나코 건 난 날 ㄱ라.{또 또 아들 그것은 또 아들 그렇게 둘 나고 그것은 난 날짜 말해.}

10202 @2 아니우다.{아닙니다.} @1 조쑤다.{좋습니다.} #2 님드론 님드론 따시 딸 딸 따시 나코.{다음에는 다음엔 다시 딸 딸 다시 낳고.}

10202 #2 그 다음 그 님메 또 아덜 그 님드론 딸.{그 다음 그 다음에는 또 아들 그 다음엔 딸.} #1 으술 오누이 으술 오누이.{여섯 오누이 여섯 오누이.}

10202 @1 게민 아들 쑤.{그러면 아들 셋.} #2 쑤 딸 쑤.{셋 딸 셋.}

10204 @1 그러면 그 겨론허쑤쑤 때 겨론 예무론 뭘 준비를 해신가마쑤? 기억나시쿠가?{그러면

그 결혼하셨을 때 결혼 예물은 무엇을 준비를 했는가요? 기억나시겠습니까? #2 아아 그때 그때는 그런 거세기가 훗날 아녕 그냥.{아아 그때 그때는 그런 거세기가 하지를 알아서 그냥.}

10204 @2 이부른 해와실 거 아니우파?{이불은 해왔을 것 아납니까?}

10204 @1 기본저그로 해 온게 어떤 거시 이신고 그라줍써 예.{기본적으로 해 온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해주십시오.}

10204 #2 이 이불 원 이불 혼 가지허곡 원 이불 혼 가지요. 그때는.{이 이불 원 이불 한 가지 하고 원 이불 한 가지요. 그때는.} @2 췌.{췌.}

10204 #2 예 췌 하나 허고 이불 하나.{췌 하나 하고 이불 하나.} #1 이불 두 채.{이불 두 채.}

10204 #2 이불 두 채 허고.{이불 두 채 하고.}

10204 @2 그 다음에 요강도 해와실 꺼 아니우파?{그 다음에 요강도 해왔을 거 아납니까?}

10204 #1 또 췌빔 논는.{또 참빔 논는.} @2 경대.{경대.}

10204 #1 경대 얻꼬.{경대는 없고.}

10204 #2 저 그 시덴 경덴 어선 그자 췌췌락헌 거.{저 그 시대는 경대는 없어서 그자 자그마한 거.}

10204 @1 그건 췌빔 논는 거 영.{그것은 참빔 논는 거 이렇게.}

10204 @1 예 췌빔 논는 거 .{예 참빔 논는 거.}

10204 @2 게든 예 이불.{그러면요 이불.} #1 이불.{이불.}

10204 @1 이불 두 채.{이불 두 채.}

10204 #2 이불 두 채.{이불 두 채.} #1 두 채.{두 채.} @2 두 채.{두 채.}

10204 @2 췌 하나.{췌 하나.}

10204 #2 예.{예.} #1 췌 하나 췌빔 논는 거 하나.{췌 하나 참빔 논는 거 하나.}

10204 #2 원 그 때엔 원.{원 그때에는 원.} #1 요강 안 온 처렌가?{요강 안 왔는가.}

10204 #2 요 요 요강 게메 요강 하나.{요요 요강 그러게 요강 하나.} #1 요강 하나.{요강 하나.}

10204 #1 요강은.{요강은.} @2 예.{예.}

10204 #2 원 그때는 그거 너머 원 헐게 어스나네.{원 그때는 그거 넘어 원 할 것이 없으니까.}

10204 #1 그거 췌췌 사리 허는 사름덜토 그때는 그런게 다른 거 얻꼬.{그거 췌췌 살이하는 사름들도 그때는 그런 거 다른 거 없고.} @1 그러치 예.{그렇지요.}

### 3. 전통적 결혼식

10205 @1 그때 겨론식 하셌을 때 겨론식 날 이븐 온 머리에 쓰고 헌 거 그거 저 여자.{그때 결혼식 하셌을 때 결혼식 날 입은 옷 머리에 쓰고 한 거 그거 저 여자.} #2 아.{아.} @1 기억나신 거 그라줍써?{기억나는 것 말씀해주십시오?}

10205 #2 족또리.{족두리.}

10205 @1 @2 예.{예.} #2 족또리 쓰곡 따이 오슨 멩지치메 저고리.{족두리 쓰고 다시 옷은 멩주치마 저고리.}

10205 @1 따시 그 받 바지 허곡 우의 장운.{다시 그 바 바지하고 위에 장옷.} @2 예.{예.} #2 우의 장운 으(기침) 췌고베 하나 입꼬 따이 우의 영 머리에 따시 우의 췌고 허는 장운 둘 장운시주 거 거꼬라 장오시엔 허난 양.{위에 장옷 으 속에 하나 입고 다시 위에 이렇게 머리에 다시 위에 췌고 하는 장옷 둘 장옷이지 그것보고 장옷이라고 하니까 예.}

10205 @1 경험 해십데까? 겨론 예.{그렇게 해서 했습니까? 결혼 예.}

10205 #2 예.{예.}

10206 @1 그때 겨론식 험 때 지반에서 출린 음시근 어떤 거시 이서신고 마씨?(그때 결혼식 할 때 집안에서 차린 음식은 어떤 것이 있었는가요?)

10206 @1 지비서 츠.{집에서 차.} @1 우선 저 저쪽게 시지비서 저쪽 지비서.{우선 저 저쪽에 시 집에서 저쪽 집에서.} #2 예.{예.}

10206 #2 저쪽 지비선 그자 도새기 도새기 잡안 도래기 허곡 그자 그.{저쪽 집에선 그저 돼지 돼지 잡아서 돼지 하고 그저 그.}

10206 #2 둠 이제 마트민 둠비 그뎨 둠비엔 허는디 둠비엔 현 거 헤그네.{두 이제 같으면 두부 그때는 두부엔 하는데 두부라고 한 거 해서.}

10206 #2 구게 드리치곡 따시 그 쟈씨에 늠 늠뻘체 늠뻘체 해서 우의 따이 전지저서 으러케 더끄 곡.{곡에 넣고 다시 그 쟈씨에 무 무채 무채 해서 위에 다시 전을 지저서 요렇게 덮고.}

10206 #2 짐치 장. 윈 연나른 그거 또 트로 그거 넘어 허질 아너나네 그자 그거.{김치 간장 윈 옛날은 그거 또 따로 그거 넘어서 하지 않으니 그저 그것.}

10206 @2 수엔 안허곡 예?(순대는 안하고 예?)

10206 #2 예 저 수에 수에 다마서 연나른 게 수에 다마서 윈 그건 윈.{예 저 순대 순대 담아서 옛날은요 순대 담아서 윈 그것은 윈.}

10206 #2 도귀허곡 가문 가문반도 도귀 무신 거 흠뻡울 해서 그냥 고쟁이에 꿩 예 고쟁이에 꿩 여서 그거 든 하나씩 하나씩 뒤 요새사주 연나른 윈 그건또 문 머거서 호뭇.{돼지고기하고 가문 가문 반도 돼지고기 무슨 거 조금 해서 그냥 꼬치에 꽂아 예 꼬치에 꽂아 그거 모두 하나씩 하나씩 뒤 요새야지 옛날은 윈 그것도 못 먹어서 사뭇.}

10206 #2 윈 그거 연나른.{윈 그거 옛날은.}

10207 @1 흑씨 겨론헤그네 왕 여기서 천날밤메 흑씨 즈미는 이야기 흑씨 인쭈과?(흑씨 결혼해서 와서 여기서 첫날밤에 재미있는 이야기 흑시 있습니까?)

10207 @1 아이 천 처날밤메 그런 거.{아니 첫 첫날밤에 그런 거.} @1 그런 건 연꼬.{그런 것은 없고.} #2 예.{예.} #1 그거 흥나가 인쭈. 나가 곧쭈.{그거 하나가 있지. 내가 말하지.} @1 잠깐만 양?(잠깐만요?)

10207 @1 이땅 나중에 건 열쭈보쿠다 예. 삼촌안티 와서니까 예 계속가쿠다 예.{이따가 나중에 그것은 여쭈보겠습니다. 삼촌한테 왔으니까 예 계속 가겠습니다.}

10207 #2 예.{예.}

10207 @1 게민 그 겨로는 완 험짜느파 양?(그러면 그 결혼은 와서 했잖습니까?) #2 예.{예.}

10207 @1 게서 겨론헌 다음메 시논 살리른 어떠케 마련해 가지고 어떠케 어디서 험쭈과?(그래서 결혼한 다음에 신혼 살림은 어떻게 마련해 가지고 어떻게 어디서 했습니까?)

10207 #2 여 그냥 여 여기서 그냥 머 사 사님사린 그냥 그자 할마님만 혼자 시나네 어머니는 일 일본 일본 그냥 가불고.{여 그냥 여 여기서 그냥 뭐 사 살림살이는 그냥 그저 할머님만 혼자 있으니까 어머니는 일 일본 일본 그냥 가버리고.}

10207 #2 그냥 할머니영 그자 마찌 밥해 머꼬 마찌 사 사라 사라오는디.{그냥 할머니하고 그저 같이 밥 해서 먹고 같이 사 살아 살아오는데.}

10207 #1 스 하르방은 스삼스꺼네 꺄 꺄려부난 매날 시머간 시머 시머왈따 시머오란따 허단 혼들 마니 오피 시머가부런.{사 할아버지는 사삼사건에 들 들켜서 매날 잡아간 잡아 잡아왔다가 잡아왔다가 하다가 한 달 만에 바로 잡아가버렸어.}

10207 #2 시머 간 시에 간 그 여름인디 혼들간 간 하르방은 간 징역 사란오곡 가불곡 따시 오라네. {잡아 가서 제주시에 가서 그 여름인데 한달간 가서 할아버지는 가서 징역 살아서 오고 가불고 다시 와서.}

10207 #2 또 언 씨어머니 일본 가불기 저너 따시 하 웨가칩 저 씨하르방이 따시 도라간. {또 언 시어머니 일본 가불기 전에 다시 하 외갓집 저 씨할아버지가 다시 돌아가셨어.}

10207 #2 겨난 그 씨하르방 도라가나넨 따시 허연 문 출런 영장 영장호고 허연 호고 윈. {그러니까 그 시할아버지 돌아가시니까 다시 해서 모두 차려서 장례 장례하고 해서 하고 윈.}

10207 #2 ㄱ ㄱ를 말도 몬딱 이저불곡 문 ㄱ 어떻 사라온 거슬 다 ㄱ를 쭈가 업써. {말 말할 말도 모두 잊어버리고 모두 말 어떻게 살아온 것을 다 말할 수가 없어.}

10207 #2 씨집오란젠 해도 머 어떻 매날 하르방 시머간따 시머오란따 허단 또 혼들마니 시머가불고 허난 즈 즈미나게 살곡 하간 거 흘 쭈가 아무 견또 어서. {시집왔다고 해도 뭐 어떻게 만날 할아버지 잡아갔다 잡아갔다 하다가 또 한달만에 잡아가버리고 하니까 재 재미나게 살고 이런저런 거 할 수가 아무 것도 없어.}

10207 #2 경헨 씨하 씨하르방 웨씨하르방도 주경 영장 허곡. {그래서 시하 시할아버지 외씨할아버지도 돌아가셔서 장례하고.}

10207 #2 혼자 씨할마님 팔썸 난 할망허민 아팡 뉘불곡 허민 이녁 혼자만 막 흐뭇 사라가젠 허민. {혼자 시할머님 팔썸 난 할머니하면 아파서 누워버리면 자기 혼자만 막 사뭇 살아가려고 하면.}

10207 #2 늙신디 장남 빌레 가곡 쉼빌레 가곡 그거 또 경허명 사라오젠 흥난. {남한테 일꾼 빌러 가고 소 빌러 가곡 그것 또 그렇게하면서 살아오려고 하니.}

10207 #2 언만사 잘 사라저신디 못 사라저신디. {얼마나 잘 살아졌는지 못 살아졌는지.}

10207 #2 막 절물 때 하간 거 현 펜 막 즈근즈근 ㄱ라 거 ㄱ라봐도 소용도 얻는 마리고. {막 젊을 때 이런저런 것 할 때는 막 차근차근 말해 거 말해봐도 소용도 없는 말이고.}

10207 #2 게난 어머니도 경헨 일본 가불곡 또 경허단 스/숨사태 끈나난. {그러니까 어머니도 그렇게 일본 가버리고 또 그렇게 사삼사태 끝나니까}

10207 #2 씨어머니 따시 오란 돈 벌고 오라네 이젠 논도 하나 사주고. {시어머니는 다시 와서 돈 벌고 와서 이제는 논도 하나 사주고.}

10207 #2 나 이제 일본 가서 잘 오라그네 니네 집 하나만 마련해주민 허켄. {나 이제 일본 가서 잘 와서 너희 집 하나만 마련해주면 하겠다.}

10207 #2 아 게연 씨어머니미 일본 도라가단 오피 스키고 낭 주거부런 대만 바당 주거부런. {아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일본 돌아가다가 그냥 사고 나서 죽어버렸어 대만 바다 죽어버렸어.}

10207 #1 조난 당헨 주거신. {조난 당해서 죽었는지.}

10207 #2 오피 주거부런. {그만 죽어버렸어.}

10207 #2 따시 다으른 씨할마니가 따시 도라 도라 간. {다시 다음은 시할머니가 다시 돌아 돌아 갔어.}

10207 #2 따시 씨어머님 또 도 겨엔. {다시 시어머님 또 돌 그래서.} #1 난 구닌 가불고. {나는 군대 가버리고.} #2 구닌 가불곡. {군대 가버리고.}

10207 #2 씨할마님 도라간 나만 이젠 그 씨할마님 영장허곡. {시할머니는 돌아가셔서 나만 이제 그 시할머님 장례식 치르고.}

10207 #2 따시 이제 상 노코 초호루 보름 허곡 산 버리난 또시 씨어머님 또 주건허난. {다시 이제 상 차리고 초하루 보름 하고 산 벌이니까 다시 시어머님 또 죽었으니까.}

10207 #2 상을 안짜리에 노코 씨어머님 또 받짜리에 영 노코 경헌디 초호르 보름 허곡. {상을 안자



리에 놓고 시어머님 또 바깥자리에 이렇게 놓고 그런데 초하루 보름 하고.}

10207 #2 따시 소상 소상도 혼드레 하 씨할망 소상허곡 씨어멍 소상허곡.{다시 소상 소상도 한달에 하 시할머니 소상하고 시어머니 소상하고.}

10207 #2 경 경혜루넨 허난 대 대상이 웬 때에 어떤 풀도 다치고 허난 그때 혼번 오난 대상 씨할마님 대상인 때엔 혼 번 오 오란 반 그 나무진 나만 초하루 보름 허곡.{그렇게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대 대상이 된 때에 어떻게 팔도 다치고 하니까 그때 한 번 오니까 대상 시할머님 대상인 때에 한 번 와 와서 봤어 그 나머지는 나만 초하루 보름하고.}

10207 #2 그 경허젠 허난 켤당덜안티도 그때는 떡또 하영 못 혼 드레 소상 두 번 혼는 사르미 떠글.{그 그렇게 하니까 권당들한테도 그때는 떡도 많이 못 한 달에 소상 두 번 하는 사람이 떡을.}

10207 #2 하르방도 얻꼬 그 아기 들곡 현 사르미 경 그 아기 업꼭 감저 주스레도 땡기곡.{할아버지도 없고 그 아기 데리고 한 사람이 그렇게 그 아기 업고서 고구마 주으려도 다니고.}

10207 #2 무신 거 경허영 씨할망 소상 허영 떡곡 씨어멍 소상 허영 떡곡 또 대상도 도라오난 따시 허곡 초하루 보름 구짜 허곡.{무슨 거 그렇게 시할머니 소상 해서 먹고 시어머니 소상 해서 먹고 또 대상도 돌아오니까 다시 하고 초하루 보름 쪽 하고.}

10207 #2 아이고 곤곡 하간 거 허곡 마를 헐 쭈가 업써.{아이고 말하고 이런저런 것 하고 말을 할 수가 없어.}

10207 #2 계난 남즈노른 여제 노른 쉼 빌레 장남 빌레 사라난 말 ㄱ를 쭈 말 쭈가 업 업 어서.{그러니까 남자노릇 여자 노릇 소 빌러 일꾼 빌러 살아난 말 말할 수 말 수가 없 없 없어.}

10207 @1 계난 열아웁 씨레 겨론 헨 양?{그러니까 열아홉 살에 결혼 했어 예?} #2 예.{예.}

10207 #2 계난 씨집 완.{그러니까 시집 와서.} #2 예.{예.}

#### 4.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

10209 @1 그 다음 해에 큰딸 마지똥 난 거 아니우짜 양?{그 다음 해에 큰 딸 딸똥 난 거 아닙니까 예?} #2 예.{예.}

10209 @1 그 칠 애기 가결쓸 때 흑씨 기어게 남는 일 가튼 거 이신가 마씨? 유난히 입더슬 헨따든가 무슨 머 그 팔려해서 쯤?{그 첫 애기 가졌을 때 흑씨 기억에 남는 일 같은 거 있을까요? 유난히 입덧을 했다든가 무슨 뭐 그 팔려해서 쯤?}

10209 #2 아 그 그 췌애기 아질 때 아 물 지레 낭 너머 가명 윈 늑미 땡유지낭에 땡유지가 막 여려시쿠데 아 저 땡유지를 혼썰 저걸 쥐시든 머겨봐시든 조켜마는 머겨봐시민 조켜마는.{아 그 그 첫 애기 가졌을 때 아 물 길러 나무 지나가면서 윈 남의 땡유자나무에 땡유자가 막 여니까 아 저 땡유자를 조금 저것을 췌으면 먹어봤으면 좋겠다마는 먹어봤으면 좋겠다만.}

10209 #2 경헨짜 늑미 겨라부난 드렌도 몬터곡 폽센도 몬터곡.{그렇게 해도 남의 것이니까 달라고도 못하고 팔라고도 못하고.}

10209 #2 그뻬 그냥 그런 무신 거 먹구정 현 거 이서도 츄므명 츄므명 사라오란쭈. 흘 쭈가 어서.{그때는 그냥 그런 무슨 거 먹고자한 것이 있어도 참으며 참으며 살아왔지. 할 수가 없어.}

10209 #2 이녀케 얻꼬 늑미 건 따시 저 줍센도 몬터곡.{자기 것이 없고 남의 것은 다시 저 주라고도 못하고.}

10209 #2 경허난 그자 그거 그런 그런 그런 거 혼썰 먹구저 허고 허곡 그 다으른 \*\* 아무거나 허여도 경 허여도 그뻬 사 먹도 몬터곡.{그러니까 그거 그런 그런 그런 거 조금 먹고자 하고 하고 그

다음엔 \*\* 아무 것이나 해도 그렇게 해도 그때는 사 먹지도 못하고.

10209 #2 누미거 비렁 산물 ㄱ튼 거 그런 거나 누게 주민 그거나 ㅎ솔 먹곡 .{남의 거 빌려서 산 물 같은 거 그런 것이나 누가 주면 그거사 조금 먹고.}

10209 #2 경 다른 건 먹구쟁 해도 츄므명 사랏주. 무신 요새 ㄱ트민 허주마는 연나리난 뭐 어느 어이.{그렇게 다른 것은 먹고자 해도 참으면서 살았지. 무슨 요즘 같으면 하지만 옛날이니까 뭐 어느 겨를에.}

10209 @1 흑씨 쳇 예기 가견쓸데 그 팔련해서 흑씨 꾸물 꾸거나 머 그런 건 따로 어서신가 예? {흑씨 쳇 아기 가졌을 때 그 팔련해서 흑씨 꾸물 꾸거나 뭐 그런 것은 따로 없었습니까?}

10209 #2 아니 꿈도 꾸면 저 허버글 허벅글 전 무레도 가보고 무신 거 이제 허연 허곡.{아니 꿈도 꾸면 저 허벅을 허벅을 저서 물에도 가보고 무슨 거 이제 해서 하고.}

10209 #2 또 아덜 ㅎ 번 ㅎ 땀 그땀 또 버여미 드라오란 사름 종에레 가마지명 무러베고 그때 경.{또 아들 한번 할 때는 그때는 또 뱀이 달려와서 사람 종아리에 감아지면서 물어버리고 그때 그렇 게.}

10210 @1 글쎄 그런 철똥 난 다오메 양?{글쎄 그런 첫딸 난 다음에 예?} #2 예.{예.} @1 철똥 난 다오메 요새 그 절른 아이덜 나면 산후조리 한다 뭐다 아넘니까?{첫딸 난 다음에 요새 그 젊은 아이들 나면 산후조리 한다 무엇이다 안합니까?}

10210 #2 예.{예.}

10210 @1 흑씨 그건 어떻 험디가? 먼저 나난 머 미역국 먹고 흑씨 그런 거 팔련텐 그 다오메 애 기들 크는 데 무슨 금기해야 될 사항 가튼 겐또 인솔 거고 요새 가트면 대무네 어 이케 줄도 메달리 고 허곡.{흑씨 그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나니까 뭐 미역국 먹고 흑씨 그런 것 팔련텐 그 다음에 아기들 크는 데 무슨 금기해야 될 사항 같은 것도 있을 테고 요새 같으면 때문에 어 이렇게 줄도 매 달고 하고.}

10210 #2 아이고 주를 뭘 생각 뭐 미역국 끌렁 먹고 머 하간 조 조 조리 ㄱ튼 거.{아이고 줄을 뭘 생각 뭐 미역국 끌려서 먹고 뭐 이런저런 조 조 조리 같은 거.}

10210 #2 체 체 쨌데기 그거 딸 유월 유월 유월 쑈물 날 나나네.{첫 첫 첫아기 그거 딸 유월 유월 유월 스무 날 나니까.}

10210 #2 그 ㅎ 열흐를 지뵈 인따가 그냥 그 예기 들고 검지를 강 메얼쑤.{그 한 열흐 집에 있다 가 그냥 그 아기 데리고 김을 가서 메었지.}

10210 #2 검지를 강 막 아프명도 그 검지를 메당 보단 아기 ㅎ뭇 막 ㅎ뭇 양지칸 양지로 무리 잘 잘 난.{김을 가서 막 아프면서도 그 김을 매다가 보니까 아기 사뭇 막 사뭇 얼굴이 타서 얼굴로 물이 잘잘 난.}

10210 #2 늑뉘더리 이거 절르니 애기냐고 경허명 ㅎ 쟁도로 사 사라오나네 뭐.{남들이 이거 젊은 이 아기냐고 그렇게 하면서 할 정도로 사 살아오니까 뭐.}

10210 @1 에 난 열흐마니 예?{아기 나서 열흐만이 예?} #2 예 열흐마니.{예 열흐 만에.}

10210 @1 계연 특별리 저 부모도 업썰꼬 남편도 업썰꼬 허니까 머 메여곡이랑 마랑 예.{그래서 특별히 저 부모도 없었고 남편도 없었고 하니까 뭐 미역국이랑 마랑 예.}

10210 #2 메여곡이랑 그땀 메여근 또 어디서 메역 사젠 허민 무신 거 보리라도 ㅎ말 쥐사 허곡 메역 낭땡이 으나른 게 사그네 허민.{미역국이랑 그땀 미역은 또 어디 있어 미역 사려고 하면 무슨 거보리라도 한 말 쥐야하고 미역 줄기 여남은 개 사서 하면.}

10210 #2 그 보린 어디 성 그 메역 상 메여곡 먹꼭 하간 거 허미랑 마랑.{그 보리는 어디 있어서 그 미역 사서 미역국 먹고 이런저런 거 함이랑 말앙.}

10211 @1 그러면 아이들 요새 가트면 백일뒤편 잔치도 허고 혼 저 일년 되면 돌 돌아오민 잔치도 해주고 허는 디 혹시 그런 거는 뭐 예?(그러면 아이들 요새 같으면 백일뒤편 잔치도 하고 한 저 일년 되면 돌 돌아오면 잔치도 해주고 하는데 혹시 그런 것은 뭐 예?)

10211 #2 아이고 아니.{아니고 아니.} @2 당취.{당추.} #2 흡치.{아예.}

10211 #2 그 그자 일년 도라오민 바비나 혼 사발 허영그네 머그렌 쥘쥘 그런 거 허여 본 못해뵈.  
{그 그저 일년 돌아오면 밥이나 한 그릇 해서 먹으라고 쥘지 그런 것은 해 본 못해뵈어.}

10211 @1 케니까 일년 뒤편 바븐 그래도 좀 특별리 출런 쥘꾸나 예.{그러니까 일년 되면 밥은 그래도 좀 특별히 차려서 주었구나 예.}

10211 #2 바븐 그자 바비나 혼 사발 허영그네 느 오닐 생이리엔 허영 저 주긴 헨디 경 하간 거 출리진 모터연.{밥은 그저 밥이나 한 그릇 해서 너 오늘 생일이라고 하면서 저 주긴 했는데 그렇게 이런저런 거 차리지는 못했어.}

10211 @1 그때는 메여꾸기라도 헤영 줘시쿠다. 바베?(그때는 미역국이라도 해서 쥘쥘습니다. 밥 예?)

10211 #2 메역꼭사 끌려져신디 먼샤 끌려져신디.{미역국을 끓렸는지 무엇을 끓렸는지.}

10211 @2 메역꾸근 어떻게 머거야 뵈는데.{미역국은 어머니가 먹어야 되는데.} #2 아아.{웃음.}

10213 @1 지금 으설 오누이 아니우까 예?(지금 여섯 오누이 아닙니까 예?) #2 예.{예.}

10213 @1 으설 오누이를 키우면서 혹시 기어게 남는 이리 일쓰면 좀 마라쥘쥘?(여섯 오누이를 키우면서 혹시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면 좀 말해주십시오?)

10213 #2 쥘롱 허른 큰 딸 너무나 너무 큰 큰 딸 쥘롱 저 너미 고생시리 그냥 저 할머니영 그냥 놀려두고.{제일 하면 큰 딸 너무나 너무 큰 큰 딸이 제일 저 너무 고생스럽게 그냥 저 할머니하고 그냥 놀게 해두고.}

10213 #2 받 받디 가서 오민 얘기가 기명 올레레 막 기어가곡 허민 할머니는 모미 아광 너머가는 사름신디 그 얘기 이레 시머다뵈으네 가라 가라허명 할머니가 오라시른 경 말허곡 겨난.{받 받에 가서 오면 아기가 기면서 골목으로 막 기어가고 하면 할머니는 몸이 아파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그 아기가쪽으로 데려다두고 가라 가라 하면서 할머니가 왔으면 그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10213 #2 큰 딸 질루메 너미 이제도 이저볼도 아녀곡 그거 너무 거세기 질루난 그 걸까 애삭허곡 허여도.{큰 딸 키움에 너무 이제도 잊어버리지도 앓고 그거 너무 거시기 키우니까 그 것이 애삭하고 해도.}

10213 #2 그 그 나쁜 걸떠른 아방 군인 간 오곡 허나네 흥쥘 도웨주곡 허나네 헨쥘마는 큰 딸리 너무나 거세기허게 질루난 이제 이제도 그걸.{그 그 나머지 것들은 남편 군대 가서 오고 하니까 조금 도와주고 하니까 했지만 큰 딸이 너무나 거시기하게 키우니까 이제 이제도 그것을.}

10213 #2 나 쥘 경 가 아피서 마르민 너무 쥘쥘하고 나 나마노로 애삭컨 거세기가 쥘도 그자 경 허구나.{나 속 그렇게 앞에서 말하면 너무 쥘쥘하고 나 나만 애삭한 거시기가 있어도 그저 그렇구나.}

## 5. 시집살이에 대한 경험담

10215 @1 씨지비 완 보난 예?(시집에 와서 보니까 예?) #2 예.{예.} @1 혹시 이 창고네나 큰개에서 행할 저 허던 풍속하고 으 이디 호근 므으레서 허던 풍스비 혹시 달라가지고 혹시 어려웠던 점 가튼 거 일쥘신가 마씨?(혹시 이 창고내가 대포에서 행하는 저 허던 풍속하고 으 여기 호근 마을에서 허던 풍습이 혹시 달라서 혹시 어려웠던 점 같은 것이 있었는가요?)

10215 #2 여기오난 대포서광 여기서 머시라도 차이가 어림 어림쭈기 어려워.{이제 여기는 오니까 대포에서랑 여기서 무엇이라도 차이가 어렵 어렵지 어려워.}

10215 #2 이제 여기 오난 아무도 으지가 업쓰니까니 예 너무 사라가는 거시 너무나 어려워 어려워와서.{이제 여기 오니까 아무도 의지가 없으니까에 너무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 어려워와서.}

10215 #2 허여도 이 식량 문제나 머시라도 그때는 돈 요 노미 일허영 돈 어시난 돈 주는 사름도 연꼬 노미 요 과수워네 강 연나른 저 하는 어디 그런 디 검질 메레 가른 도니 배 귀니라서. 배 권.{해도 이 식량 문제나 무엇이라도 그때는 돈 요 남의 일해서 돈 어시난 돈 주는 사람도 없고 남의 요 과수원에 가서 옛날은 저 하는 어디 그런 데 김매러 가면 돈이 백 원이었어. 백 원.}

10215 #2 경혈 때나네 어렵쪽 하간 거 허곡 흘 쭈가 업씨.{그렇게 할 때니까 어렵고 이런저런거 하고 할 수가 없어.}

10216 @1 흑씨 그 씨어머니는 일본 강 주로 사라부니까 저 씨집완 다음에 씨어명과의 관계는 특별히 며 어서시쿠다. 예?{흑씨 그 시어머니는 일본 가서 주로 살아버리니까 저 시집온 다음에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특별히 뭐 없었겠습니까. 예?}

10216 #2 일본 사라부난.{일본 살아버리니까.} @1 일본.{일본.} #2 일본 사라부니까.{일본 살아버리니까.} @1 씨누이들 관계 흑씨?{시누이들 관계 흑씨?}

10216 #2 씨누이도 일본 사라부난.{씨누이도 일본 살아버리니까.} @1 일본 사라부고 예?{일본 살아버리니까 예?}

10216 @1 게민 이 씨지베 다른 식구들허고 며 트버린 어떤 관계는 어서시쿠다 예.{그러면 이 시집에 다른 식구들하고 뭐 특별히 어떤 관계는 없었겠습니까 예.} #2 예 으 아무도 어서부나네.{예 아무도 없어버리니까.}

10216 #1 웨가치베 \* 투정 헤봐게.{외갓집에 \* 투정헤봐요.} #2 아.{아.}

10216 @1 웨가치베.{외갓집에.} #1 웨가치베.{외갓집에.} #2 경허난 어.{그렇게하니까 아.} @1 씨집싸리 마리우파 계난 으 씨어명은 일본 일본 가불 일본 가나넨 씨어머니든 도 도늘 버려서 그 나옴 저니 웨가치비만 보내고 영허명 현 현디.{시집살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어 시어머니는 일본 일본 가버리고 일본 가니까 시어머니는 도 돈을 벌어서 그 나오기 전에 외갓집에만 보내고 이렇게 했 했는데.}

10216 #2 어머니가 일본서 이제 그 도늘 버러가 아덜 스삼스까네 막 팔리서 아덜 주근 곁로 시머가분 다음에 어머니가 일 일보늘 가부런씨.{어머니가 일본에서 이제 그 돈을 벌어가 아들 사삼사건에 막 관에서 아들 죽은 곁로 잡아가버린 다음에 어머니가 일 일본을 가버렸어.}

10216 #2 그 아덜 시머간 거 보면서 일보늘 가부나네 일본 가서 게 스삼스꺼넨 편지 거래도 못터고 허난.{그 아들 잡아간 거 보면서 일본을 가버리니까 일본 가서 그렇게 사삼사건에 편지 왕래도 못하고 하니까.}

10216 #2 스삼스꺼 끈나네 이제 사란쭈텐 췌지를 허나네 어머니가 그때는 도늘 안꼬 퍼짜 드라오라네 이제 아덜 사란따고 허난 이젠 허고 허연.{사삼사건 끝나니까 이제 살았습니까 편지를 하니까 어머니가 그때는 돈을 가지고 화들짝 돌아와서 이제 아들 살았다고 하니까 이제는 하고 해서.}

10216 #2 노늘 하나 사취워네 어머니가 일본 가단 어머니가 도라가부나네.{논을 하나 사취두고 어머니가 일본 가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10216 #2 이젠 그 웨 웨가치비선 오란 이제 겨고 군인 가불고 이젠 그추룩커연 논 사취던 가부난 아 이젠 웨가치비서가 웨할망 건 그디서 추구려신디 웨할망이 날ㄴ라 저 게나라고.{이제는 그 외 외갓집에서 와서 이제 그리고 군인 가버리고 이제는 그렇게 해서 논 사취두고 가버리니까 아 이제는 외갓집에서가 외할머니 그것은 거기서 추어올렸는지 외할머니가 나보고 저 나가라고.}

10216 #2 이제 이디 이디 저 이제 그 나로글 웨가치비서 버러도 줄바로 갈라주지도 아녕 날고라 게나렌. 막 게어나렌 허민 멘날 올레로 오라서 막 웨명 불르명 오랑 웨할망이 막 옥허 게나렌.{이제 여기 여기 저 이제 그 벼를 외갓집에서 벌어도 제대로 나눠주지도 않고 날보고 나가라고 막 나가라고 하면 만날 골목으로 와서 막 외면서 부르면서 와서 외할머니가 막 옥하 나가라고.}

10216 #2 경허민 나는 나 이제 부모 번 돈 예기 예기가 떡곡 또 아기 번 돈 부모도 떡곡 경허난 게난 당신도 이제 예기니까니 당신 머켄 허명 날 그란 막 메날 오랑 게나렌.{그러면 나는 나 이제 부모 번 돈 아기 아기가 먹고 또 아기 번 돈 부모도 먹고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당신도 이제 아기니까 당신 먹겠다고 하면서 날보고 막 만날 와서 나가라고.}

10216 #2 게나렌 허명 멘날 허여 허여도 하 게 웨할망이 오라가민 고 오는 중 아라지민 고바부러.{나가라고하면서 만날 해서 해도 하 게 외할머니가 와가면 숨 오는 줄 알면 숨어버려.}

10216 #2 고바불민 오랑 웨당 가곡 경허민 따시 우리 켄당덜신디라도 강.{숨어버리면 와서 외다 가고 그렇게하면 다시 우리 켄당덜 한테라도 가서.}

10216 #2 저 우리 손지 사는 디강 살렌 그 그년 내모라불켄 경허명 웨할망이 막 오랑 메날 오라 그네 막허여 경허여도 나는 그걸 딱 츠마 가지고.{저 우리 손주 사는 데 가서 살라고 그 그년을 내몰 아버리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외할머니가 막 와서 만날 와서 막 해 그렇게 해도 나는 그것을 딱 참아 가지고.}

10216 #2 그 아기 들고 그 아기 어병 텡기명 노미 검질도 메 메곡.{그 아기 데리고 그 아기 업어서 다니면서 남의 김도 매 매고.}

10216 #2 엔나른 수눌민 노미 검지를 강 메어사 이를 해줘. 경허명 그 예기 메날 어떤 텡기명 살 안쭈.{옛날은 품앗이하면 남의 김을 가서 매줘야 일을 해줘. 그렇게 그 아기 만날 업고 다니면서 살았지.}

10216 #2 웨할망이 메날 게어나렌허곡 게. 씨어명 거세긴 언꼬 씨어명 대신 씨할망이 메날 오랑으네 게어나렌.{외할머니가 만날 나가라고 하고. 나 시어머니 거시기 없고 시어머니 대신 시할머니가 만날 와서 나가라고.}

10216 #2 우리 이제 손 손지 군인 강 저 주글티 말티.{우리 이제 손 손주 군대가서 저 죽을지말지.}

10216 #2 켄 노 당신네 노늘 헤먹젠 허난 경허다가 씨어머니미 막 돈만 주면.{그러니까 논 당신네 눈을 헤먹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다가 시어머니미 막 돈만 주면.}

10216 #2 씨어명 일본서 온 때 거꾸로 노다 마를 그라점짜.{시어머니 일본서 온때 거꾸로 앞뒤로 말을 하고 있네.}

10216 #2 아니 누님 도늘 용마원만 줘써? 나 받갈췌 하나 사쿠다. 웨삼추니 췌 장실 허나네.{아니 누님 돈을 육만 원만 주십시오. 나 받갈 소 하나 사겠습니다. 외삼촌이 소 장사 하니까.}

10216 #2 어머니가 뻔 뻔 돈 보내도 게 받 싸도 나 오라시난 저 받 하나라그네 딸 주젠허난 느시 그 오라방이 안 줘젠 허명.{어머니가 몇 번 돈 보내도 게 받 사도 나 왔느니 저 받 하나는 딸 주려고 하니까 전혀 그 오빠가 안 준다고 하면서.}

10216 #2 아 경허명 돈 용마원만 저 쥐십췌 쥐십췌 허난.{아 그렇게 하면서 돈 육만원만 저 빌려달라 빌려달라고 하니까.}

10216 #2 어머니가 도늘 압치메로 이마니 췌 오란 나 느 이런 도늘 받 덴 허난.{어머니가 돈을 앞치마로 이만큼 싸서 와서 나 너 이런 돈을 봤었냐 하니까}

10216 #2 나가 그런 도늘 어떠케 볼 췌가 심니켄?{내가 그런 돈을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10216 #2 경허난 이거 췌레 드러노렌 나 흥성 게른 논 삼 저니 경헨 그 도늘 마탄 췌레 드러날떠

니.{그러니까 이거 কে에 들여놓으라 나 흥정 그러면 논 사기 전에 그렇게 그 돈을 맡아서 কে에 들여  
왔더니.}

10216 #2 흔 이트른 시나네 오란 하이고 살질 못터켜. 그 돈 이레 드라.{한 이들은 있으니까 와서  
아이고 살지 못하겠다. 그 돈 이리로 주라.}

10216 #2 건 도늘 용마닐 안판 웨삼추늘 안네난 흥리 가네 받갈셀 하날 사오라서. 사오난.{그래서  
돈을 육만원 가져다가 외삼춘을 주니까 흥리 가서 받갈 소를 하나 사왔어. 사오니까.}

10216 #2 이젠 어머니가 가단 오편 도 저 도라가부나네.{이제는 어머니가 가다가 그만 도 저 돌아  
가버리니까.}

10216 #2 이젠 나허는 마른 쉼 빌레 땡김도 하도 나 어려우나네 삼춘 그 쉼 나도 반만 나 일 혈  
뎨 받또 갈곡 부리쿰엔 허난.{이제 나하는 말은 소 빌러 다님도 하도 나 어려우니까 삼춘 그 소 하노  
반만 나 일할 때는 받도 같고 부리겠다고 하니까.}

10216 #2 으. 느 거세기 느네 혈 떼라그네 메날 으망 저 거세기 부리라. 부리라.{그래 너 거시기  
너네 할 때랑 만날 가져다가 저 거시기 부러라. 부러라.}

10216 #2 경 ㄱ라똥 아 그 삼 삼추니 그 쉼 흔 흔 번토 안 주고.{그렇게 말해두고 아 그 삼 삼춘  
이 그 소 한 한 번도 안 주고.}

10216 #2 그냥 그 돈 육만원 그때에 용마닐이민 받 하나 살 때에 받 받도 사젠 허난 몫 사게 허  
고.{그냥 그 돈 육만 원 그때에 육만 원이면 받 하나 살 때에 받 받도 사려고 하니 못 사게 하고.}

10216 #2 웨삼추니 그 돈 오편터게 용마닐 오편 들러머건 살단 오편 도라가부런.{외삼춘이 그 돈  
그만 육만 원 그냥 가로채서 살다가 그냥 돌아가 버렸어.}

10216 #2 경허난 그런 걸또 혈 때는 잘도 애삭커고 기가 메경 뉘셴 ㄱ를 쭈가 어서도 사람시나네  
그 돈 안 쥐도 사라지곡.{그렇게하니까 그런 것도 할 때는 매우 애삭하고 기가 막혀서 무엇이라고 말  
할 수가 없어도 살고 있으니까 그 돈 안 쥐도 살아지고.}

10216 #2 그 우리 웨삼추니 누이 도늘 마니마니 그저닌 어려불고 허나네 도늘 그레만 보내난 거  
기서 쉼 장시도 허곡 받도 사곡 허여도 하나도 안 쥐.{그 우리 외삼춘이 누이 돈을 많이많이 그전엔  
어려불고 하니까 돈을 그리로만 보내니까 거기서 소 장사도 하고 받도 사도 하나도 안 쥐.}

10216 #2 겨난 오편 중는 어른 주겨부나네 이건 원 흘 쭈가 어시 그치록커멍 도늘 경 놀러볼곡  
나록도 허민 갈라레 가시민 줄바로 안 갈라주곡 막 육만 허멍 허곡 경허멍 애사커엔.{그러니까 그냥  
죽는 어른 죽어버리니까 이것은 원 할 수가 없이 그렇게하면서 돈을 그렇게 날려버리고 벼도 하면 나  
누러 가면 제대로 아니 나눠주고 막 육만 하면서 하고 그렇게 하면서 애석해서.}

10216 #2 이거 나 반도 몫 ㄱ라.{이거 나 반도 못 말해.}

10216 @1 예.{예.} #2 그 허여난 일.{그 했었던 일.} @1 조쭈다 그 웨할망은 고향이 당시 어디  
어딘고 따씨? 사라쭈가?{좋습니다 그 외할머니는 고향이 당시 어디 어디였는고 예? 살았습니까?}

10216 #2 저.{저.} #1 웨할망 웨가는 강정.{외할머니 외가는 강정.}

10216 #2 강정.{강정.} @1 잠깐만 그 이제는 새 메느리도 허곡 헤실거 아니우파 양?{잠깐만 그  
이제는 새 며느리도 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예?} #2 예.{예.}

10216 #2 새 새 아들 메느린 메느린 흥리땡.{새 새 아들 며느린 며느리는 흥리덕.}

10216 @1 아니아니 게난 이제 할머니에 저 누구 아들드리 겨론헤실거 아니우파 예? @1 메느리  
덜 헤실 께 아니우파 예.{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의 저 누구 아들이 결혼했을 거 아닙니까  
예?} #2 예.{예.}

10217 @1 흑씨 그 게니까 삼춘 그 씨집싸리 허던 때 허고 요즘 메느리 요즘 메느리 셴 예 허영  
햐실 거 아니라 양?{흑씨 그 그러니까 삼춘 그 씨집살이 하던 때 하고 요즘 며느리 요즘 며느리 셋

예 해서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예? #2 예예.{예예.} @1 그 혹시 비교허멍 쫘 ㄱ를 께 이싹꺼들랑.  
{그 혹시 비교하면서 쫘 말할 것이 있거들랑.}

10217 #2 메 메느리엔 비교허연.{며 며느리에 비교해서.} @1 예예.{예예.} @2 씨집싸리 마씨.{시  
집살이입니다.} @1 씨집싸리 게니까 삼추니 씨집싸리 헨편 거 허고 예 지금 메느리들 또 허는 씨집  
싸리허고 비교허영 혹시 ㄱ를 거 인꺼들랑 흐뎡 ㄱ라쫘씨.{시집살이 그러니까 삼촌이 시집살이 했던  
거 하고요 지금 며느리들 또 하는 시집살이하고 비교해서 혹시 말할 것 있거든 쫘 말해주십시오.}

10217 #2 난 경허멍 사난 이제 메느리가 나도 메느리 세 개 헨판 하난 춤 거세기 실패헨쫘마는  
메느리 두 개 해도 원 ㄱ를 말 아무 말도 업 메느리엔 대헨은 ㄱ를 말 업씨.{난 그렇게 하면서 사니  
까 이제 며느리가 나도 며느리 세 개 했다가 하나는 참 거시기 실패했지만 며느리 두 개 해도 원 말  
할 말 아무 말도 업 며느리에 대해서는 말할 말 없어.}

10217 @1 트벼란 어떤 이야기나 그런 게 업씨 예?{특별한 어떤 이야기나 그런 게 없어 예?} #2  
예.{예.}

10217 #2 난 난 경허난 원 메느리에 대해서 원 영허다 저영허다도 아녀곡 나 뉘생 안 ㄱ르난 또  
메느리도 날ㄱ라 뉘세는{난 난 그러니까 원 며느리에 대해서 원 이렇다 저렇다 아니하고 나 뉘이라고  
도 안 말하니까 또 며느리도 날보고 뉘이라고는} @1 예.{예.} #1 이녁 사는 견짱 그 차이저를 ㄱ르  
랜.{자기 사는 것이랑 그 차이점을 말하라고.} #2 예 아이고 나 사라난 거영 거거영 허민.{예 아이고  
나 살아난 것하고 그것하고 하면.}

10217 @1 요즘 메느리드른 어떻 사는 거 담쫘가?{요즘 며느리들은 어떻게 사는 것 답습니까?}

10217 #2 요 요즘 메느리사 뉘 모두 행복커케 살암쫘. 날로 비허민.{요 요즘 며느리사 뉘 모두 행  
복하게 살고 있쫘. 나에 비하면.} @2 할머니 이런 거라 마씨. 예를 들면 나는 그러케 어렵게 씨집사  
리를 했쫘끼 때뉘네.{할머니 이런 것이예요. 예를 들면 나는 그렇게 어렵게 시집살이를 했었기 때문  
에.} #2 예.{예.} @2 우리 메느리랑 경허지 말자 허여가지고 며 마음 도는 못 주드래도 마오므로.{우  
리 며느리는 그렇지 말자 해가지고 뉘 마음 돈은 못 주더라도 마음으로.} #2 예.{예.} @2 이거허라  
저거허라 뜯쳐림 허는 거 아니우파?{이거하라 저거하라 뜯쳐림 하는 것 아닙니까?}

10217 #2 아 그 마리 마장 양 나 나도 그러케 애사커고 어렵게 사난 난 메느리에 대해서 요만도  
난 계난 노른 메느리 말 허곡 해도.{아 그 말이 맞아서 예 나도 그렇게 애석하고 어렵게 사니까 난  
며느리에 대해서 요만큼도 난 그러니까 남은 며느리 말하고 해도.}

10217 #2 그런 메느리 말 허도 아널 께 곧또 아널 거 허난 가네 날ㄱ라 머셴 누게가 ㄱ람쫘 허민  
아멩이라도 ㄱ르나 난 무슨 무슨 거 하나도 업따 난.{그런 며느리 말 하지도 앓을 거 말하지도 앓을  
거 하니까 그 아이들 날보고 무엇이라고 누구가 말한다고 하면 아무렇게라도 말하라 난 무서운 거 무  
서운 거 하나도 없다 나는.}

10217 #2 뜨리라도 어머니 경허나네 조케 헨 아 조코 굳꼬 고든 낭은 가운 디 산다 나는 저 아무  
거엔 ㄱ라도 조타.{딸이라도 어머니 그렇게 하니까 좋게 한 아 좋고 굿고 곧은 나무는 가운데 선다  
나는 저 아무 것이라고 말해도 좋다.}

10217 #2 나 모음만 고드며는 날ㄱ라 구뎡을 허고 조텡 허곡 나 무슨 게 하나도 업따 요셴 경.{나  
마음만 곧으면 날보고 굿다고 해도 좋다고 하고 나 무서운 거 하나도 없다 요새는 그렇게.}

10217 #2 나 사라난 거치룩 살랜 허민 다 다 도망가부러.{나 살아난 것처럼 살라고 하면 다 다 도  
망가버려.} @2 웃음

10217 @1 조쫘다.{좋습니다.}

10205 @1 그 겨론식 헨 때.{그 결혼식 할 때.} #2 예.{예.} @1 겨론식케서 여기 오니까 새각씨  
상을 출려쫘실 께 아니우파?{결혼식해서 여기 오니까 새색시 상을 차려쫘을 거 아닙니까?} #2 예.

{예.}

10205 @1 그때 새각씨 상에 먼떠리 올라와 이십테가?{그때 신부상에 뿔들이 올라왔었습니까?}  
#2 새각씨상에 연날 저 돌레기 그거 허곡 독세기 세 개 허고 무신 거 올를 게 며.{신부상에 옛날 저  
돼지고기 그거 하고 달걀 세 개 하고 무슨 거 올라온 것이 뭐.} 웃음

10205 @1 독레기 허곡 독세기 세 개 하곡.{돼지고기 하고 달걀 세 개 하고.} #2 독세기 세 개허  
곡.{달걀 세 개 하고.} @1 둠비허곡.{두부하고.}

10205 #2 저 독 거세기 독따리 하나 허고.{저 닭 거시기 닭다리 하나 하고.}

10205 #2 며 채소 예 집치 그자 그거 그거 올랄쭈 무시 거.{뭐 채소 예 김치 그저 그거 그거 올랐  
지 무슨 거.}

10205 @1 구근 먼 국 헤십디가?{국은 무슨 국 했습디가?}

10205 #2 구근 무수 난 현 거 달만는다.{국은 무 놔서 한 것 닳았는데.}

10205 @2 늣뻘국 예.{무국 예.} #2 늣뻘국.{무국.}

10205 @1 고 고맙쑤다 잠시 쉬깁습니다. (잡음)

### (부모님의 고향과 하신일)

10201 @1 삼촌 예.{삼촌 예.} #1 어.{아.}

10201 @1 이제 삼촌 부모니미 게니까 삼촌 아버님 허곡 어머니 예?{이제 삼촌 부모님이 그러니  
까 삼촌 아버님하고 어머니 예?} #1 예.{예.}

10201 @1 고향 하고.{고향하고.} #1 예.{예.} @1 그 두 분 내외가 하셴뎨 이레 대해서.{그 두 분  
내외가 하셴뎨 일에 대해서.} #1 예.{예.} @1 잠시 좀 그라쭈쑤? {잠시 조금 말씀해주십시오?} #1  
예.{예.}

10201 #1 우리 아버니 아버니든 저 우리 월레 볼레 여기 우리 호근.{우리 아버니 아버님은 저 우  
리 월레 본래 여기 호근.}

10201 #2 그때 서호 아니얼쑤가?{그때 서호 아니었습니까?} #1 서서 게메 우리 이 므올허고 서호  
서호나 호그리나 거 그튼 우리 호근 므으리고.{서 서 그러게 우리 이 마을하고 서호 서호나 호근리나  
거 같은 우리 호근 마을이고.}

10201 #1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우리 호근므으리고.{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우리 호근 마을이고.}

10201 #2 우알 동네난.{위 아래 동네니까.} #1 우알 동네.{위 아래 동네.}

10201 @1 동네서 흐는데 아버지가 쑤물일고베 장가를 드린꼬.{동네서 하는데 아버지가 스물일곱  
에 장가를 갔고.} @1 쑤물일곱.{스물일곱.}

10201 @1 게니까?{그러니까?} #1 우리 어머니허곡.{우리 어머니하고.} @1 아버니든 어머니 다  
호그리데.{아버님은 어머니 다 호근리인데.} #1 다 호그리데.{다 호근리인데.} @1 게난 어머니 고향  
은 호그리 올똥네.{그러니까 어머니 고향은 호근리 윗동네.}

10201 #1 아니 기자 그튼 동네.{아니 그저 같은 동네.} @1 아.{아.} #1 그튼 동네에서 겨론허고  
겨론헨쭈 겨론 예?{같은 동네에서 결혼하고 결혼했지 결혼?} @1 아 가튼 동네에서.{아 같은 동네에  
서.}

10201 #1 겨론허고.{결혼하고.}

10201 @1 주로 하셴뎨.{주로 하셴뎨.} #1 하셴뎨 이른 게난 아버지가 일찍 조요헨는데 그 시대가  
그 웨정시대가 나니까.{하셴뎨 일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 시대가 그 일제강점기니까.}

10201 #1 겨론헨서 어머니를 데리고 부부가 일보늘 간 거쭈 일본 간 간 공장 이를 헨쭈 힘니다  
공장.{결혼헨서 어머니를 데리고 부부가 일본을 간 것 일본 가서 가서 공장 일을 했다고 합니다. 공장.}



10201 @1 뭘 썰 때쯤 일본 가실꺼고 예?(뭘 썰 때쯤 일본 갔을꺼요?)

10201 #1 뭘 썰 때 나 나키 저네 간 거니까 예(뭘 썰 때 나 낳기 전에 간 거니까)

10201 #1 가서 나 나코 나 머 두 설 썰젠가 이제 다시 또 귀양허니까(가서 나 낳고 나 뭐 두 살 적엔가 이제 다시 또 귀향하니까.)

10201 @1 케니까 여기서 어 농사이리렌 현 건 머 거 부모 심부 심부르므로 헐쭈 주 농사는 못 지어본 어르넵쭈.(그러니까 여기서 어 농사일이라고 한 것은 뭐 거 부모 심부 심부름으로 했지 주 농사는 못 지어본 어르넵쭈.)

10201 #1 농산 못 지어보고 일본 간 공장 이를 공장에 부떠서 공장이를 현 걸로 알고 인꼬.(농사는 못 지어보고 일본 가서 공장일을 공장에 붙여서 공장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10205 @1 그 거론식 허설썰 때 예? 에 삼추니 준비헌 건뜨른 어떤 거시 이서신고 마씨?(그 결혼식 하셨을 때 예? 에 삼촌이 준비한 것들은 어떤 것이 있었는꺼요?)

10205 #1 에 나가 장게 갈 때.(에 내가 장가 갈 때.) @1 예예.(예예.)

10205 @1 삼추니 꼭 허지 아녀도 삼춘 쪼게서 준비헌 건떨 예?(삼촌이 꼭 하지 않아도 삼춘 쪽에서 준비한 것들 예?)

10205 @2 실랑 쪼게서.(신랑 쪽에서.)

10205 #1 우리가 우선 그 준비헌 건 거 흥세우짜? 예.(우리가 우선 그 준비한 것은 거 흥세우합니까? 예.)

10205 #1 그거 신부안티 그 가져가는 거 저.(그거 신부한테 그 가져가는 것 저.) @2 패.(패.)

10205 #1 그거 낱패 그거 혼수 그거 허고.(그거 낱패 그거 혼수 그것 하고.) #2 미녕 저 미녕 두 빌허지 아녀?(무명 저 무명 두 필하지 아냐?) #1 미녕 두빌 그거.(무명 두 필 그것.) @1 미녕 두 머 마씨?(무명 두 뭐예요?)

10205 #1 두 필.(두 필.) @1 두 필 아.(두 필 아.) #1 두 필 그거허고 또 꺾 저 이 시름도 꺾 란찌마는.(두 필 그거하고 또 아까 저 이 사람도 말했지마는 두 필 그것하고.)

10205 #1 그 우리 지바니 이젠 그거시 업는데 그 족뚜리 족뚜리 현 건.(우리 집안이 이제 그것이 없는데 그 족뚜리 족뚜리 한 것은.)

10205 #1 우리 광산 김씨 그 종중회서 아주 특별리 마련해서 육찌 간 산 육찌로 주문혜네 게서 우리 지반만 쓰는 건데.(우리 광산 김씨 그 종중회서 아주 특별히 마련해서 육찌 가서 사서 육찌로 주문해서 그래서 우리 집안만 쓰는 것인데.)

10205 #1 게서 족뚜리 허곡 꺾 찡오슬 거느런는데 이걸 아주 건사헌 하메.(그래서 족뚜리 하고 아까 찡오슬 말했는데 이것을 아주 건사한 함에.)

10205 #1 이러케 노아서 그 오래도록 쓰다가 이젠 그 시대가 흘르고 또 이용덜 아녀난 거의 폐무리 뉘부림쭈마는.(이렇게 노아서 그 오래도록 쓰다가 이제는 그 시대가 흐르고 또 이용덜 안하니까 거의 폐물이 되어버렸지만.)

10205 #1 그걸 가정 간쭈다. 그걸.(그것을 가져서 갔습니다. 그것을.)

10205 @1 케니까 삼춘 이번편 족뚜리 멩지치메 저고리 바지 장운 두 개 이런 거 이션는 데 이 실랑 쪼게서 혜준 게 족뚜리 허고 장운.(그러니까 삼춘 입었던 족뚜리 멩지치마 저고리 바지 장운 두 개 이런 것 있었는데 이 신랑 쪽에서 해 준 것이 족뚜리하고 장운.)

10205 #1 장오슬 강 그걸 그걸 그냥 그날 우리 지반의 신부안테는 이용허곡 다음 또 장게가는 사르른 또 다음도 이용허곡 경허는 겁쭈.(장오슬 가서 그것을 그것을 그냥 그날 우리 집안에 신부한테는 이용하고 다음 또 장가 가는 사람은 또 다음도 이용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10205 @1 아 그걸 대대로 이용허는 거우꽈? 이용허는 거?{아 그것을 대대로 이용하는 겁니까? 이용하는 거?}

10205 #1 그 족뚜리는.{그 족뚜리는.}

10205 @1 계문 삼촌네 지베서 준비헌 거슨 맹지 치메 저고리허고 바지 예?{그러면 삼촌네 집에서 준비한 것은 명주 치마 저고리하고 바지 예?}

10205 #1 켜 건?{그건 그것은?} @1 속꼴타고?{속옷하고?}

10205 #2 우의 장을 그 저 연나른 장오시엔 현 건 이 소고베 이 우의 입쪽 따시 머리 우의 영 . {위에 장옷 그 저 옛날은 장옷이라고 한 것은 이 속에 이 위에 입고 다시 머리 위에 이렇게.} @2 예 쓰고.{예 쓰고.}

10205 #1 겨곡.{그리고.} #2 늑미 거 하나 빌곡 이녁꺼 허곡.{남이 거 하나 빌고 자기 것 하고.}

10205 #1 이 실랑으로써 준비헌 거슨 그 도복.{이 실랑으로서 준비한 것은 그 도포.}

10205 #2 도 창온.{도 창옷.} #1 창온 도복 창온 또 우에 저고리 바지 이 일체 가춤쭈 이건 췌끼 영 예.{창옷 도포 창옷 또 위에 저고리 바지 이 일체 갖추지요 이것은 조끼하고 예.}

10205 @1 그걸 이버편 거 다 마라춤쭈?{그것을 입었던 거 다 말해주십시오?} #1 예.{예.}

10205 #1 이버.{입어.} @1 모자 쓴 거까지.{모자 쓴 것까지.} #1 모자.{모자.}

10205 #1 모자 쓴 거 그 저 걸꼬라 뭐엔 근다.{모자 쓴 거 그 저 그것보고 무엇이라고 말한다.}

10205 #1 저.{저.} #2 사모관대.{사모관대.} #1 사모관대.{사모관대.}

10205 #1 사모관대 그 척 허곡.{저 사모관대 착 쓰고.}

10205 #1 우에 그 사모관대 다음에 그 이븐 그 다음에.{위에 그 사모관대 다음에 그 입은 그 다음에.} #2 탕관.{탕건.}

10205 #1 예.{예.} #2 탕관 썩 사모관대.{탕건 써서 사모관대.} #1 예 탕관.{예 탕건.}

10205 #1 또 오스 걸꼬라 사모관대에 따른 그 온 예. 그거 허고.{또 옷은 그것보고 사모관대에 따른 그 옷 예. 그것 하고.}

10205 #1 그 다음 창온 그 다음 바지 창온 케니까 창온 다음에 췌끼 바 저 저고리 아렌 바지.{그 다음 창옷 그 다음 바지 창옷 그러니까 창옷 다음에 조끼 바 저 저고리 아래는 바지.}

10205 #2 그때 그 못 चललजू. 이 우의 푸린 거 푸린 거 이변췌게.{그때 그 못 차렸지. 이 위에 파란 거 파란 것 입었지요.}

10205 #2 경헌디 그뻐.{그런데 그때는.} #1 그뻐.{그때는.} #2 그뻐 시구기 시국만치 그건 못 이변.{그때는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그것은 못 입었어.}

10205 #1 그걸 헨는디 난 생략해네 걸 안 입어진 거 달마.{그것을 했는데 난 생략해서 그것 안 입었던 것 닐아.}

10205 #2 예 그걸 안 이변췌다.{예 그것을 안 입었습니다.} #1 안 입어지거 달마.{안 입어진 것 같아.}

10206 @1 그 삼촌 차 겨론 장게 가 가지고 신부치베 가난 실랑쌍에 뭐 와실 꺼 아니우꽈 예?{그 삼촌 차 결혼 장가 가 가지고 신부집에 가니까 신랑상에 뭐 왔을 거 아답니까 예?} #1 예.{예.}

10206 @1 거기엔 떠 어떤 걸뜨리 올라와십디가?{거기에는 뭐 어떤 것들이 올라왔었습니까?}

10206 #1 실랑쌍에 올른 거 지금 기억 나는 게 우선 밥 예. 쌀밥.{신랑상에 올른 것 지금 기억나는 것이 우선 밥요. 쌀밥.}

10206 #1 국 구게는 메역꾸긴데 이 생선쪽 구기랴꼬.{국 국에는 미역국인데 이 옥돔국 국이었고.}

거기에 또 부식떨 올른 거 보니까.{거기에 또 부식들 올른 것 보니까.}

10206 #1 득 득 흥 머리.{답 답 한 마리.}

10206 #1 또 득세기 다신 쟀가 세 쟀가 영 허영 세 개 세 개 세 개 완꼬.{또 달걀 다섯 개인가 이렇게 해서 세 개 세 개 세 개 왔고.}

10206 #2 그 외에 무신 부침덜 헤네 완 두세 게 노안 원. 그거.{그 외에 무슨 부침들 하고 와서 두 세 개 놓아서 원. 그거.}

10206 @1 예. 게니까 잔치 때는 어떤 음식드를 준비합니까?{에 그러니까 잔치 때는 어떤 음식들을 준비합니까?}

10206 #1 잔치 때 그 연날 그 혼사 때는 그 저 쌀밥.{잔치 때 그 옛날 그 혼사 때는 그 저 쌀밥.}

10206 @1 곤밥.{쌀밥.}

10206 #1 곤바블 아니 아녀고. 건 곤바븐.{쌀밥을 하지 않고. 그것은 쌀밥은.}

10206 #1 곤바븐 저 실랑 신부 이런 그 상에 올릴 때만 쓰고.{쌀밥은 저 실랑 신부 이런 그 상에 올릴 때만 쓰고.}

10206 #1 이 저 하객 그 접객들 하객떠리나 친족덜 멩는 대접퍼는 바븐.{이 저 하객 그 접객들 하객들이나 친족들 먹는 대접하는 밥은.}

10206 #1 보리쌀레.{보리쌀에.}

10206 @1 보리쌀레.{보리쌀에.}

10206 #1 또.{또.}

10206 @1 팔 놉니까?{팔 넣습니까?}

10206 #2 팔{팔.} #1 팔{팔.} #2 꼭세.{팔에.}

10206 #1 예 꼭세 곤쌀 조금 서끄지 이.{예 팔에 쌀 조금 섞지 이.}

10206 #2 곤쌀 서끄곡.{쌀 섞고.} #1 으.{어.}

10206 #1 곤쌀.{쌀.} 곤쌀 반반.{쌀 반반.}

10206 #2 반 안 서꺼. 반 모터게 서꺼.{반 안 섞어. 반 못하게 섞어}

10206 #1 반 모터게.{반 못하게.}

10206 #1 게른 보리쌀레 곤쌀레.{그러면 보리쌀에 쌀에.}

10206 #1 그.{그.} @2 꼭세.{팔에.} #1 예 그 외엔 팔.{예 그 외에는 팔.}

10206 @1 게른 밥허곡.{그러면 밥하고.} #1 영허민.{이렇게 하면.}

10206 #1 밤마시 춤 줍니다.{밥맛이 참 좋습니다.}

10206 @1 게민 밥 .{그러면 밥.}

10206 #1 밥퍼곡 구근.{밥 밥하고 국은.}

10206 #2 무수.{무.}

10206 #1 무수나 예 또 이 저.{무우나 예 또 이 저.}

10206 #2 메역세나.{미역세나.}

10206 #1 메역세 메역세를 주로 메역세국 춤 줍니다.{미역새 미역새를 주로 미역새국 참 좋습니다.}

10206 #1 메역세국 경허고.{미역새국 그러하고.}

10206 #1 또 이제 그 웨로 논는 거 부시그로 논는 거슨 머.{또 이제 그 외로 놓는 것은 부식으로 놓는 것은 뒤.}

10206 #1 고기는 그 머 웨지고기 냥. 웨지 그 고기에도 그 저.{고기는 그 뭐 돼지고기 예. 돼지 그 고기에도.}

10206 #2 헤.{많이.} #1 저.{저.} #2그 엔나른.{그 옛날은.} 머신 거 베설 달른 거 양?{무슨 거 창자 닭은 거 예?}

10206 #1 수에.{순대.}

10206 @2 순대. 수에.{순대 순대.}

10206 #1 수에.{순대.} @2수에.{순대.} #1예.{예.} @2 예.{예.}

10206 #1 수엘 꼭 놉니다.{순대를 꼭 올립니다.}

10206 #1 수에 경행 그거 노코.{순대 그렇게 해서 그거 놓고.}

10206 #2 늪뻬체에 따시.{무채에 다시.}

10206 #1 그 다음은 늪뻬체쨌쨌. 늪뻬체. 무수.{ 그 다음은 무채지요. 무채 무.}

10206 #2 늪뻬체에 전 전이라고 전 지저서.{무채에 전 전이라고 전지저서.}

10206 #1 전 지진 거 낱 허며는 아주 잘 현 잔칩쨌. 그 정도 허른 예.{전 지진 거 낱서 하면 아주 잘한 잔치지요. 그 정도하면.}

10206 @1 저니라고 험니까? 그냥 전?{전이라고 험니까? 그냥 전?}

10206 #2 전 지정.{전 지저서.}

10206 @2 지지미.{부침개.}

10206 #2 지지미엔 아녕 그뻬.{부침개엔 아니하고 그뻬는.} @1 전.{전.} #2 전.{전.} #1전 지절젠 경 험니다. 지지미엔 현 건 저 일본마릴꺼우다. 몰라도.{전 지졌다고 그렇게 험니다. 지지미엔 하는 것은 저 일본말일꺼예요. 몰라도 .} #2 저.{저.}

10206 #2 무수 슬마그네 쨌 쨌씨에 쨌씨에 낱 그 쨌씨 우의 그걸 툽툽 더끄명.{무 삶아서 쨌 쨌씨에 쨌씨에 낱서 그 쨌씨 우에 그것을 툽툽 덮으며.}

10206 #2 더끄명 경행 7른 짐치허곡.{덮으며 그래서 감은 김치하고.}

10206 @1 짐치허곡.{김치하고.}

10206 #1 예.{예.} @3 저는 뵐로 만드라 마씨?{전은 무엇으로 만듭니까?} #1 짐 짐치허곡 장물 꼭 놉니다. 장물.{예 김 김치하고 간장 꼭 올립니다.}

10206 #1예.{예.} #2 장 장무른 쨌기 즈방 먹는 장물허곡.{간 간장은 고기 찍어 먹는 간장하고.}

10206 @2 저는 어떻 놉니까?{전은 어떻게 올립니까?}

10206 #2 저는.{전은.}

10206 @2뵐로 뵐드라 마씨?{무엇으로 만들어요?}

10206 #2 뵐 그 모뵐크르나.{무엇 그 메뵐가루나.}

10206 #2 아 그뻬 모뵐크르 헤 허여그네 얹게시리 카서 그거 얹게 그 쨌씨 우의 더끄는 건 얹게 시리 이러케 얹게시리 지저그네 칼로 이러케이러케 쨌러가지고 쨌고만현 쨌씨 우의 툽툽 더끄는 거. {그뻬는 메뵐가루 많이 해서 얹게 반죽해서 그거 얹게 그 쨌씨 위에 덮으는 것은 얹게 이렇게 얹게 지저그네 칼로 이렇게 이렇게 쨌러가지고 쨌고만현 쨌씨 위에 툽툽 덮으는 거.}

10206 #1 겨고 또 무시거또 노추게. 그 저 일본말로 뵐뿌라 뵐뿌라 허는 디 그거시 지지미 아니라?{그러고 또 무슨 것도 놓지. 그 저 일본말로 뵐뿌라 뵐뿌라하는 데 그것이 지지미 아니라?}

10206 #1 그걸또 조끔 허영 노추게.{그것도 조금해서 놓쨌.}

10206 #2 아니 뵐뿌 뵐뿌라 그거 아이고 거세기현.{아니 뵐뿌 뵐뿌라.{튀김} 그거 아이고 거시기 한.}

10206 #1 거 잘 아녀젠 허쨌.{그것 잘 아니하려고 하지.} #2잘.{잘.}

10206 #2 잘 뵐뵐쨌다 그뻬.{잘 못했어요 그뻬.}

10206 @1 글레에 글레에 와 가지고.{근래에 근래에 와 가지고.}

10206 #2 글레에 오라가지고 그뻬 그뻬 잘 잘 허는 사르른 감저 뵐뿌라도 지정 흐쨌 쨌쨌. 그뻬사 그런 거 헤절쨌가.{근래에 와서 그뻬 그뻬 잘 잘하는 사람은 감자 튀김 지저서 조금 했지요. 그뻬야

그런 거 해졌습니까.}

10206 #2 김치.{김치.}

10207 @1 삼촌 겨론허고서 겨론허는 거 팔런해서 흑씨 즈미난 일 흑씨 기억나는 거 인쭈가?{삼촌 결혼하고서 결혼하는 거 팔런해서 흑씨 재미난 일 흑씨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10207 #1 예.{예.}

10207 @2 즈미나는 거.{재미있는 것.}

10207 #1 그 나가 어린 때 나영 팔런돼지 아년 겐또 이야기헤영 조쭈가?{그 나가 어린 때 나하고 팔런돼지 아년 것도 이야기해도 좋습니까?} @2 예 팔찬쭈다.{예 팔찬쭈다.}

10207 @2 왜냐하면 왜그러냐면 예를 들면 예나레.{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옛날에.} #1 예.{예.} @2머 실랑 드라메길 헐따든가.{뭘 실랑 달아매기를 했다든가.} #1예예.{예예.} @2 아니면 신방에서 영 창폼 창폼 고망 뜰/랑.{아니면 신방에서 이렇게 창문 구멍 뚫어서.} #1 예예.{예예.}

10207 #2 소리.{소리.}

10207 #1 나가 그 어린 때 이야기인데 그 일가에 일가에 잔치가 이서서 잔치 머그레 가니까. 우리 또.{내가 그 어린 때 이야기인데 그 일가에 일가에 잔치가 있어서 잔치 먹으러 가니까. 우리 또.}

10207 #1 우리 ㄱ튼 나이 또래 그 쁘당 아이더리 합쭈게. 그 당시.{우리 같은 나이 또래 그 쁘당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 당시.}

10207 #1 겐디 실랑이 떡 드러와네 상을 딱 아지난 상이 드러올 썸 아니올파?{그런데 실랑이 떡 들어와서 상을 딱 앉으니 상이 들어올 썸 아니예요.}

10207 #1 게난 그때 거 춤 장난더리 심헐파는 걸 나 이야기허젠 허는겍쭈.{그러니까 그때 거 춤 장난들이 심헐다는 것을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지요.}

10207 #1 아 상을 실랑쌍을 영 들러 와가니까.{아 상을 실랑쌍을 이렇게 들고 와가니까.}

10207 #1 우리 ㄱ튼 또래 안에서 장난 잘 피우는 아이더리 면 이쭈다. 게나제나.{우리 같은 또래 안에서 장난 잘 피우는 아이들이 몇 있습니다. 그러나저러나.}

10207 #1 화닥탁 기냥 그 상에 인는 득다리 냥. 득다리를 언주왕 양 도망치는 거라 마썸. 어.{화닥탁 그냥 그 상에 있는 닭다리 예. 닭다리를 그러모아서 도망치는 겍니다. 어.}

10207 #1 게난 또 흥 노른 또 독새기 놀 걸 또 이젠 화닥탁 지병 도망쳐부난

10207 #1 베런 보니까니 실랑쌍에 겨우 밥끄를만 남아서.{봐 보니까 실랑쌍에 겨우 밥끄를만 남았어요.}

10207 #1 아피 인는 건 원 흥나토 업썸.{앞에 있는 것은 원 하나도 없어.}

10207 #1 게나네 지반 어른드리 이 놈 생기겍떨 머.{그러니까 집안 어른들이 이 놈 생기겍떨 뭐.}

10207 #1 아주 몬헐진 헐텐 허멍 어디 그럴 쭈 인느냐 허멍. 바다 뉘그네 그걸.{아주 몬헐진 것 한다고 하면서 어디 그럴 수 있느냐면서 받아 놓아서 그걸.}

10207 #1 아 저 갈라주 갈라주건 아사주건 먹지 그 그러케 헐다고 허멍 막 야단쳐네 흥난.{아 저 갈라주 갈라주면 가져주면 먹지 그 그렇게 헐다고 하면서 막 야단치고 해서.}

10207 #1 아 그럼 그 꼬마덜 우리드른 허여네 도망덜들 쳐볼곡.{아 그럼 그 꼬마들 우리들은 해서 도망들 쳐볼고.}

10207 #1 난 그때 쭈 쭈름 더 동자기 느껴져신고라 기냥 그디 이서썸쭈. 인는데 밥.{난 그때 쭈 조금 더 동작이 늦어졌는지 그냥 거기에 있었지요. 있는데 밥.}

10207 #1 상을 다른 다시 강 출러오랜 허영.{상을 다른 다시 가서 차러오라고 해서.}

10207 #1 두 불 쌍을 출러 읍디다게. 그걸 어서부니까. 어서부니까. 출러단 흥멍 허난 이거 안헐 썸 안헐 썸 헐게 원 그 따문사 아닐헐쭈마는 그 살림드리 실랑 신부가 몬 썸디다.{두 번 상을 차러옴}

다. 그것이 없어버리니까. 업어버리니. 차려다 하면서 하니까 이거 안됐다. 안됐다. 했는데 원 그 때 문이 아닐테지마는 그 살림들이 신랑 신부가 못 살더군요.} @2 오.{오.}

10207 #1 예 묻삽디다 게. 예 갈령 허는 걸 받. 보멍 헨 지금도 이저버지질 아녀마씨. 그때 경혜 난 걸.{예 못살더군요 예 갈려서 하는 것을 봐아서 보면서 했는데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때 그렇게 했던 것을.}

10207 @2 겐디 예를 들면 그때 어려운 때 시저린데.{그런데 예를 들면 그때 어려운 때 시절인데.} #1 예.{예.}

10207 @2 득다리 가져가불고 득새기 가져가불면 상을 두 불 쌍을 볼 거시 업잔습니까?{답다리 가져가버리고 달걀 가져가버리면 상을 두 번째 상을 볼 것이 없잖습니까?}

10207 #1 게나네 가네 그자 그거는 저 그 꿩기영 몬딱 가 가진 꿩기 논 거알라 몬 훔쳐 도 여라이더라부난 거 확 쓰렁 가부나네.{그러니까 간에 그저 그 것은 저 고기하고 몽땅 가 가져서 고기 놓은 것까지 모두 훔쳐서 도 여라이들이어서 그것 확 쓸어서 가버리니까.}

10207 #1 기자 꿩기허곡 기자 득세긴 또 이서신고라 득따린 얼꼬.{그저 고기하고 그저 달걀은 또 있었는지. 답다리는 없고.}

10207 #1 게네 기자 노는 등 마는 등 혜네 가져오는 걸 받.{그러니까 그저 놓는 등 마는 등 해서 가져오는 것 보아서.}

#1 그 상 바드나네 그 다르믄.{그 상 받으니까 그 다음은.}

10207 #1 이젠 그디 이신 아이더른 너네더른 저 경 아년쓰니까 이거 허멍 갈라줍디다. 거기 대반 아진 사르미.{이제는 거기 있는 아이들은 너희들은 저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 이것 하면서 나눠주대요. 거기 앉은 대반 앉은 사람이.} @2예.{예.}

10207 #1 그 이저부지 아녀마씨.{그것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10207 #1 경허고 나가 장게 갈 때도는 가니까. 우리 나 장게갈 때는 가니까.{그렇게하고 내가 장가 갈 때도 가니까 우리 나 장가갈 때는 가니까.}

10207 #1 난 이디 생각만 허연 실랑 아페는 그 그치룩컨 꼬마 어린 아 소년들만 모이는 걸로 아 랫떠니.{나는 여기 생각만 해서 신랑 앞에는 그 그처럼한 꼬마 어린 아 소년들만 오니는 걸로 알았더니.}

10207 #1 나가 장게가는 이 사름신디 장게갈 땐 가니까 대포에.{내가 장가가는 이 사람한테 장가 갈 때 가니까 대포에.}

10207 #1 나 나 또래 이상 나 나이 수주네서 이상웬 선배들만 팍 아잔씨.{내 내 또래 이상 나 나 이 수준에서 이상된 선배들만 팍 앉았어.}

10207 #1 예. 게난. 아 게난 이젠.{아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는.}

10207 #1 아 지금 생각커민 우리 동세도 동세가 나 대바늘 아잔는데.{아 지금 생각하면 우리 동서도 동서가 나 대반을 앉았는데.}

10207 #1 에 저 인사소개 허커라.{에 저 인사소개 하겠어.}

10207 #1 에 이디 영 아진 어르니 영영 뉘텐 영허여그네.{에 여기 이렇게 앉은 어른이 이리이러하다고 이렇게해서.}

10207 #1 나가 실랑이 미테니까 미테 동세고 허니까.{내가 신랑이 밀에니까 밀에 동서고 하니까.}

10207 #1 아 경헨 마를 난창 얼마도 ㄹ라야 거시 조록 경혜야 웰 건디.{아 그래서 말을 낮추어서 얼마도 말해도 것이 좋고 그렇게 흥야 되는데.}

10207 #1 아 경을 아년 이 어르니 인사 소개 하겠습니다.{아 그렇게 앉아서 이 어른이 인사 소개 하겠습니까.}

10207 @2 예.{예.} .{웃음} #1하.{하.}

10207 #1 경허명 이제 누구누구 허길래 지금도 아 게난 난 그 어르니 저 우리 동세.{그렇게 하면서 이제 누구누구 하기에 지금도 아 그러니까 나는 그 어른이 저 우리 동서.}

10207 #1 춤 동선 도라가별쑤다마는 춤 나에겐 강 아주 극진헌 어르니언는데.{참 동서는 돌아갔습 니다마는 참 나에게는 강 아주 극진한 어른이셨는데.}

10207 #1 에 산 어느 춤 오래 사라시몬 그 마리라도 르명 우스개 허젠 헨는디 일칙 가부런 그 마를 몰 라쑤다마는.{에 산 어느 참 오래 살았으면 그 말이라도 말하면서 우스개하려고 했는데 일 찌 가버려서 그 말을 못 말했습니다마는.}

10207 #1 나가 그때 느낀 인상은 양.{내가 그때 느낀 인상은요.}

10207 #1 그제 이젠 기어게 나마 마쑤.{그제 이제 기억에 남아 있어요.}

## 6. 회갑 잔치

10218 @1 흑씨 예순 살 돼서서 환가비라 험니까? 회가비라 험니까?{흑씨 예순 살 되서서 환갑이 라 합니까?} #1 환갑.{환갑.} @1 그 잔치를 험디가?{그 잔치를 하셨습니다?}

10218 #1 잔치를 연나레는 환갑잔치를 허고 또 우리 육촌 아시 여기 알력찌비 삼 삼니다만.{잔치 를 옛날에는 환갑잔치를 하고 또 우리 육촌 동생 여기 아랫집에 삼니다마는.}

10218 #1 거긴 딸드리 출려와네 헨 나도 간 머그명 헨는데.{거기는 딸들이 차려와서 나도 가서 먹 고 했는데.}

10218 #1 난 우리 아이더리 허젠 허길래 허지 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하려고 하길래 하지 말 라.}

10218 #1 연나른 경헨찌만 지그몬 환가베 잔치허는 디가 업따.{옛날은 그랬지만 지금은 환갑에 잔 치하는 데가 없다.}

10218 #1 기자 출출허게 저 식꾸들끼리만 아자그네 춤 허민 돼지 아녀냐 허여네 기자 그 밥 흥기 헤여네 기자 먹는 걸로 끈날쑤다.{그저 조출허게 저 식꾸들끼리만 앉아서 참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 서 그저 밥 한 끼 하여서 그저 먹는 걸로 끝났습니다}

10218 @1 그 이저네 어른드론 그런 회갑잔치를 헨따는 애기 흑씨?{그 이전에 어른들은 그런 회 갑잔치를 했다는 애기 흑씨?} #1예. 마니.{예. 많이.} #1마니 허연꼬. 걸 받꼬.{많이 했고. 그것을 봤 고.} @1 봐꼬 예. 그 이야기 헤줍써. 그 회갑잔친 어떠케 봤고.{ 봤고 예. 그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 회갑잔치는 어떻게 하셨습니다?} #예.{예.}

10218 #1 거 나 나 어린 때에.{거 나 나 어린 때에.}

10218 #1 아마 초등 지금 나이 르트민 초등하꼬 시저레 본 거슨 우리 넛하르방이 넛하르방이 바 로 이 알력찌비 삼쑤게.{아마 초등 지금 나이 같으면 초등학교 시절에 본 것은 우리 넛할아버지가 넛 할아버지가 바로 이 아랫집에 살거든요.}

10218 #1 헤서 허는데 그 어르니 즈식뜨른 에 일본 살고.{그래서 하는데 그 어른이 자식들은 에 일본 살고.}

10218 #1 중무네 그 폰 따리 중무네 사는데.{중문에 환 딸이 중문에 사는데.}

10218 #1 중무네서 사위허고 따리.{중문에서 사위하고 딸이.}

10218 #1 이 친정 아방을 위해서 그 환갑잔칠 헨다고 헤서 이제 그 미리 알려신고라. 우리 나도. {이 친정 아버지를 위해서 그 환갑잔치를 헨다고 해서 이제 그 미리 알렸는지. 우리 나도.}

10218 #1 할머니영 허연 잔치 머그레 가젠.{할머니하고 해서 잔치 먹으러 가자.}

10218 #1 경헌 이딜 완 보니 췌에 바리로 시경 와십디다. 이 머글 음식글.{그래서 여기를 와서 보니 소에 바리로 싣겨서 왔습니다. 이 먹을 음식을.}

10218 #1 바리로 시경 완.{바리로 싣겨 와서.}

10218 #1 아 이젠 떠경 머 바병 춤 잔치를 버린 겁쥬. 그자 우리 보통 고기영 잔치찌베 ㄱ싸 곧뜨시 그러케 버런 허난.{아 이제는 떡이영 뭐 밥이영 참 잔치를 벌인 거지요. 그저 우리 보통 고기하고 잔칫집에 아까 말하듯이 그렇게 벌여서 하니까.}

10218 #1 그걸 이젠 아 만조케덜 헤네 저 일갈 어르덜영 머근 다오메 지반 어른더리 아주 칭찬늘 험디다게. 그 딸허고 사위안테.{그걸 이제는 맛조게들 해서 저 일가 어른들하고 먹은 다음에 집안 어른들이 아주 칭찬을 함디다. 그 딸하고 사위안테.}

10218 #1 사위안테 막 칭찬허멍 허연 허난.{사위안테 막 칭찬하면서 하고 하니까}

10218 #1 에 그런 기어기 나고.{에 그런 기억이 나고.}

10218 #1 갈 때 갈 때 나가 춤 본 건 갈 때는 이 하르방이 또 췌를 그만이 췌에.{갈 때 갈때 내가 참 본 건 갈 때는 이 할아버지가 또 소에 그만이 소에.} @2 시꺼쥬.{싣겨쥬.} #1 시경 쥬.{싣겨 쥬.}

10218 #1 췌를 아주 막.{췌를 아주 막.}

10218 #1 곱딱칸 췌를 이 하르방이 윈 누구 이 하르방이 춤상한 어르니난 양.{고운 췌를 이 할아버지가 윈 누구 이 할아버지가 꼼꼼한 어른이니까 예.}

10218 #1 이 이 존존헌 이 저 췌드를 마니 만드랑 양.{이 이 잔잔한 췌들을 저 많이 만들어서 예.}

10218 #1 경허영 두민 우린 그딘 강 빵 하르방이 워낙 잘 사라십쥬. 우리 넛하르방은 잘 사나네. {그렇게 해서 두면 우리는 거기 가서 봐서 우리 넛할아버지가 워낙 잘 살았지요. 우리 넛할아버지는 잘 사니까.}

10218 #1 강보민 가구가 기자 윈 어디 보통 치베 가구 아녕 막 그.{가서 보면 가구가 그저 윈 어디 보통 집에 가구 같지 않아서 그렇게 막 그.}

10218 #1 어 훔 모양새 조코 막 그 이 걸꼬라 워센 험니까? 막 이런 디 부친 그런 걸또 막.{어 한 모양새 좋고 막 그 이것을 워라고 합니까? 막 이런 데 붙인 그런 것도 막.} @2 장식.{장식.} #1 장식 막 부친 거 허민.{장식 막 붙인 거하고 하면.}

10218 #1 우린 어린 어린 때라도 아이구 저 저 저치룩 고운 가구도 인는가 허멍 막 머허멍 헨는데.{우리 어린 어린 때라도 아이고 저 저 저처럼 고운 가구도 있는가 하면서 막 워하면서 했는데.}

10218 #1 그건뜨를 췌 바리에 시꺼네 보뎡디다 게.{그것들을 소 바리에 싣고 보내더군요.}

10218 #1 에 경헤네 헤난 거 이저불지 아녀저 마썸.{에 그렇게 해서 했던 거 잊어버리지 않아요.}

10218 @1 그때 그 회갑쌍에는 주로 어떤 걸떠리 올라오는 고 예?{그때 그 회갑상에는 주로 어떤 것들이 올라오는가요?}

10218 @2 음식.{음식.}

10218 @1 올리는 걸뎡 예?{올리는 것들 예?}

10218 #1 머 회갑쌍에 올리는 거야 워. 여긴 나가 난 기어근 벨다른 거시 아니고 기자 떡덜 예. {워 회갑상에 올리는 거야 워. 여긴 내가 나는 기억은 벨다른 것이 아니고 그저 떡들 예.}

10218 #1 떡또 이 제사떡게 올른 거시 아니고 보통 문침떡 문침떡 헤네 노피 영 올린 거 봐꼬.{떡도 이 제사떡에 오른 것이 아니고 보통 무리떡 무리떡 해서 높이 이렇게 올린 거 봤고.}

10218 #1 또 기자 밥.{또 그저 밥.}

10218 #1 또 이 저 채소 ㄱ튼 건 기냥 보통 잔치 때 허는 거 그런 정도로.{또 이저 채소 같은 것



은 그냥 보통 잔치 때 하는 그런 정도로.}

10218 #1 경헌 걸로 알고 인쭈다마는. 그때.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10218 #2 꿩. 꿩지고기. {고기. 꿩지고기.}

10218 #1 에 꿩지고기사 게 으레 꿩지고기야 올름쭈게 꿩지고기. {에 꿩지고기야 으레 꿩지고기야 올름쭈게. 꿩지고기.}

10218 #1 꿩지고기 예. {꿩지고기 예.} @2 바른꿩기도. {바닷고기도.} @1 아 바른꿩기도 올름쭈게 꿩지고기 바른꿩긴 쭈 올름쭈. {바닷고기도 올름쭈 꿩지고기 바른꿩기는 쭈 올름쭈.}

10218 #1 과일 과이리 원 기억이 안 나는 디. 과일 올라신디 안 올라신디 모르쿠다. 과실. {과일 과일이 원 기억이 안 나는데. 과일이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실.}

10218 #2 요샌 과이리나 무신 거나 잔치만도. {요새는 과일이나 무신 거나 잔치만도.} #1 그 당시는. {그 당시.} #2 문 사진 치고 문 허주마는 그 당시는. {모두 사진 찍고 모두 하지마는 그 당시는.} #1 기자. {그저.}

10218 #1 멍는 거 위주로 혜영 그자 올라와서 마썸. {먹는 것 위주로 해서 그저 올라옵니다.} @1 멍는 거 위주로 특별리하는 거. {먹는 거 위주로 특별히 하는 거.} @1 특별리 문침떡 정도. {특별히 무리떡 정도.} #예예. {예예.}

10218 @1 요버네는 아까는 이제 겨론하고 회갑잔치까지 여쭙았는데. {요번에는 아까는 이제 결혼하고 회갑잔치까지 여쭙았는데.}

## 7. 장례절차에 대한 이야기

10220 @1 이버는 사라미 도라가썸썸 때 예. {이번은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예.} #1 예. {예.} @1 여쭙보쿠다 예. {여쭙보겠습니다.}

10220 @1 우선 그 전통저그로 예. {우선 그 전통적으로 예.}

10220 @1 장례를 끝낸 다음에. {장례를 끝낸 다음에.} #1 예. {예.}

10220 @1 끝낸 다음에 예 조상드리 하는 것까지 예. 사라미 도라가신 다음부터 제사지내는 것까지 과정 예. {끝낸 다음에 예 조상들이 하는 것까지 예. 사람이 돌아가신 다음부터 제사 지내는 것까지 과정 예.} #1 예. {예.} @1 과정을 쭈. {과정을 쭈.}

10220 #1 도라가서부터 예. {돌아가서부터 예.} @1 예예. {예예.}

10220 @1 이제 차근차근 고라썸썸. {이제 차근차근 말해 주십시오.} #1 예. {예.} @2 예를 들면 어르신께서 어머니미 그런 이를 당하셔따고 생각해 가지고 말썸썸 주시면. {예를 들면 어르신께서 어머니미 그런 일을 당하셨다고 생각해 가지고 말썸썸 주시면.} #1 예. {예.}

10220 #1 에 나 이저분 걸랑 꺾썸 썸 이. {에 나 잊어분 거는 말하고 해 이.}

10220 #2 꺾썸썸. 꺾썸썸. {말하십시오. 말하면.}

10220 #1 에 우선 어머니미 도라가며는. {에 우선 어머니미 돌아가면은.}

10220 #1 예. {예.} @2 운명헐따고 하면 어떠케 압니까. {운명헐따고 하면 어떻게 압니까.} #1 예. {예.} @2 운명헐따는 거. {운명헐따는 거.} #1 운명헐 때는 양. {운명헐 때는 예.}

10220 #1 이렇게 해서 저 코에 코에 이 저 숨 소를 영허영 대곡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 코에 코에 이 저 숨 소를 이렇게 대고 합니다.}

10220 #1 예. 경해서 운명이 확실하다고 하면 양. 그. {에 그렇게 해서 운명이 확실하다고 하면 예. 그.}

10220 #1 우선 소려물 허는 겁쭈 양.{우선 소려를 하는 거지요.} @2 예. 우선 그퍼게 기자 온 저 이 신 시늘 쟈 먼저 신 신찌곡 온 이러케 해서 입찌곡 경해서 그 혼쌈.{우선 급하게 그저 옷 저 신 신을 제일 먼저 신 신게하고. 옷 이렇게 해서 입히고 그렇게 해서 그 혼쌈.} @2 예.{예.}

10220 #1 혼쌈을 가정 지봉 우에 올라강 양.{혼쌈을 가져서 지봉 위에 올라가서 예.}

10220 #1 에 북쭈글 향행으네 세 번 보 보 행으네 어머니 보 보 허영 허곡. 이제.{에 북쪽을 향해서 세 번 보 보 해서 어머니 보 보해서 하고. 이제.}

10220 #1 거기 당한 에 아더리 홀 홀 경우에는 어머니 조근아더리나 누구 영 올라갈 땐 어머니 부르면서 보보 세 번 허는다.{거기 당한 에 아들이 할 할 경우에는 어머니 작은 아들이나 누구 이렇게 올라갈 땐 어머니를 부르면서 보 보 세 번 하는데.}

10220 #1 보통 상제드른 에 춤 거 이제 그 시신 여페서 영영 뒤희곡 허는 때문에.{보통 상제들은 에 참 그 이제 그 시신 옆에서 이렇게 뒤희하고 하는 때문에.}

10220 #1 보통은 조케드리나 아 친족웁 사라미 올라 강 대신 보를 힘니다게.{보통은 조카들이나 아 친족된 사람이 오라 가서 대신 보를 합니다.}

10220 #1 경헐 때는 에 아주머니 또는 삼추니른 삼춘.{그렇게 할 때는 에 아주머니 또는 삼춘이면 삼춘.}

10220 #1 경 거느리멍 적싸물 이러케 영 모아 저 이쪽 저 소매 쭈글 영 잡고 이디 증가느로 영 자방 영 들러그네 예.{그렇게 말하면서 적삼을 이렇게 모아 저 이쪽 저 소매 쪽을 이렇게 잡고 여기 중간으로 이렇게 잡아 들어서 예.}

10220 #1 들러그네 보보 세 번 험쭈. 영 허며는.{들어서 보보 세 번 하지요. 이렇게 하면.}

10220 #1 아픈 앞 이 집 ㄱ트민 압쭈게로 그 무신 거 팡 낱 올라가그네 내려올 때는 사다리 사다리 낱.{아픈 앞 이 집 같으면 앞쪽으로 그 무신 거 디딤돌 놔서 올라가서 내려올 때는 사다리 사다리 예.}

10220 #1 그걸.{그걸.} #2 산태엔 험쭈.{사다리라고 하세요.} #1 산태 산태로 헤그네 두이로허여 그게 사르미 또 대기힘니다 대기허민 사르미 그걸 마탕으네 두이로 내려와그네.{사다리 사다리로 해서 뒤로 해서 사람이 또 대기합니다. 대기하면 사람이 그것을 맡아서 뒤로 내려와서.}

10220 #1 그 혼 불러난 적싸물 적싸물 양.{그 혼 불러난 적삼을 적삼을 예.}

10220 #1 시신 머리뺨뒀레 영 노코.{시신 머리쪽으로 이렇게 놓고.}

10220 또 그 다음에는 즉씨 또 저 저 미음 양.{또 그 다음에는 즉씨 또 저저 미음 예.}

10220 #1 미음쌍을 상에 출령으네 그레 올립니다.{미음쌍을 상에 차려서 그 쪽으로 올립니다.}

10220 #1 그거 그런 거시 철썰 과정 다마뵈우다게. 경허곡.{그거 그런 것이 첫째 과정 닳아 보입니다. 그렇게 하고.}

10220 #1 그 다음에는 에 우선 지관한테 사라물 보냅니다.{그 다음에는 에 우선 지관한테 사람을 보냅니다.}

10220 #1 에. 지관한테 사라물 사라물 보내서 장사 테길 예.{에 지관한테 사람을 사람을 보내서 장사 택일 예.}

10220 #1 장사 테길 허는 겁쭈. 장사 테길.{장사 택일 하는 거지요. 장사 택일.}

10220 #1 또 장지 마련도 역시 그 이젠 뭘 딱 공동묘지에 다들 가고 일쭈다 마는.{또 장지 마련도 역시 그 이젠은 뭘 딱 공동묘지에 다들 가고 있습니다마는.}

10220 #1 장사 어떤 택지도 미리 슬퍼둔 디 지 지과니 ㄱ쭈 에 장사 저네 이제 가서 따도 보게 허고.{장사 어떤 택지도 미리 슬퍼둔 곳 지관이 같이 에 장사 전에 이제 가서 따도 보게 하고.}

10220 #1 이런 부탁글 힘니다. 허영 허민.{이런 부탁을 합니다. 하고 하면.}

10220 #1 영 장사 테길 허고.{이렇게 장사 택일 하고.}

10220 #1 테길 아시나른 일포날입쭈 예.{택일 전날은 일포날이지요 예.}

10220 @2 예.{예.} #1 일포나를 대비해서 모든 장 그 장사날 드는 모든 그 머시엔 험니까? 시설 빈디.{일포날을 대비해서 모든 장 그 장례식에 드는 모든 그 뭇이라고 합니까? 시설비인데.}

10220 #1 에 그 머 조바는 누게 마트멍.{에 그 머 조반은 누가 맡으며.}

10220 #1 뜰더리나 이제 아덜더리 할 때는 정시른 누가 마트라.{딸들이나 이제 아들들이 많았을 때는 점심은 누가 맡아라.}

10220 #1 일포 그 마나쭈 상제드리 마나쭈 때 경 겁니다. 일포나른 본가에서 마탕 허라.{일포 그 많았을 그 상제들이 많았을 때 그렇게 말합니다. 일포날은 본가에서 맡아서 하라.}

10220 #1 피려근 너가 망네니까 쥘 막똥이가 허라.{피력은 네가 막내니까 제일 막내가 하라.}

10220 #1 이러케 해서 음식 배당을 험니다. 이제 이 저 이 이걸 허는 나리 언제 허느냐 아무 때나 허는 거시 아니라 성복.{이렇게 해서 음식 배당을 합니다. 이 저 이 이것을 하는 날이 언제하느냐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성복.}

10220 @2 예.{예.} #1 게니까 예. 사라미 주그민 우선 빠진 거시 인쭈다. 입관 조관을 허지 아넘 니까. 예예.{그러니까 예. 사람이 죽으면 우선 빠진 것이 있습니다. 입관 조관을 하지 않습니까 예.}

10220 #1 에 조과늘. 이젠 뭐 관덜토 장의사에서 다 마탕 허주마는 연나렌.{에 조관을 이제는 뭐 관들도 장의사에서 다 맡아서 하지마는 옛날은.}

10220 #1 경험짜 다 지비.{그렇게 해도 다 집에.} @2 지비서 짜고.{집에서 짜고.} #1 지비서 짜고 경험쭈게 지베서.{집에서 짜고 그렇게 하죠. 집에서.} #2 게곡 지 조 조반 일가에서 조반 해오는 목시 조바허는 사름.{그리고 조 조반 일가에서 조반 해오는 사람 뭇이 조반하는 사람.} #1 게민 쁘당 더리 쁘당덜 이시민 쁘당덜 그.{그러면 쁘당들이 쁘당들 있으면 쁘당들 그.}

10220 #1 다 서로 상부상조허는 머스로 이제 일가더리 일포날까지 날짜가 혼 오일장 할 때 혼 치릴쭈 할 때 이러케 인찌 아넘니까? 허민.{다 서로 상부상조하는 뭇으로 이제 일가들이 일포날까지 날짜가 한 오일장 할 때 칠일장 할 때 이렇게 있지 안합니까? 하면.}

10220 #1 그 사이는 쁘당더리 나 내른 조반 내른 정심 해오쿠다 해오쿠다 허멍 그 사이는 쁘당더리 보통 마느면 우리 지바는 경 험디다. 경해서 이제 허고.{그 사이는 쁘당들이 나 내일은 조반 내일은 점심 해오겠습니까 해오겠습니까 하면서 그 사이는 쁘당들이 보통 많으면 우리 집안은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10220 #2 관차는.{관차는.} #1 게서 관차는 날 관차는 날 트키 경허곡 관헤그네 조관허곡 조관이 저 입관. 입파니 끈나며는 에 바로 성복글 허게 쁘쭈.{그래서 관차는 날 관차는 날 특히 그렇게 하고 관해서 조관하고 조관이 저 입관. 입관이 끝나면 에 바로 성복을 하게 되지요.}

10220 #1 게나네 성복게 올리지 모탄 에 제무른 그런 말이 인쭈다. 다 다음 소상이나 대상에도 못 올린다.{그러니까 성복에 올리지 못한 에 제물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다 다음 소상이나 대상에도 못 올린다.}

10220 #1 성복게 받드시 다 해야만 다음 제에도 허지 성복겐 이제 머 불급허텐 허영 아너고 다음에 허는 건 예가 아니다 경험니다.{성복에 받드시 다 해야만 다음 제에도 하지 성복엔 이제 뭐 불급 하다고 해서 아니하고 다음에 하는 것은 예가 아니다 그렇니다.}

10220 @2 예예.{예예.} #1 게서 성복겐 헌뎡헌 제물과 떡근 다 올라감니다. 떡근 떡근 다 올라가.{게서 성복에는 한다고 하는 제물과 떡은 다 올라감니다. 떡은 떡은 다 올라 가.}

10220 #1 게영 성복 성복게 게민 모다아지민.{그렇게 해서 성복 성복에 그러면 모여앉으면.}

10220 #1 두건이나 여자덜 포 쭈 짜름덜 팔촌까지 이러케 다 줍니다.{두건이나 여자들 포 쭈 사람

들 팔촌까지 이렇게 다 줍니다.}

10220 #1 요샌 뭐 친목이라고 해서 친목계원들도 주고 허는데. {요샌 뭐 친목이라고 해서 친목계원들도 주고 하는데.}

10220 #1 엔나레는 그런 팔촌 이내 다 줍쥬. {옛날에는 그런 팔촌 이내에 다 줬지요.}

10220 #1 경헨 경헨 그 거 성복제를 합니다. 성복. {그래서 그래서 그거 성복제를 합니다. 성복.}

10220 #1 두건 다 이거 입쪽 머리에 언지고 헌 다음에. {두건 다 이거 입고 머리에 얹고 한 다음에.}

10220 #1 성복제가 끝나며는 그때더러 상제더리 안쪽 일가 켤당더리 안자서 장예 장예 지낼 에 거를 의논허는 거라 마씨. {성복제가 끝나면 그때들은 상주들이 앉고 일가 켤당들이 앉아서 장례 장례 지낼 에 것을 의논하는 겁니다.}

10220 #1 케른 고싸 그뜨시 조반은 큰 상제가 허민 큰 상제가 헌다.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조반은 큰 상주가 하면 큰 상주가 한다.}

10220 #1 또 정시은 썩쌍제가 허라. 딱튼 잘 사니까 딸도 어 아침 아니 딱튼 보통 아침 조바늘 잘 마릅디다. 큰딱튼. {또 점심은 두번째 상주가 하라. 딸은 잘 사니까 딸도 어 아침 딸은 보통 아침 조반을 잘 말합니다. 큰 딸은.}

10220 #1 영해그네 음식 배당을 해 마씨. {이렇게 해서 음식 배당을 합니다.}

10220 #1 에 경해연 된 그 일폰날 조객덜 반쪽 일폰날 저녁게 저녁게 저녁제를 냉깁니다. {에 그렇게 해서 뒷 그 일폰날 조객들 받고 일폰날 저녁에 저녁에 저녁제를 지냅니다.}

10220 #1 에 저녁제 그 일폰제 또 일폰제를 냉깁쥬. {에 저녁제 그 일폰제 또 일폰제를 지내지요.}

10220 #1 일폰제 냉경. {일폰제 지내서.}

10220 #1 또 일폰제 냉경 이제 흥곡. {또 일폰제 지내서 이제 하고.}

10220 #1 된나른 아침 상뒤들 와그네 다 조반들 먹쪽. {뒷날은 아침 상두꾼들 와서 다 조반들 먹고.}

10220 #1 이제 그 출 출쌍혈 때는. {이제 그 출 출상할 때는.}

10220 #1 이제 그 상에 상에 딱커게 상에 해그네 상에 딱 모셔그네 축허며는 출발저니 이제 그 축 상제더리 들어상 절허곡. {이제 그 상에 상에 딱하게 상에 해서 상에 떡 모셔서 축 고하면 출발전에 이제 그 축 상주들이 들어서서 절하고.}

10220 #1 또 그때 소위 저 무슨 추겐 험니까? {또 그 때 소위 저 무슨 축이라고 합니까?}

10220 #1 추글 곧젠허난 이저별쥬. {축을 말하려고 하니 잊어버렸네.}

10220 #2 동관. {동관.}

10220 #1 동 게메 아니 동관해당 상에 노곡. {동 그러게 아니 동관해다 상에 놓고.}

10220 #1 에 동관혈 때도 마썸. {에 동관할 때도 그렇습니다.}

10220 #1 이 이 여기서 방아네서 상여께 입는 바깥 쪼그로 운구혈 때에 여기서 고향입니다. {이 이 여기에서 방안에서 상여께 있는 바깥 쪽으로 운구할 때 여기서 고향입니다.}

10220 #1 예. 떠 천고. 그밑 뭐 천고 천고 뭐 감 천고 감고 허는 이런 추글 해 마썸. 그냥 구두로 건. {예 뭐 천고. 금일 뭐 천고 천고 뭐 감 천고 감고하는 이런 축을 합니다. 그냥 구두로 그것은.}

10220 #1 케영 그디 가그네 상에 저저 그 상에 딱커영 흥민. {그래서 거기 가서 상에 저저 그 상에 딱하게 하면.}

10220 #1 상에 영 허는 걸떠른 그디 강 가만 보민 상뒤더리. {상에 이렇게 하는 것들은 거기 가서 가만 보면 상두꾼들이.}

10220 #1 에 그디 복친도 드러상 험니다마는 주로 상뒤더리 해서 저 영 완벽커게 무끄곡예 예. {에

거기 복친도 들어서서 합니다마는 주로 상두꾼들이 해서 저 이렇게 완벽하게 묶고 예.)

10220 #1 이러케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연결 종천하는 그 축고를 이제 헛쭈 예.{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연결종천하는 그 축고를 이제 하지요 예.}

10220 #1 그 축허니까 그 축 끈나자 상예를 일씨에 상뒤드리 아싸 허멍 그 확커게 이제 어깨 우 의로 맵니다게 예.{그 축고하니까 그 축 끝나자 상예를 일시에 상두꾼들이 아싸 하면서 그 확하니 이제 어깨 위로 맵니다 예.}

10220 #1 메영으네 이제 운상허는 겁쭈.{매서 이제 운상하는 거지요.}

10220 #1 운상허영 허민 맨 아페는 에 여자상제더리 사고.{운상하면은 맨 앞에는 에 여자 상주들이 서고.}

10220 #1 또 여자 그 분드리 또 그 받쭈 달민 거 아 견뵘고 무슨 주렌 힘니까?{또 여자 그 분들이 또 그 받쭈 닳은 거 그것 보고 무슨 물이라고 합니까?} @2 설배{설배} #1 설배 허영으네 이디 어깨에 메영 끄스곡.{설배 해서 여기 어깨에 메서 끌고.}

10220 #1 상 그 상예게 두에는 상제드리 뒤따라가명 아이고 아이고 흐멍 따라가곡.{상 그 상예게 뒤에는 상주들이 따라가면서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따라가고.}

10220 #1 영허영 장지까지 가며는.{이렇게 해서 장지까지 가면.}

10220 #1 에 장질 가면 또 거기도 방호를 정합니다. 정해서 그건 이 지과니 미리 정합니다. 테길 쌍에.{에 장지를 가면 또 거기도 방호를 정합니다. 정해서 그것은 이 지관이 미리 정합니다. 택일 상에.}

10220 @2 테길 께에 나온다 예.{택일 께에 나온다 예.} #1테길 께에 나옵니다.{택일 께에 나옵니다.}

10220 #1 어느 쪼게 그 방호가 정 겨니까 거기 강 모시렌 허연 그 일때 강 모십쭈. 모시며는.{어느 쪽에 그 방호가 정 그러니까 거기 가서 모시라고 해서 그 일대에 가서 모시지요. 모시면.}

10220 #1 음 에에 어떠다가 그 모미 제사 때문에 참배 못터거나 영헌 일가 뿐더리나 이에서 모미 그런 거 풀리며는 그날 장사날 당일로 그디 가서 처으므로.{음 에에 어떠다가 그 몸이 제사 때문에 참배 못하거나 이러한 일가 분들이나 이에서 몸이 풀리면 그날 장사날 당일로 거기 가서 처음으로.}

10220 #1 이제 상에 절허는 켜당도 인꼬 놔덜또 경헌 사름도 인꼬 합니다.{이제 상에 절하는 권당도 있고 남들도 그런 사람도 있고 합니다.}

10220 #1 경헤그네 시가니 웨어그네 하관 시가니 다가와가며는 에 하관제를 헛쭈.{그렇게 해서 시간이 되어서 하관 시간이 다가오면 에 하관제를 지내요.}

10220 #1 하관제를 허고.{하관제를 지내고.}

10220 #1 그 무들 떠는 아침부터 가서 목수드리영 일가분뜨리 가서 잘 해놓니다. 그디.{그 문을 떠는 아침부터 가서 목수들하고 일가 분들이 가서 잘 해놓습니다. 거기.}

10220 #1 경 시간 딱 뉘며는.{그렇게 시간 딱 되면.}

10220 #1 그 하관제 끝데 글로 이제 모십쭈 예. 그뻘 이제 영 들령 모성 갑니다. 그디까지.{그 하관제 끝에는 그리로 이제 모시지요. 그때는 이렇게 들러서 모셔서 갑니다. 그디까지.}

10220 #1 모셔강 허민 거기서 에 또 체를 합니다.{모셔가서 하면 거기서 에 또 체를 지냅니다.}

10220 #1 거기서 체 허는 거슨 그 관 논 다음에 또 그 멩전 멩전을 노코 거기에 또 그 논는 게. {거기서 체 지내는 것은 그 관 놓은 다음에 또 그 멩정 멩정을 놓고 거기에 또 그 놓는 것이.}

10220 @2 삽.{삽.}

10220 #1 \*\*. 삽 노코. \*\*\*\* 노코 경해서 그 멩전 드리는 건 큰 상제로 해서 드리게 허고.{\*\*. 삽 놓고 \*\*\*\* 놓고 그렇게 해서 그 멩정 드리는 것은 큰 상주로 해서 드리게 하고.}

10220 #1 어 그 다음에는 에 다 그런 거시 끝나며는 또 이제 조근 상자 춤 센상자 조근상즈 딸기 지 다 절혀 그레 절혀게 허고. 자늘 직접 드렁 허곡.{어 그 다음에는 에 다 그런 것이 끝나면 또 이제 작은 상주 참 둘째 상주 작은 상주 딸까지 다 절하 그리로 절하게 하고 잔을 직접 드려서 하고}

10220 #1 이거 끝나며는 에 개파늘 더끝쭈.{이것이 끝나면 에 개판을 더끝니다.}

10220 #1 에 개판 개파늘 더끝 때에 에 그 그대까지는 그자 항상 예고예고 저 소리를 내서 고글 허는데.{에 개판 개판을 덮을 때에 에 그 그때까지는 그자 항상 아이고 아이고 저 소리를 내서 곡을 하는데.}

10220 #1 개파늘 허영 딱 더끈 다음에는 그.{개판을 해서 딱 덮은 다음에는 그.}

10220 #1 이제 예고예고 허는 소리를 지곡허면 금 걸 금합니다. 겐또. 그만 올렌.{이제 아이고 아이고 하는 소리를 지곡해서 금 그것을 금합니다. 그것도. 그만 올라고.}

10220 #1 경혜그네 개판 더끈 다음에는 상제드리 드러사그네 멧 갈레쪽씩 그레 개광 쪽더레 멘 갈레쪽 그레.{그렇게 해서 개판 덮은 다음에는 상주들이 들어서서 멧 갈레쪽씩 그리로 개광 쪽으로 멧 갈레쪽 그리로.}

10220 #1 지 케우리민가 집어노민가 이러케 허며는 그 다음에는 상뒤드리 마타서 이제 @2 봉분 #1 봉분을 싸아가는 겐쭈.{지 흠어놓든가 집어넣든가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는 상두꾼들이 맡아서 이제 @2 봉분 #1 봉분을 쌓아가는 거지요.}

10220 계민 그 그거시 경혜영 계민 그디 경헨 때 영 영정은 그 머리쭈게 갈따냥 홈/니다게. 헨다가?{그러면 그 그것이 그렇게해서 그러면 거기 그렇게 할 때 영 영정은 그 머리쪽에 갖다놔서 합니다. 하다가.}

10220 #1 봉분싸키 이 싸키 헤가면 이젠 그 천막 친 그 처으며 그 \*\* 해 모셨던 상 상근 그 위치 간땅 그대로 또 모십니다.{봉분 쌓기 쌓기 헤가면 그 천막 친 처음에 그 \*\* 해 모셨던 상 상 차린 그 위치에 가져다가 그대로 또 모십니다.}

10220 #1 모셨으며 경허연 봉부니 다 끝나 자겹이 다 끝나며는 어떠켄냐 허면 그 끝난 다음에는 또 이제 제를 냉깍쭈. 거기서 예.{모셔서 그렇게 해서 봉분이 다 끝나 작업이 다 끝나면 어떠했냐 하면 그 끝난 다음에는 또 이제 제를 지냈지요. 거기서 예.}

10221 #1 제를 제를 냉기는데 요새는 예.{제를 제를 지내는데 요즘은요.}

10221 #1 연나라는 그 우제라고 허는데.{옛날에는 그 우제라고 했는데.}

10221 #1 우제가 지비 와서 허고 또 뒷날 허고 또 뒷날 허고 이러케덜 허열는데 이젠 예.{우제가 집에 와서 하고 또 뒷날 하고 또 뒷날 하고 이렇게들 하였는데 지금은요.}

10221 #1 모든 거 갈략허게 그 간소화허므로 우제를 세 번 허는 걸 하나로 주려서 우제추글 고향니다. 이제 예.{모든 거 간략하게 그 간소화하므로 우제를 세 번 하는 것을 하나로 줄여서 우제축을 고향니다. 이제 예.}

10221 #1 계연 저네 우리 저 으근 후제도 꼭 영 그 영정을 지비까지 모셔오민 친족덜토 지비까지 와서 게서 이제 우제를 헐는데.{그래서 전에 우리 저 성장한 후에도 꼭 그 영 영정을 집에까지 모셔오면 친족들도 집에까지 와서 그래서 이제 우제를 지냈는데.}

10221 #1 초우 초우제는 또 산소에서 허고 우제는 지비왕 허고 된나른 삼우제허고 경헨는데 이젠 다 장지에서 마차부러 마씨.{초우 초우제는 또 산소에서 하고 우제는 집에와서 하고 뒷날은 삼우제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다 장지에서 마쳐요.}

10221 #1 그러케 쫘 달라결썅니다. 이 세태가.{그렇게 쫘 달라졌썅니다. 이 세태가.}

10221 @2 그러면 다시 도라와서 일년 뉘면.{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일년 되면.}

10221 #1 예.{예.} @2 소상은 안 하는 거고.{소상은 안하는 것이고.} #1예.{예.}

10221 #1 일년되면 소상이고 다오메는 대상을 허는데.{일년 되면 소상이고 다음에는 대상을 허는데.}

10221 #1 그건또 이제는 예 우리 제주시 우리 켄당더른 경 아녕 아녀네 험디다. 헤네 나도 소상에 좀 가오고 헨쑤다마는 요센 어명헐찌 최그네 글레 7지도 경험떠다. 여기는.{그것도 이제는 예 우리 제주시 우리 켄당들은 그렇게 아니해서 험디다. 그래서 나도 소상에 좀 가오고 험쑤다마는 요세는 어떨는지 최근에 근래까지도 그렇게 험디다. 여기는.}

10221 #1 그런 거슨 좀 압써서마씨. 여기는 예 조개글 받는 소상 아념니다.{그런 것은 좀 앞섰습니다. 여기는 예 조개를 받는 소상을 하지 않습니다.}

10221 #1 여기는 그자 제사지내든 냉기는거라 마씨.{여기는 그저 제사지내듯 지내는 겁니다.}

10221 @2 야제.{야제.} #1 야제로 친족덜만 모아집니다. 가까운 친족만. 게니 소상이여 머머 어신 겁쑤.{야제로 친족들만 모아집니다. 가까운 친족만 그러니 소상이다 뭐뭐 없는거지요.}

10221 #1예예.{예예.} 기자.{그저.} #2 대상이나 소상은 다 업꼬.{대상이나 소상은 다 없고.} #1 소상이나 대상이나 얻고 추글 고희니다. 지반 식구들만 모여서 켄 일가 근족덜만 모여서 기자 일년 일년 그 저 소상 일녀느로 마치는 축만 고희니다.{소상이나 대상이나 없고 축은 고희니다. 집안 식구들만 모여서 켄 일가 근족들만 모여서 그저 일년 일년 그 저 소상 일년으로 마치는 축만 고희니다.}

10221 @2 그럼 답젠 안하겜쑤니다.{그러면 답제는 안하겜쑤니다.}

10221 #1 답제 답젠 허는 체 허고.{답제 답제는 하는 체 하고.} @2 허는 체 허고.{하는 체 하고.} #1 예 .{예.}

10221 #1 답제는 저건 난 그걸 생각해보며는 답제는 모든 거 예의 절차가 다 완벽하게 이루어질 때에 뉘 때에 답제를 허게끔 옐문허네도 그러케 뉘얼따고 우리 널타라버니 늘 그걸 주장하고 다소의 어떤 그 망인이 어떤 출타해서 하자가 인는 상태에 도라가 객싸를 허거나 이러면 답제헐 그런 거시 문뉘다고 해서 답제를 생략 생략키고 헨는데.{답제는 저것은 나 그것을 생각해보면 답제는 모든 거 예의 절차가 다 완벽하게 이루어질 때에 뉘 때에 답제를 하게끔 옐문헌에도 그렇게 되었다고 우리 넷 할아버지가 늘 그것을 주장하고 다소의 어떤 그 망인이 어떤 출타를 해서 하자가 있는 상태에 돌아가 객사를 하거나 이렇게하면 답제할 그런 것이 못된다고 해서 답제를 생략 생략하고 헨는데.}

10221 #1 아 요세 거 머 소상도 줄바로 아 저 아녀명 일녀네 마차불멍 허는 디 답제엔 허영 또 밤의 야제 흥니까 그건 압뉘가 마씨 아녀년쑤쑤.{아 요새 그 뭐 소상도 제대로 아 저 아니하면서 일년에 마치며 하는데 답제라고 해서 또 밤에 야제하니까 그것은 앞뉘가 맞지 않은거지요.}

10220 @1 주로 예 요새 말고.{주로 예 요새 말고.} #2 요새.{요새.} @1 요새 말고 예. 지금 그 무드고 문꼬 제 지낸 다오메 와서 지베서 저녁게 제사부떠 예. 그 삭망 답제 .{요새 말고 예. 지금 그 문고 문고 제 지낸 다음에 와서 집에서 저녁에 제사부터 예. 그 삭망 답제.}#1 아.{아}

10220 #1줄곡 줄곡 인꼬.{줄곡 줄곡 있고.}

10220 @2 그건까지 이거부터 시작해서 예.{그것까지 이것부터 시작해서 예.} #1 예.{예.} @1 지베와서부터 삼년쌍까지.{집에와서부터 삼년쌍까지.} #1 예.{예.} @1 옐날시그로 7라쑤쑤 예.{옐날식으로 말해주십시오 예.} #1 예.{예.} @1 오느레 비교하지 말고.{오늘에 비교하지 말고.} #1 어.{예.} @1 이제 장지에서 무더서 이제 지베 완 온 다오메.{이제 장지에서 묻어서 이제 집에 와서 온 다음에.} @2 봉분 싸코 도라온 겁니다.{봉분 쌓고 돌아온 겁니다.} #1 예. 삼년쌍 그걸 좀 자세하게 고라쑤쑤.{예 삼년쌍 그걸 좀 자세하게 말해주십시오.}

10220 #1 지베 지베 이제 모성 혼베글 모성 오며는 예 딱커게 쑤 그 안네뉘에 아주 쑤 모쑤쑤 쉘 쉘 큰 방에 모시 모시는데.{집에 이제 모셔서 혼백을 모셔서 오면은 딱하게 참 그 안방에 아주 쑤 모시지요. 가장 가장 큰 방에 모시 모시는데.}

10220 #1 그 아페는 이리케 상을 쨌쌍을 놉니다.{그 앞에는 이리케 상을 쨌쌍을 놉니다.}

10220 #1 쨌쌍 두에는 혼백쌍을 노코 그 뒤에는 쨌쌍을 칩니다. 쨌쌍 쨌쌍을 치고 .{쨌쌍 뒤에는 혼백쌍을 놓고 그 뒤에는 이리케 쨌쌍을 칩니다. 쨌쌍 쨌쌍을 치고.}

1022 #1 또 상제더리 지프는 이 예 방장때나 또 그.{또 상주들이 쨌는 이 예 방장때나 또 그.}@2 쨌땡이.{쨌대기.} #1 쨌땡이냥 그런 거슨 또 이제 영허민 오른쪄게 영허영 쨌 노읍쨌.{쨌대기 예 그런 것은 또 이제 이리케 하면 오른쪄에 이리케 해서 쨌 놓지요.}

10221 #1 노코 경해서 어 또 쨌 쳐오메 두 이제 제가 이제 우제쨌 예.{놓고 그렇게 해서 어 또 제 일 처음에 이제 제가 이제 우제쨌 예.}@2 예.{예.} #1 우제쨌글 허고 오명 오는 날 험니다. 우제쨌 .{우제쨌을 하고 오면서 오는 날 합니다. 우제쨌.}

10220 #1 그 다음 뒷날 삼우제쨌글 험쨌. 삼우제쨌.{그 다음 뒷날 삼우제쨌을 하쨌. 삼우제쨌.}

10220 #1 그 다오른 상식은 상시글 험니다. 상시켄 현 건 산 때 일냥으로 예 산 때 일냥으로 그 모신 어르니 아버님일 경우에 담배를 피우지 아님니까? 하면 담배 통대를 그냥 해서 예 쨌 쨌그네. 예 쨌 하루 세 번 아 쨌 잘 해서 효자는 더 현 덴도 험디다마는 보통 기자 예 시쿠에 이리케 해서 예 그 담배를 해서 그디 놓.{그 다음은 상식은 상식을 합니다. 상식엔 하는 것은 산 때 일처럼 예 산 때 일처럼 그 모신 어른이 아버님일 경우에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까? 하면 담배 통대를 그냥 해서 쨌 쨌해서 예 세 하루 세번 아 쨌 잘 하는 효자는 더 한다고 험디다마는 보통 그저 예 식후에 예 이리케 해서 그 담배를 해서 그디 놓서.}

10220 @1 불부쨌곡.{불불이고.} #1 불부쨌고.{불불이고.}

10220 #1 경해그네 담배통덜 반드시 경험꼬양.{그렇게해서 담배통들 반드시 그렇게 했고 예.}

10220 #1 게서 상시근 아침 저녁 날 쨌 그 식쨌 저 때가 쨌며는 우선 그디 강 올령 올려두곡 그 다오메 식구드리 먹는 거라 마쨌. 식쨌를.{그렇게 해서 상식은 아침 저녁 낮 쨌 그 식사 저 때가 되면 우선 거기에 가서 올려서 올려두고 그 다음에 식구들이 먹는 거예요. 식사를.}

10220 #1 게영 또 그 강 또 내릴 때도 승능을 올리곡 승능 올리고 허영 이제 여기서 산 때 일랑으로 경 경허곡 게곡 초허르 보름에 상망을 예 대상까지 계속 험니다. 이건 예 대상까지 예.{그렇게 해서 허고 또 그 가서 또 내릴 때도 승능을 올리고 승능 올리고 해서 이제 여기서 살 때처럼 그렇게 그렇게 하고 그러고 초하루 보름에 삭망을 예 대상까지 계속합니다. 이건 예 대상까지 예.}

10220 #1 허고 도라가서 배길 쨌 쨌는 날를 거의 기준 자바서 보통 석 떠립쨌 석 떠를 석 떠리 쨌며는 도라가서 석 떠리 쨌면 쨌고글 험니다. 쨌곡 예. 쨌고글 쨌고글 허고.{하고 돌아가서 백일 쨌 되는 날을 거의 기준 잡아서 보통 석 달이지요. 석 달이 석 달이 되면 돌아가서 석 달이 되면 쨌곡을 합니다. 쨌곡 예. 쨌곡을 쨌곡을 하고.}

10220 #1 게영 그 다음 쨌해오다가 일너니 예 도라간 날 일년 쨌가 예 저 소상을 냉기고 예. 소상.{그렇게 그 다음 쨌해오다가 일년이 예 돌아간 날 일년 쨌가 예 저 소상을 지내고 예 소상.}

10220 #1 소상 냉길 때는 동네 분드리 다 조무를 읍니다. 예.{소상 지낼 때는 동네 분들이 다 조문을 읍니다 예.}

10220 #1 조문 왕으네 예 다 이제 조무를 오테 예 연나레는 그 이 ㄱ쨌 하나 빠진 거 인는데 이 저 장산날 쨌 남자가 도라가서 이제 그 거랑 올리나 마나 참고로만험쨌.{조문 와서 다 이제 조문을 오되 예 옛날에는 그 이 방금 하나 빠진 것이 있는데 이 저 장산날 쨌 남자가 돌아가서 이저 저것은 올리나마나 참고로만 하세요.}

10220 #1 그 남자가 선비가 도라가면 만세를 쨌.{그 남자가 선비가 돌아가면 만서를 쨌.}@2 만세.{만서.} #1 만세를 쨌 해 글 아는 사라미며는 만세를 쨌 쨌 가그네 올령 그거시 부쨌니다. 부지 부지가 쨌고 .{만서를 쨌 해 글 아는 사람이면은 만서를 쨌 쨌가서 올려서 거것이 부조입니다. 부조 부



조가 되고.}

10220 #1 그거시 업써지건 다가 해방 후에까지도 그거시 마니 그 저 성행이 웨다가{그것이 없어진 데가 해방 후에까지도 그것이 많이 그 저 성행이 되다가.}

10220 #1 그 후에 /좀 뎨데 허다네 그거시 단절돼마써. 그 풍소기 만세까지 이젠 허지 말라허는 시그로 이젠.{그 후에 좀 몇 해 하가가 그것이 단절됩니다. 그 풍속이 만세까지 하지말라 하는 식으로 이젠.}

10220 #1 그 너무 복잡하다고해서 정부에서 간소화 머허기 때무네 경 돼부런꼬.{그 너무 복잡하다고해서 정부에서 간소화 뭐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버렸고.}

10220 #2 게른 영장갈 때 막.{그러면 운상할 때 막.} #1 영장갈 때.{영장갈 때.} #2 바로 흐문 . {바로 사뭇.} #1 예예 .{예예.}

10220 #1 경 소상 때나 대상 때에 기자 그 부지 봉투 부지 기자 약간씩 해서 다 조무드를 쉰쭈다. 예 조문드름.{그렇게 소상 때나 대상 때에 그저 그 부조 봉투부조 그저 약간씩해서 다 조문들을 했습니다. 예 조문들을.}

10220 @1 게른 일년치 소상까지 끈날꼬 예.{그러면 일년치 소상까지 끝나고 예.} #1 예.{예.} @1 게른 소상 일년치 끈난 다음 그 다음엔.{그러면 소상 일년치 끈난 다음 그 다음에는.}

10220 #1 그 다음 그 다음에 에 만 이년 짜는 두 돌 도라올 뎨 대상입쭈.{그 다음 그 다음에 에 만 이년 짜는 두 돌 돌아올 때는 대상이지요.}

10220 #1 대상이 또 하나 입쭈다. 이저분 게 입쭈다.{대상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잊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10220 #1 소상 때에 두거늘 번는 사람드리 심니다.{소상 때에 두건을 벗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220 #1 에 에 소상 때에.{에 에 소상 때에.} #2 사위{사위.} #1 사위 저 사위나 쉰당더리 소상에 두거늘 버쭈니다 에.{사위 저 사위나 권당들이 소상에 두건을 벗습니다 에.}

10220 #1 두거늘 버성 에 삼년까지 계속되는 사라른 상제 하남쭈. 예예 에.{두건을 벗영 에 삼년 까지 계속되는 사람은 상주 하나지요. 예예 에.}

10221 #1 겨고 상제드른 이 삼년쌍 너를 때꼬지는 에 이운찌비 조무늘 간다든지 어디 갈 때에 꼭 상보글 입꼬 뎡결쭈다. 이디는 예 상보글 상제 표시가 나타남니다.{그리고 상주들은 삼년상 념을 때까지는 에 이웃집에 조문을 간다든지 어디 갈 때에 꼭 상복을 입고 다녔습니다. 여기는 에 상복을 상주 표시가 나타남니다.}

10220 #2 이 두거이니 상보기니 플레이볼 시커명.{이 두건이니 상보이니 누비이불 시커명고.} #1 예.{예.} #2 이런디 뎡나명.{이런 곳에 뎡나면서.} #1 경해서.{그렇게 해서.}

10220 #1 상제는 뎨 그 저 쉰이니 몸이다 해서 부모를 모시니까 경건한 므으므로 허곡 누어 잘 때에도 그 뎡시우짜? 그걸 베어서 자고.{상주는 뎨 그 저 죄인의 몸이라고 해서 부모를 모시니까 경건한 마음으로 하고 누워 잘 때에는 그 무엇입니까? 그것을 베어서 자고.}

10220 @2 짹뎡이.{짹단.}#1 짹뎡이 경해서 항상 그 상 여플 떠나지 아녀고 초승이 웨어도 초승이 웨머는 또 그 동네 사는 분드리 상에 뎡기젠 옵니다.{짹단 그렇게 해서 항상 상 옆을 떠나지 않고 정초가 돼도 정초가 되면 또 그 동네 사는 분들께서 상에 다니러 옵니다.}

10220 #1 상에 뎡기젠 오머는 에 춤 상보글 그대로 입꼭켜서 기냥 그 오는 저 부더를 마지허곡. {상에 다니러 오면 에 참 상복을 그대로 입고해서 그냥 그 오는 저 분들을 맞이하고.}

10221 #1 이녁이 다 허영 그 오는 차례가 끈난 줄 아라야 혼 삼 스일 후에 또 상제와 상제끼리 이우세도 상제가 이실꺼 아니우짜? 케민 거기 이제 소위 문상허는 시그로 거기도 가서 저 배례허고 영해서 항상 그 상보글 이버서 살고.{자기가 다 해서 오는 차례가 끈난 줄 알아야 한 삼사일 후에 또

상주와 상주끼리 이웃에도 상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이제 소위 문상하는 식으로 거기도 가서 저 배례하고 이렇게 해서 항상 그 상복을 입어서 살고.)

10220 #1 또 신세대가 나가니까 이제 그건 또 업써져부런데 오슬 비록 상복근 안 입언찌만 어디 이 모자 연나렌 모자덜 마니 썬따고 모자 요디나 어디 요 가스메나 꼭 상제 그 베 그 표시헌 거슬 들 양 텅결쑤다.{또 신세대가 나가니까 이제는 그것도 없어져 버렸는데 옷을 비록 상복은 안 입었지만 어디 이 모자 옛날에는 모자들 많이 썼다고 모자 여기나 어디 요 가슴에나 꼭 상제 그 베 그 표시헌 것을 달아서 다녔습니다.}

10220 #1 상제더른 그런 거시 일써서 게서 대상에 제라헌 상제드른 그때에 에 탈보글 허게 웨는 겁쑤.{상주들은 그런 것이 있어서 그래서 대상에 정식 상주들은 그때에 탈복을 하게 되는 거지요.}

10221 #1 탈보글 허는데 에 제가 아 열뚜 시에 새로 아 열뚜 시에 냉긴다 허며는 에 혼 삼십뽀 저네 삼십뽀 저네 그 입뽀 오슬 다 탈복허고.{탈복을 하는데 에 제가 열두 시에 새로 열두 시에 지낸 다 하면 한 삼십 분 전에 그 입던 옷을 탈복하고.}

10220 #1 또 새로 새로운 창온광 새로운 두건 새로운 행전 이거슬 이뵈니다.{또 새로 새로운 창온과 새로운 두건 새로운 행전 이것을 입습니다.}

10220 #1 에 이걸 ㄱ라 이뵈니다.{에 이걸 같아 입습니다.} #2 두건.{두건 #1 에.{예.} #2 뽀랑 .{빨아서.} #에.{예.} #2 뽀라그네.{빨아서.} #1 계난 그 탈복켄 때는 이제 그 ㄱ싸 허나 빠결쑤다마는 친족덜도 소상에 탈복켄 때는 혼 번 이 저 상 아피 강 저 에고에고 고힐그네 양. 경헤그네 걸 그 다음에 탈복케 웬쑤.{그러니까 그 탈복할 때는 아까 하나 빠졌습디다마는 친족덜도 소상에 탈복할 때는 이제 그 한 번 이 저 상 앞에 가서 아이고아이고 고힐서 에 그렇게 해서 그것을 그 다음에 탈복 하게 됩니다.}

10220 #1 경헤그네 대상 때도 상제드리 탈보글 헌 다음에 새 오슬 가라입꼬 그래서 그 체를 마쑤니다. 에.{그렇게 해서 대상 대도 상주들이 탈복을 한 다음에 새 옷을 갈아입고 그래서 그 체를 맞쑤니다.}

10220 #1 대상체를 경헐 탈보켄 후에 대상체를 냉기는 거라 마쑤. 대상체.{대상체를 그렇게 해서 탈복한 후에 대상체를 지내는 겁니다. 대상체.}

10220 #1 경 냉겨서 게믄 저 그디덜 이쑤뽀면 머 방장때나 이런 걸뜨른 춤 깨끝터게 소각 양. 어디 문 바깥 어디 올레쑤에 이러케 다 태우고.{그렇게 지내서 그러면 저 거기들 있었던 뽀 상장이나 이런 것들은 참 깨끗하게 소각 예 어디 문 바깥 어디 길가쑤에 이렇게 다 태우고.}

10220 #1 게서 이제 대상이 냉겨진 거 아니우짜? 대상이 냉경 게믄 대상 냉겨서.{그렇게 해서 이제 대상을 지낸 것 아닙니까? 대상을 지내서 그러면 대상 지내서.}

10221 #1 에 .{에.} #2 석 뽀.{석 달.} #1 또 석 따리 차는 드래.{또 석 달이 차는 달에.} #2 담 체.{담체.} #1 에 걸또 머 정사일인가 무슨 즘 그 멧 무슨 정이를 테케가지고 게서 담체를 냉김쑤.{에 그것 또 뽀 정사일인가 무슨 참 뽀 그 어떤 정일을 택해서 그래서 담체를 지내지요.}

10220 #1 담체는 담체 냉기는 아 그 절차는 보통 지베서 제 냉기는 절차와 ㄱ뽤니다. 쑤디 추글 고힐니다. 거기 담체 .{담체는 담체 지내는 아 그 절차는 보통 집에서 제 지내는 절차와 같습디다. 그 런데 축을 고힐니다. 거기 담체.}

10220 #1 소상이나 대상이나 다 추근 고힐 마쑤.{소상이나 대상이나 다 축을 고힐니다.}

10220 #1 경헐 ㄱ치며는 담체를 냉경 다 ㄱ치면 에 부모의 삼년쑤이 완저니 ㄱ나는 겁쑤.{그렇게 해서 마치면 담체를 지내서 다 마치면 에 부모의 삼년상이 완전히 ㄱ나는 거지요.}

10220 @1 정확하게는 삼년니 안 웨는 거라 양. 결구근 예.{정확하게는 삼년은 안 되는 거지 예. 결국은 예.}

10221 #1 안태는 겁쭈.{안되는 거지요.}

10220 @1 일년 소상.{일년 소상.} #예예.{예예.} @1 그 다음은 이년 대상.{그 다음은 이년 대상.} #1 예예.{예예.} @1 석달.{석 달.} #예예 경해서 삼년.{예예 그렇게 해서 삼년.} @1 험쭈론 삼년 뉘지만 예.{험쭈로는 삼년 되지만 예.} #1 만 이년 쯤 영헌데 만 이년인데 기자 ㄱ름은 삼년상 삼년상. {만 이년 쯤 그렇게 만 이년인데 그저 말하는 것은 삼년상 삼년상.}

10220 @2 그래서 저희 전통저긴 장내는 끝나 예.{그래서 저희 전통적인 장내는 끝나 예.} #1 예.{예.}

10221 @1 그러며는 이제 아까 그 지금 사라미 도라가신 다음에 삼년 상 벙기는 거까지 다 말씀해 주신 거슨 전통저긴 거.{그러면 이제 아까 그 지금 사람이 돌아가신 다음에 삼년 상 지내는 것까지 다 말씀해 주신 것은 전통적인 것.} #1 예 전통저긴 거.{예 전통적인 거.} @2 전통저긴 거.{전통적인 것.}

10221 @1 이제는 그 전통저긴 거슨 이제 다 끝나고 예.{이제는 그 전통적인 것은 이제 다 끝나고 예.} #1 예.{예.}

10221 @1 요즘.{요즘.} #1 예.{예.}

10221 @1 요즘 사라미 도라가셔서 그 대상 끝날 때까지 소상 대상 아녀른 예.{요즘 사람이 돌아가셔서 그 대상 끝날 때까지 소상 대상 아니하면 예.} #1 예.{예.} @1 그까지 쯤 갈략하게.{그까지 조금 간략하게.} #1 예.{예.} @1 쯤 ㄱ라쭈썸.{말해주십시오.} #1 예.{예.} @1 요즘 싸람드리 주로 하는 예.{요즘 사람들이 주로 하는 예.} #1 예.{예.}

10221 # 1 아 요센 거 원 어떠던 어떠던 기주니 어십쭈.{아 요새는 거 원 어떠한 어떠한 기준이 없지요.} @1 언썰 예.{없지 예.} #1 제멋대로 각계약진이라노니.{제멋대로 각계약진이니까} @2 (웃음) @1 보통 삼춘네 지비서 허는 거.{보통 삼춘네 집에서 하는 것.} #1 보통 보통 허는 거 냥.{보통 하는 거 예.} @2 지바네서 허는 거.{지반에서 하는 것.} #1 지바네서 허는 거를 허기로 험쭈.{집안에서 하는 것을 하기로 하지요.}

10221 #1 계난 이게 사망자가 벙워네서 보통은 도라가면 거기에서 춤 제단 정해그네 설정행으네 다 허는 디 지비서 주건썸 경우에 예 늑신어른 지비서 주건썸 경우엔 예.{그러니까 이것이 사망자가 병원에서 보통은 돌아가면 거기에서 참 제단 정해서 설정해서 다 하는데 집에서 돌아가셨을 경우엔 늑으신네 집에서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예.}

10221 #1 우선 도라가며는 도라가게 뉘면 그 저 가까운 아.{우선 돌아가시면 돌아가게 되면 그 저 가까운 아.} @2 친척똥한테.{친족들한테.} #1 아 친척똥 안티 다 부고허는 건 머 예나리나 지그미나 ㄱ릅니다. 알리고. 도라간젠 ㄱ싸 허는 절차 저 고허기도 허고 예. 그 저 보 허고. 어 또 테길 받기 위해서 지관에 지관안티 보내는 건또 꼭 ㄱ트고 예.{아 친족들한테 다 부고하는 것은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알리고 돌아가셨다고 아까 하는 절차 저 고하기도 하고 예 그 저 보하고 아 택일 받기 위해서 지관에 지관한테 보내는 것도 꼭 같고 예.}

10221 #1 어 테기리 나고 어 요즈른 연날광 달라그네 보통은 기자 삼일짱 헤 마니 험니다.{아 택일이 나고 아 요즘은 옛날과 달라서 보통은 그저 삼일짱 많이 많이 합니다.}

10221 #1 기자 오일 이내에 아무리 머 나리 메켜도 저 오일짱 이내라 마썸. 보통 연나레는 경을 아녀썸다 게.{그저 오일 이내에 아무리 뭐 날이 막혀도 저 오일짱 이넵니다. 보통 옛날에는 그렇게 앓았습니다.}

10221 #1 테길 뭐 허기 위해서 토롱까지 행 막 허곡 보름꼬지 막 허곡. 아까 토롱 마른 안헤겘썸다마는. 영 험는데. 요센 저 보통 삼일짱 아니면 오 막 느저서 오일짱 이러케 저 험쭈 허고.{택일 뭐 하기 위해서 토롱까지 해서 막 하고 보름까지 막 하고 아까 토롱 말은 앓았습니다마는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저 보통 삼일장 아니면 오 막 늦어서 오일장 이렇게 저 하지요.

10221 #1 어 그 도라간 다음에 그 성복하는 걸 우리 경우 성복또 여기 지비서 합니다. 성복또 하고. {아 그 돌아간 다음에 그 성복하는 것 우리 경우 성복도 여기 집에서 합니다. 성복도 하고.}

10221 #1 성복 다음에 이제 그 상제드리 안자서 허민 자진허명 우리 며 저 모다드령으네 허쿠다. 대개 보통 모다드령덜 허곡. {성복 다음에 이제 그 상주들이 앉아서 하면 자진하면서 우리 뭐 저 모아서 하겠습니다. 대개 보통 모여서들 하고.}

10221 #1 엔나렌 짝 갈림이 이선는데 . {옛날에는 다 깃 가름이 있었는데.}

10221 #1 예. {예.} #2 성복컨 다음에 의료워네 문. {성복한 다음에 의료원에 모두.}

10221 #1 예예 이제 문 의료워네 가고 의료워네 가고 또 우리 여기서 기자 늑신 어른 살다가 병워네 난 병워네 안가켜 주거도 지비서 주그켜 경헌 어른드리 심니다 게. {예예 이제는 모두 의료원에 가고 의료원에 가고 또 우리 여기서 그저 늑으신네들 살다가 병원에 난 병원에 안가겠다 죽어도 집에서 죽겠다 그러한 어른들이 있습니다.}

10221 #1 야 제발 그디 가지 말라 가게 말라. 케민 우리 경우는 우리 지바닌 경우는 상에받 그디 영안시를 그 지어논게 이서 마씨. 영안실. {야 제발 거기에 가지 말라 가게 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 경우는 우리 집안인 경우는 상여받 거기에 영안실을 그 지언 놓은 것이 있습니다. 영안실.}

10221 #1 케민 그디 강 모십니다. 그디 강 모셨으네 에 그디 강 상 허곡 부리나 피와뿔 상뿔 피우고 초나 허여 뿔 완땅 장사나른 거길 가서 그 아폐서 춤 축 고헤그네 운상허는 걸로 고허고. {그러면 거기 가서 모십니다. 거기 가서 모셔서 에 거기 가서 향하고 불이나 피워두고 향불 피우고 초나 켜두고 왔다가 장삿날은 거기를 가서 그 앞에서 참 축 고해서 운상하는 걸로 고하고.}

10221 #1 경헤그네 경허영 하관 저 그 절차는 기자 약씨그로 다 허곡.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하관 저 그 절차는 그저 약식으로 다 하고.}

10221 #1 그날 다 장사가 다 끝나며는 그 천마게 그 모셨던 그 자리 왕 흥 버네 그 우제추글 흥 버네 모취부려. {그날 다 장사가 다 끝나면 그 천막에 그 모셨던 그 자리 와서 한꺼번에 그 우제추를 한꺼번에 마쳐버려.} @\*\*\*{\*\*\*} #1 예 흥버네 모취봅니다. {예 한꺼번에 마칩니다.}

10221 #1 모취볼곡 뭐 요새 무신 소상 대상 아념니다. 춤 저저 저저저 무신 거엔 골암찌. 저저 상망. {마쳐버리고 뭐 요새 무슨 소상 대상 안 합니다. 참 저저 저저저 무슨 것이라고 말한다. 저저 삭망.}

10221 #1 초허루 보름 상망 아념니다. 아녕. {초하루 보름 삭망 안합니다. 아니하여.}

10221 #2 초허루. {초하루.} #1 초. {초.} #2 보름 상망이 어서결쥬. {보름 삭망이 없어졌쥬.}

10221 #1 상망이 업 춤 상망 아니 머센 험찌. 상식 상시기 아 상시글 아념니다. {삭망이 없 참 삭망 아니 뵈이라고 한다 상식 상식이 아 상식을 안 합니다.} @1 아 상식. {아 상식.} #1 상시글 아녕 초허루에 초허루 뵈며는 상은 기냥 어디 흥 어 어디 이령에 저 어디 헤영. {상식을 안 해서 초하루에 초하루 되며 상은 그냥 어디 한 어 어디 벽장에 저 어디 해서.}

10221 @2 백짱에. {벽장에.} #1 백짱에 행 날땅 그제야 또 제사 텅길 때처럼 평풍 꺼넣으네 상 싱 거그네. {벽장에 해서 뵈다가 그제야 또 제사 다닐 때처럼 병풍 꺼내서 상 차려서.}

10221 #1 이제 . {이제.} #2 상망을. {삭망을.} #1 상망을 험쥬 예. 상망. {삭망을 하지요 예. 삭망.}

10221 #2 보름 상망. {보름 삭망.} #1 계난 보름 상망은 아녀고 초허루만 합니다. {그러니까 보름 삭망은 안하고 초하루만 합니다.}

10221 @1 저네 생각만 그러면. {전에 생각만 그러면.}

10221 #1 보 초허루 보름 흥 드레 두 번 허는 거신데. {보 초하루 보름 한 달에 두 번 하는 것인데.}

10221 #1 게그네.{그렇게 해서.} #2 베기레.{백 일에.} #1 예.{예.} #2 호는 디 셔.{히는 곳 있어.}

10221 #1 베기레 마치는디 요센 베기레덜 다 마친다고 하는데 우린 아직까지도.{백일에 마치는디 요새는 백 일에들 다 마친다고 하는데 우린 아직까지도 @2 일년.{일년.} #1 헤나나 마찬가지로. 며 경해서 돌 도라오면 소상날 도라오며는 그자 친족덜만 모여서 야제허든 축고는 형시근 축골허고.{헤나니까 마찬가지로 뭐. 그렇게 해서 돌 돌아오면 소상날 돌아오면 그자 친족들만 모여서 야제하듯 축고하는 형식은 축고하고.}

10221 #1 그 때는 또 두건이나 이 저 상복덜 번는 겐또 그자 친조기나 머시나 다 고뜨게.{그때는 또 두건이나 이 저 상복덜 벗는 것도 그자 친족이나 뵈거나 다 같게.}

10221 #1 이겐또 어떤 구벼리 이서야 뵈 켜 디 소상에 다 번는 겐 그자 상제기 상제허곡 맘 머거 서 그때 강 다 친족도 버서마씨.{이것도 어떤 구별이 있어야 되는 겐데 소상에 다 벗는 것을 상주까 상주하고 맘 먹어서 그때 가서 다 친족도 다 벗어요.}

10221 #1 그런 담제까지 하고 허는 체 허고 예.{그런 담제까지 하고 하는 체 하고 예.}

10221 @1 담제도 그날 가치 해 버립니까? 소상 때?{담제도 그날 같이 해 버립니까? 소상 때?} #1아니.{아니.}

10221 #1 담제는 예 그 그뻔 너머서 뭐.{담제는 예 그 그뻔을 넘어서 뭐.}

10221 #2 날 받.{날 봐서.} #1 날 받으네 석 딸 마니 힘니다.{날봐서 석 달 만에 합니다.}

10221 @1 아 겐또 석 딸 후 힘니까?{아 그것도 석달 후 힘니까?} #1 건 우리 지반에서 예 허는 절차고 다른 디 더른 어명사 힘신디 모르니까 나 근는 마리 이건 뭐 요즈믄 어떤 기준 어시 그자 지반마다 다 가문가례로 다 기자 각각 헤노니까{그것은 우리 집안에서 하는 예 절차이고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내가 말하는 말이 이것은 뭐 요즘은 어떤 기준이 없이 그자 집안마다 다 가문가례로 다 그자 각각 하니까.}

10221 @2 게난 가문가례가 아니라 집마다 다 제각각입쭈.{그러니까 가문가례가 아니라 집마다 다 제각각이지요.} 우리 영허쿠다 허민.{우리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면.} #1 짐바다.{집마다.} @2 웃어른안티 통보만 허면.{웃어른한테 통보만 하면.} #1 예예. 경 뵈별쭈다 게.{예예.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10221 @1 게문 삼년상 할 때는 소상이라는 마리 일꼬 대상이라는 마리 일꼬 담제라는 마리 일꼬 예.{그러면 삼년상 할 때는 소상이라는 말이 있고 대상이라는 말이 있고 담제라는 말이 있고 예.} #1 예예.{예예.} @1 경헌데 그러며는 일 년마네 지낸다면 그 일 년마네 지내는 건 건 소상이우파?{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일 년 만에 지낸다면 그 일 년 만에 지내는 것 그것은 소상입니까?}

10221 #1소상이 아넵쭈. 우리는 그걸 추게 기상이라고 추글 고희니다.{소상이 아니지요. 우리는 그것을 축에 기상이라고 축을 고희니다.}

10221 @1 기상이라고 힘니까?{기상이라고 힘니까?} #1 예.{예.}

10221 #1 기상을 보며는 그 저 혼 돌 기라.{기상을 보면 그 저 한 달 기라.}

10221 #1 이 그 기짜 아래 돌 월째 쓴 글입쭈.{이 그 기자 아래 달 월자 쓴 글이쭈.} @2 예예.{예예.} #1 게난 일너네 마친다 이겐쭈.{그러니까 일년에 마친다 이거지요.}

10221 @1 그걸 삼년상 할 때는 그러케 해서 소상 대상 담제로 구분헬타 예.{그것을 삼년상 할 때는 그렇게 해서 소상 대상 담제로 구분했다 예.} #1 예.{예.}

10221 @1 일 년 상 할 때는 지바네서는 그걸 기상이라고.{일 년 상 할 때는 집안에서는 그것을 기상이라고.} #1 기상이라고 해서 혼 버네 므화볼고 예.{기상이라고 해서 한 번에 마쳐버려 예.}

10221 @1 그 기상 끝난 다음에 석 딸 쭈에 담제를.{그 기상 끝난 다음에 석 달 쭈에 담제를.} #1

답제 예.{답제 예.} @1 한다고 예.{한다고 예.} #1 예.{예.} @1 계난 그 답제는 가트고 다만 소상 대상을 기상으로.{그러니까 그 답제는 같고 다만 소상 대상을 기상으로.} #1 기상으로 해서 예 예.{기상으로 해서 예 예.}

10221 #1 계난 저것도 예 어떻게 보면 춤 만짚 아녀 마썸.{그러니까 저것도 예 어떻게 보면 참 맞지 않아요.}

10221 @2 두거는 멘 촌까지 줘니까?{두건은 몇 촌까지 줘니까?}

10221 #1 두거는 우리는 이 저 저 저네는 팔촌까지마늘 헐쑤다. 우리 혼 으근 후제도 하르바지드리 아주 철썸해서 마썸.{두건은 우리는 이 저 저 전에는 팔촌까지 만을 했습니다. 우리 성장한 후까지도 할아버지들이 아주 철썸했습니다.}

10221 #1 절때 팔촌이상 아년거다 해서 모슬 박앙 딱 헐는데 그 후에 정보겐 헐 게 생겨 마썸. 정복.{절때 팔촌 이상은 안 한다고 해서 못을 박아서 딱 했는데 그 후에 정복이라고 한 게 생깁니다. 정복.}

10221 #1 친목계도 주곤냥 아 계 계 계원도 주곡. 이진 소위 정보그로 정으로 주게 돼니 이거 안 뵈따/ 놔더른 쓰는데 켤당 웨 못 쓰느냐 계난 이 군위오택도 그겁쑤마는 우리도 마찬가지로.{친목계도 주고 예 아 계 계 계원도 주고 이것 소위 정복으로 정으로 주게 되니 이것 안뵈다. 남들은 쓰는데 권당 왜 못 쓰느냐 그러니까 이 군위오택도 그거지마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10221 #1 촌수 가리지 안코 그자 켤당 통칭행 다 줘니다. 복친 그런 시기 돼서 아니 나뵈 뵈벼썸쑤. 시대가 .{촌수 가리지 않고 그자 권당 통칭해서 다 줘니다. 복친 그런 식이 돼서 아니 남용되어버렸쑤. 시대가.}

10221 @1 계난 예저네 복치는 팔촌까지우짜?{그러니까 예전에 복친은 팔촌까지입니까?} #1 예 팔촌까지.{예 팔촌까지.} @1 그 복치네는 친보기 포함 됩니까? 예저네 복치니라 허면?{그 복친에는 친복이 포함 됩니까? 예전에 복친이라하면?}

10221 #1 친보기엔 헐 마른 내 이제사 생긴.{친복이라 한 말은 나 이제야 생긴.} @1 이제야.{이제야.} #1 낸 말입쑤.{나온 말이지.} @1 예전 복치니라허면 계문 팔촌.{예전 복친이라하면 그러면 팔촌.} #1 팔촌이네만.{팔촌 이내만.} @2 예.{예.} #1 팔촌 이내만 허고.{팔촌 이내만 하고.} @1 성 팔촌이나 웨팔촌 다 ㄴ름니까?{성 팔촌이나 외 팔촌이나 다 같습니까?} #1 아니 웨간 업곡.{아니 외가는 없고.} @1 웨간 업곡.{외가는 없고.} #1 웨가는 저.{웨가는 저.}

10221 #1 저게 그 예무네 잘못 뵈뵈 헐는 디 웨삼촌 웨육촌은 웨스촌 웨스촌은 일따고 허는데 웨삼촌네 보기 업따고 헐 건 그 기로기 미스라고덜도 곧고 경허데. 하르방덜 아지면. 웨삼촌 주구민 보기 언뵈 헐쑤게. 그거시 어시니까 웨사촌은 쓰는데 무사 웨삼촌은 보기 어십니까 예.{저것이 예문에 잘못 되었다고 하는데 외삼촌 외육촌 외사촌 외사촌은 있다고 하는데 외사촌에 복이 없다고 한 것은 그 기록의 잘못이라고들 말하고 그런대요. 할아버지들 앓으면 외사촌 죽으면 복이 없다고 하지요. 그것이 없으니까 외사촌은 쓰는데 왜 외삼촌은 복이 없습니까}

10221 @1 계문 우리는 \*\*\*팔촌까지 쓰지만 웨스촌.{그러면 우리 \*\*\*팔촌까지 쓰지만 외사촌.} #1 웨사촌까지.{외사촌까지.} @1 복치네는 웨스촌니 포함미 됩니까?{복친에는 외사촌이 포함이 됩니까?}

10221 #1 쥬썸우다. 저건 원 정 정약키 어떤 계난 하르방드리 산 때에 이 그 제레 뵈시우짜? 그 저 쥬라민가 웨삼촌니 빠절따허여 복치네 계니까 저게.{글썸니다. 저것은 원 정 정확히 어떤 그러니까 하르방들이 살아계실 때에 이 그 제레 무엇입니까? 그 저 편람인가 외삼촌이 빠졌다하여 복에 복친에 그러니까 저것이.}

10221 #1 쥬디 웨스촌은 일따 허는 말 나가 확실히 모르쿠다 마는 그건 드 드러진 짐자기 나는데 양.{그러는데 외사촌은 있다하는 말 내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들 들어진 짐작이 나는데 예.}

10221 @1 케난 예저넨 웨스촌까지는 두거늘 쥘썬다.{그러니까 예전에는 외사촌까지는 두건을 쥘 습니다.} #1 예 주고 지그른 웨삼촌도 이레 쓰고 쓰고 게.{예 주고 지금은 외삼촌도 이레 쓰고 쓰고 예.}

10221 @1 포도 주고.{머릿수건도 주고.} #1 웨삼촌도 이레 쓰고 포도 주고. 예예 경 지금 건 머 과거부터 경 헨는데 예 하르방드른 산 때 웨삼추니 복이 업따 업따 헨 말 늘 그라 마씨.{외삼촌도 여기에 쓰고 포도 주고. 예예 그렇게 지금 그것은 뭐 과거부터 그렇게 했는데 예 하르방들은 살아 계실 때 외삼촌이 복이 없다 없다하는 말을 늘 했지요.}

10221 @1 케니까 과거에도 케니까 복치네 웨스추는 두건 쥘는데 웨삼초는 안 쥘따 이거지 양. 과거에.{그러니까 과거에도 그러니까 복친에 외사촌은 두건 쥘는데 외삼촌은 안 쥘다 이거지 예. 과거에} #1 아니.{아니.}

10221 #1 안 경해서 안 그걸 고집퍼는 아지퍼는 지반에선 그거시 이서 안 쥘는데 그게 다 주게 쥘 걸 잘 난 기로기 미스다.{안 그렇게 해서 안 그것을 고집하는 아집하는 집안에서 그것이 있어 안 쥘는데 그것이 다 주게 된 것을 잘 난 기록의 잘못이다.} @2 어.{아.}

10221 #1 예무네 그 자체가.{예문에 그 자체가.} @1 요세 와서는 친족또 주고 잘 아는 사람덜 주면 이걸 정보기라고 합니까?{요세 와서는 친족도 주고 잘 아는 사람들 주면 이것을 정복이라고 합니까?} #1 예 정복 .{예 정복.}

10221 #1 쥘당덜.{권당들.} @2 쥘당(권당.) #1 춤 춤 저 쥘당이 아니고 저.{참 참 저 권당이 아니고 저.} @1 도라가신.{돌아가신.} #1 친목계 친목계 우리 아버지 갑짱이 오셨꾸나 주근 우리 아버지 친구니까 흥나 드리라. 이거 정복.{친목계 친목계 우리 아버지 갑짱이 오셨꾸나 죽은 우리 아버지의 친구니까 하나 드리라. 이것이 정복.}

10221 @1 복친과.{복친과.} @2 정으로 주는 거.{정으로 주는 거.} #1 정으로 주는 거 친목계 친목계원덜 안티 주는 거.{정으로 주는 것 친목계 친목계원들한테 주는 것.}

10222 @1 잠시 잠시 쉬겜썬니다.{잠시 잠시 쉬겠습니다.} #1 또 허멍 막 헤연.{또 하면서 막 했어.}

10222 @1 영장쏘리(영장소리.) #1 달귀헨 뎀 모두 달귀허멍 퍽 찍고.{달구할 뎀 모두 달구하면서 퍽 찍고.}

10222 @1 케난 영장쏘리는 이젠 저년 몬터고 영장쏘리 헤 지쿠가. 송네 네지쿠과?{그러니까 영장소리는 이젠 전혀 못하고 영장소리 헤 지겜썬니까 흥내낼 수 있겜썬니까?} #2 영장쏘리 어디 송네지 커라.{어디 흥내내지겠어.} @1 송네지 모터고 달귀쏘리는 송네지 몬터고 양.{흥내 내지 못하고 달구소리는 흥내 내지 못하고 예.}

10222 #1#2 달귀쏘린 어어 달귀 어어 달귀.{달구소리 어어 달구 어어 달구.} #1 흥멍 팍 찍고 . {하면서 팍 찍고.}

10222 #2 경허멍 흥뭇 모다드렁 흥뭇 경 흥뭇 그거 케민 막뎀이 영장 메영 가난 건가?{그렇게 하면서 사뭇 모여들어 사뭇 그렇게 사뭇 그거 그러면 막대 영장 매어 갔던 것인가.}

10222 #1 아니 역뿔 만드는 거주 게.{아니 부러 만드는 거지요.}

10222 #1 역뿔 만들주게.{부러 만들지요.} #2 흥뭇.{사뭇.} #1 역뿔덜 만드랑.{부러 만들어서.} #2 저 서호리 가민 그.{저 서호리 가면 그.}

10222 #2 그 하르방허곡 이 동쥘 지비 이제 귀오기 선생이나 이제 그 하르방네 네 성제나.{그 할 아버지하고 이 동쪽집에 이제 귀옥이 선생이나 이제 그 하르방네 네 형제나.} #1 귀오기 교장.{귀옥이 교장.} #2 귀오기도 헤 날썬다.{귀옥이도 했었습니다.} #1 아버지 큰아버지 저 춤 당신 당신 큰아버지가 큰아더리니까 허곡 썬따버지 말썬따버지 목청 소리 조록 얼마나 잘 헤시키부텐.{아버지 큰아

버지 저 참 당신 당신 큰아버지가 큰아들이니까 하고 셋아버지 셋째아버지 목청 소리 좋고 얼마나 잘 했는지요.} #2 목청 조코. 서호리.{목청 좋고. 서호리.} #1 아주 문화제로 냉길 어르이랴쭈. 그 어른 딸들.{아주 문화제로 냉길 어르이였지요. 그 어른들은.}

10222 @1 다 도라가서부런 냥.{다 돌아가서버렸네 예.} #1 다 도라가부런.{다 돌아가버런.} #2 다 도라가부런 섯동네 살명.{돌아가선 섯동네 살면서.} #1 아이고 유명했어 그 때.{아이고 유명했어 그 때.}

10222 #2 잘도나 그 시저렌 바로 흐뭇{잘도 그 시절엔 바로 사뭇.} #1 어어 달귀 영 허영.{어어 달구 이렇게 해서.}

10222 #2 경허여그네.{그렇게 해서.} #1 그 사이에 마른 다 당신네냥으로 머찌게 멘들명 막 헨 쭈.{그 사이에 말은 다 당신네 생각으로 멋지게 만들면서 막 했지요.}

10222 @21 율끼기도 하고 율리기도 하고.{웃기기도 하고 율리기도 하고.} #1 율끼기도 흐곡 율리기도 흐곡 상제 달래기도 흐곡.{웃기기도 하고 율리기도 하고 상주 달래기도 하고.}

## 8. 제사에 대한 이야기

10223 @1 이제는 그 무꼬 와서 삼년상이든 일년상이든 지낭 탈쌍을 다 헨짜나 예.{이제는 그 문고 와서 삼년상이든 일년상이든 지나서 탈쌍을 다 했잖습니까 예.} #1 예.{예.}

10223 @1 탈쌍이 지난 다음에 제수도 허곡 식계도 허곡 멩질도 허곡 양 여기서 지낸편 식계는 어떤 걸뜨리 일꼬 멩지른 어떤 걸뜨리 이서나신고 마씨?{탈쌍이 지난 다음에 제사도 하고 제사도 하고 멩절도 하고 예 여기서 지냈던 제사는 어떤 것들이 있고 멩절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10223 #1 식계엔 현 건 그 이제 하르버지나 할머니 그 부모 이 도라간 나레 도라간 나를 기리기 위해서 냉기는 거슬 이제 보통 식계 나미 지베도 이제 밤 야제로 영 냉기는 걸 다 식계 식계 헨찌 식계 식계.{제사라고 한 것은 그 이제 할아버지나 할머니 그 부모 이 돌아가신 날에 돌아가신 날을 기리기 위해 지내는 것을 이제 보통 제사 남의 집에도 이제 밤 야제로 이렇게 지내는 것을 다 제사 제사 했지. 제사 제사.}

10223 @1 경허곡.{그렇게 하고.} #1 경허곡.{그렇게 하고.} @1 멩지른 예.{멩절은 예.}

10223 #1 멩지른 예 정월 초하르 그 정월 멩절.{멩절은 예 정월 초하루 그 정월 멩절.}

10223 #1 또 연나렌 단오멩질 우리 헨 땐 단오 멩절까지 꼭꼭 헨는데 단오 멩절 추석 멩절.{또 옛날에는 단오 멩절 우리 할 때는 단오멩절까지 꼭꼭 했는데.}

10223#2 한식.{한식.} #1 한식.{한식.} #2 한식까지 해수계.{한식까지 했습니다.} #1 한식까지 헨 쭈. 헨디 이.{한식까지 했쥬. 그런데 이.}

10223 @1 게민 멩지른 네 개파? 일너네?{그러면 멩절은 네 개입니까? 일년에?}

10223 #1 예 게난 우리 우리가 커선 한시근 예 허는 다가 벨로 어선꼬 그자.{예 그러니까 우리 우리가 커서 한식은 예 하는 데가 별로 없었고 그저.}

10223 #1 저 산.{산소.} #2 오월멩질.{오월멩절.} #1 산소에 가서 기자 지내는 정도 한시근 헨 쭈.{산소에 가서 그저 지내는 정도 한식은 했지.}

10223 #1 경허고 제라허게 지베서 크게 허른 이제 세 번.{그러하고 제대로 집에서 크게 하는 것은 세 번.}

10223 #1 게니까 정월 멩절허고 단오 멩절 추석 멩절 이러케 큰 멩지른 이 멩지른 아주 커가지고 예 일가더리 모이며는 ㄱ튼 그 고조 이하의 켜 자손덜 에 팔촌이네쭈 이.{그러니까 정월 멩절허고 단



오 명절 추석 명절 이렇게 큰 명절은 이 명절은 아주 커 가지고 예 일가들이 모이면 같은 그 고조 이  
하의 권 자손들 예 팔촌 이내죠 이.}

10223 # 1 팔촌 이제 보글 가튼 팔촌 이내의 권당드른 지금도 제사를 ㄴ치 냉깁니다 예. {팔촌 이제  
복을 같은 팔촌 이내의 권당들은 제사를 같이 지냅니다.}

10223 #1 제사를 냉기는데 예 이거시 나도 지금 황수 교유감하고 나가 팔촌 형젠디. {제사를 지내  
는데 예 이것이 나도 지금 황수 교육감하고 내가 팔촌 형제인데.}

10222 #1 에 그 손지더른 보면 우리가 손지로 따지며는 아드리 벌써 열 촌 웨불고. {에 그 손자들  
은 보면 우리가 손주로 따지면 아들이 벌써 열 촌 되어 버리고.}

10223 #1 손지가 웨면 열 두초니 웨부는 거 아니 예. 경해도 우리가 사라 인는 풍아는 제사를 ㄴ  
치허자 헤가지고 ㄴ치합니다. 멩저리나. {손주가 되면 열두 촌이 되버리는 것 아니 예. 그래도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은 제사를 같이 하자 해 가지고 같이 합니다 명절이나.}

10223 #1 게서 지금 우리는 그러케 허고 인는데 보통 팔초니 웨면 멩절도 같름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보통 팔촌이 되면 명절도 나눕니다.}

10223 #1 우리 우리 조상들토 팔촌 형제끼리는 너무 수정더리 하노코 방은 조꼬 음복허젠 허민  
이겁토 번거롭꼬 허니까 갈리자 헤서 갈란따고 힘니다. 게서 팔초노로 떡 갈란는데. {우리 우리 조상들  
도 팔촌 형제끼리는 너무 숫자들이 많고 방은 작고 음복하려고 하면 이것도 번거롭고 하니까 가르자  
헤서 갈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팔촌으로 딱 갈랐는데.}

10223 #1 에 우린 영 헤보니까 아 츠말로 모아들민 냥 방이 조가 마썸게. 게민 그런. {에 우리가  
이렇게 헤보니까 아 참말로 모아들면 예 방이 작습니다. 그러면 그런.}

10223 #1 게른 절른 아이더른 에 우리도 갈랑허게 갈랑허게 지네만 또 근는 아이덜코 이서 마썸.  
이서도. {그러면 젊은 아이들은 에 우리도 갈라서 하자 갈라서 하자 자기들끼라 또 말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있어도.}

10223 #1 에 우리 죽꺼드네 갈랑 허라. 우리 산 뎨 갈르지 몬턴다 경헤네 그대로 허고 인썸다  
게. {에 우리 죽겨들랑 갈라서 하라 우리 살아 있을 때는 가르지 못한다. 그래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  
다.}

10223 @1 한식 멩저른 산소에 강 헌다고 예? {한식 명절은 산소에 가서 헌다고 예?} #1 예. {예.}

10223 @ 1 성묘도 힘니까? {성묘도 힘니까?} #1 에 성묘를 허주. {에 성묘를 하지.}

10223 #1 묘제 우린 그. {묘제 우리는 그.} @1 한식 멩절 때. {한식 명절 때.} #1 게난 한식멩저른  
그 성묘허든 허질 안코. {그러니까 한식명절은 그 성묘하듯 하질 앓고.} @1 예. {예.} #1 그자. {그저.}  
@1 가볍게 제사 지내든. {가볍게 제사 지내든.} #1 가볍게 이녁 제사 지내는 아 조상이나 가서 이제  
가볍게 허는 거고. {가볍게 자기 제사 지내는 아 조상이나 가서 이제 가볍게 하는 것이고.}

10223 #1 에 묘제는 묘제는 우린 경험니다. 묘제는 입도쪼로부터 시작헤 가지고 우리가 나가 이제  
십 에 십구대 소닌데 십꾸대 소닌데. {에 묘제는 묘제는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묘제는 입도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내가 이제 십 에 십구대 손인데 십구대 손인데.}

10223 #1 에 나에 육대조까지 십구대로부터 나의 육대조까지 힘니다. {에 나의 육대조까지 십구대  
로부터 나의 육대조까지 합니다.}

10223 #1 게난 흔 사을을 사을을 헤 마썸. 사을을. 입도시조로부터 중세조로부터 또 이 우리 므을  
에 이 입향조로부터 허젠허민 사을을 힘니다. 요즘 때가 존 때니까 차로 멩기니까 불퍼는 어서 마썸.  
{그러니까 사을을 사을을 힘니다. 사을을 입도지소로부터 중세조로부터 또 이 우리 마을에 이 입향조  
로부터 하려고 하면 사을을 힘니다. 요즘 때가 좋은 때니까 차로 다니니까 불편은 없어요.}

10223 @1 예전인. {예전에는.} #2 전원 그런 거. {전엔 그런 것.} #1 게서 사뵐 사뵐 뜨레 힘니다.

이.{그래서 삼월 삼월 달에 합니다. 이.}

10223 #1 연나라는 예 그 하르방더리 근는 거 드르민 가으레 허고 보메 두 버늘 헨젠 합니다. 우리도 허는데.{옛날에는 예 그 할아버지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 가을에 하고 봄에 두 번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하는데.}

10223 #1 요걸 그 쪼금 주려서 주려서 세천일제추그로 세천일제엔 현 건 일너네 혼 번 제를 지낸다 현 겁쭈.{요것을 그 쪼금 줄여서 줄여서 세천일제축으로 세천일제라고 하는 것은 일년에 한번 제를 지낸다고 하는 거지요.}

10223 #1 게서 저 일년에 혼 번 보메 사뭇 뒤편는 사뭇 초하루 사뭇 보름 이 영 정혜가지고 합니다.{그래서 저 일년에 한 번 봄에 삼월 되면 삼월 초하루 삼월 보름 에 이렇게 정해서 합니다.}

10223 #1 게서 된날까지 사뭇 심유길까지 이러케.{그래서 뒷날까지 삼뭇 심유일까지 이렇게.}

10223 @1 묘제는 예저네는 봄허곡 그슬허곡.{묘제는 예전에는 봄하고 가을하고.} #1 그슬허고 우리 지바네도 허다가.{가을하고 우리 집안에도 허다가.}

10223 #1 이젠 그거시.{이제는 그것이.} @2 보메만.{봄에만.} #1 성략뒤편서 게서 그 추기 인는데 추기 그 우암 송시열 선생이 그때도 아마 가정 의례는 이쨌던 모양이라 예.{생략뒤편서 그래서 축이 있는데 축이 그 우암 송시열 선생이 그때도 아마 가정의례는 있었던 모양이라 예.}

10223 #1 너무 번거로우니까 사대부가에 시른 네 버늘 헨따는 겁니다. 게영 그걸.{ 너무 번거로우니까 사대부가에 실은 네 번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2 예 만쭈다. 계절별로 헨쭈다.{예 맞습니다. 계절별로 했습니다.} #1 계절별로 이걸 주려서 우암 송시열 선생이 추글 써 논 건데 지금 현재 새천일제추기 우암 송시열 선생 작푸미엔 합니다.{계절별로 이것을 줄여서 우암 송시열 선생이 축을 써 놓은 것인데 지금 현재 새천일제축이 우암 송시열 선생 작품이라고 합니다.}

10223 #1 게난 그 송시열 선생이 이 사계 선생이 수제 제잡쭈게.{그러니까 그 송시열 선생이 이 사계 선생의 수제자 제자지요.}

10223 #1 송씨집 선생허고 형 저 뭐 스촌형제간 형제간 뒤편고.{송씨집 선생하고 형 저 뭐 사촌형제인가 형제간 되고.}

10223 #1 게서 그 분 게니까 사계 선생이 우리 지바네 조상이니까 아 그 부네 그 제례뻘을 모든 걸 송상혜마쭈. 그튼 그 소위 경기학파에 그 계통을 우린 또 중시합니다게.{그래서 그 분 그러니까 사계 선생이 우리 집안에 조상이니까 아 그 분네 그 제례뻘을 모든 것을 송상합니다. 같은 그 소위 경기학파에 그 계통을 우리는 또 중시합니다.}

10223 #1 저 저 퇴계 선생 그디 보다도 우린 그 사계 선생 그 그 쪼그로 모든 제례뻘도 그딜 중심 지방 헨쭈.{저저 퇴계선생 그쪽 보다도 우리는 그 사계 선생 그 그 쪽으로 모든 제례뻘도 거기를 중심 잡아서 하지요.}

10224 @1 이젠 제사 지내는 절차를 예 무려 보쿠다. 식계 지내는 절차.{이제는 제사 지내는 절차를 예 물어보겠습니다. 제사 지내는 절차.} #1 예.{예.}

10224 #1 @1 지금 지내는 거 말고 예저네 지넌뎌 식계 예.{지금 지내는 거 말고 예전에 지냈던 제사 예.}

10224 #1 식계에 제무를 마련헤여그네 올리고 지방을 준비허고 상 싱그곡 파제까지 예 일너니 과정을 줌 생각나시는데로 엔날 께로 예.{제사에 제물을 마련해서 올리고 지방을 준비하고 상 차리고 파제까지 예. 일련의 과정을 줌 생각나시는데로 옛날 것으로 예.} #1 엔날께로 아.{옛날 것으로 아.}

10224 #1 지금 엔나라나 지그미나 우린 꼭 그대로 허니까 예. 근데 단 시간만 에 쪼금 변경뻘니다마는.{ 지금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는 꼭 그대로 하니까 예. 그런데 단 시간만 에 쪼금 변경뻘니다마는.} @1 예 그걸 줌 그라줍쭈?{예 그것을 쪼금 말해주십시오?}

10224 #1 에 변경된 거 쯤 다소 인꾸나 예. 우리 지바네 그 에 식계 그 제사 조상 모성 제사 지내는 절차는 경험니다.{에 변경된 것이 조금 다소 있구나 예. 우리 집안에 그 에 제사 그 제사 조상 모셔서 제사 지내는 절차는 그렇습니다.}

10224 #1 에 밤 계니까 저녁 일몰 시가니 돼며는 상을 싱금니다. 상을.{에 밤 그러니까 저녁 일몰 시간이 되면 상을 차립니다. 상을.} @2 예.{예.} #1 예.{예.}

10224 #1 일몰 시간 돼민 딱 저 맞추어서 예.{일몰 시간 되면 딱 저 맞추어서 예.}

10224 #1 상을 상을 싱그 상을 싱그는데 그 머 일일이 ㄱ릅니까? 아니면 평풍덜도 머 그런 거 ㄱ라야 될거우짜?{상을 차리 상을 차리는데 그 뭐 일일이 말합니까? 아니면 병풍들도 뭐 그런 것을 말해야 되겠습니까?} @1 ㄱ라줍써.{말씀해 주십시오.}

10224 #1 계니까 요 위치며는 이제 평풍을 이레 치고 또 상을 이리케 아페다 상을 노코 에 그 다 으메 제물드름.{그러니까 요 위치면 이제 병풍을 여기에 치고 또 상을 이렇게 앞에다 상을 놓고 에 그 다음에 제물들을.}

10224 @2 말씀하십씨오?{말씀하십시오?} #1 아.{아.}

10224 #1 제물드름 이제 상에 다 이제 올리곡 에 에 제물들 다 올린 다으메 에 그 제주 돼는 사르른 지방을 써서 이제 지방을 에 이제 앞전 아페 지방을 모십니다.{제물들을 이제 상에 다 이제 올리고 에 에 제물들 다 올린 다음에 에 그 제주되는 사람은 지방을 써서 이제 지방을 에 이제 앞에 앞에 지방을 모십니다.}

10224 #1 에 요즈른 그 지방 그 올리는 그 머시거과 그.{에 요즘은 그 지방 그 올리는 그 무엇입니까? 그.} @2 지방때가 인는데.{지방대가 있는데.} #1 지방때가 인는데.{지방대가 있는데.}

10224 #1 옛날에는 우리 커갈 때는 그게 업써서 평풍에다.{옛날에는 우리 커갈 때는 그것이 없어서 병풍에다.} @2 예.{예.} #1 지방을 이리케 부쟁 양.{지방을 이렇게 붙여서 예.} @2 예.{예.}

10224 #1 부쳐서 아버지인 경우 경혜연 그 지방을 올리고 그래서 평풍 영 머시 평풍 아페는 다 제물 올린 다으메 이결 영.{붙여서 아버지인 경우 그렇게 해서 그 지방을 올리고 그래서 병풍 이렇게 무엇 병풍 앞에는 다 제물 올린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2 초석 {초석} #1 초서그로 가려마씨. 가려.{초석으로 가립니다. 가려.}

10224 #1 게서 에 저를 아년썅니다. 옛날에는.{그래서 에 절을 안했습니다. 옛날에는.}

10224 #1 저를 아년 꼭 제사 때는 이제 즈시를 등경 예 즈시엔 현 건 에 열흐 시서부터 새로 요즘 시가느로 말하면 새로 흐 시 사이를 즈시라고 허는데.{제를 안 지내서 꼭 제사 때는 이제 자시를 당겨서 예 자시라고 하는 것은 에 열한 시로부터 새로 요즘 시간으로 말하면 새로 한 시 사이를 자시라고 하는데.}

10224 #1 즈시에 허는데 아 그 새 에 초는 축은 내야 된다 해서 보통 열두 시 반썅메 제를 냉깁니다. 흐 시 돼기 저네.{자시라고 하는데 아 그 새 에 초는 축은 내야 된다 해서 보통 열두 시 반 썅메 제를 지냅니다. 한 시 되기 전에.}

10224 #1 흐 시 돼기 전네 그 때야 딱커게 이제 제 이제 \*\*\* 제주가 제를 냉깁썅 허민 시간 돼시냐 허민 시간돼민 그걸 내리고 에 그 다으메 이제 우선 문체를 힘니다. 문체.{한 시 되기 전에 그 때야 딱커게 이제 제 이제 \*\*\* 제주가 제를 지내썅 하면 시간 됐느냐 하면 시간되면 그것을 내리고 에 그 다음에 이제 우선 문전제를 지냅니다. 문전제.}

10224 #1 문체엔 현 거슨 에 대문 아페 가서 간판현 그 거기도 제물 기자 간판커게 올리곡 해서 거기서 허는데.{문전제라고 한 것은 에 대문 앞에 가서 간단한 그 거기도 제물 그저 간단커게 올리고 해서 거기서 하는데.}

10224 #1 이 이거슨 난 어린 때는 건 문체 허면 기자 문전에 문전신을 위헌 제사이려니 경 생강

했는데.{이 이것은 난 어린 때는 그것은 문전제 하면 그저 문전에 문전신을 위한 제사이러니 그렇게 생각했는데.}}

10224 #1 커서 츠츠크 굳는 옴어른덜 굳는 걸 드르며는 영접 이레 오십씨? 허영 마지는 거라 마씨. 가령.{커서 차차 그 말하는 옛어른들 말하는 것을 들으면 영접 이쪽으로 오십시오? 해서 맞는 겁니다? 가령.}

10224 #1 이제 교수님더러 저기 오민 나 주인 입장에서 문또까지 나아 강 올라오십씨요? 이거시 우리 사는 때 사름드리 일량으로 그런 께기랍니다. 영접허는 그런 마지허는 거시다.{이제 교수님들이 저기 오면 내 주인 입장에서 문입구까지 나가서 올라오십시오> 이것이 우리 사는 때 사름들의 일량으로 그런 께기랍니다> 영접하는 그런 맞이하는 것이다.} @2 청신 예.{청신 예.} #1 예 청신.{예 청신.}

10224 #1 그런 걸로 험니다 허고.{그런 것으로 합니다 하고.}

10224 #1 게서 이제 문제가 끝나며는.{그래서 이제 문전제가 끝나면.}

10224 #1 문제는 간소하게 기자 흐 사름만 허영 됩니다. 허영 끝나며는.{문전제는 간소하게 그저 한 사람만 해서 됩니다.}

10224 #1 그 다음에는 에 제관드를 정험니다.{그 다음에는 에 제관들을 정합니다.}

10224 #1 제관드를 이제 어른더러 누구 초헌 허라 누구는 아헌허라 또 짐네는 누가 허라 해서 정 허며는 이 사름더러 이제 해서 관수를 헤마씨.{제관들을 이제 어른들이 누구 초헌하라 누구는 짐네는 누가 하라 해서 정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해서 관수를 합니다.}

10224 #1 관수물 떠오라 허민 관수 물 수짜.{관수물 떠와라 하면 관수 물 수 자.}

10224 #1 게서 초헌 초허는 대략 그 지바네 종손이나 큰아덜 양. 우리 경우는 난 항상 우리 큰 아덜 시킵쥬.{그래서 초헌 초헌은 대략 그 집안에 종손이나 큰아들 예. 우리 경우는 나는 항상 우리 큰 아들 시키지요.}

10224 #1 나 이제 늘거절따고 난 이제 그 당한 아버지도 난 아넘니다. 그자 그 아덜덜허여그네 시경 영.{나는 이제 늙어졌다고 나는 이제 그 당한 아버지도 나는 안합니다. 그저 그 아들들 해서 시켜서 이렇게.}

10224 #1 게서 초허니 드러사서.{그래서 초헌이 들어서서.}

10224 #1 우리 지반이 다른 지반허고 틀린 거시 하나 일썩니다. 우리는.{우리 집안이 다른 집안하고 틀린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10224 #1 에 그 강신을 먼저 험니다. 말허자면 에 다른 지반엔 즈손더령 그자 흔버네 일똥 상드레 절헌 다음에 초허니 드러사그네 이러케 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에 초허니 딱 드러사서 분양 해서 자늘 드린 다음에 이진 톡트칸 우리 광산 김씨 지바는 이런 전통이 일썩니다. 에.{에 그 강신을 먼저 합니다. 말허자면 에 다른 집안엔 자손들이랑 그저 한꺼번에 일똥 상에 절헌 다음에 초헌이 들어서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에 초헌이 딱 들어서서 분향해서 잔을 드린 다음에 이것은 독특한 우리 광산 김씨 집안은 이런 전통이 있습니다. 에.}

10224 #1 경헌 다음에 그 분양 예 분양 허여그네 영영 어 그 모세에 이 거 세 번 지버너코 그 다음 거기 자늘 올려서 세 번 영 둘러서 에 여기 그 모세 꺾시에 세 번 똑똑 비웁니다.{그렇게 한 다음에 그 분향 예 분향해서 이렇게 이렇게 어 그 모사꺾시에 이것을 세 번 집어넣고 그 다음 거기 잔을 올려서 세 번 이렇게 에 여기 그 모사 꺾시에 세 번 똑똑 비웁니다.}

10224 #1 경 이러사며는 그뻐 에 종헌까지 삼하늘 비릇테서 전 조스니 일똥 베레를 험니다. 에.{그렇게 일어서면 그때는 종헌까지 삼헌을 비롯해서 전 자손이 일똥 배레를 합니다. 에.}

10224 #1 일똥 베레를 헤영 그 다음에 우린 계난 이제 친족더른 영 흐 사름더른 여피덜 영 앓꼬

삼헌만 절협쥬. 삼헌만 절하고 나서 그 다음 초허니 초헌 혼자만 드러사서 췌자를 올립니다.{일동 배례를 해서 그 다음에 우린 그러니까 이제 친족들은 영 한 사람들은 옆에들 앉고 삼헌만 절하지요. 삼헌만 절하고 나서 그 다음 초헌이 초헌 혼자만 들어서서 첫잔을 올립니다.}

10224 #1 췌짜늘 올리며는 에 짐네는 그 자늘 바다서 올리고 제부물 이 메 저.{첫 잔을 올리면 에 짐네는 그 잔을 받아서 올리고 젓가락을 이 메 저.} @2 채소.{채소.}

10224 #1 채소 인는 거 무시거엔 험니까? 저 탕쉬.{채소 있는 거 뵈이라고 험니까? 저 채소.} @2 탕쉬.{채소.} #1 탕쉬 인는디레 제를 이러케 겹니다. 영 영 제를 걸고 게를 또 게를 으라 게를 으라 마씨. 여러.{채소 있는 곳으로 젓가락을 이러케 겹니다. 이러케 이러케 젓가락을 걸고 밥두경 또 밥두경을 열어 밥두경을 엽니다. 열어.}

10224 #1 게문 그거 경해서 초허니 두 번 절행 무너사며는.{그러면 그것 그렇게 해서 초헌이 두 번 절해서 무너서면.}

10224 #1 아허니 또 드러사서 에 드러사민 또 자늘 거두아서 또 새로 새 자네 이제 험니다. 헌디 췌 초헌 드러살 때는 보통 우리는 감주를 씹니다. 감주.{아헌이 또 들어서서 에 들어서면 또 잔을 거두어서 또 새로 새 잔에 이제 험니다. 하는데 첫 초헌이 들어설 때는 보통 우리는 감주를 씹니다 감주.}

10224 #1 게서 아헌부터는 이제 제주를 씹니다. 소주.{그래서 아헌부터는 이제 제주를 씹니다. 소주.}

10224 #1 이제 제주나 청주 제주를 쓰는 데 아허는 드러사서 절하며는.{이제 제주나 청주 제주를 쓰는 데 아헌은 들어서서 절하면.}

10224 #1 또 그 저 짐네드리 제부물 또 영영 이걸 머 가른덴 험니까. 영해서 제부물 똑똑 올릴땀 똑 놓니다.{또 그 저 짐네들이 젓가락을 또 이러케 이러케 이것을 뵈 가른다고 험니까? 이러케 해서 젓가락을 딱딱 올렸다가 딱 놓니다.}

10224 #1 게민 에 절허영 또 두 번 허영 무너사며는.{그러면 에 절해서 또 두 번 해서 무너서면.}

10224 #1 그 다음은 종헌 차례 아납니까? 종헌이 드러 드러사서 ㄹ때 시그로 해서 자늘 드리며는.{그 다음은 종헌 차례 아납니까? 종헌이 들어 들어서서 아까 식으로 해서 잔을 드리면.}

10224 #1 에 이건 쯤썸 춤 머험니다. 우리 허는 거만 이야기 허겜썸니다 예.{에 이것은 조금 참뵈험니다. 우리 하는 것만 이야기 하겜썸니다 예.}

10224 #1 허며는 그때는 종허니 올리며는 자늘 드리며는 수저를 들러서 메에 이러케 꼬썸니다. 이러케 메에.{하면 그때는 종헌이 올리면 잔을 드리면 수저를 들어서 메에 이러케 썸썸니다. 이러케 메에.}

10224 #1 메에 꼬장 또 제도 마찬가지로 혼 번씩 소느로 가서 가름 가름험니다.{메에 썸아서 또 제도 마찬가지로 한 번씩 손으로 가서 가름 가름험니다.}

10224 #1 경헤그네 무너사며는 이머는 침자기라고로 해서.{그렇게 해서 물러서면 이번은 침작이라고 해서.}

10224 #1 침자기라고 해서 그 초허니 이 다른 자네 에 떠서 다시 아페 가서 이제 배례허 아 배례헌 다음에 배례하며는.{침작이라고 해서 그 초헌이 이 다른 잔에 에 떠서 다시 앞에 가서 이제 배례허 아 배례한 다음에 배례하면.}

10224 #1 그 짐네가 그 침자네 이제.{그 짐네가 그 침잔에 이제.} @2 수를.{술을.} #1 주민 그걸 바다 올리며는 에 청객 춤 저 짐네는 그 자네 각각 잔 하나에 세 번씩 이건 침자기니까 똑똑똑 비웁니다.{주면 그것을 받아 올리면 에 청객 참 저 짐네는 그 잔에 각각 잔 하나에 세 번씩 이것은 침작이니까 똑똑똑 비웁니다.}

10224 #1 비와그네 비우며는 그 다음 절 할 때는 초헌 혼자만 절하지 안코 그 침작 경 할 때는 삼한 세 제과니 동시에 그치 절합니다.{비워서 비우면 그 다음 절 할 때는 초헌 혼자만 절하지 않고 그 침작 그렇게 할 때는 삼한 제관이 동시에 같이 절합니다.}

10224 #1 절 해그네 딱 끝나 이제 침자기 끝나지 안합니까? 끝나며는 함문을 합니다. 함문.{절해서 딱 끝나 이제 침작이 끝나지 않습니까? 끝나면 함문을 합니다. 함문.}

10224 #1 에 방아에선 경우엔 무늘 다듬네다.{에 방안에서 할 경우에는 문을 단습니다.}

10224 #1 또 방아니 아니 저 마루에 쪼기민 초서그로 꿩풍을 가려 마씨.{또 방안이 아니 저 마루에 쪽이면 초석으로 병풍을 가립니다.}

10224#1 가려그네 약 혼 에 일 분 아무리 모테도 일부늘 너머 경과허도록르 해서 침무를 지킵니다. 경.{가려서 약 한 일 분 아무리 못해도 일부를 넘게 경과하도록 해서 침목을 지킵니다. 그렇게.}

10224 #1 가마니 가령 해서 혼 일부니 다 너드며는 야 저기 승냥 거러오라.{가만히 가려서 해서 한 일부이 다 넘으면 야 저기 승냥 떠 와라.}

10224 #1 케민 부어게서 승냥덜 떠오며는 이젠 짐네가 그때는 무늘 올거나 초서글 내리거나 해서 거기 이제 갹 갹갹 갹갹 사바를 혼 췌디레 밀려두고.{그러면 부엌에서 승냥들 떠오면 이제는 짐레가 문을 열거나 초석을 내리거나 해서 거기 이제 국 국 국 사발을 한 쪽으로 밀어두고.}

10224 #1 그 자리에 승냥을 노코 세 번 메에 인는 메에 바블 세 번 푹푹 거러놈니다. 다 거러놈. {그 자리에 승냥을 놓고 세 번 메에 있는 메에 밥을 세 선 푹푹 떠 놉니다. 다 떠서.}

10224 #1 거러논 다오메 에 수 그 수까라글 이러케 뚜경 다든 메에 이러케 이거시 갹 구기민 // 으러케 언저놈니다. 으러케 언저낭.{떠 놓은 다음에 에 수 그 수저를 이러케 뚜경 담은 메에 이러케 이것이 국이면 요렇게 얹어 놉니다. 요렇게 얹어 놉서.}

10224 #1 이러케 언저노며는 논 다오메 에 그 상 짐네가 부복.{이러케 얹어 놓으면 놓은 다음에 에 그 상 짐레가 부복.}

10224 #1 부복허는 거슨 이제 우리 부복이라고힘쭈. 부복.{부복하는 것은 이제 우리 부복이라고하지요. 부복.}

10224 #1 머 잘 어떤 때는 보민 지고기니 머 몽념허는 말도 요즘 쓰는데 그 마를 쓰지 안습니다. 부복 이거시 순수한 우리 그 조상드리 해온 마린데 저 업뜨려 업뜨리렌 현 말입쭈. 부복.{뭐 잘 어떤 때는 보면 지곡이니 뭐 묵념하는 말도 요즘 쓰는데 그 말을 쓰지 않습니다. 부복 이것이 순수한 우리 그 조상들이 해온 말인데 저 업뜨려 업뜨리라고 하는 말이지요. 부복.}

10224 #1 부복허며는 다 업띠영 업띠영 기도허는 겁쭈. 믱음 쏘그로.{부복하면 다 업뜨려 업뜨려 기도하는 겁니다 마음 속으로.}

10224 #1 믱음 쏘그레 기자 그 아버님 아버니미 영 영에 대해서 와의 대화입니다. 기냥 믱음 쏘그로.{마음 속으로 그저 그 아버님 아버님의 영 영에 대해서 영과의 대화입니다. 그냥 마음 속으로.}

10224 #1 경행 그거시 혼 일 분 쟁도 기가늘 둥니다.{그렇게 해서 그것이 한 일 분 정도 사이를 둥니다.}

10224 #1 기영 허미는 어 이제 나이 머근 부니 혼 일 분 쯤 경과헐쓰려니 생각뵈며는 지침 현다 든지 뭐 험쭈. 허험 영허민 다 끝나마씨.{그렇게 하면 어 이제 나이 든 분계서 한 일 분쯤 경과했겠거니 생각되면 기침한다는지 뭐 하지요. 험험 이러케 하면 다 끝납니다.}

10224 #1 끝나며는 이젠 그 다르문 어떠케 하느냐 그 다르문.{끝나면 이제는 그 다음은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은.}

10224 #1 이제 그 수저 그 저 춤 수제엔 험쭈다. 승냥 승냥을 이제 앞디레 모읍니다. 승냥을 승냥을 향석 향상 향 논는 그 그 우에다 노코 혼 곤테로 모읍니다. 모으고.{이제 그 수저 그 저 참 수제라

고 하고 있는데 승능 승능을 이제 앞쪽으로 모읍니다. 모으고.}

10224 #1 또 수저덜 쟁 쟁하는 쟁그릇웁 국싸바른 그 위치에 노코. {또 수저들 국 국하는 국그릇 국사발은 그 위치에 놓고.}

10224 #1 또 수저덜 제뽀이나 수깅도 다 이제 해서 제 위치에 노코. {또 수저들 젓가락이나 숟가락도 다 이제 해서 제 위치에 놓고.}

10224 #1 이러케 해서 필배 마지막 필배를 힘니다. 필배엔 현 건 그때 에 삼허니 드러사서 쟈 끈나는 제사 저 절입쥬. {이렇게 해서 필배 마지막 필배를 힘니다. 필배라고 한 것은 그때 에 삼현이 들어서서 제사를 끝내는 제사 저 절이지요.}

10224 #1 그 저리 끄나며는 또 일반 참배 손덜토 그 삼한 절 허며는 마치는 겁니다. 마치며는. {그 절이 끝나면 또 일반 참배 손덜도 그 삼한 절 하면 마치는 겁니다. 마치면.}

10224 #1 이젠 그 짐네는 이젠 짐네는 이러케해서 그 소노로만 이러케해서. {이제는 그 짐네는 이제 짐네는 이렇게 해서 그 손으로만 이렇게 해서.}

10224 #1 이제 이러케 쟁경따 저의 지바는 그 일일이 이걸 잡시글 하지 안쥬니다. {이제 이렇게 쟁경따 저희 집안은 그 일일이 이것을 잡시를 하지 안쥬니다.}

10224 #1 에 우린 잡시글 허지 말라고 우리 조상니른 옛날부터 그러케 해왔쥬니다. {에 우리는 잡시를 하지 말라고 우리 조상님은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쥬니다.}

10224 #1 에 사계 선생도 그러케 가르쳐왔꼬. {에 사계 선생도 그렇게 가르쳐 왔고.}

10224 #1 다른 디 보통 보며는 다 일일이 이거 메물에 꺼 이거 이거 이러케 해다가 혼 군데 모양 영 허는데 우린 그런 게 일체 업쥬니다. {다른 디 보통 보면 다 일일이 이 것 채소에 것 이것 이것 이렇게 해다가 한 군데 모아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전혀 없쥬니다.}

10224 #1 게서 게서 그 그 이제 수저나 모든 거 제 위치에 노록 다 허민 에 다 논 다음에는 필배 아까도 필배 딱 허영 끈난 다음에는. {그래서 그래서 그 그 이제 수저나 모든 것 제 위치에 놓고 다 하면 에 다 놓은 다음에는 필배 아까도 필배 딱 해서 끈난 다음에는.}

10224 #1 이제 그 지방 부축이라고 힘니다. 지방을 아페서 큰 상자 거 딱 인는 아페서 걸 소각힘니다. {이제 그 지방 부축이라고 힘니다. 지방을 앞에서 큰 상자 딱 있는 앞에서 그것을 소각힘니다.}

10224 #1 부침 소각해그네 그 승능 그르세 그걸 가지 낱쥬. {부침 소각해서 그 승능 그릇에 그것을 같이 낱어요.}

10224 #1 그 그르세 노아서 짐네가 바께 나장 어디 공초헌 데 가서 비왕 옵니다. 머 연나렌 초가 지븐 초가 지봉에 뿌러불민 된날 가마귀덜 와서 먹꼬 이러케 헨는데. {그 그릇에 놓아서 짐네가 밖에 나가서 어디 깨끗한 데 가서 비워 옵니다. 뭐 옛날에는 초가집은 초가 지봉에 뿌러버리면 뒷날 까마귀들 와서 먹고 이렇게 했는데.}

10224 #1 요즈믄 그런 거시 업끼 따무네 어디 그자 깨뜨던 장소에 강 비와불민. {요즈믄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어디 그저 깨끗한 장소에 가서 비워버리면.}

10224 #1 게민 그때까지 상제는 대길 힘니다. 절때 상보글 춤 저 예보글 이 오슬 제보글 받거나 허질 몰톰니다. 게서 딱 허영 므황 도라와야 그제야 끈난따 해서 제보글 받게 힘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상주는 대기힘니다. 절때 상복을 참 저 예복을 이 옷을 제복을 벗거나 하지를 못힘니다. 그래서 탁 해서 마쳐서 돌아와야 그때야 끝났다고 해서 제복을 벗게 힘니다.}

10224 #1 그런 거시 저 우리 지바네 전통저그로. {그런 것이 저 우리 집안에 적통적으로.}

10224 @2 게난 문제는 하는 거구나 예? {그러니까 문전제는 하는 거네요?} #1 문젠 힘니다. {문전제는 힘니다.}

10224 #1 게서 우리 지반도 문젠 아년디도 인쥬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도 문전제 안하는 데도 있

습니다.}

10224 #1 예 건 쪼끔 다릅니다. ㄱ튼 지바니면서도.{예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2 어디 문제 아녀.{어디 문전제 안해.} #1 저 명술네 아녀고.{저 명술네 아니하고.} #2 아.{아.} #1 또 여우네 우리 이디서 양제 간 그 그 그디도 대단헌 머신데 인호 박사네 지반도 안허여.{또 여우네 우리 여기서 양자 간 그 그 거기도 대단한 뵈인데 인호 박사네 집안도 안해.}

10224 #1 문제를 해 오다가 아녀볼멘 아녀고렌 계난 최그네사 아녀는 모양이라. 아녀는.{문전제를 해 오다가 안해버려 안한다고 그러니까 최근에야 안하는 모양이라. 안하는.}

10224 @2 그러면 아까 예 그 문제라고 하는 거시 어떠케 보면 문전제로 알았는데 그거시 아니라 시늘 마지하는 거라.{그러면 아까 예 그 문전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문전제로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신을 맞이하는 거라.}

10224 #1 예 마지하는 걸로 우린 저.{예 맞이하는 것으로 우리 저.}

10224 @2 그러면 아까 초허니 드러서 가지고 강시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그러면 아까 초허니 들어서 가지고 강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1 예.{예.}

10224 @2 그러면 그거시 시늘 마지하는 게 두 버니 뵈지 안켤씀니까?{그러면 그것이 신을 맞이하는 것이 두 번이 되지 않겠습니까?} #1 예 게메 예.{예 그러게 예.}

10224 #1 그런 거시 그런 거시 시난 난 그 개념을 춤 경헨 건 드른 이야길 허는 거고. 문.{그런 것이 그런 것이 있으니까 나는 그 개념을 참 그렇게해서 그것은 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고. 문.}

10224 #1 난 문체 문체 허민 그자 그 문시네 대헌 머신가 그러케 생각헨는데 경 곤는 디 사람마다 다 이거 구 통일헨 머시 업써.{나는 문전제 문전제 하면 그저 그 문신에 대한 무엇인가 그렇게 생각헨데 그렇게 말하는 데 사람마다 다 이것. 구 통일된 무엇이 없어.}

10224 @2 문체라고 합니까?{문전제라고 합니까?} #1 예 문체.{예 문전제.}

10224 @1 삼촌 아까부터 문체라고.{삼촌 아까부터 문전제라고.} #1 문체.{문전제.}

10224 @1 지난번 부터.{지난 번부터.} @3 문전제.{문전제.}

10224 #1 문체 문체 문체 허는 데 게서 그러케 흥던 사람들도 아녀는 지반도 일따 허는 거슨 그런 데서 오는 으라가지 문제쩌미 인는 겁니다.{문전제 문전제 문전제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던 사람들도 아니 하는 집안도 있다 하는 것은 그런 데서 오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10224 @1 게민 이게.{그러면 이것은.}

10224 #1 건 연나리고.{그것은 옛날이고.}

10226 @ 그 지금 제사 지내는 방버븐 연나리나 이제나 거의.{그 지금 제사 지내는 방법은 옛날이나 이제나 거의.} #1 이제나 거의 ㄱ튼 데 쪼끔 다른 거시.{이제나 거의 같은데 조금 다른 것이.}

10226 @2 시간.{시간.} #1 다른 거시 시가늘 여기서 다른 거시 그 제 냉기는 절차는 꼭 건 연나리나 지그미나 ㄱ튼데.{다른 것이 시간을 여기서 다른 것이 그 제 지내는 절차는 꼭 그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은데.}

10226 #1 시가니 이젠 우리는 그 열두 시 반서부터 새로 혼 시 사이 허던 거슬 압망겨서 이제 그.{시간이 이제는 우리는 그 열두 시 반에서부터 새로 한 시 사이 하던 것을 앞당겨서 이제 그.}

10226 #2 아홉씨 바네.{아홉 시 반에.} #1 아홉 씨.{아홉 시.} @1 바네.{반에.} #1 아홉씨 바느로 정헨 허고 인꼬.{아홉 시 반으로 정해서 하고 있고.}

10226 #1 또 하나는 연나레는 제날 딱 제 시간 뵈야 저를 헨는데. 저를 헨는데.{또 하나는 옛날에는 제날 딱 제 시간 되어야 절을 했는데. 절을 했는데.}

10226 #1 우리 성장해서 현 때까지도 그런습니다. 헨는데.{우리 성장해서 한 때까지도 그랬습니다. 했는데.}



10226 #1 이제는 아 우리 그 저 녀 저 녀하르바님더리 거 생각해보난 이거 상 싱거 노코 보통 그 친목계 머시엔 헌 게 제사 영 허민 왓따그네 상에 절혜부런 가부는 경우도 일판 마리우다 게.{이제는 아 우리 그 저 녀 저 녀할아버님들이 거 생각해보니까 이거 상 차려 놓고 보통 그 친목계 뵈이라고 한 게 제사 이렇게 하면 왔다가 상에 절하고 나서 가버리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10226 #1 케난 저거시 시대에 따라 머시거 해야 된다. 이거.{그러니까 저것이 시대에 따라서 무슨 것이든 해야 된다. 이거.}

10226 #1 아 놈이 자손드리 왕 우리보다 먼저 절 후딱후딱 허영 헌 사름드른 얼마 생각허영 왕 상 저 쟁쟁에 절허여뵈 바쁘난 가켄 허는 디 이 또 제사 저 안 뵈쓰니까 절허지 말렌 영 그기도 난처 허고.{아 남의 자손들이 와서 우리보다 먼저 절 후딱후딱 해서 한 사람들은 얼마나 생각해서 와서 상 저 쟁쟁에 절 하여두고 바쁘니까 가겠다고 하는데 이 또 제사 저 안 되었으니 절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난처하고.}

10226 #1 상 싱그거드네 상 싱그민 벌써 조상니미 영호니 왕 안즌 곁로 생각해서 상 싱그 건 절 허게. 허연.{상 차리면 상 차리면 벌써 조상님이 영혼이 영혼이 와서 앉은 것으로 생각해서 상 차리면 절하자. 해서.}

10226 #1 경헨 요즈믄 예 상 그자 싱견젠 허민 혼 번 딱 자손드리 드러상 다 절허는 거.{그렇게 해서 요즘은 예 상 그저 차렸다고 하면 한 번 딱 자손들이 드러서서 다 절하는 거.}

10226 #1 예 예 예. 그러케 그거시 바짜절썌. 과거엔 경 아년는데.{예 예 예. 그렇게 그것이 바뀌 졌어.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10226 @1 과거에는 경 아년썌가?{과거에는 그렇게 앉았습니까?} #1 예. 과거엔 경 아년썌다.{예. 과거에는 그렇게 앉았습니다.}

10226 #1 똑 제사 때 뵈사 절헨썌.{꼭 제사 때 되어야 절을 했어.}

10226 @1 제 보레 와서 어떤 절 아년니까?{제사 보러 와서 어떻게 절을 안합니까?}

10226 #1 절 윈. 제 보레 와도 엔나레는 제사 저네는 제관더리 저 그 제주가 ㄱ마니 이시난 ㄱ마니 야장 놀당.{절 윈. 제사 보러 와도 옛날에는 제사 전에는 제관들이 저 그 제주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 앉아서 놀다가.}

10226 @2 \*\*. {\*\*} #1 예예 .{예예.}

10226 @1 아니 상을 싱그고 나서.{아니 상을 차리고 나서.} #1 어.{예.} @1 그 초허니든 아허니 든.{그 초헌이든 아헌이든.} #1 아허니든 아무도.{아헌이든 아무도} @1 절 안합띠가?{절 안했습니까?} #1 아무도 아년썌. 엔나렌.{아무도 안했지. 옛날엔.} @1 예저넨 안 헨는데 겐디 지그믄.{예전에는 안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1 지그믄 상 싱견따허민 초저녀게 절혜노록.{지금은 상 차렸다 하면 초저녁에 절을 해 놓고.}

10226 #1 시간 뵈민 또 제를 지내곡.{시간 되면 또 제사를 지내고.}

10226 @1 겐디 예저넨 아년따고 예?{그런데 예전에는 안했다고 예?} #1 예예.{예예.}

10226 #1 우린 경헨썌.{우리는 그랬지요.}

10226 #2 경 이제도 제 머그레 오민 그자.{이제도 제사 보러 오면 그저.} #1 오민 그자 이레 이레 상에 절허고.{오면 그저 이레 이레 상에 절하고.}

10226 #1 그거시 달라절썌. 연날허고 지그미.{그것이 달라졌지요. 옛날하고 지금이.} @1 시간하고.{시간하고.}

10226 #1 예예.{예예.}

10226 @1 그러면 지금 아홉 씨 바네 지낸다고 헨짚썌니까?{그러면 지금 아홉 시 반에 지낸다고 했썌습니까?} #1 예.{예.}

10226 #1 예저에는 열두 시에 지내면 도라가신 나른 그 열두 시 지난 날이우께. 지금 아홉 씨 바네 험다면 식계가 옛날로 따지며는 된날 험니까?{예전에는 열두 시에 지내면 돌아가신 날은 그 열두 시 지난 날이지요. 지금 아홉 시 반에 한다면 제사가 옛날로 따지면 뒷날 험니까?} #1 아니 ㄱ튼 날 입쭈.{아니 같은 날이지요.}

10226 #1 ㄱ튼 날.{같은 날.} @1 ㄱ튼 날 험니까?{같은 날 험니까?} #1 ㄱ튼 날.{같은 날.}

10226 #2 옛날은.{옛날은.} #1 나른 ㄱ튼 날 시간 상만 차이 신 거 뿌니주.{날은 같은 날 시간 상만 차이 있는 것 뿐이죠.} @1 아니 게니까?{아니 그러니까?}

10226 @2 그럼 결과저그로.{그럼 결과적으로.} #1 으.{예.} @2 자시 하게 되면.{자시 하게 되면.}

10226 #1 자시가 열두 시 흐를 열두 시로 보는 거나네 새로 흐 시까지는 무근 날입쭈께. 그걸 알아얹쭈.{자시가 열두 시 하루 열두 시로 보는 것이니까 새로 한 시까지는 묵은 날이지요. 그것을 알아야지요.}

10226 @1 아니 제가?{아니 제가?} #1 연나레 그 시간 개너른 흐루가 열두 시 아니우파?{옛날에 그 시간 개념은 하루가 열두 시 아닙니까?}

10226 @2 예.{예.} #1 흐루가 열두 시면 조시라는 건 지그미 즈시는 새로 흐 시부터 새로 열 흐 시부터 된날 흐 시 사이가 이제 연나레 이거슨 즈십쭈께.{하루가 열두 시면 자시라는 것은 지금의 자시는 새로 한 시부터 새로 열한 시부터 뒷날 한 시 사이가 이제 옛날은 이것은 자시지요.}

10226 #1 새날.{새날.} @2 아 회장님 예. 저 말씀처럼 무러 보고 시픈 거슨 예를 들면 사멸시보일 날.{아 회장님 예. 저 말씀처럼 물어보고 싶은 것은 예를 들면 삼월십오일 날.} #1 예.{예.} @2 요 하라버니미 도라가설따허면.{요 할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면.} #1 도라갈따.{돌아가셨다.} @2 도라가설따라고 하면 보편저그로 사될 십싸일 날 자시에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지 예?{돌아가셨다고 하면 보편적으로 삼월 십사일 날 자시에 자시에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10226 #1 예 자시.{예 자시.}

10226 @2 사될 십싸일 사될 시보일 날 도라가설찌 안 씀니까? 하라버지가 그러면 사멸짱을 지내고 나면 십사일 날 자시에 하는 겁쭈 예? 십사일 날 자시에 그지 예?{삼월 십사일 삼월 십오일 날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할아버지가 그러면 삼일장을 지내고 나면 십사일 날 자시에 하는 거지요? 십사일 날 자시에 그렇지요 ?} #1 예.{예.}

10226 #1 즈시 너멍 허렌 헤십쭈.{자시 넘어서 하라고 했지요.} @2 그러니까 십싸일 날 자시에 하게 되면 어떠튼 이러케 걸쳐지는데.{그러니까 십사일 날 자시에 하게 되면 어떻든 이렇게 걸쳐지는데.} #1 예 마쭈다 예.{예 맞습니다 예.} @2 아홉 씨 바네 하게 되면 사될 십싸일 날 아홉 씨 바니면 시보일 날이 땡겨지지 아는 거 아니우파?{아홉 시 반에 하게 되면 삼월 십사일 날 아홉 시 반이면 삼월 십오일 날이 당겨지지 않는 거 아닙니까?}

10226 @2 그러면 이견 전일제가 되는 거라 마쭈.{그러면 이것은 전일제가 되는 겁니다.}

10226 #1 경 봐야 돼쿠가?{그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2 예.{예.}

10226 @1 그런데 지금 삼춘 얘기는.{그런데 지금 삼춘 얘기는.} #1 아니 이게 즈시 새로 흐 시.{아니 이것이 자시 새로 한 시.}

10226 @1 아니 게난 또.{아니 그러니까 또.} #1 으.{아.} #1 그 반대로가 삼춘은 그 지금 제사떡커는 나리 도라가신 날 떡 험수과? 아니면 도라가신 전날 떡 험수과?{그 반대로가 삼춘은 그 지금 제사떡 하는 날이 돌아가신 날 떡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돌아가신 전날 떡을 만들고 있습니까?}

10226 #2 도라.{돌아.} @1 도라가신 전나리우파? 그 나리우파?{돌아가신 전날입니까? 그 날입니까?} #2 아 도라 도라간 날 허염쭈.{아 돌아 돌아간 날 하고 있죠.} @1 떡켄쭈가?{떡 하고 있습니까?}

까?) #2 으 도라간 날.{아 돌아간 날.}

10226 #1 @1 경허고 예저네도 도라간 날 열두 시에 지낼쭤가?(그렇게 하고 예전에도 돌아간 날 열두 시에 지냈습니까?)

10226 #1 예예.{예예.} #2 아니 내 저 임 쓰무사흘 날 이틀 날 허연 허연 헨쭤. 쭤무이틀 날 이제 그 열두 시에 허고.{아니 내 저 임 쓰무사흘 날 이틀날 해서 해서 했쭤. 스무이틀 날 그 열두 시에 하고.} #1 아아.{아아.} @1 도라가신 나른 쓰무이틀이우파? 쓰무사흘 이우파?{돌아가신 날은 스무이틀입니까? 스무사흘입니까?}

10226 #2 도라간 나른 저 쭤무사흘.{돌아간 날은 저 스무사흘.}

10226 @2 그러니까 보십쭤. 전날 지금 전나래 지금 떠글 허는 겁쭤게.{그러니까 보십시오. 전날 지금 전날에 지금 떠글 하는 거지요.} @1 그래서 제가 당일 아홉 씨.{그래서 제가 당일 아홉 시.} #1 아니 게난네.{아니 그러니까.} @1 된날 해야웁다는 말씀.{뒗날 해야 된다는 말씀.} @2 그러치 예.{그렇지요.} #1 아니 게난 쓰무사흘 날 허며는 도라간 나리 쓰무사흘 날이다 허며는 예 스무 이일 날 떠글 헐 거 아니라?{아니 그러니까 스무사흘 날 하면 돌아간 날이 스무사흘 날이다 하면 스무 이일 날 떠글 할 거 아니라.} #2 예 우리.{예.} 우리.} #1 게며는 요 시가니 좀 차가 인는데 새 나를 등경 제사를 지내는 거주.{그러면 요 시간이 좀 차가 있는데 새 날을 당겨서 제사를 지내는 거지요.}

10226 @1 그러니까 예.{그러니까 예.} #1 도라간 날 등경 제사허는 거 떠근 무근 날 해도.{돌아간 날 당겨서 제사하는 거 떠은 전날 해도.} @2 아 그러니까는.{아 그러니까.} @3 엔나래는 경헨는 데.{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10226 @1 열두 시에 하면 그게 마리 뒗는데 예 지금 아홉 씨 바느로 땡긴다고 하니까 그럼 엔날로 해서 된날로 너머가 예.{열두 시에 하면 그게 말이 되는데 예 지금 아홉 시 반으로 당긴다고 하니까 그럼 옛날로 해서 뒗날로 넘어가 예 #1 우린 된날로 넘어감쭤.{우리는 뒗날로 넘어가쭤.}

10226 #1 우린 너머 간.{우리는 넘어가서.} @1 게근 뒗쭤다.{그러면 뒗습니다.} @2 아아.{아아.} #1 우리 너머가네 험쭤다.{우리는 넘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2 아 너머 가서.{아 넘어 가서.} #1 예.{예.} @2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1 게난 도라간 날 바로 허는 겁니다. 그 저네는 게난 우리 저 음려그로 냥 흐를 머.{그러니까 돌아간 날 바로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그러니까 우리 저 음력으로 요 하루 뒗.} @2 으 예예.{아아 예예.}

10226 @2 아 나는 흑씨.{아 나는 흑시.} @1 뒗쭤니다.{뒗습니다.} #1 아니.{아니.} @2 어떤 지바넨 그러케 한다고 허길레 그러면 하루가 틀리지 안느냐.{어떤 집안엔 그렇게 한다고 허길레 그러면 하루가 틀리지 않느냐.} #1 흐루 틀러부러. 어떠튼 그 날 그 나린데 조상니를 예 신성한 천 날 신성한 쉼 씨가네 경 모테서 저녁 때 대저퍼는 거라.{하루 틀러버려요. 어떻든 그 날 그 날인데 조상님을 예 신성한 첫 날 신성한 첫 시간에 그렇게 못해서 저녁 때 대접하는 거예요.}

10226 #1 그 차 뿐입쭤.{그 차 뿐이지요.} @1 이제 뒗쭤니다.{이제 뒗습니다.} #2 예예 오해 풀렸쭤니다.{예예 오해 풀렸습니다.} #1 예예.{예예.}

10226 #2 우린 생가그로 저닌 조반 쉼 등경허민 조바느로 이제 따시.{우리 생각으로 전에는 조반 새날 당겨서하면 조반으로 이제 다시.} #1 저녁그로.{저녁으로.} @2 저녁그로 저녁그로.{저녁으로 저녁으로.} #1 즈낙이 뒗난 그게 정성이.{저녁이 되니까 그것이 정성이.} @2 예예.{예예.} #1 신 아페는 우리가.{신 앞에는 우리가.} @2 마자 마자.{맞아 맞아.} #1 신 아페는 미안한 일입쭤.{신 앞에는 미안한 일이지요.} @1 예 알겐쭤니다.{예 알겠습니다.}

10226 @1 그러면 제사 지낼 때 상을 차려야 뒗자나 예.{그러면 제사 지낼 때 상을 차려야 되잖아요.} #1 예.{예.}

10226 @1 상을 차릴 때.{상을 차릴 때.} #2 예.{예.} @1 일탄 지방을 쓰시면 우리가 보기에 예

지방이 이러케 이시면 웬쪼기 남자 분 쓰십니까? 오르쪼글 남자 분 쓰십니까?{일단 지방을 쓰시면 우리가 보기에 예 지방이 이렇게 있으면 왼쪽이 남자 분 쓰십니까? 오른쪽을 남자 분 쓰십니까?}

10226 #1 우리는.{우리는.} @2 우리가 볼 땀니다 예.{우리가 볼 때입니다 예.} #1 예 우리가 볼 때 이 저 영허며는 웬쪼깁니다. 이딜 아버지 이딜 어머니 또 이디 모신 어른도 아버지 어머니.{예 우리가 볼 때 이 저 이렇게 하면 왼쪽입니다. 여기 아버지 여기는 어머니 또 여기 모신 어른도 아버지 어머니.}

10226 @1 그러면 상도 그러치 예.{그러면 상도 그렇지 예.} @2 그러면 어 메하고 갡은 어떻 놓니까? {그러면 어 메하고 갡은 어떻게 올립니까?} @1 갡하고 메는 순서가 어떠케 됩니까?{갡하고 메는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1 순서는 이디 이디 저 메.{순서는 여기 여기 저 메.} @2 메.{메.} #1 갡.{갡.} @2 갡 예.{갡 예.} #1 이디도 메 갡.{여기도 메 갡.} #1 예예.{예예.}

10226 #1 으망이 바짜져 도라가면 으망이 바짜져서 .{음양이 바뀌져서 돌아가면 음양이 바뀌져서.} @2 그리고 예를 들면 이거시 생선 아납니까? 바튼꼬기 이러케 헨쓰면.{그리고 예를 들면 이것이 생선 아납니까? 바닷고기 이러케 했으면.} #1 예.{예.} @2 어떠케 올립니까? 이러케 올립니까? 이러케 올립니까?{어떻게 올립니까? 이렇게 올립니까? 이렇게 올립니까?}

10226 #1 우리는 예 게난 이거시 나 묘제 보러 가민 우리 모관 켜당더리 기영 근는데 하느레 이러케 벨라지게 이러케 올리는 건 결네다고 해서 이 저 묘제보러 가민 항상 어픍니다 게. 였어. 영영. {우리는 예 그러니까 이것이 나 묘제 보러 가면 우리 목안 권당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하늘에 이렇게 벌어지게 이러케 올리는 것은 결레다고 해서 이 저 묘제보러 가면 항상 였습니다요. 였어 이렇게 이렇게.}

10226 #1 등 등 쪼글.{등 등 쪽을.} @2 등.{등.} #1 배 쪼글 알러레 가게 허고.{배 쪽을 아래로 가게 하고.} @2 예 등 쪼글.{예 등 쪽을.} #1 영 허는 데.{이렇게 하는데.}

10226 #1 우리 여기는 예 그러지 아녀서 였부터 이 벨라진 딜 우티레 가게.{우리 여기는 예 그러지 않아서 예로부터 이 벌어진 곳을 위쪽으로 가게.} @1 뉘쑤 거시 우티레.{뒤집은 것이 위쪽으로.} #1 뉘쑤 거 우티레 헤영 올립니다.{뒤집은 것을 위쪽으로 해서 올립니다.}

10226 #1 경 머리 올리는 이 순서나 이런 건.{그렇게 머리 올리는 이 순서나 이런 것은.} @1 다 동.{다 동.} #1 저 동 예. 동 동으로 건.{저 동 예. 동 동으로 그것은.}

10226 @2 그리고 사과 가튼 건 저 꼭짜가 위로 감니까?{그리고 사과 같은 것은 저 꼭짜가 위로 감니까?}

10226 @2 이러케 이러케 메달려 이쓰면 이기 딸 꺼 아납니까 예?{이렇게 이렇게 메달려 있으면 여기 딸 거 아납니까 예?} #1 예.{예.} @2 요리케 올립니까? 요리케 올립니까?{요렇게 올립니까? 요렇게 올립니까?}

10226 #1 그건 우린 기자 기자 우티레 가게 힘니다 며.{그것은 우리는 그저 그저 위쪽으로 가게 합니다 뉘.} @1 꼭짜가 위로 가게 예?{꼭짜가 위로 가게 예?} #1 예예.{예예.}

10226 @2 메달리는 상태\*\*\*{매달리는 상\*\*\*.} #1 예예.{예예.}

10226 #1 @1 \*\*\*오히려.{\*\*\*오히려.} @2 으.{어.} @2 아니 다른 디 그러케 아녀나른 여기선 ㄱ 짜 말곡.{아니 다른 데서 그렇게 아니한 것은 여기서는 말하지 말고.}

10226 #1 예 우리 허는 거만 이야기협쥬.{예 우리하는 것만 이야기하지요.} @1 예예.{예예.}

10226 @1 케니까 밤 멩는 그러니까 우리가 밤 머글 땀 구글 이러케 노차나 예. 오른쪼게 예.{그러니까 밥 먹는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을 때는 국을 이렇게 놓잖아 예 오른쪼게.} #1 예.{예.}

10226 #1 겐디 이제 상은 그 반대로구나 예.{그러는데 이제 상은 그 반대로구나 예.} #1 반대. 반대. {반대. 반대.}

10226 @1 그리고 항상 이쪽에 절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웬쪽이 남자분.{그리고 항상 이쪽에 절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왼쪽이 남자분.} #1 이쪽이 이제 아버지 이쪽엔 어머니.{이쪽이 이제 아버지 이쪽엔 어머니.} @2 예.{예.}

10226 #1 그리고 아까 국밥또 도라가설쓰니까 우리가 먹는 것과 반대.{그리고 아까 국밥도 돌아가셨으니까 우리가 먹는 것과 반대.} #1 반대.{반대.}

10226 @1 수저는 어디에 놓습니까?{수저는 어디에 놓습니까?}

10226 #1 수저는 저가 이진 나가 \*\*\*수저는 수저는 이러케 날땡도 올릴 때는 이 저 이 제보물 제복 꼬질 이쪽그로 가게 헛는데.{수저는 제가 이것은 내가 \*\*\*수저는 수저는 이렇게 났다가도 올릴 때는 이 저 이 젓가락을 젓가락 꼭지를 이쪽으로 가게 했는데.}

10226 #1 나가 이 때무네 그 중간네 그 성균관네 가서 나가 쫘 저 쫘쫘 간 쫘 요 흐 그디가서 이제 요걸 그 제례 절차를 배우명 이 요걸.{내가 이 때문에 그 중간에 그 성균관에 가서 내가 조금 저 조금 가서 쫘 요 하 거기에 가서 이제 요것을 그 제례 절차를 배우면서 이 요것을.}

10226 #1 아 우린 경 아년다 허멍 허난 아이고 수저는 그자 살 산 때 일랑 그 그디 교수가 이제 그 최 지금 머센 허는 분 성균관장이 뉘 부닌데 그 부니 이제 허는데 그대로 그냥 사람 본 산 때 기자 제복 꼭지가 이쪽그로 오드시 그냥 험써. 영 허길래.{아 우리는 그렇지 안한다 하면서 하니까 아이고 수저는 그저 살 산 때와 마찬가지로 그 거기 교수가 이제 그 최 지금 빛이라고 하는 분 성균관장이 된 분인데 그 분이 이제 하는데 그대로 그냥 사람 본 산 때 그저 젓가락 꼭지가 이쪽으로 오듯이 그냥 하세요. 이렇게 하길래.}

10226 #1 또 성균관에서 경 근는 걸 또 난 또 그걸 준수해야 게따 헤 가지고.{또 성균관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또 나는 또 그것을 준수해야 하겠다 헤 가지고.} @2 게문 이러케 한다는 애김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다는 애기입니까?} #1 그냥 올린.{그냥 올려.} @1 예저네 상을 우선 처음 올릴 땐 어떠케 됩니까? 지금 요게 상이면.{예전에 상을 우선 처음 올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요것이 상이면.}

10226 #1 이디 이디 그냥.{여기 여기 그냥.} @1 메 쟁.{메 쟁.} #1 메 쟁 \*\*\*제복 놓는 위치.{메 쟁 \*\*\*젓가락 놓는 위치.}

10226 @1 이러케 예.{이렇게 예.} #1 제복 놓는 위치.{젓가락 놓는 위치.} @1 아 제복 놓는 위치.{아 젓가락 놓는 위치.}

10226 #1 경혜그네 이 수른 여기 꼬즐 때 영 끈는 거고 제 제를 간따 놀 때 에 반대 방향 이디 쟁이 허난 반대방향으로 이러케 뉘는데 우린 기냥 그대로 그대로 이디 메무레 메무레 걸칠 때 그냥 그대로.{그렇게 해서 이 숟가락은 여기 뜻을 때 이렇게 뜻는 거고 제 제를 갖다 놀 때 에 반대 방향 여기 쟁이 있으니까 반대방향으로 이렇게 뉘는데 우리는 그냥 그대로 그대로 여기 채소에 채소에 걸칠 때 그냥 그대로.}

10226 @1 아 메무레 걸칠 때 고대로 놓니까?{아 채소에 걸칠 때 그대로 놓니까?} #1 예예.{예 예.}

10226 @1 여기 저 잡는 데가 동쪽그로 가게 아년.{여기 저 잡는 데가 동쪽으로 가게 아니하고.} #1 동쪽그로 가질 아년고.{동쪽으로 가지를 앓고.} @1 그러며는.{그러면.} #1 그저네 하르방.{그전에 할아버지.} @1 예저네는 그랜따는 거네.{예전에는 그랬다는 거네요.} #1 아니 우리 하르방더른 나신디 마르친 건 경해서.{아니 우리 할아버지들은 나한테 가르친 것은 그렇게 했어.}

10226 @1 경헛는데 삼추는.{그렇게 했는데 삼춘은.} #1 나가 성균관네 온 다으멘 이걸 고쳐야원다 허연 나가 이제 나의 순서로.{내가 성균관에 온 다음에는 이것을 고쳐야된다 해서 내가 이제 나의 순서로.} @1 요게 순서로 고치면 메 쟁의 위치도 바꿔버려야.{요것이 순서로 고치면 메 쟁의 위치도

바뀌어 버려야.} #1 게메 말여.{그러게 말아야.} @1 그런 거떠리 완따갸따 허니까 흐끔 머허고 예.  
{그런 것들이 왔다갔다 하니까 조금 뭐하고 예.}

10226 @1 그러고 그 다음 저 메 갱 올리고 예.{그리고 그 다음 저 메 갱 올리고 예.} #1 어.{어.}  
@1 메 갱 아페는 그런 잔 올리고.{메 갱 앞에는 그런 잔 올리고.}

10226 @1 그 다음에 잔 아프로 저 바른께기도 올리고 돼지고기도 올리고 쇠고기도 올리고.{그 다음에 잔 앞으로 저 바닷고기도 올리고 돼지고기도 올리고 소고기도 올리고.} #1 예예.{예예.} @1 목 또 올리고.{목도 올리고.} #1 적멸 적멸.{산적들 산적들.} @1 멘 종류 보통 올렸습니까?{몇 종류 보통 올렸습니까?}

10226 #1 보통.{보통.}

10226 @2 저 고기 올리는 거.{저 고기 올리는 거.}

10226 @2 예.{예.} @1 예.{예.} #1 무슨.{무엇.} @1 우선 술잔 아페.{우선 술잔 앞에.} #1 고기 술잔 아페 보통 올리는 게 예 적또 그 머 다양하게 이실 꺼 아니우파?{고기 술잔 앞에 보통 올리는 것이 예 산적도 그 뭐 다양하게 있을 것 아닙니까?} @2 세 개\*\*\*다선.{세 개\*\*\* 다섯.}

10226 #1 예 세 개 네 개 그 머 보민 양.{예 세 개 네 개 그 뭐 보면 예.}

10226 #1 췌적.{소고기적.} @1 췌적.{소고기적.}

10226 #1 또 돼지적 인꼬 냥.{또 돼지고기적 있고 예.} #1 예.{예.}

10226 #1 또 바른께기 헤그네 거.{또 바닷고기 해서 거.} @1 군 거.{구운 거.} #1 옴평헌 거 아니 저 저기 심니다. 건또.{포떠서 한 거 아니 저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1 아 게문 바른께기적.{아 그러면 바닷고기적.}

10226 #1 머 등등 이제 가령 소라저기민 소라적 ㄱ튼 건또 이제 허는냥 노록 냥.{뭐 등등 가령 소라적이면 소라적 같은 것도 이제 하는대로 놓고 예.} @1 예예.{예예.}

10226 @1 구쟁기적.{소라적.} #1 구제기적.{소라적.} #2 해야도 저 메물도.{해어도 저 채소도.} #1 아니 아니 게난 그거 논 다음에 저글 논 다음에 췌 가에 헤어를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놓은 다음에 적을 놓은 다음에 가장 가에 바닷고기를 동쪽에 머리 서쪽에\*\*\*} @1 헤어.{바닷고기.}

10226 #1 경허고 요 정 노키 저네 정 노키 저네 무글 놉니다. 목 꼬준 거.{그리고 요 적을 놓기 전에 적 놓기 전에 목을 놓습니다. 목 꼴은 것.} @2 예예.{예예.} #1 예예.{예예.}

10226 #1 목 그 다음.{목 그 다음.}

10226 @1 게문 무근 멘 윈쪼기 췌거꼬 예.{그러면 목은 맨 왼쪽이 될 것이고 예.} #1 예.{예.}

10226 @1 헤어는 췌 오른쪼기 췌 꺼고.{헤어는 가장 오른쪽이 될 것이고.} #1 예예.{예예.}

10226 #1 그 사이에 적멸 고기적떠를 노옴췌.{그 사이에 적들 고기적들을 놓지요.} @1 다 한꺼번에 놉니까? 아니면 다 불.{다 한꺼번에 놓습니까 아니면 다 분.} #1 툽툽툽툽 허연 종뉴 다르게 놉니다.{툽툽툽툽 해서 종류 다르게 놓습니다.} @1 종뉴 다르게.{종류 다르게.}

10226 @1 그러머는 췌적허민 췌적 올리고.{그러면 소고기적 하면 소고기적 올리고.} #1 어.{예.}

10226 @1 돼지적 허민 돼지적 올리고.{돼지고기적 하면 돼지고기적 올리고.} #1 예예.{예예.}

10226 @1 바른께기적 허민 바른께기적 올리곡.{바닷고기적 하면 바닷고기적 올리고.} #예예예.  
{예예예.}

10226 @1 구제기적 허민 구제기적 올리고 예.{소라적 하면 소라적 올리고 예.} #1 따로따로.{따로따로.}

10226 @1 요 깬췌는 상관 업습니까? 마냐게 다선 개 일곱 개.{요 갯수는 상관 없습니까? 만약에 다섯 개 일곱 개.} #1 건.{그거.} @2 일곱 개.{일곱 개.} @1 아홉 개.{아홉 개.} @2 세 개.{세 개.}

10226 #1 그건 모르쿠다 마는 기자 우린 게난 이걸 다 준비해집니까게. 이땅.{그것은 모르겠습니

다마는 그저 우리는 그러니까 이것을 다 준비할 수 있습니까. 이따가.)

10226 #1 이땅 우리 버파니에 그 저 가보면 버파니 해안 므우리난 그 정성껏 경 현 어른이 이젠 도라가변쭈다 마는 그 어른덜 가민.{이따가 우리 법환리에 그 저 가보면 법환리 해안 마을이니까 그 정성껏 그렇게 한 어른이 이제는 돌아가셨습니다 마는 그 어른들 가민.}

10226 #1 혼 너덜 깨 올릴 때가 쉽디다. 나 우린 보통 기자.{한 네댓 개 올릴 때가 있습니다. 나 우리는 보통 그저.} @1 보통 맨 깨 올립니까?{보통 몇 개 올립니까?} #1 보통 우리 저그로써 세 개 올립니다.{보통 우리는 적으로서 세 개 올립니다.} @1 세 개.{세 개.}

10226 #1 게른 그르시 이러케 되는 거라 예.{그러면 그릇이 이렇게 되는 거라 예.} #1 예.{예.} @1 목.{목.}

10226 @1 헤어는 항상 올라갈 꺼고.{바닷고기는 항상 올라갈 것이고.}

10226 #1 으 소적 돼지적.{어 소적 돼지적.}

10226 @1 게른 네 개가 웰 건가 마씨.{그러면 네 개가 될 것인가요.} #2 아니 네 개.{아니 네 개.} @1 네 개.{ 네 개.} #1 예 네 개.{ 예 네 개.} @1 아 돼지고기적 쉼적해서 네 개.{아 돼지고기 산적 소고기산적 해서 네 개.} #1 예 네 개 목까지.{ 예 네 개 목까지.} @1 목까지.{목까지.}

10226 @1 아페 탕쉬는 예.{앞에 채소는요.}

10226 # 탕쉬는 고사리.{채소는 고사리.}

10226 #2 고사리.{고사리.} #1 고사리.{고사리.} #2 네 가지가 되는 거주.{네 가지가 되지 거지.} #1 고사리 메물.{고사리 채소.} #2 몽 메물 고사리에.{몽 고사리에.} #1 미나리 메물.{미나리 채소.}

10226 @1 미나리 메물.{미나리 채소.}

10226 #1 콩늬뎨.{콩나물.} 콩늬뎨 메물.{콩나물 채소.} @1 콩늬뎨.{콩나물.} #1허곡 @1 #2 따 시.{다시.} #1 그 다음 몽메물.{그 다음 목.} #2 목 몽메물 허민.{목 목하면.} #1 네 가지.{네 가지.} #2 네 가지.{네 가지다.}@1 네 가지.{네 가지.} #1 예.{예.}

10226 @1 네 가지 역시 순서는 어떻 놓니까?{네 가지 역시 순서는 어떻게 놓습니까?}

10226 #1 순서는 고사리를 쉼.{순서는 고사리를 가장.} #2 고사리 우터레.{고사리 위쪽으로.} @2 웬쭈그로.{왼쪽으로.} #1 우터레 그레 노코.{위쪽으로 그쪽으로 놓고.} @1 웬쭈게 고사리.{왼쪽에 고사리.} #1 예.{예.}

10226 #2 그 다음은.{그 다음은.} #1 무글 중가네 놓니다. 목.{목을 중간에 놓습니다. 목.}

10226 #1 몽메물.{목 채소.} #2 가운데.{가운데.} @1 몽메물.{목.} #1 가운데.{가운데} @1 그리고.{그리고.}

10226 #1 그 다음 에여멘.{그 다음 옆에는.}

10226 #2 미나리영.{미나리하고.} #1 미나리영.{미나리하고.} @1 미나리영.{미나리하고.} #2 콩늬뎨이영.{콩나물하고.} #1 \*\*\*또 저 콩나물.{\*\*\*또 저 콩나물.} @1 콩나무리 쉼 오르쪽 갑니까?{콩나물이 가장 오른쪽에 갑니까?}

10226 #1 예 보통 우린.{예 보통 우리는.} #2 에 콩늬뎨.{아 콩나물.} #1 가운데 노치 이?{가운데 놓지요?}

10226 #2 저 흥썰 알쪽더레.{저 조금 아래쪽으로.}

10226 @1 쉼 오른 우리 보기 오른쭈기 뒤우파?{가장 오른 우리 보기에 오른쪽에 무엇입니까?}

10226 #2 오른쪽 거세기 고사리.{오른쪽 거시기 고사리.}

10226 @2 웬쭈기 고사리.{왼쪽이 고사리.}

10226 #1 웬쭈기 고사리 춤.{왼쪽이 고사리 참.} #2 아니.{아니.}

10226 @1 우리가 볼 때.{우리가 볼 때.} #2 고사리.{고사리.} #1 이쭈게 쉼 이쪽.{이쪽에 가장 위

쪽.} #2 우티레.{위쪽으로.} #2 난 잘 우티렌 테영.{난 잘 위쪽으로 해서.} @1 고사리.{고사리.}

10226 @1 계문 젤 오른쪼게는.{그러면 가장 오른쪽에는.}

10226 #2 고사리 노코.{고사리 놓고.}

10226 #1 그 다음 맨 왼쪼게 미나리 춤 미나리 헤점쪼. 저 저 콩나물.{그 다음 맨 왼쪽에 미나리 춤 미나리 해지네. 저 저 콩나물.} @2 콩나물.{콩나물.} @1 콩나물.{콩나물.}

10226 #2 따시.{다시.} #1 가운데.{가운데.} #2 가운데.{가운데.} #1 목.{목.} #2 몽 메덜.{목.} @1 목 미나리.{목 미나리.} #1 예예.{예예.}

10226 #1 우리 허는 건 그거.{우리 하는 것은 그것.}

10226 @1 그럼 아까 수저는 메 여페 수저 제봄 놉니까? 목 여페 수저 제봄 놉니까? 탕쉬 여페 수저 제봄 놉니까?{그러면 아까 수저는 메 옆에 수저 젓가락 놓습니까? 목 옆에 수저 젓가락 놓습니까? 채소 옆에 수저 젓가락 놓습니까?} #1 이디 저 이 메 여페.{여기 저 이 메 옆에.} @1 메 여페.{메 옆에.} #1 이디 저 메 여페 이디 이디 쪽 노추. 이디.{이디 저 메 옆에 여기 여기 쪽 놓쪼.} @1 메 여페.{메 옆에.} #1 예 메 여페.{예 메 옆에.}

10226 #1 춤 제 지 지나기 저네 딱 갈따.{춤 제 지 지나기 전에 딱 갖다가.} @1 수저가 위로 갑니까 제보미 위로 갑니까?{수저가 위로 갑니까? 젓가락이 위로 갑니까?} #1 수저 수저가 아페.{수저 수저가 앞에.} @1 수저가 아페.{수저가 앞에.} #1 에 저 제부른 다음.{에 저 젓가락은 다음.} @1 다음.{다음.} #1 예 수가락 제봄.{예 수저 젓가락.} @1 수가락 제봄 예.{수저 젓가락 예.}

10226 @1 그러머는 이러케 항상 할머니 하라버지 허민 메 쟁 메 쟁 갈 꺾 아니우파 예?{그러면 이렇게 항상 할머니 할아버지 하면 메 쟁 메 쟁 갈 꺾 아납니까 예?} #1 예.{예.}

10226 @1 그러머는 네 개 케니까 수저 두 쪽 젓가락 두 쪼글 다 이 이쪼그로.{그러면 네 개 그러니까 수저 두 쪽 젓가락 두 쪽을 다 이 이쪽으로.} #1 예. 다 우린 그걸로 흔 췌디레 다 놉.{예. 다 우리는 그것으로 한 쪽으로 다 놓아.}

10226 @1 요디도 노코 요디도 놉야췌 건데 다 그레만 놉.{요 쪽으로 놓고 요 쪽으로 놓아야 할 것인데 다 그쪽으로 놓아.}

10226 @2 그쪼그로만 마씨?{그 쪽으로만 입니까?} #1 예.{예.} @2 아 우리 지바는 따로따로 놉마씨.{아 우리 집안은 따로따로 놓아요.} #1 딱또로 놉니까?{따로따로 놓습니까?} @2 예.{예.}

10225 @1 그리고 그러머는 제사 음식게서 주로 할머니가.{그리고 그러면 제사 음식에서 주로 할머니가.} @2 누가?{누구가.} @1 준비합니까?{준비합니까?}

10225 #1 제사 음식근.{제사 음식은.} @1 {제사 음식은.} @2 예.{예.} #1 제사 음식근 에 부어 게서 부인더리 다 해도 상에 올리고 চল리는 건 남자가 힘 허여.{제사 음식은 부엌에서 부인들이 다 해도 상에 올리고 차리는 것은 남자가 함 해요.}

10225 @2 아.{아.} 설 저.{설 저.} @건.{그것은.} @2 상 싱경 설쌍.{상 차례서 상 차리는 거.} #1 상 싱그는.{상 차리는 거.} @1 싱그는 거.{상 차리는 거.} #1 예예.{예예.}

10225 @1 그거 말고 어 돼지고기적 췌고기적 혈 때도 다 할머니가 햄췌가?{그것 말고 아 돼지고기 산적 소고기 산적 할 때도 다 할머니가 하고 있습니까?}

10225 #2 할 나 아니. 메느리가?{할 나 아니. 며느리가.}

10225 @2 아 지그른.{아 지금은.} #1 아 요새 요새는 요새는 여자 메느리덜 시키는데 연나른 다 남자가 헐췌요. 우린.{아 요새 요새는 요새는 여자 며느리들 시키는데 옛날은 다 남자가 했어요.우린} @1 적.{산적.}

10225 @1 적.{산적.} #1 하이튼 꼬지는 거 목쩍 허는 거나 다 남자가 헐.{하이튼 췌는 것 목쩍 하는 것이나 다 남자가 했어.} @2 연나레 예.{옛날예요.} #1 연나렌 나가 경허고 또 하르방덜 경 시



겪꼬.{옛날에 내가 그렇게 하고 또 할아버지들 그렇게 시켰고.}

10225 @2 화 화리 화리나 머세.{화 화로 화로나 무엇에.}

10225 @2 적췌 헤그네.{적쇠 해서.} #2 적췌 헤여그네 영.{적쇠 해서 이렇게.} #1 적췌 헤여그네.{적쇠 해서.} @1 굽는 거까지 다.{굽는 것까지 다.} #1 여자는 부어게서 음식만 습꼬 머헨찌.{여자는 부엌에서 음식만 삼고 무엇을 했지.}

10225 #2 아니우다.{아닙니다.} #1 그 흐는 거슨 다 남자가 허단 이제 세 시대가 나나네 기자 메느리가?{그 하는 것은 다 남자가 하다가 이제 새 시대가 나니까 그저 머느리가.} #2 문딱 헤연.{모두 해서.} #1 아랑 다 만드런 머.{알아서 다 만들어서 뭐.}

10225 @1 췌지고기를 썰고.{돼지고기를 썰고.} #1 으.{어.} @1 췌레기를 썰고.{소기기를 썰고.} #1 어.{아.} @1 그 다음 적꼬지 만들고.{그 다음 꼬치 만들고.} #1 만들고.{만들고.} @1 적꼬지 끼우고.{꼬치 끼우고.} #1 거 다 남자.{그것 다 남자.} @1 굽꼬.{굽고.} #1 굽꼬.{굽고.} @1 까지 예.{까지 예.} #1 예 다 남자.{예 다 남자.}

10225 @2 연나른 경헤 나신디.{옛날은 그렇게 했었는데.}

10225 @1 이젠 아녀 예.{이제는 앓아 예.} #2 남자들 대부분 헨췌.{남자들 대부분 했지.} @2 그러면 지금 메는 누가 떠 마씨? 누가 거립니까?{그러면 지금 메는 누가 뜯니까? 누가 뜯니까?} #2 메 거립은 나가 거리당 굽너는 메느리마라 거렁 올리라 게영 아장 베립만.{메 뜨는 것은 내가 뜨다가 굽너는 머느리한테 떠서 올려라 그렇게 앉아서 보기만.}

10225 @1 큰메느리 시킴꾸나 예.{큰 머느리 시키고 있구나 예.} @2 가만 이서봐.{가만 있어봐.}

10225 @ 그러면 웨 이 말씀 무러보냐 허면 지금 식계를 올헤 아덜보고 하라라고 헨 건 아니지 예?{그러면 왜 이 말씀을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제사를 올헤 아들보고 하라라고 한 것은 아니지요?}

10225 #1 아니 저 이젠 우리 아기털 안티 메껴베십췌.{아니 저 이젠은 우리 아이들한테 맡겨버렸어요.} @2 언제부터 마껴씀니까?{언제부터 맡겼습니까?} #1 에 흐 멘 년 전부터 췌췌다.{아 한 몇 년 전부터 되었습니다.}

10225 @2 게문 그때도 어 여자 삼추니 메를 거련꼬 예?{그러면 그때도 어 저자 삼촌이 메를 떴고 예?}

10225 #2 예.{예.} #1 어.{아.} @2 올레 올레만.{올해 올해만.} #1 올레만.{올해만.}

10225 @2 그러면 쪽 이젠 메느리가 거려야 췌 검니까?{그러면 쪽 이젠은 머느리가 떠야 할 것입니까?} #2 예.{예.}

10225 @2 메 메느리마라 메 거렁 올리라 난 아녀켜 물러아자부런.{머 머느리한테 메 떠서 올려라 나는 안하겠다 물러앗아버렸어.} #2 에헤 웃음

10225 @2 게문 보통 그럴 경우는 고팡 물리를 허는 겁췌게.{그러면 보통 그럴 경우는 고팡 물림을 하는 거지요.} #1 거 예.{그것 예.}

10225 @2 메느리한테 이젠은.{머느리한테 이젠은.} #2 으으.{아아.} #1 예.{예.} @2 머 하라고 하면.{뭐 하라고 하면.} #1 다 쥐분겁췌. 이젠.{다 쥐버린 거지요.이젠은.} #2 다 쥐부런.{다 쥐버려렸어.}

10225 #1 일체 다 쥐뵤췌다.{일체 다 줏습니다.} @2 으.{아.} #1 제사를 다 쥐뵤심췌.{제사를 다 쥐버렸지요.}

10225 @2 그러면 줄 때부터 그 메를 거리도로 헤야 췌는데 올헤부터 헨따라고 하는 거슨.{그러면 줄 때부터 그 메를 뜨도록 헤야 되는데 올헤부터 했다라고 하는 것은.} #2 헤헤헤.{하하.}

10226 #1 경헤도.{그래도.} @1 제사 제사할 때 멀 저 준비헤야 췌니까? 제사할 때 제사할 때 삼춘 마라뵤씨? 제사 하여간 상차림 머글 꺼까지 다 드러갈 꺼 제사 음시그로.{제사 제사할 때 무엇을

저 준비해야 됩니까? 제사할 때 제사할 때 삼촌이 말해보십시오? 제사 하여튼 상차림 먹을 것까지 다 들어갈 것 제사 음식으로?

10225 @1 아니 삼추니 마라도 누가 마라도 좋쭌다.{아니 삼촌이 말해도 누가 말해도 좋습니다.}  
#1 아니 케난 제사 음식 제사 음식 말고.{아니 그러니까 제사 음식 제사 음식 말고.}

10225 @1 아니 제니까 제사를 헐려고 허면 드러갈 꺾떨 멈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사를 하려고 하면 들어갈 것들 됩니까?} #2 드러 갈 꺾떨.{들어 갈 것들.} #1 어.{아.}

10225 #2 과 과일도 드 배 사과 미짱 머 그디 따시 무신 춤 춤메나 무신 거 .{과 과일도 들 배 사과 굴 뒤 거기 다시 무슨 참 참외나 무슨 것.}

10225 #1 또 뭐 과자도 들곡 예.{또 뭐 과자도 들고 예.}

10225 #2 아니 보통 과전 저.{아니 보통 과자는 저.}

10225 #1 과자덜 헤 올리지 아넘서덜.{과자들 많이 올리지 않는가들.} #2 과자 거 드러오민.{과자 그것 들어오면.}

10225 @1 예 케니까.{예 그러니까.} #1예 드러온 거.{예 들어온 거.} @1 삼추니 제사 지내며는 과일로써 배 사과 미짱 춤메.{삼촌이 제사 지내면 과일로써 배 사과 굴 참외 #2 예.{예.}

10225 @1 과이른 보통 그러케 준비햐꾸나 예?{과일은 보통 그렇게 준비하는구나 예?} #2 예.{예.} @1 예 조쭌다. 그리고 떡 종류는 예?{예 좋습니다 그리고 떡 종류는요?}

10225 #2 떠근 나 헐 땐 솔벤 절벤도 허 허고 요새 요새 싸름더른 아녀.{떡은 나 할 때는 솔편 절편도 하 하고 요새 요새 사람들은 안해.} @2 예.{예.}

10225 @1 아니 예저네 햐면 거.{아니 예전에 했던 것.} #1 예저네 햐면 거.{예전에 했던 것.}

10225 @1 솔벤 절벤.{솔편 절편.} #2 솔벤 절벤도 허곡 따시 제 때에는 또 정 빙떡도 지지곡 전기.{솔편 절편도 하고 다시 제사 때에는 또 정 빙떡도 지지고 전기.}

10225 #2 엔나른 건꼬라 빈떡 빈떡.{옛날은 그것보고 빈떡 빈떡.} #1 전기 전기 아니 전기.{전기 전기 아니 전기.} #2 전기 전기 지지.{전기 전기 지지.}

10225 @1 케니까 삼추는 빈떡편 삼추는 전기편.{그러니까 삼촌은 빈떡권 삼촌은 전기권.} #1 전기 .{전기.} @2@3 예해.{하하.} #2 게서 질꼬 케니까 솔벤 절벤 빈떡하고 그 다음에 떠근 예?{그래서 지지고 그러니까 솔편 절편 빈떡하고 그 다음에 떡은 예?}

10225 #2 떠근 그자 짐떡 짐떡 그자.{떡은 그저 시루떡 시루떡 그저.} #1 건.{그것은.} #2 제폐니 고 아무 거고.{시루떡이고 아무 것이라도.} #1 짐떡 ㄱ튼 건 그냥 갈라떡쨌덜.{시루떡 같은 것은 그냥 나눠 먹으려고.}

10225 @1 예 떠근 경 준비뿐서 예.{예 떡은 그렇게 준비뿐서 예.} #2 예.{예.}

10225 @1 케민 이제 아까 적꼬스미나 하여간 그런 거 ㄱ스민 예?{그러면 이제 방금 적 고음이나 하여튼 그런 것 고음은요?}

10225 #2 쨌 꼬 쨌꼬스민.{적 고 적고음은.} @1 쨌꼬스민 아까 이제 쨌적 허랜허연 쨌꺾기.{적고음은 아까 이제 소적 하라고 해서 소고기.} #1 쨌꺾기.{소고기.} @1 그 다음메.{그 다음에.} #1 돌꺾기.{돼지고기.} #2 엔나리나 이제나 그자 바로 저.{옛날이나 이제나 그저 바로 저.} #1 쨌 ㄱ타 그꺾 돌꺾기.{쨌꺾기 그것이 돼지고기.} @1 ㄱ꺾쨌꺾기.{말하십시오.}

10225 #2 으음 #1 쨌꺾기 돌꺾기 또.{소고기 돼지고기 또.} #2 바른꺾기.{바닷고기.} #1 바른꺾기 우선 이 바른꺾기 제사 때에 흐민 아메도 저 상에 올리는 거만도 두 출리는 두 출리라야 부 내외 내외부늘 모시면 두 출리 예.{바닷고기 우선 이 바닷고기 제사 때에 하면 아마도 저 상에 올리는 것만 이라도 두 마리는 두 마리아 부 내외 내외부늘 모시면 두 마리는 예.}

10225 @1 케나네 문쩐이영 또 이 안네도 노꺾 허젠 허민 예 흐 번 제사 지내젠 허민 예 올리는

거만도 네 출린 돼야 돼주게.{그러니까 문전이랑 또 이 고방에도 놓고 하려고 하면 에 한 번 제사 지내려고 하면 에 올리는 것만도 네 마리는 돼야 되지.} #2 네 출리 안됩니다.{네 마리 안 됩니다.} #1 계곡 아니 갈라떡젠 허민 더 이서야 돼.{그리고 아니 나눠먹으려고 하면 더 있어야 돼.}

10225 #2 혼 일곱 개쫘.{한 일곱 개쫘.} #2 켤당더리 하노민 어 혼 일고으답개 해야 돼.{권당들이 많으면 아 한 일고여덟 개 해야 돼.} #2 호루기도 일곱 개 해서.{요 전에도 일곱 개 해서.}

10225 #1 상에 올리는 거만 에 제삿상에 두 개 문찌네 두 개 또 여자인 경우 안판 그디도 허자녀. 계민 경허당 보민 견또 너넨 개 들고 갈라떡젠 허민 에 일고으답 개는 드러야 제사끝대 음복떨 허는 거.{그러니까 상에 올리는 것만 에 제삿상에 두 개 문전에 두 개 또 여자인 경우 고방 거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그러하다 보면 그것도 네댓 개 들고 나눠먹으려고 하면 에 일곱여덟 개는 들어야 제사 끝에 음복들 하는 거.}

10225 @1 이제 제사 때는 이거라그네 절때 허지 말라. 머 떠기든 켈기든.{이제 제사 때는 이런 것은 절대 하지 말라 뭐 떡이든 고기든.} #1 예.{예.} @1 채소든 이거는 허지 말라 허는 거 이십니까?{채소든 이것은 하지 말라 하는 것 있습니까?}

10225 @2 예를 들면 과일 중에 복숭아는 올리지 말라.{예를 들면 과일 중에 복숭아는 올리지 말라.} #1 복숭아 올령 안햐쫘.{복숭아 올려서는 안돼지요.} @2 그런 시그로.{그런 식으로.} @1 그런. {그런.} #1 복숭아 올령 안돼고 또 머시 인나.{복숭아 올려서는 안되고 또 무엇이 있다.} @1 과이레는 복숭아.{과일에는 복숭아.} #1 예.{예.}

10225 @1 그 과이레는 또 이신가 마씨? 올리지 말렌 현 거?{그 과일에는 또 있는가요? 올리지 말라고 한 것?} #1 올리지 말렌 현 거 복숭아 피할 게 복숭아 뿐 다마뵤디.{올리지 말라고 한 것은 복숭아 피할 것이 복숭아 뿐 님아 뵤는데.}

10225 @1 켈기는 예.{고기는요.}

10225 #1 켈기는 이 저 비늘 업는 이 갈치라든지 치쫘 부튼 견떨.{고기는 이 저 비늘 업는 이 갈치라든지 치자 붙은 것들.} #2 고등에 고등에.{고등어 고등어.} #1 고등어.{고등어.}

10225 #2 그런 거.{그런 거.} #1 이런 거 올리지 아녕 그자 이 오테미 오테미나 이런 우럭 비늘 신 거.{이런 것 올리지 않아서 그저 옥돔 옥돔이나 이런 우럭 비늘 있는 거.}

10225 #1 비늘 신 거 허고 옴나렌 난 그 어려운 시대나네 이 오테미 사기가 어려우민 바당에 강으네 우럭 ㄹ튼 거 저 어랭이 나까당 헤 햐쫘다 경.{비늘 있는 거 하고 옛날엔 나는 그 어려운 시대니까 이 옥돔 사기가 어려우면 바다에 가서 우럭 같은 거 저 어랭이 낚아다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2 어랭이로 마씨.{어랭이로요.} #1 예.{예.}

10225 @1 어랭이도 비늘 언찌 아녀마씨?{어랭이도 비늘 업지 않아요?} #1 무사 어랭이.{왜 어랭이.} @1 비늘 어신.{비늘 어신.} #2 어랭이 막.{어랭이 막.} @1 어신 어랭이.{업는 어랭이.}

10225 #1 아 저 어랭이 비늘 어신 건 아예 제삿상에 올리질 마라야주.{아 저 어랭이 비늘 업는 것은 아예 제삿상에 올리지를 말아야죠.} #2 비늘 어신 어랭이.{비늘 업는 어랭이.}

10225 @2 계난 비늘 이신 거.{그러니까 비늘 있는 거.} #1 비늘 이신 거.{비늘 있는 거.} @1 그 걸 구어그네 올립띠가? 그걸 쟁으로 쫘띠가?{그것을 구워서 올렸습니까? 그것을 쟁으로 쫘습니까?}

10225 #1 애 나가?{아 내가.} #2 계영도 허곡.{갱도 하고.} #1 그 나까당으네 갱도 허곡 또 베리 싸그네.{그 낚아다가 갱도 하고 또 배를 타서.} #2 구웁.{구워서.} #1 뵤띠 밀량 경헤그네.{뵤에 말려서 그렇게 해서.} #2 옴나렌.{옛날에는.} #1 구웁 올리곡.{구워서 올리고.} @1 비늘 이신 어랭이 양.{비늘 있는 어랭이요.}

10225 #1 우러기영 뵤.{우러기랑 뵤.} @1 우러기영 예.{우러하고 예.} @1 흑씨.{흑시.} #1 마나.{따야.} @1 흑씨 오징에도 올려뵤띠가?{흑시 오징어도 올려뵤습니까?}

10225 #1 오징언 안해받쎄. 오징언 아녀보고.{오징어는 안해봤어? 오징어는 안해 보고.}

10225 @1 그럼 올리지 말라는 얘기도 업꼬.{그럼 올리지 말라는 얘기도 업고.} #1 아니 그거 지그른 적케여그네 올리는다.{아니 그거 지금 적해서 올리는데.} #1 요즈른 거 썬덜 저그로 허영 허는디 이 연나렌 그거 배랑 안 썬썬썬.{요즘은 그거 썬어서 적으로 해서 하는데 이 옛날에 그거 별로 안 썬썬지.}

10225 @1 그럼 채소 중에 흑씨 쓰지 말렌 허는 거 이심니까?{그러면 채소 중에 흑씨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있습니까?}

10225 #2 채소 중에 쓰지 말렌 허는 걸또 어신디.{채소 중에 쓰지 말라고 하는 것도 업는데.}

10225 @1 어신디 양. 계난 아까 과일레 복썬게 저 바닷꼬기에.{업는데 예. 그러니까 아까 과일레 복썬아 저 바닷꼬기에.} #1 예 바닷꼬기에 비늘 업는 거.{예 바닷꼬기에 비늘 업는 거.}

10225 #1 옛날 그 또 아여리 아여리엔 현 거시 이션는다 이젠 그거시 멀썬 썬썬썬. 그 고기.{옛날 그 또 매통이 매통이 한 것이 업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멀썬되어 버렸습디다. 그 고기.} @2 아여리 아여리.{매통이 매통이.}

10225 @2 예.{예.} #1 아여리 안 비늘 인는 이서도 안 썬디다.{매통이는 안 비늘 업는 업어도 안 썬디다.}10225 #1 뭐냐 늘레가 막 도커고.{뭐냐 비릿내가 막 독하고.}

10225 #1 늘레가 독커고 거 어떠엔 안 쓰냐고 허면 경덜 ㄱ름디다. 저 사라미 바당에 강으네 냥. 어떠케 해서 주그면 무래서 주구민 양 .{비릿내가 독하고 그거 어떻게 안 쓰냐 하면 그렇게들 말합디다. 저 사람이 바다에 가서 예. 어떻게 해서 죽으면 물에서 죽으면요.}

10225 #1 썬거가민 썬 먼저 다마드는 게 아여리라 헤 마씨. 사름 시체에. 게서 이건 에 머거 마슨 조코 현 고기라도 썬썬엔 올리지 못턴다. 경.{썬어가면 제일 먼저 달려드는 것이 매통이라 합디다. 사름 시체에. 그래서 이것은 먹어서 맛은 좋고 한 고기라도 썬썬에는 올리지 못한다. 그렇게.}

10225 #2 다른 거 해도 아여린.{다른 것은 해도 매통이는.} #1 아여린.{매통인.} #2 으서.{업어.} #1 아려린 으서.{매통이는 업어.}

10225 @1 안네 남썬가? 제사할 때.{고방에 놉니까? 제사할 때.} #2 예.{예.}

10225 @1 안네 멧 개 남썬가?{고방에 멧 개 놓고 있습니까?}

10225 #2 하나.{하나.} @1 하나.{하나.} #1 하나.{하나.}

10225 #1 썬디 우리 동네는.{그런데 우리 동네는.} #2 오치비.{오씨집.} #1 오떼게 오떼게나 강떼게는 ㄱ짜도 ㄱ랄짜마는 그 오좌수 그 이제 자근 부인 그 할망 이씨 할망을 모시주게.{오택에 오택에나 강택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그 오좌수 그 이제 작은 부인 그 할머니 이씨할머니를 모시지요.}

10225 #1 게서 다 딸 딸안티 다 물려 가 물려간 때무네 꼭 올려야 돼.{그래서 다 딸 딸한테 다 물려가 물려가는 때문에 꼭 올려야 돼.}

10225 @1 삼썬 씨집 오기 저네는 안네 멘 개 놉디까?{삼썬 씨집 오기 전에는 고방에 멧 개 놉습니까?}

10225 #1 하나.{하나.} #2 하나.{하나.} #1 우린.{우리는.} #2 우린 오란보난 하나 놉.{우리는 와서보니까 하나 놓고 업었어.} @1 오기 저네.{오기 전에.}

10225 #1 오기 저네도 하나.{오기 전에도 하나.}

10225 @1 아니 삼썬 저 지비.{아니 삼썬 저 집에서.} #2 아아 그디도 하나.{아아 거기도 하나.} @1 하나. 와도 하나.{하나. 와도 하나.}

10225 @1 흑씨 삼썬니 어른드리 올리난 올림띠가? 삼썬 왕보나네 ㄱ리쳐 줄 썬름 업썬누과?{흑씨 삼썬이 어들들이 올리니까 올렸습니까? 삼썬 와서 보니까 가르쳐 줄 사람 업썬습니까?} #2 아니 거기서부터 그 안네 논는 건.{아니 거기서부터 그 고방에 논는 것은.} @1 하나.{하나.} #2 누느로 하

나 논는 거.{눈으로 하나 놓는 것.} @1 봐서.{봐서.} #2 봐서 여기도 오란 보란 할머니가 하나 올리렌 허난 하나.{봐서 여기도 와서 보니까 할머니가 하나 올리라고 하니까 하나.} @1 하나 올리렌 허난.{할머니가 하나 올리라고 하니까.}

10225 @1 이거 혹시 무사 올립니까는 얘기는 안해 봄떠가?{이것 혹시 왜 올리느냐는 얘기는 안해 봤습니까?}

10225 #2 무사 건 안 안칠쌍이라고 안칠쌍.{왜 그것은 안 안칠성이라고 안칠성.}

10225 #1 안칠쌍.{안칠성.} #2 안칠쌍.{안칠성.} #1 안칠쌍 안칠쌍 허주.{안칠성 안칠성 하지.} #2 안칠쌍 어신 지븐 어시나넨 건 올리렌.{안칠성 없는 집은 없으니까 그것은 올리라고.}

10225 @1 예 올리렌 허난 하나 올령.{예 올리라고 하니까 하나 올려서.}

10225 #2 따시 그냥 대정선 받 받칠쌍영 신디 또 두 개 올리는 디 인꼬 여기도 오란 알력지비 우리 아지방 부인이 오치비난 오란 두 개 올린게. 게도 난 그자 항상 하나.{다시 그냥 대정에서는 바깥 바깥칠성이랑 있는 데는 또 두 개 올리는 디 있고 여기도 와서 아랫집에 우리 아주머니 부인이 오씨 집이니까 와서 두 개 올렸어./ 그래도 나 그자 항상 하나.}

10225 @1 게서 안칠쌍을 위해서 하나 받칠쌍까지 위허민 두 개.{그래서 안칠쌍을 위해서 하나 바깥칠성까지 위하면 두 개.}

10225 #1 우린 받칠쌍 업꼬.{우리는 바깥칠성 없고.} @1 어시니까.{없으니까.} #1 그자 안칠쌍만 으.{그저 안칠성만 예.}

10225 @1 메느리들도 그거 올려살 건가 마씨?{며느리들도 그거 올려야 것인가요?}

10225 #1 아니 게난 메느리가 우리 메느리가 오떼기나 강떼게 메느리가 열쭈게. 오씨 성을 가진 메느리드리 어시나네.{아니 그러니까 며느리가 우리 며느리가 오택이나 강택의 며느리가 없지요 오씨 성을 가진 며느리들이 없으니까.}

10225 @1 게문 오떼기나 강떼기 아닌 다른 메느리가 와쓸 때 또 역시 하나 올립니까?{그러면 오택이나 강택이 아니라 다른 며느리가 왔을 때 또 역시 하나 올립니까?} #1 하나 하나배끼 안 해당이 어실꺼주.{하나 하나밖에 안 해당이 없을 거지요.} @2 오떼기 오면.{오씨 택이 오면.} #1 예.{예.}

10225 #1 게난 우리 알력지비 우리 육초는 그 아주망이 주거별쭈다 마는 오떼기나네 거긴 두 개 올립니다.{그러니까 우리 아래집에 우리 육촌은 그 아주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마는 오택이니까 거기 는 두 개 올립니다.} @1 하나 올리단 마씨. 거 켄디 이게 중요해.{하나 올리다가요. 거 그런데 이것이 중요해.} #1 예.{예.}

10225 #1 예 하나 올리단 두 개 반드시 경허게 쉰 거.{예 하나 올리다가 두 개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하게 된 것.}

10225 #2 게난 이제.{그러니까 이제.} @1 반드시 경험니까?{반드시 그렇습니까?} #2 주거부러도 이제도 두 개 올림쭈게.{죽어버려도 이제도 두 개 올립니다.} @1 게민 그거는 그 여자 지베 성씨가 어떤 거냐 따라서.{그러면 그것은 그 여자 집에 성씨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10225 #1 예.{예.} @1 감니까?{갑니까?} #1 글로 부떠간덴 허주. 구시니.{거기로 붙어서 간다고 하지요. 귀신이.} @1 부떠간덴 마씨.{붙어간답니다.} #1 예 구시니.{예 귀신이.} @1 이 안네는 세 개는 세 개는 안 올리는가 마씨?{이 고방에는 세 개는 세 개는 안 올리는가요?}

10225 #1 세 개도.{세 개도.} #2 아니 세 개 신던 그냥.{아니 세 개 있는데는 그냥.} #1 세 개 신던 말.{세 개 있다는 말.} @1 인긴 험니까?{있기는 합니까?} #1 그건 잘 모 모르겠는데.{그것은 잘 모 모르겠는데.} @1 봐남떠가? 세 개 이신디.{봤었나요? 세 개 있는데.}

10225 @1 안 봐남쭈게 양. 게난.{안 보았었지요. 그러니까?} #1 그건 안 판.{그것은 안 보았어.} @1 오씨는 두 개 그리고 하나.{오씨는 두 개 그리고 하나.}

10225 @1 혹시 안 올리는 디도 이썬니까?{혹시 안 올리는 곳도 있습니까?}

10225 #1 그 우리 소문 소문 듣는데 이 새당꼭지 새당이엔 헨디나 어디 등등은 이 저 거 받칠성인가 무신 느낌지 허여그네 그 도깨비 귀신을 위한다 해.{그 우리 소문 소문 듣는데 이 새당꼭지 새당이라고 한 곳이나 어디 등등은 이 저 그것 바깥칠성인가 무슨 이영 해서 그 도깨비 귀신을 위한다고 해.}

10225 #2 아 그건 받칠성 아니우파? 저.{아 그것은 바깥칠성 아닙니까? 저.} #1 받칠성이라.{바깥칠성이라.}

10225 #2 새당은.{덕수리는?}

10225 #1 저 머 족찌 차그네.{저 뭐 주저리 차서.} #2 저.{저.} #1 베꼈디.{바깥에.} #2 불 불미 허는 따무느로.{풀 풀무하는 때문에.} #1 이디 정복쭈니네 늘 그거 허당 아녀나네.{여기 정복쭈니네 늘 그것 하다 안하니까.} #2 정보쭈니네.{정복쭈니네.} #1 욱 당허멍.{욕 당하면서.} #2 정복쭈니네 저 불미해나네게.{정복쭈니네 저 풀무하니까니.}

10225 @1 케민 거기는 세 개 올림니까?{그러면 그 곳은 세 개 올림니까?}

10225 #1 그걸 모르커라 원.{그것을 모르겠어 원.} #2 세 개 올리는 거.{세 개 올리는 것.}

10225 #1 세 개사 올려심디 두 개사 올림심디 건 누느로 화긴 모턴 이리나네.{세 개야 올리는지 두 개야 올리는 지 그것은 눈으로 확인 못한 일이나}

10225 #2 케난 .{그러니까} #1 세 개 그런 걸 보민 세 개 올린다고도 볼 수 있쭈.{세 개 그런 것을 보면 세 개 올린다고도 볼 수 있지.}

10225 @1 강제문 씨네 집 등어리는 지금도 받칠성 인짜누파?{강제문 씨네 집 근처에는 지금도 바깥칠성 있잖습니까?}

10225 #1 아 나 거.{아 나 그것.} @1 안 드러 봐납디가?{안 들어 봤습니까?} #1 얼푼 드르난 인 쟈말도 드 얼푼 드러나서.{얼핏 들으니까 있다는 말도 들 얼핏 들었었어.} @1 아니 드런나곡 보진 못터고 예.{아니 들어나기는 하고 보지는 못하고 예.} #1 보진 안 봐나서.{보지는 안 봐났어.}

10225 @1 여기는 지금도 받칠성이 이십쭈게.{여기는 지금도 바깥칠성이 있습니까.} #1 아아.{아아.}

10225 @1 그게 이게 아네 두 개 올리는 진 모르고 예.{그것이 이것이 고향에 두 개 올리는 지는 모르겠고.} #1 예.{아.} @1 저는 저 순수 제사허민 예.{저는 저 순수 제사하면 예.} #1 케민 그딤 세 개 올림쭈. 경허며는.{그러면 거기는 세 개 올린다. 그러면.}

10225 @1 아 쟈디 이제 몰라서 저가 여쭈보는 거라 예.{아 그런데 이제 몰라서 제가 여쭈보는 겁니다.}

10225 #1 경허는 거시 그디가 또.{그렇게 하는 것이 거기가 또.}

10225 #2 도레물도 우리.{도레물도 우리.}

10225 #1 오씨 이씨 할망도 모섬쭈게. 그디.{오씨 이씨 할머니도 모시고 있지. 거기.}

10225 #2 너머탱기멍 보민 받칠성 그 사람네가 떠나부러도 그 그 받편 항상 놀이 그냥 셔.{지나다니면서 보면 바깥칠성 그 사람네가 떠나버려도 그 그 받에는 항상 가리가 그냥 있어.}

10225 @1 도레무레도 양.{도레물에도 예.} #2 예.{예.}

10225 @1 지금도 볼떠가?{지금도 봤습니까?}

10225 #2 아 지그른 낭 싱거불고 하간 거 허나네 지그른 그거 안 베린디 옛날 우리 글로 너머탱기멍 보민 그 사르른 떠나부러도 그 그냥 주쟁인 그디 이리케 세와진 냥.{아 지금은 나무 심어지고 여러가지 하니까 지금은 그것 안 보이는데 옛날 우리 그리로 지나다니면서 보면 그 사람은 떠나버려도 그 그냥 주저리는 거기 이렇게 세워진 채.}

10225 @1 받칠성은 도깨비파?(바깥칠성은 도깨비입니까?)

10225 #2 도깨비산디 뭘싼디 머.{도깨비인지 무어신지 뭐.}

10225 @1 받칠성이 뭐엔 험니까?(바깥칠성이 뭇이라고 합니까?) #2 받칠쌩.{바깥칠성.} #1도깨비 받칠쌩.{도깨비 바깥칠성.} @1 삼추는 뭔지 모르고.{삼춘은 무엇인지 모르고.} #1 받칠쌩이 따로 인꼬 그거 도깨비가 따로 인찌 아는가? 나는 모를로고.{바깥칠성이 따로 있고 그거 도깨비가 따로 있지 않은가? 나는 모르겠어.} #2 도깨비가 따로 서 따로 받칠쌩 인꼬.{도깨비가 따로 있어 따로 바깥칠성 있고.}

10225 #2 따시 그 도깨비여 무신 거 현 건.{다시 그 도깨비여 무슨 거 하는 것은.} #2 거 따로 인는 거주게. 이씨할망 가는 디가 받 받칠쌩인디 건 따로 인는 따로 엄연히 따로 떠난 거주.{그거 따로 있는 거지요. 이씨할머니 가는 데가 바깥 바깥칠성인데 그것은 따로 있는 따로 엄연히 따로 다른 거지요.}

10225 #2 저.{저.} #1 계난 세 개 모시는 디 세 개 모셔서.{세 개 모시는 곳은 세 개 모시고 있어.}

10225 @1 안칠쌩은 뭐우짜?(안칠성은 무엇입니까?)

10225 #2 안칠 그자 안칠쌩은.{안칠 그저 안칠성은.}

10225 #1 안칠쌩은 고팡 안네 게.{안칠성은 고팡 안네요.}

10225@1 고팡 안네.{고방 안네.} #1 고팡 안네.{고방 안네.} @1 그걸 모시는데 예. 그걸 모시는 데가 고팡 안네.{그것을 모시는데 예. 그것을 모시는 곳이 고팡 안네.} #1 에 고팡 안네.{에 고팡 안네.}

10225 #2 그거 그자 식께 때나 멩질 때나 그자 메 혼 그른 그자.{그거 그저 제사 때나 멩질 때나 그저 메 한 그릇 그저.}

10225 @1 지그른 안네는 어디 놉니까? 안네 놀 건?(지금은 안네는 어디 놉습니까? 안네 놀 것은?)

10225 #2 안네 이제 이제 그자 쓸통 우의 그자 쓸통 우의 놉쥬.{안네 이제 이제는 그저 쓸통 위에 그저 쓸통 위에 놓지.}

10225 그냥 쓸통 우의.{그냥 쓸통 위에.} #1 하하.{하하.} #2 이제 경 안빵도 열꼬.{이제는 그렇게 고팡도 없고.}

10225 #2 이제 저 엔나른 그 안칠쌩 모스는 황이.{이제는 저 옛날은 그 안칠성 모시는 향아리가.}

10225 #1 큰 향이 인쥬게. 도기.{큰 향아리가 있지요 독이.}

10225 #2 아니 큰 거.{아니 큰 것.} #1 쥬 논는 거.{쥬 놓는 것.} #2 큰 거 큰 거 아니 조그마한 우리.{큰 것 큰 것 아니 자그마한 우리.} #1 쥬 거려.{쥬 떠서.} #2 바로 저디 인쥬다.{바로 저기 있습니다.} #1 쥬 거려멍는 거. 쥬 거려멍는 쥬.{쥬 떠 먹는 것. 쥬 떠먹는 쥬.}

10225 #2 아니우다.{아닙니다.} #2 우선 거려멍는 쥬 우의 쥬향 우의.{우선 떠 먹는 쥬 위에 쥬독 위에.} #2 거 모 거려먹는 쥬 아니우다. 그.{그것 모 떠 먹는 쥬 아닙니다. 그.}

10225 #2 오란보난 그 이제 황 저디 우리 인쥬다.{와서 보니까 그 이제 향아리 저기 우리 있습니다.}

10225 #2 그 황에 할머니가 나로글 그 일곱 마른 일곱 말 든텐 허멍 그 나로글 그디 뇌서 이제 그딘 나로글 강 저당 이제 그 안칠쌩 뇌난 우의 이제 멩질 때나 어디라도 이제 거기 그디 빠비라그네 남 주지 말라.{그 향아리에 할머니가 벼를 그 일곱 말은 일곱 말 든다고 하면서 그 벼를 거기에 놓아서 이제 거기에 있는 벼는 쥬어다가 이제 그 안칠성 놓아난 위에 이제 멩질 때나 어디라도 이제 거기 그 곳에 밥일랑 남을 주지 말라.}

10225 #2 남주지 마라그네 이녁만 머그라.{남 주지 말고 자기만 먹어라.}

10225 쓸도 그디 꺼 저온 거들랑 남 주지 말라.{쌀도 거기 거 쪼은 것일랑은 남 주지 말라.}

10225 저 이너기나 머그라. 그 황 겨곡 그 황에 나로글 헤영 거렁 지레 이젠 지레 가도 그디 쓰를 클방에 놔 쥐불지 말라.{저 자기나 먹어라. 그 향아리 그리고 그 향아리에 벼를 해서 떠서 쪼으러 가도 이제는 쪼으러 가도 거기 쌀을 방앗간에 남 쥐버리지 말라.}

10225 #2 할머니가 항상 그 안네 올려난 밥 놔 주지 말라. 주지말고 이녁만 머그라.{할머니가 항상 그 안에 올려난 밥 남 주지 말라. 주지 말고 자기만 먹어라.}

10225 #2 경 경 예 계난 그 황 이제 이디 우리가 이 지블 상 올 찌기 그거 알판 그르후젠 용서도 지지 아녀고 흐나네 이제 저디 ㅁ마니.{그렇게 그렇게 예 그러니까 그 향아리 이제 여기 우리가 이 집을 사서 올 적에 그거 가져다가 그 후에 농사도 짓지 않고 하니까 이제 저기 가만히.}

10225 #2 어디 다침이나 허카부텐 ㅁ마니 그디 놀 나르기 어스나네 곡서기 어스난 ㅁ마니 놔두고.{어디 다치기나 할까봐 가만히 거기에 놓을 벼가 없으니까 곡식이 없으니까 가만히 놔두고.}

10225 #2 이제 나 식께 멩질 헐 땀 그자 쓸통 우의 영 거려노코 이제라도 어디 머 촛 으드레 당이나 어디 갈 찌기 또 그레 메 혼 그른 거려놔뒤그네 강 오곡.{이제 내가 제사 명절 할 때는 그저 쓸통 위에 이렇게 떠 놓고 이제라도 어디 뭐 참 여드레당이나 어디 갈 적에 또 거기로 메 한 그릇 떠서 놔둔 다음 다녀오고.}

10225 #2 이제 경 황은 ㅁ만이 두께이 더끄고 모상 ㅁ만히 놔땡.{이제는 그렇게 향아리는 가만히 두께 덮고 모셔서 가만히 놔두고.}

10225 @1 예 나중에 양?{예 나중예요?} #2 예.{예.}

10225 @1 그 친구분들한테 칠성은 뭐고 양 안칠성은 뭐고 받칠성은 뭐우짜 좀 혼 번 무러방 놔둑써.{그 친구분들한테 칠성은 무엇이고 예 안칠성은 무엇이고 바깥칠성은 무엇입니까 좀 한 번 물어봐서 놔두십시오.}

10225 #2 그자 항상 저 대 이딘 오란 그런 거 안 본디 대정선 이제 너머땡이멍 그디 받칠성 일찌 받칠성 일찌 허나네 이제 그 받칠성 모순 거 땡 땡 봐나고.{그저 항상 저 대 여기는 와서 그런 것 안 봤었는데 대정에선 이제 지나다니면서 거기 바깥칠성 있다 바깥칠성 있다고 하니까 이제는 그 바깥칠성 모신 것을 몇 번 봤었고.}

10225 #2 여긴 오민 안네 건 머시넌 허문.{여기 오면 안에 것은 땡이나 하면.}

10225 #2 안네 거 안칠성 건 안칠성 그자 지비 저 거세기 언제라도 경 거려논는 거엔만 허멍 경만 허난 그자 안칠성인가허곡 바깥디 신 건 받칠성인가 허곡 받.{안에 것은 안칠성 그것은 안칠성 그저 집에 저 거시기 언제라도 그렇게 떠놓는 것이라고만 하면서 그렇게만 하니까 그저 안칠성인가 하고 바깥에 있는 것은 바깥칠성인가 하고. 바깥.}

10225 #2 바깥디 신 칠성은 흐썰 쪼끔 따나게 흐썰 ㅁ습께 ㅁ라. 건.{바깥에 있는 칠성은 조금 조금 다르게 조금 무섭게 말해. 그것은.} @1 아.{아.} #2 거시지 말라.{건드리지 말라.} @1 거시지 말라.{건드리지 말라.} #2 그건 항상 어딜 가도 그거 들랑 텡긴텐 허멍 거시지 말라고.{그것은 항상 어디를 가도 그것은 따라 다니다고 하면서 건드리지 말라고.}

10225 #2 이 불미 불미나 허는 건 건 저 어디 강 오라그네 돈떼가리 허영당으네 그 불미허는 영우티레 올리고 땡 그건 잘 위허지 아녀민 불미도 안웨고 흐썰 잘문터민 폭삭 망해불곡.{이 풀무 풀무나 하는 것은 그것은 저 어디 가서 와서 돼지머리 해다가 그 풀무 하는 이렇게 위쪽으로 올리고 모두 그것 잘 위하지 않으면 풀무도 안되고 조금 잘못하면 폭삭 망해불고.}

10225 #2 경헌텐 허멍.{그렇다고 하면서.} #1 도깨비 귀시넌 허주.{도깨비 귀신이라고 하지.}

10225 @1 그러면.{그러면.}



10225 #2 도체비 귀신엔 허멍.{도깨비 귀신이라고 하면서.} @1 그 저 새당에서 씨집 온 여자드론 그 불미신도 반드시 위험직 허다 예.{그 저 덕수리에서 씨집 온 여자들은 그 풀무신도 반드시 위험직 허다 예.} #2 예.{예.}

10225 #2 경허난.{그러니까.} #1 지비서 허단 거니까.{집에서 하던 것이니까.}

10225 #2 저 그 우리가 저 서이 신 때에 우리 어머님 마리 우리 오빠가 서 나신디 그디 새각씨라도 하나 거세기 허젠 중매를 혜줍쨌. 우리 두린 때 그르난 안웁다.{저 그 우리가 저 서쪽에 있을 때에 우리 어머님 말이 우리 오빠가 있었는데 거기 새색시라도 하나 거시기 하려고 중매를 해주십시오. 우리 어릴 때 말하니까 안된다.}

10225 #2 그던 도체비 서분 따무느로 그던 여자 여기 오란 안웁다. 우린 거 드른 마린 디.{거기는 도깨비 있기 때문에 거기 여자 여기 와서는 안된다. 우리 그것 들은 말인데.}

10225 #2 경혜연 우리 오빠가 그 새당 여젤 폰테여반. 무서왕 계난 연나른 새당 여자 아무 디라도 저 가지 몬터연 가지 몬터연 이 지그른 어디라도 감쭈마는 그 때엔 새각씨 중매 허젠 헤도 무서왕 몬터여. 그 도체비 따문.{그렇게 해서 우리 오빠가 그 덕수리 여자를 못했어. 무서워서 그러니까 옛날은 덕수리 여자 아무 데라도 저 가지 못했어. 가지 못했어. 이 지금은 어디라도 가고 있지만 그때에는 새색시 중매 하려고 해도 무서워서 못했어. 그 도깨비 때문.}

10225 @1 흑씨 불미 불미허영 무서운 게 아니고 냥.{흑씨 풀무 풀무 해서 무서운 것이 아니고 예.} #2 예 .{예.} @1 그 새당에 광정당이라고 허는 당이 인는데 흑씨 그거 무서운 거꽈? 불미 불미 때무니런 험띠가? 불미 귀신이엔 험띠가?{그 덕수리에 광정당이라고 하는 당이 있는데 흑씨 그거 무서운 겁니까? 풀무 풀무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풀무 귀신이라고 했습니까?}

10225 #2 아메도 불미 따문일테주.{아마도 풀무 때문일테쨌.}

10225 @1 불미 때문이라 양?{풀무 때문이라 예?} #2 예.{예.}

10225 #1 불미 귀신 불미 귀신 허멍.{풀무 귀신 풀무 귀신 허멍.} @1 아 불미.{아 풀무.} #2 예. {예.} #2 귀신 불미 귀신 험니까?{귀신 풀무 귀신 합니까?} #2 예.{예.}

10225 #2 새 새당은.{덕 덕수리는.} @1 대정 대정은 그 새당 여자 함부로 허지 마라 예.{대정 대정은 그 덕수리 여자 함부로 하지 말아 예.} #2 예.{예.}

10225 #2 거기 경허곡 이제 저 돌쑥이.{거기 그렇게 하고 이제 저 도순리.} @1 예 돌쑥이.{예 도순리.}

10225 #2 돌 돌쑥이가 도체비가 그디가 도체빌 하영 모상.{도 도순리가 도깨비가 거기가 도깨비를 많이 모셔.}

10225 @1 아 거기 도체비 하영 모십니까?{아 거기 도깨비 많이 모십니까?} #2 예.{예.} #1 돌쑥이 사름더리.{도순리 사람들이.} #2 돌쑥이.{도순리.}

10225 @1 그계 받칠썰이우꽈?{그것이 바깥칠성입니까?}

10225 #2 아 아이 받 받칠썰.{아 아니 바깥 바깥칠성.} #1 그건지 아닌지 모르는데 도체빌 하영 모사 예.{그것인지 아닌지는 모르는데 도깨비를 많이 모셔 예.} #2 하영 모사.{많이 모셔.}

10225 #2 여기 기 선생 우시게 잘 허는 어르니 강정 가네 이제 선생지를 현 디.{여기 기 선생 우스개 잘 하는 어른이 강정 가서 선생 노릇을 하는데.}

10225 #2 우시개로 아이고 바민 저 강정 가젠 허민 돌쑥이 큰내에 도체비가 펄롱펄롱 나사블므로 나사 경허멍 막 ㄴ란 우리 우시개로 드른다.{우스개로 아이고 밤에는 저 강정 가려고 하면 도순리 큰내에 도깨비가 펄롱펄롱 나사버려서 나사 그렇게 하면서 막 말해서 우리 우스개로 들었는데.}

10225 #2 예 경 그 도체비가 계명 연나른 도체빌 정시물 허영 드르에 갈 때도.{예 그렇게 그 도깨비가 그렇게 하면서 옛날은 도깨비를 점심을 해서 들에 갈 때도.}

10225 #2 이제 이저부렁 그 정심빠블 그디 거러 논는 디 정쌌바블 안 거러 놔뵤 강 오랑 보민 그 부어게 부리 벌경 해날젠 허여.{이제 잊어버려서 그 점심밥을 거기 떠 놓는데 점심밥을 안 떠 놔두면 갔다 와서 보면 그 부억에 불이 벌경게 타올랐다고 해.}

10225 #2 경헌 따문 검나서 항상 그걸 이제 멩심허영 그 바블 정심빠블 거려놔뵤 간젠.{그렇게 한 때문 겁이 나서 항상 그것을 이제 멩심하여서 그 밥을 점심밥을 떠 놓고 갔다고.}

10225 #2 겐디 이 우리 서녁 지비가 그 불미헿 이제 그걸 위허멍 잘 위허지 몬헿고라 이제 복쌉 망허연에.{그런데 이 우리 서쪽 집에서가 그 풀무해서 이제 그것을 위하면서 잘 위하지 못했는지 이제 폭쌉 망하여서.}

10225 #2 이제 그 아더리 거 허지맷췌. 거 어멍고라 두르쟁헌 거세기 허지맷췌. 허멍 어드레 거세기 공기 존 딜로 갑췌. 헿췌 이제 배송을 헤분 모양이라.{이제 그 아들이 그거 하지마십시오 그거 어머니한테 하잖은 거시기 하지마십시오. 하면서 어디로 거시기 공기 좋은 데로 가십시오. 조금 이제 배송을 해버린 모양이라.}

10225 #2 경헌디 따시 췌따더른 이제 장설허멍 헿 더레 헿 번씩 사느로 가그네 막 시방 거세기 허여오나네 불공을 허여오난 이제 췌아덜 물 부끄든 막.{그런데 다시 둘째 아들은 이제 장사를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산으로 가서 막 지금 거시기 해서 오니까 불공을 해서 오니까 이제 둘째 아들은 물 끓듯 막.} @2 으.{예.} #2 잘 뵤연 시방. 큰 큰아더른 몬 뵤고.{잘 뵤어 지금. 큰 큰 아들은 안 되고.}

10225 @1 오늘 여기까지 드르쿠다.{오늘 여기까지 들췌습니다.} 웃음.



## 제2편 어휘

### 2.1. 농경

#### 2.1.1. 경작

20101 벼	20101 요건 나루긴데
20102 이삭	20102 건 나록고고리, 나루기엿 홉쭈 이걸, 나록고고리, 요건 나록고고리
20103 볍씨	20103 나록싣, 나록씨엿
20104 못자리	20104 뉼자리엿 아녀
20105 모판	20105 뉼자리
20106 쟁기	20106 잠데 잠데, 장기 아니라게
20107 보습	20107 보섭
20108 벧	20108 뉼, 뉼
20108-0-1 -이	20108-1 보섭뉼에 베시 이십쭈 뉼
20109 곡쟁이	20109 *
20110 씨레	20110 설메
20111 번지	20111 곱베, 곱베 미수다, 밀레
20112 모내기	20112 *
20113 흙덩어리	20113 병에
20114 고무래	20114 건 당근내, 당근내엿
20114-1 고무래(곡식용도)	20114-1 당근내, 당근네루
20114-2 고무래(재용도)	20114-2 불근내
20114-3 고무래(흙용도)	20114-3 *
20114-4 고무래(미는 데 사용)	20114-4 밀레
20114-5 고무래(당기는 데 사용)	20114-5 당근내
20115 쇠스랑	20115 쉼스랑이우다 이견
20116 곡쟁이	20116 곡쟁이엿도 허곡, 목쟁이, 목쟁이마썸
20117 쟁이	20117 쟁이
20118 삽	20118 갈래쭈, 사비우다 삽
20119 호미	20119 굴쟁이, 굴쟁이마썸
20120 농기구	20120 연장

20121 김	20121 이건 검질 맬 때마썸, 메살룸이엔 힘니다
20122 김매다	20122 검질매다
20123 애벌매다	20123 초불 두불 세불, 초불검지를 매애야 험쭈
20123-1 두벌매다	20123-1 두불검지를 매사 허곡
20123-2 마지막(세벌)김매기	20123-2 망물검지를 매야 허곡
20124 논두둑	20124 논씨둑, 시두기엔 힘니다, 시둑 힘니다 파니
20125 발둑	20125 시두기엔
20126 발두둑	20126 파니
20127 발고랑	20127 고랑, 고랑이고, 고랑이엔 힘니다, 파니엔
20128 발이랑	20128 이렁마씨
20128-1 (발이랑을)타다/갈다/썰다/파다	20128-1 *
20128-2 이랑 밟기	20128-2 *
20129 보리	20129 요건 보리우다 이거
20129-1 가을보리	20129-1 *
20129-2 봄보리	20129-2 *
20130 보리쌀	20130 보리썰, 보리썰마썸
20131 가을같이	20131 *
20132 감부기	20132 간비여기엔 힘니다, 간비역,
20133 두엄	20134 돌꺨름, 쉐꺨름
20134 거름	20134 꺨름

## 2.1.2. 타 작

20201 추수하다	20201 ㄱ슬 험수다
20202 벧단	20202 다니엔 힘니다 이디션
20202-1 벧단(한줌 정도)	20202-1 나로근 나룩판, 나룩판
20202-2 벧단(타작할 정도)	20202-2 흐 줌, 흐 줌 두 줌, 줌
20202-3 벧단(한아름 정도)	20202-3 흐 나눔
20203 가리(積)	20203 놀, 놀마씨 놀
20204 가리다(積)	20204 놀 놀라
20205 벧가리	20205 겐또 나룩누립쭈
20206 날가리	20206 누리엔 흐곡
20207 타작	20207 태작
20208 벧훤이	20208 *
20208-1 그네	20208-1 나룩클 나룩클 험는데 양, 나룩틀마씨
20209 개상	20109 *

20209-1 자리개	20209-1 께로 무꿍쭈 께
20209-2 자리개질	20209-2 *
20210 도리깨	20210 도께마쌌
20210-1 도리깨장부	20210-1 요건 도께어시
20210-2 도리깨열	20210-2 요건 도께아더리 미수다마는, 요건 도께아덜
20210-3 도리깨꼭지	20210-3 툄레 툄레, 도께 툄레마쌌, 요건 도께 툄레
20211 벧짚	20211 나륙썩
20211-0-1 -을	20211-0-1 *
20211-0-2 -에	20211-0-2 나륙썩게 불 부저불라
20212 새뻬기	20212 *
20213 쪽정이	20213 그건 나륙 줄레, 줄레 줄레 줄레마쌌 줄레
20214 티	20214 누넨 가시 드런쥬 호곡, 머들머을, 머을
20215 까끄라기	20215 ᄇ스라기엔 홈니다, ᄇ스라마쌌, ᄇ스라기, ᄇ스라
20216 풍구	20216 불미마쌌 불미
20217 원두막	20217 웬막마쌌
20218 허수아비	20218 허재비마쌌
20219 흥년	20219 송년 드런쥬 헉쭈마
20220 머슴	20220 득사리도 도사리
20221 낱	20221 낱 낱 비러사
20221-0-1-을	20221-0-1 노블 비러사
20221-1 (낱을)사다/얻다/부리다	20221-1 예 노블 빌다준텅 허쭈 폼
20222 품앗이	20222 수눔
20223 품삯	20223 일궂을 쥬야 할 거 아니꽈 일궂, 궂, 푸믈
20223-0-1 -으로	20223 *

### 2.1.3. 방아 쥬기

20301 방아	20301 벵이, 벵이, 방에, 방아
20302 디덜방아	20301 *
20303 방앗공이	20303 건 메고 메나네
20304 방아확	20304 ᄇᄇᄇ이, 돌ᄇᄇ이, 호ᄇᄇ이
20305 물레방아	20305 물방에
20306 연자방아	20306 툄벵이, 툄그레, 툄구레마쌌
20307 절구	20307 돌방에 예 돌방에 돌방에, 절궂 절궂
20308 절구통	20308 절궂
20309 절궂공이	20309 방엔궂, 벵엔궂, 벵인궂

20310 절구질  
20311 겨  
20312 보릿겨  
20313 왕겨  
20314 등겨  
20315 검불  
20316 껍질

20310 절구질 허라  
20311 껍떼기는 체  
20312 보리체엿 보리체, 예 보린체  
20313 나록에서민 나록체  
20314 망물갸르 예 예, 보미  
20315 부근데기, 부근데긴 북떼기고  
20316 곱죽

#### 2.1.4. 곡 물

20401 곡식  
20402 찹쌀  
20403 멥쌀  
20404 쌀보리  
20405 조  
20406 차조  
20407 메조  
20408 좁쌀  
20409 작다  
20410 조이삭  
20411 수수  
20411-1 붉은색수수  
20411-2 장목수수  
20411-3 찰수수  
20411-4 메수수  
20412 수수깡  
20413 옥수수  
20413-1 찰옥수수  
20413-2 메옥수수  
20414 귀리  
20415 메밀  
20416 콩  
20417 콩깍지  
20418 메주  
20419 매달다  
20420 띄우다

20401 예 곡떡  
20402 출쌀  
20403 메쌀  
20404 솔로리 쌀  
20405 조  
20406 흐린조  
20407 모인조  
20408 좁쌀, 좁쌀  
20409 즈 줍니다 즈라  
20410 조코코리아쌈  
20411 비대죽, 이거 대죽짜니짜 대북  
20411-1 새당대주기라고  
20411-2 비대죽  
20411-3 \*  
20411-4 \*  
20412 대중냥  
20413 부루기대주기주게, 부루기대죽  
20413-1 \*  
20413-2\*  
20414 \*  
20415 모똥, 아 똥 똥  
20416 콩  
20417 콩깍죽  
20418 메주 메주  
20419 엔나른 드라메질 아너고  
20420 튀우는 거

20421 곰팡이  
 20422 강낭콩  
 20423 콩기름  
 20424 깨  
 20424-1 참깨  
 20424-2 들깨  
 20425 고소하다

20421 곰새미엔도 허곡, 곰팡이라고  
 20422 강낭콩, 완전히 두불 콩  
 20423 콩지름  
 20424 패로, 패로 만든 거주  
 20424-1 춤패로 뽀븐 거시 춤지르미고  
 20424-2 들깨, 유, 윤패  
 20425 냄새가 코소롱호고, 코소롱홉쭈게

### 2.1.5. 채 소

20501 채소  
 20502 나물  
 20502-1 나물(밭, 재료)  
 20502-2 나물(밭, 반찬)  
 20502-3 나물(들, 재료)  
 20502-4 나물(들, 반찬)  
 20502-5 나물(산, 재료)  
 20502-6 나물(산, 반찬)  
 20503 푸성귀  
 20504 다듬다  
 20505 반찬  
 20506 무  
 20507 썰다  
 20508 무청  
 20509 시래기  
 20510 무말랭이  
 20511 장다리무  
 20512 배추  
 20513 고갱이  
 20514 오이  
 20515 오이지  
 20516 오이소박이  
 20517 가지(茄子)  
 20518 호박  
 20519 고구마  
 20520 감자

20501 노물 노물  
 20502 노멸  
 20502-1 \*  
 20502-2 \*  
 20502-3 드른모물, 들노물  
 20502-4 \*  
 20502-5 \*  
 20502-6 \*  
 20503 송키  
 20504 도드브라  
 20505 바차니주 머, 반찬  
 20506 요건 놈빼우다  
 20507 놈빼 썰라  
 20508 이견 놈빼썸, 초마귀, 초마귀노멸, 초메기노물  
 20509 씨래기, 씨래기늬물  
 20510 생기리  
 20511 \*  
 20512 두마기주, 두메기, 배치, 이거 배추주게  
 20513 썩 썩  
 20514 물웨, 웨, 웨게마썸, 통트러서 웨주 웨  
 20515 웨짐치  
 20516 \*  
 20517 가지, 가진게마씨  
 20518 호바기우다  
 20519 감자, 감저 감저  
 20520 지슬

20520-1 잘다  
20521 우영  
20522 파  
20523 고추  
20524 시금치  
20525 미나리  
20526 부추  
20527 상추  
20528 마늘  
20529 생강  
20530 냉이  
20531 달래  
20532 도라지  
20533 더덕

20520-1 감자가 너무 줄다  
20521 마농 마농  
20522 꿩마농  
20523 고치  
20524 시금치  
20525 미내기  
20526 세우리마쌈  
20527 부루마쌈 부루  
20528 대사니 대사니, 이게 대사납쭈, 콤대사니  
20529 생강이우다  
20530 난쟁이 난쟁이  
20531 꿩마농, 드른마농을 꿩마농이엔 허주  
20532 이건 도라지 아니파  
20533 던더기 마자, 더덕

## 2.2. 음식

### 2.2.1. 주식과 부식

20601 쌀밥  
20602 찬밥  
20602-1 더운밥  
20603 조밥  
20604 누룽지  
20605 눌은밥  
20606 송농  
20607 뜨물  
20608 김(蒸氣)  
20609 갱죽(羹粥)  
20610 상겍다  
20611 국수  
20612 칼국수  
20612-1 기계국수/틀국수  
20613 건더기

20601 곤밥  
20602 시근밥  
20602-1 더운바빱쭈게, 더운밥  
20603 조팝  
20604 누렁밥, 누렁이  
20605 누녕이밥, 누렁밥, 누렁이죽  
20606 그거 송농, 송농이엔 허주게  
20607 툃물  
20608 짐 남쩌 짐  
20609 국죽  
20610 너무 상겍따  
20611 국쭈  
20612 칼국  
20612-1 국쭈  
20613 건더기, 건지엔도 곤쭈



20613-1 국물	20613-1 궁물만 나물깍जू
20614 고명	20614 양녀미옐 흐는가, 양념치라
20615 꾸미	20615 *
20616 미역	20616 메역, 메역꾸마쌈
20617 김(海苔)	20617 짐
20618 수제비	20618 제베기
20619 끼니	20619 때 걸르지 말라
20620 미옐	20620 미옐
20620-1 (미옐을)끓이다/쭈다/쌌다	20620-1 미옐물 쓰라 허जू, 미옐물 쓰라
20621 옛기름	20621 곁, 보리곁
20622 식해(食醢)	20622 식케
20623 식해(食醢)	20623 *
20624 달다(甘)	20624 돕जू 드라, 아주 식케 만 드라
20625 가루	20625 마로, 마루
20625-0-1 -에	20625-0-1 마루에 물 부수라
20625-0-2 -을	20625-0-2 마를 더 상 오라
20625-0-3-도	20625-0-3 마를도 나아지 이
20626 밀가루	20626 밀마루, 밀코루
20627 밀기옐	20627 밀जू시, 밀जू시옐 밀जू신데, 헛떼
20628 미숫가루	20628 게역

## 2.2.2. 반찬과 별식

20701 간장	20701 간장, 물장입जू, 장, 장물
20702 된장	20702 건 텨장입जू, 된장, 텨장입जू
20703 고춧가루	20703 고춧끼르
20704 고추장	20704 고치장 고추장
20705 소금	20705 소금 소금
20706 김치	20706 짐치
20707 김장	20707 짐장
20708 깍두기	20708 깍두기짐치 깍뚜기짐치
2070 9나박김치	20709 물짐치
20710 담그다	20710 짐치 다무라
20710-0-1 -고	20710-0-1 짐치 다맘서라
20710-0-2 -어라	20710-0-2 짐치 다무라
20711 양념	20711 양념

20712 버무리다	20712 버무리야주게, 양녀물 고루 버무리라
20713 버섯	20713 초기답쭈다
20713-0-1 -이	20713-0-1 초기가 하영 나서라
20714 콩나물(재료)	20714 콩노멸, 콩나물, 콩지름
20714-1 콩나물(반찬)	20714-1 콩노멸, 콩노물
20714-2 숙주(나물)	20714-2 녹띠노물
20715 두부	20715 둠비
20716 비지	20716 비제기
20716-1 비지떡	20716-1 *
20717 달걀	20717 이진 득쌌기답따
20718 가래떡	20718 기냥 떡꾸 떡꾸
20719 시루떡	20719 모린침떡, 무인침떡
20720 송편	20720 솔벤, 솔변
20721 빗다	20721 즈브라 영 즈는 거 아니파게
20722 흰떡	20722 쓸떡, 곤떡
20723 고물	20723 쉬 오라고
20724 팔죽	20724 폰죽
20725 새알심	20725 *
20726 백설기	20726 저편, 제편
20727 튀밥	20727 *
20728 술	20728 술
20729 막걸리	20729 막걸리, 탁빼기
20730 소주	20730 소주, 쏘주
20731 부침개	20731 지지미

### 2.2.3. 부엌과 그릇

20801 부뚜막	20801 솔떡
20802 가마솥	20802 가메, 가메소시영도 허곡
20802-0-1 -을	20802-0-1 가메소슬 시스라, 가메에 낱 슬므라
20802-0-2 -에	20802-0-2 가메소세 낱 슬므라
20803 아궁이	20803 소강알, 손강아리라고도 힘니다 손강알
20803-0-1 -이	20803-0-1 손강아리 너무 크다
20804 그을음	20804 그스랭이, 그스랭이 올라네, 손검댕이
20805 불쏘시개	20805 불쭈시개
20806 연기	20806 내, 내 남쩌 내

20806-1 내(煙氣)	20806-1 내
20807 그을리다	20807 그시리라, 막 그시던져
20808 부지깅이	20808 부지땡이, 부진땡이
20809 부삽	20809 불갈레죽, 불구내, 불갈레죽
20810 냅다	20810 누니 멜라집쭈께
20811 냄비	20811 냄비난 냄비주, 냄비마씨
20812 그릇	20812 그륄, 반찬끄륄
20812-0-1 -을	20812-0-1 그르슬 다 씨스라
20813 뚜껑	20813 뚜껑, 뚜꺼라도 쓰고, 뚜껍이
20814 주발뚜껑	20814 개지
20815 사발뚜껑	20815 사발뚜껍이
20816 솔뚜껑	20816 솔뚜껑, 솔뚜껍이
20817 밥주걱	20817 남주깁니다, 남죽, 밥뽀곰, 밥뿌곰, 밥짜, 오곰
20818 숟가락	20818 수까락마씨
20819 젓가락	20819 꺼깅이수갈, 저부미엔 헝쭈, 저뽀, 족수까락
20820 종지	20820 종재기, 종지
20821 보시기	20821 보시
20822 뚝배기	20822 득뽀기그륄, 득뽀기그륄
20823 접시	20823 접씨, 쟈씨
20824 조리	20824 조리
20825 이남박	20825 기자 남박, 남박 남방 흡니다 이디선
20826 바가지	20826 킬락뽀썰기
20827 행주	20827 상뽀
20828 행구다	20828 무레 행가압쭈, 행겨사, 행구와사
20829 설거지	20829 설거지허렝 힘니다 설거지
20830 개숫물	20830 구정물, 구진무리라고, 구진물
20831 찌꺼기	20831 밥쭈시덜 건, 주시
20832 화로	20832 불화리지 예, 질화리, 청동화리, 화리
20833 화롯불	20833 화린뿌립쭈마, 화린뽀
20834 부젓가락	20834 불쭈께 아니, 불쭈께, 이건 불쭈께
20834-0-1 -이	20834-0-1 불쭈께가 어신게마썰 이디
20834-1 불순가락	20834-1 *
20835 다리쇠	20835 적썰, 적썰
20836 석쇠	20836 석썰고, 적썰라고 굳는 디
20837 도시락	20837 동고량
20838 바구니	20838 구덕, 바구리, 바구리구덕

20839 뒤주  
20840 찬합  
20841 강판  
20842 개다리소반

20839 곡썩 답는 두지, 두지  
20840 \*  
20841 강판  
20842 \*

## 2.3. 가 옥

### 2.3.1. 방과 가구

20901 안방  
20902 벽  
20903 다락  
20904 벽장  
20905 감추다  
20906 흙  
20907 돌쩌귀  
20907-1 암짚  
20907-2 수짚  
20908 미닫이  
20909 여닫이  
20910 덧문  
20911 열다  
20912 문고리  
20913 자물쇠  
20914 감히다  
20915 열쇠  
20916 잠그다  
20917 구멍  
20917-1 쥐구멍  
20918 찢다  
20919 구들  
20920 흙받기  
20921 흙손  
20922 흙칼

20901 안방  
20902 기자 베기엔 허민 머, 베긴디 냥, 빈지 아니라  
20903 \*  
20904 백장  
20905 곱쟁 나둔다  
20906 헐리 나신 게게, 헐리 날져, 흐른  
20907 문똥기, 문똥긴데  
20907-1 \*  
20907-2 \*  
20908 밀무니 미다지주  
20909 밀물마썸  
20910 밀장무니라 헤싱가, 창문  
20911 문 열라, 씨워니 문 열라  
20912 아 문꼴  
20913 통세 통세 통세  
20914 가두와 전쩌  
20915 열췌 인췌  
20916 잘 중그라  
20917 고냥 고냥 헐췌게, 고망 내우지 말라, 창꼬냥  
20917-1 췌이고망, 쥐고망  
20918 종이 브리지 말라, 종이 찌저 부련쩌  
20919 구들, 구들  
20920 파니엔 헐췌 흑판  
20921 건 췌소니고  
20922 흑칼 냥

20922-1 흙갈(나무로 만든 것)	20922-1 *
20922-2 흙갈(쇠로 만든 것)	20922-2 췌소니고
20923 바르다	20923 그레 흑 빨르라, 흑 뽀르다
20924 장판	20924 장판
20925 종이	20925 종입쭈
20926 도배	20926 거 도비, 방또비를 해야 웬다
20927 구석	20927 곤띠이, 구석, 방 어엄
20928 굽도리	20928 굽또리
20929 깨끗하다	20929 방을 킬코리 청소허라
20930 문지방	20930 문쨌방, 지방
20930-0-1 -에	20930-0-1 문쨌방에 아지는 거 아니여
20931 틈	20931 문트멍 나네 글로, 트멍이 날쨌
20932 가장자리	20932 가쟁이
20933 가운데	20933 방까운데, 방까운데에 왕 아지라
20934 시렁	20934 시렁
20935 살강	20935 살강, 살렌가
20936 선반	20936 선반
20937 서랍	20937 빼다지
20938 경대	20938 경대
20939 거울	20939 거울, 멘경, 색경이엔 현 마른
20940 걸다	20940 거우를 베키 걸라
20941 호롱	20941 등뽀쭈게, 남포동은 상 안네, 남푸등, 웨야

### 2.3.2. 건 물

21001 지붕	21001 지붕
21001-0-1 -에	21001-0-1 지붕에 강 호박 탕 오라
21002 기와	21002 지에
21003 기와집	21003 거 기와집 따뭉게마씨, 지에집
21004 수키와	21004 순치에 경, 쏘찌에고
21005 암키와	21005 암치에, 요거 요 오물랑흔 건 암찌에
21006 대들보	21006 대들보, 온또리주 온또리
21007 서까래	21007 서리우다 서리
21008 추녀	21008 *
21009 처마	21009 *
21010 오두막	21010 촛막싸리, 막싸리, 오막싸리 지빈데

21011	초가집	21011	초가집, 초집
21012	이영	21012	늑랍지
21012-0-1	-에서	21012-0-1	*
21013	용마름	21013	상마르
21014	기스락	21014	지슬
21015	낙숫물	21015	지슬물, 지슬물
21015-1	기스락물	21015-1	지슬물, 지슬물
21016	사닥다리	21016	사다리 낱 올라 가주게, 산테
21017	용마루	20217	*
21018	토방	21018	낭가니우다게
21019	댓돌	21019	잉잇뜰
21020	마루	21020	마리, 상방에 드리오라
21020-0-1	-에	21020-0-1	이 마리에 드리 아자불라
21021	뿔마루	21021	*
21022	기둥	21022	건 지등입쭈 건, 지등
21023	주춧돌	21023	추춧뜰, 추춧뜰
21023-0-1	-을	21023-0-1	*
21024	굴뚝	21024	굴뚝, 굴뚝

### 2.3.3. 마 당

21101	뜰	21101	*
21102	마당	21102	거 마당 마당 아니짜
21103	넓다	21103	마당도 넓따
21103-0-1	-어서	21103-0-1	마당이 널러서 조키여
21104	넓히다	21104	마당 좀 늘러사키여
21105	곶간	21105	곶간
21106	외양간	21106	쉐마기엔도 허곡, 쉘막싸립쭈게
21107	마구간	21107	쉐막, 쉘막싸리
21108	광	21108	양광
21109	헛간	21109	헛간
21110	쓰레기	21110	쓰레기
21111	장독대	21111	장광뻬
21112	장독뚜껑	21112	장테
21113	변소	21113	돋통, 칩간
21113-1	똥장군	21113-1	똥장군

21114 울타리  
 21115 담  
 21115-0-1 -에  
 21115-0-2 -도  
 21116 사립문  
 21117 뒤곶  
 21117-0-1 -에  
 21118 바깥  
 21118-0-1 -에  
 21119 모퉁이  
 21120 모서리

21114 울땀  
 21115 담 뿔라진다, 보통 울땀  
 21115-0-1 우땀땀 올라가지  
 21115-0-2 담도 뿔라진다, 울땀도 뿔라진다 울땀  
 21116 \*  
 21117 또 산받, 우영인테 우영이엔도 허곡  
 21117-0-1 집 등어래  
 21118 베깁띠  
 21118-0-1 저 베깁띠 가그네 놀라  
 21119 구역, 귀엥 호는가 귀, 집귀역, 집귀역  
 21120 상꾸역

#### 2.3.4. 마을과 가게

21201 마을  
 21202 윗마을  
 21203 이웃  
 21203-0-1 -이  
 21203-0-2 -에  
 21204 마을가다  
 21205 우물  
 21206 두레박  
 21207 샘(泉)  
 21208 가(邊)  
 21208-0-1 -을  
 21208-0-2 -에  
 21209 물지게  
 21210 가게  
 21211 싸다  
 21212 비싸다  
 21213 흥정  
 21214 중매인(거간꾼)  
 21215 잔돈  
 21216 에누리  
 21217 거스름돈  
 21218 거스르다

21201 믋슬 강 오키여, 어디 믋슬 강 오키여  
 21202 운믋슬, 운까르메 강 오키여, 운똥네  
 21203 이운  
 21203-0-1 우리 이우시우다  
 21203-0-2 이우세 삼니다 이우세 삼니다  
 21204 믋슬 믋슬칸땅 오키여, 믋슬칸땅 오키여  
 21205 \*  
 21206 \*  
 21207 세미  
 21208 곧띠, 받떼염  
 21208-0-1 받떼여를 잘 도라보라  
 21208-0-2 \*  
 21210 전뿔이엔도 허곡 물건치비엔도 허곡, 점뿔  
 21211 물건 헐헤네이, 싸라, 어 헐헐다  
 21212 빈나다, 빔싸다  
 21213 흥성  
 21214 흥성바치  
 21215 거스름  
 21215 우수리 바당 오라, 시뿔만 에누리 헐써  
 21217 우수리 바단 와수게, 우수림똥, 주리, 주림똥  
 21218 거슬러 줍써  
 21219 꾸어십써, 꾸웁써, 배권만 꾸어 십써, 빌려줍써

21219 꾸다(借)	21219-0-1 꾸어사키여
21219-0-1 -어야	21219-0-1 빌려사키여
21220 구두쇠	21220 뽀쟁이
21221 말기다	21221 이거 짐 줌 머치쿠다, 짐 여기 머치쿠다
21222 나머지	21222 *
21223 덤	21223 *
21224 몫	21224 우리 짝새, 짝새
21224-0-1 -을	21224-0-1 무사 나 짝새 안 주미니
21225 빗	21225 비시, 비시 마는 거주게, 빗 췌왕 모쌀키여
21225-0-1 -을	21225-0-1 비슬 가파압쭈
21225-0-2 -에	21225-0-2 비세
21226 이차(利子)	21226 벨리, 새끼, 인짜를 새끼라고 합니다
21227 심부름	21227 부름씨
21228 두름	21228 *
21228-1 축	21228-1 *
21228-2 쾌	21228-2 *
21228-3 접	21228-3 *
21228-4 삼	21228-4 *
21228-5 두름	21228-5 *
21228-6 단/몫(작은몹음)	21228-6 줄래
21228-7 단/몫(서너개몹음)	21228-7 *
21228-8 톳	21228-8 *
21228-9 모숨	21228-9 흘 줌, 한 줌
21229 켈레	21229 흘 베 두 베, 신 흘 켈레
21230 마지기	21230 말지기
21230-1 한마지기의넓이	21230-1 백꼬십평을 흘 말지기로 흘는데
21231 꾸러미	21231 *
21232 그루	21232 흘 제 두 제
21233 포기	21233 흘 폐기
21234 저울	21234 그건 저우리우다, 대저울마썸
21235 자루(包袋)	21235 잘리, 차디
21235-0-1 -을	21235-0-1 잘리 가져오라
21235-0-2 -에	21235-0-2 쓸 가져당 잘리에 다르라
21236 하나	21236 흐나, 하나
21236-1 한-개	21236-1 흘 개, 한 개
21236-2 한-되	21236-2 흘 돼, 한돼



21236-3 한-말	21236-3 혼 말
21237 둘	21237 둘
21237-1 두-개	21237-1 두 개
21237-2 두-되	21237-2 두 돼
21237-3 두-말	21237-3 두 말
21238 셋	21238 셋
21238-1 세-개	21238-1 세 개
21238-2 세-되	21238-2 석 돼
21238-3 세-말	21238-3 서 말, 세 말
21239 넷	21239 넷
21239-1 네-개	21239-1 네 개
21239-2 네-되	21239-2 녀 돼
21239-3 네-말	21239-3 너 말, 네 말
21240 다섯	21240 다섯
21240-1 다섯-개	21240-1 다섯 개
21240-2 다섯-되	21240-2 다섯째, 달 돼
21240-3 다섯-말	21240-3 단 말
21241 여섯	21241 으섯, 여섯
21241-1 여섯-개	21241-1 으섯 개
21241-2 여섯-되	21241-2 으섯째, 은 돼
21241-3 여섯-말	21241-3 으섯 말, 연 말
21242 일곱	21242 일곱
21242-1 일곱-개	21242-1 일곱 개
21242-2 일곱-되	21242-2 일곱 돼
21242-3 일곱-말	21242-3 일곱 말
21243 여덟	21243 으덟
21243-1 여덟-개	21243-1 으덟 개
21243-2 여덟-되	21243-2 으덟 돼
21243-3 여덟-말	21243-3 으덟 말, 요덟 말
21244 아홉	21244 아홉
21244-1 아홉-개	21244-1 아홉 개
21244-2 아홉-되	21244-2 아홉 때, 아홉 돼
21244-3 아홉-말	21244-3 아홉 말
21245 열	21245 열
21245-1 열-개	21245-1 열 개
21245-2 열-되	21245-2 열 돼

21245-3열-말	21245-3 열 말
21246 스물	21246 쭈물, 쓰물
21246-1 스무-개	21246-1 쭈무 개
21246-2 스무-되	21246-2 쓰므 뒤
21246-3 스무-말	21246-3 쓰므 말
21247 서른	21247 서른
21247-1 서른-개	21247-1 서른 개, 서룽 개
21247-2 서른-되	21247-2 서른 뒤
21247-3 서른-말	21247-3 서른 말
21248 마흔	21248 마흔
21248-1 마흔-개	21248-1 마흔 개, 마흥 개
21248-2 마흔-되	21248-2 마흔 뒤
21248-3 마흔-말	21248-3 마흔 말
21249 쉰	21249 쉬은
21249-1 쉰-개	21249-1 쉬잉 개
21249-2 쉰-되	21249-2 쉬인 뒤
21249-3 쉰-말	21249-3 쉬인 말
21250 예순	21250 예순
21250-1 예순-개	21250-1 예순 개
21250-2 예순-되	21250-2 예순 뒤
21250-3 예순-말	21250-3 예순 말
21251 일흔	21251 이른
21251-1 일흔-개	21251-1 이른 개
21251-2 일흔-되	21251-2 이른 뒤
21251-3 일흔-말	21251-3 이른 말
21252 여든	21252 으든
21252-1 여든-개	21252-1 으든 개
21252-2 여든-되	21252-2 으든 뒤
21252-3 여든-말	21252-3 으든 말
21253 아흔	21253 아흔
21253-1 아흔-개	21253-1 아흔 개, 아흥 개
21253-2 아흔-되	21253-2 아흔 뒤
21253-3 아흔-말	21253-3 아흔 말
21254 백	21254 백
21254-1 백-개	21254-1 백 개
21254-2 백-되	21254-2 백 뒤

21254-3 백-말	21254-3 뺑 말
21255 이백	21255 이백 개
21256 한둘	21256 혼둘
21256-1 한두-개	21256-1 혼두 개
21256-2 한두-되	21256-2 혼두 꿩
21256-3 한두-말	21256-3 혼 두 말, 한 두 말
21257 두셋	21257 두셴
21257-1 두세-개	21257-1 두세 개
21257-2 두세-되	21257-2 두석 꿩
21257-3 두세-말	21257-3 두세 말
21258 두서넛	21258 두서넛
21258-1 두서너-개	21258-1 두서너 개
21258-2 두서너-되	21258-2 두서넛 꿩
21258-3 두서너-말	21258-3 두서너 말
21259 서넛	21259 서넛
21259-1 서너-개	21259-1 서너 개
21259-2 서너-되	21259-2 서넛 꿩
21259-3 서너-말	21259-3 서너 말
21260 네댓	21260 네다선
21260-1 네댓-개	21260-1 너닫개, 네닫 개, 네다슬 개
21260-2 네댓-되	21260-2 네다슬 꿩
21260-3 네댓-말	21260-3 네다선 말
21261 대여섯	21261 대으슬
21261-1 대여섯-개	21261-1 대을 개, 대으슬 개
21261-2 대여섯-되	21261-2 대을 꿩
21261-3 대여섯-말	21261-3 대을 말
21262 예닐곱	21262 여선딜 곱
21262-1 예닐곱-개	21262-1 예일곱 개
21262-2 예닐곱-되	21262-2 으슬뿔곱 꿩
21262-3 예닐곱-말	21262-3 요슬뿔곱 말
21263 일여덟	21263 일곱 <sup>ㅁ</sup> 답
21263-1 일여덟-개	21263-1 일고으답 개
21263-2 일여덟-되	21263-2 일고으답 꿩
21263-3 일여덟-말	21263-3 일곱 <sup>ㅁ</sup> 답 말
21264 여덟아홉	21264 으담빠웁
21264-1 여덟아홉-개	21264-1 요담빠웁 개

21264-2 여덟아홉-되  
 21264-3 여덟아홉-말  
 21265 여남은  
 21265-1 여남은-개  
 21265-2 여남은-되  
 21265-3 여남은-말

21264-2 으답빠옴 뻬  
 21264-3 으답빠옴 말  
 21265 여나몬  
 21265-1 으나몬개, 여나몬개  
 21265-2 여나몬뉘  
 21265-3 여나몬말, 여나물말

## 2.4. 의 복

### 2.4.1. 복식과 장식

21301 치마  
 21302 길이  
 21303 저고리  
 21304 색동저고리  
 21305 두렁이  
 21306 무늬  
 21307 고쟁이  
 21308 바지  
 21309 두루마기  
 21310 의복  
 21311 구겨지다  
 21312 옷고름  
 21313 단추  
 21314 동정  
 21315 걸  
 21315-0-1 -에  
 21315-0-2 -을  
 21316 홑옷  
 21317 겹옷  
 21318 잠방이  
 21319 누더기  
 21320 거지  
 21321 구걸

21301 치메, 치메 입꼬  
 21302 지러기, 지러찌, 지레기, 지리  
 21303 저고리  
 21304 새똥저고리, 색똥저고리  
 21305 배부레기  
 21306 무늬 저 무늬 논나고, 수 논나고개  
 21307 고쟁이가, 굴중이, 점벙이  
 21308 바지, 바지답다  
 21309 두루락, 두루메기라고도 허주, 창옷, 후리메  
 21310 모듈 오시엥 헝짜마, 예 입쌍 좋다, 은, 이복  
 21311 보비어절찌  
 21312 고옴, 곶, 고름, 온꼬름, 온꿈  
 21313 들메기, 단추  
 21314 동전  
 21315 걸, 꺾쪽, 바까떼, 바깥, 바끝띠, 받짜락, 베겔, 베겔띠  
 21315-0-1 바끝떼에  
 21315-0-2 안과 겹짜글 구별헤야 테주  
 21316 창옷  
 21317 겹뽀시주, 후루메  
 21318 정벙이  
 21319 누데기, 누데기 옷  
 21320 거렁벙이, 동냥바치, 동녕바치  
 21321 구걸 험찌

21322조끼	21322 쥐끼, 쥐께, 쥐끼
21323 내이	21323 내이
21324 께입다	21324 아이 포 이뻬져, 접쳐 이브라, 포 이브라
21325 소매	21325 소매, 소미, 온쏘미
21326 주머니	21326 주멩기
21327 호주머니	21327 계와
21328 허리띠	21328 허리띠
21329 땡기	21329 땡기
21330 도포	21330 도복
21331 샷갓	21331 샷갓
21331-0-1 -에	21331-0-1 샷갓세 몬지 무뎡져
21332 고깔	21332 송낙
21333 사모	21333 사모, 사모관대, 삼대간
21334 유건	21334 유관
21335 대님	21335 다님
21336 감발	21336 *
21337 짚신	21337 짚신, 초신
21338 미투리	21338 *
21338-1 (짚신을)삼다/만들다/트다/결다	21338-1 예 초신 삼따, 초신 사따라
21339 나막신	21339 남신, 이거 남시니우다
21340 설피	21340 설피

## 2.4.2. 바느질과 세탁

21401 명주	21401 멩지
21401-1 명주실	21401-1 멩지실
21402 목화	21402 멘네
21402-1 목화다래	21402-1 드레
21403 무명	21403 미녕
21403-1 무명실	21403-1 미녕실
21404 씨아	21404 멘네 킬르는 물레 물레
21405 자새	21405 열레
21406 물레	21406 존는 물레
21407 베	21407 베를 짜라, 벤 베고 미녕은 미녕이난 게
21408 길쌈	21408 질쌈
21409 골무	21409 골미, 골뻥이

21410 반질고리	21410 바농쌍지
21411 가위	21411 ㄱ세
21411-0-1 -을	21411-0-1 ㄱ세 아저오라
21411-0-2 -에	21411-0-2 ㄱ세에 찢랄찌
21412 마르다(裁)	21412 몰라가지고
21412-0-1 -고	21412-0-1 보선 뿐 몰람서라
21412-0-2 -어라	21412-0-2 보선 뿐 녀서 몰르라
21413 형겼	21413 힘벽
21413-0-1 -을	21413-0-1 힘버글 대서 주라
21413-0-2 -에	21413-0-2 힘버게 고치장 무던찌
21414 바늘	21414 바농
21415 꿰다	21415 바농꾸 꿰라
21415-0-1 -고	21415-0-1 바농귀에 씨를 꿰엄서라
21415-0-2 -어라	21415-0-2 바농꾸 께라
21416 바느질	21416 바농질 햄서라
21417 재봉틀	21417 재봉트리엔도 허곡 재봉트리엔도 허곡
21418 끈	21418 속끼, 끈, 노끌렁지, 친 ㄷ너질찌
21419 노끈	21419 노끈
21420 참바	21420 베, ,세갑베, 세왓베, 총베
21421 매듭	21421 ㄱ작
21421-1 (매듭을)땃다/짓다/엮다/뒹다	21421-1 ㄱ작글 멘드는 걸 ㄱ작 지우라
21422 보자기	21422 포따리
21423 이불	21423 이불
21424 솜	21424 소게
21425 포근하다	21425 폭삭ㄱ다
21426 홉이불	21426 홉띠불
21427 겹이불	21427 *
21427-1 솜이불	21427-1 소게이불
21428 누비이불	21428 끌 레이블
21429 베개	21429 베개
21430 베갯잇	21430 베겜꺀쪽, 베겜꺀쪽
21430-0-1 -에	21430-0-1 베겜꺀쪽꺀 때 무던따고
21431 목침	21431 목침
21432 퇴침	21432 *
21433 방석	21433 방석
21434 담요	21434 담뇨

21435 빨래하다	21435 놀린다고 세담 놀린다고, 세담푹
21436 빨랫방망이	21436 세담마깨, 세담마깨고다
21437 빨래터	21437 세담터
21438 빨랫줄	21438 말렌줄, 서담줄
21439 다리미	21439 다리미, 대리미
21439-1 다림질	21439-1 대리미질 험찌
21440 인두	21440 윤디
21441 다듬잇방망이	21441 마깨
21442 다듬잇돌	21442 저거 안반
21443 다듬이질	21443 다드미질, 다드미질 험찌

## 2.5. 민 속

### 2.5.1. 세시풍속

21501 설날	21501 멩질날
21502 설	21502 멩질, 설, 설멩질, 설멩질, 정월멩질
21503 선달그믐날	21503 선떨그믐날
21504 목은세배	21504 *
21505 올해	21505 올리, 올해
21505-0-1 -는	21505-0-1 느도 올히는 장계 가야지
21505-1 작년	21505-1 장년
21505-2 재작년	21505-2 그르헤, 재장년
21505-3 내년	21505-3 내년, 멩년, 후녀는 멩년
21505-4 후년	21505-4 우내년, 우멩년, 후내년
21505-5 내후년	21505-5 내후년, 후내년
21506 작은설	21506 *
21507 옷	21507 순
21507-0-1 -을	21507-0-1 종지에 놔그네 수슬 던저압쭈
21507-0-2 -에	21507-0-2 수세 마잔따
21507-1 옷놀이	21507-1 순노리
21508 옷가락	21508 순가락마썸
21508-1 도	21508-1 그건 토

21508-2 개	21508-2 개
21508-3 걸	21508-3 걸
21508-4 옷	21508-4 순
21508-5 모	21508-5 모
21509 단동	21509 흔 지 날따
21509-1 외동무니	21509-1 흔 지
21509-2 두동무니	21509-2 두 지
21509-3 석동무니	21509-3 석 찌
21509-4 녁동무니	21509-4 녁 찌
21509-5 막동	21509-5 막찌
21509-6 단동무니	21509-6 막찌무지
21510 보름	21510 보름, 대보름, 정월대보름, , 정월보름
21510-1 삭망	21510-1 상망
21511 추석	21511 추석
21512 망월	21512 *
21513 쥐불놀이	21513 *
21514 자치기	21514 자치기우다 이거
21514-1 작은막대	21514-1 *
21514-2 긴막대	21514-2 *
21515 수수께끼	21515 수수께끼 아니파, 쏘길락
21516 호미씻이	21516 *
21517 팽과리	21517 쟁가리
21518 장구	21518 장귀
21519 결두리	21519 간식
21520 무당	21520 심방 인찌 아녀, 여심방
21520-1 박수	21520-1 남심방
21521 고수레	21521 코시
21521-1 고수레!	21521-1 *
21522 점쟁이	21522 점쟁이
21523 상여(喪輿)	21523 상여, 생이라고도 합니다
21524 굴건	21524 굴건, 굴건제보기우다 굴건
21525 제사	21525 식계
21526 제기	21526 제기르, 제기영도 합니다
21527 귀신	21527 귀시니엔 협쭈 구신
21528 도깨비	21528 험개



## 2.5.2. 농경 용품

21601 고삐	21601 췌석
21602 골래	21602 녹떼
21603 멩에	21603 멩에
21604 길마	21604 질메
21605 부리망	21605 망울
21606 구유	21606 구시
21607 작두	21607 작또
21608 풀	21608 출
21609 여물	21609 여물
21610 쇠죽	21610 췌죽
21611 쇠죽바가지	21611 췌죽뺨찌기
21612 수레	21612 구루마 구루마
21613 끌다	21613 끄렁 감찌, 예 끄서사
21613-0-1 -고	21613-0-1 *
21614 바퀴	21614 구루마도로기, 바퀴, 도로기
21615 새끼(繩)	21615 스끼
21615-1 새끼(짐승의)	21615-1 새끼
21616 망태기	21616 망탱이, 멜망탱이, 요건 멀망탱이고
21617 떡등구미	21617 맥
21618 거적	21618 거적, 거적떼기, 거죽
21619 가마니	21619 가맹이
21619-1 가마니틀	21619-1 가맹이클
21620 돛자리	21620 요건 초석
21621 자리틀	21621 초서크리고, 초석틀
21621-1 (자리틀)짜다/치다/만들다/결다	21621-1 초서글 차다
21622 왕골	21622 왕골
21623 삼태기	21623 글체
21623-1 짚삼태기	21623-1 *
21623-2 싸리삼태기	21623-2 *
21624 명석	21624 덕씨기 아니라. 독씨, 명석
21625 어레미	21625 얼맹이
21625-1 고운체	21625-1 ㄱ운체, 합체
21625-2 굵은체	21625-2 중체
21626 대장장이	21626 불미대장, 불미쟁이

21627 대장간	21627 불미칩, 불미황
21628 풀무	21628 예 불미, 풀무
21629 모루	21629 *
21630 모루채	21630 *
21631 갈퀴	21631 글갱이
21632 집게	21632 집게
21633 장도리	21633 못빼기, 예 장도리라고도 헤여
21633-1 노루발	21633-1 장도리
21634 툇	21634 토브로 잘릅쭈 툇 툇
21634-0-1 -에	21634-0-1 토베 짤립쭈 토베
21635 도끼	21635 도치
21636 자루(柄)	21636 도치즈룩, 도친쭈루
21636-0-1 -을	21636-0-1 도친쭈루글 잘 자바압쭈게
21636-0-2 -에	21636-0-2 *
21637 갈고리	21637 갈공이
21638 췌기	21638 새역, 징을 바그라
21639 송곳	21639 송곧마췌
21639-0-1 -에	21639-0-1 송고세 손 찢려서
21640 뽕족하다	21640 꺾치 뽕족하다
21641 솥돌	21641 췌뜨레 겁니다, 췌뜨
21641-0-1 -에	21641-0-1 췌뜨레 겁니다
21642 맷돌	21642 마레, 풀가레 답쭈다 이건
21642-1 수쇠	21642-1 마레고망, 마렌꼬망 마렌꼬망 헐쭈
21642-2 암쇠	21642-2 *
21643 지게	21643 지게
21644 밧채	21644 바작, 바지게
21645 지게작대기	21645 막땡이, 지게작때깁쭈 지게작때기
21646 막대기	21646 막땡이
21647 몽둥이	21647 목땡이

### 2.5.3. 생활 용품

21701 빗자루	21701 빗자락
21702 광주리	21702 광주리
21703 소쿠리	21703 소꾸리, 손꾸리
21704 함지	21704 함박

21705 풀비	21705 새술, 풀 메기는 비
21705-1 귀알	21705-1 돋술
21706 독	21706 독, 물뚝, 장뚝
21706-0-1 -에	21706-0-1 도계 다미야주
21707 물뚝	21707 물뚝
21708 향아리	21708 장왕, 장항, 향, 황
21709 단지	21709 단지
21710 물동이	21710 물뚝
21711 튀리	21711 *
21712 용기	21712 용기
21713 표주박	21713 꼭뺨썰기, 킬라뺨썰기
21714 키(箕)	21714 푸는채
21715 떡살	21715 떡뽀, 본, 뽀, 절뽀뽀니 인꼬, 켈뽀뽀
21716 다식판	21716 *
21717 시루	21717 시리
21717-0-1 -을	21717-0-1 시리를 가져와야 데주
21717-0-2 -에	21717-0-2 시리에 낡 흐나네
21718 시룻밑	21718 시룻짚
21718-0-1 -에	21718-0-1 *
21719 시룻뽀	21719 시룻꼬망
21720 부싯돌	21720 부싯뚜리주, 부싯뚝
21720-0-1 -을	21720-0-1 *
21721 부시	21721 부세
21722 부싯깃	21722 불썩
21723 담배	21723 담배
21724 담뱃대	21724 담뱃대 가져오라
21725 담배설대	21725 담뱃대
21726 담배통	21726 건 담뱃통, 담뱃때
21727 물부리	21727 물부리
21728 담배쌈지	21728 썩지, 담뱃썩지
21729 부채	21729 선채, 푼채
21730 토시	21730 손또매
21731 벼루	21731 떡 ㄱ는 베리
21732 가락지	21732 가락찌
21733 비녀	21733 빈네
21734 참빗	21734 쳇빔

21734-0-1 -을	21734-0-1 쳇빔 다저오라 허곡
21734-0-2 -에	21734-0-2 쳇비세 엉켜져
21735 얼레빗	21735 얼레기
21736 세숫대야	21736 세숫때, 세숫때야, 세숫싸래, 세숫써래
21737 비누	21737 비노, 비누, 세숫빼누
21738 도투마리	21738 도꼬마리, 도또마리
21739 활대	21739 *
21740 잉앗대	21740 이거 잉엔때고, 잉에
21741 부터	21741 *
21742 도롱이	21742 접세기, 접제기]

## 2.6. 인 체

### 2.6.1. 얼굴과 머리

21801 이마	21801 임탱이쪼광, 이멩이, 임탱이
21802 이마빠기	21801 이마빠
21803 눈자위	21803 눈뜰래
21804 검은자위	21804 거문동제, 눈똥제
21805 흰자위	21805 흰동제
21806 눈꺼풀	21806 눈뚜께
21807 거적눈	21807 답게눈, 답펜눈
21808 눈썹	21808 눈썹
21808-0-1 -이	21808-0-1 눈씨비 빠진
21809 속눈썹	21809 송눈썹
21809-0-1 -이	21809-0-1 송눈씨비 아주 기러
21810 눈두덩	21810 눈둘래, 눈뚜경, 눈뚜덩
21811 안경	21811 안경
21812 안경집	21812 안경쭈머니엔, 보통 안경집, 안경주멩기
21813 돋보기	21813 돋빠기, 돋뵈기
21814 주름살	21814 주름, 주름살, 주름쌀
21814-0-1 -이	21814-0-1 주름싸리 느러서
21815 앳되다	21815 어리게 베엄찌, 어리게 베웁찌, 절머 베웁찌
21816 수염	21816 쉬엄, 시엄

21817 구레나룻	21817 녹떼시업, 녹띠시업
21817-0-1 -을	21817-0-1 녹떼시업 까까쩌
21818 코	21818 코, 코도 크다
21818-0-1 -이	21818-0-1 코 크다, 코가 크다
21819 콧수염	21819 콧수염
21820 코딱지	21820 코페랭이, 코프랭이
21821 콧구멍	21821 콧꼬망,
21821-0-1 -을	21821-0-1 콧꼬망을 마가야주게
21821-0-2 -에	21821-0-2 콧꼬망에서 나주
21822 콧물	21822 콘물
21823 입술	21823 입빠위, 입빠이
21823-0-1 -에	21823-0-1 입빠이에 밥풀 무던쩌
21824 다물다	21824 말 곤딤 입 중간쩌, 입 쫓그라, 입 따물라
21825 어금니	21825 어금니
21826 덧니	21826 던니
21827 휘파람	21827 섯빠름, 섯뽀름, 섯뽀름
21828 침	21828 춤 나 완쩌
21829 삼키다	21829 숨켜블라
21830 가래(痰)	21830 게춤, 게침
21831 빨다	21831 바까블라
21832 혀	21832 세
21833 혧바늘	21833 *
21834 귓볼	21834 귀알, 귓짜락
21835 귀고리	21835 귀고리, 귀고리.
21835-1 귀걸이	21835-1 귀마개
21836 귀지	21836 귓뺨
21837 귀이개	21837 귀쑤쑤, 귓쑤쑤, 귓쑤쑤로 이거 내라
21838 소리	21838 소리가 잘 들리주게
21839 엇듣다	21839 여사 드림쩌, 여산 드림쩌, 예사 드림쩌
21840 귀청	21840 귓꼬망이 터진다, 귓창 터진다
21841 귀밑	21841 건 귀아래주게, 귀아래, 귓짜락
21841-0-1 -을	21841-0-1 귀아래 모기 무런쩌
21842 관자놀이	21842 관자노리
21843 기미	21843 지미 지미 찢쩌
21844 주근깨	21844 사막, 주근깨엥도 써
21845 턱	21845 턱가리, 턱, 아굴탁, 아굴턱

21846	턱수염	21846	턱씨염
21847	뺨	21847	뺨 따리지 말라, 뺨얇
21847-1	볼	21847-1	보리 곱따, 볼
21848	가름하다	21848	소름허연 곱따
21849	보조개	21849	보재기엥 아네 무사
21850	머리카락	21850	머리카락 떠러질져
21851	비듬	21851	비듬
21852	기계충	21852	이발충
21853	정수리	21853	머리 상곡때기
21854	대머리	21854	대머리
21855	고수머리	21855	곱쓸머리
21856	가르마	21856	가메
21856-1	가르마타다/가르다/하다	21856-1	가메 갈람찌, 가메 갈르라
21857	가마	21857	가메
21857-1	가마(鼎)	21857-1	가메숯
21857-2	가마(輻)	21857-2	건또 가메여, 달께
21857-3	가마(질그릇)	21857-3	가멘데
21857-4	가마(가마니)	21857-4	가멩이
21858	뒤통수	21858	둔머리, 뒤통수
21859	뒗덜미	21859	뒤엔목 뒤엔목, 뒗목
21860	목	21860	모가지, 목, 모게기, 야가지, 야게기
21861	먹살	21861	멕쌀 잡암쨌엥도 씨

## 2.6.2. 상체

21901	어깨	21901	득찌, 억께엥도 썬쭈
21902	밀치다	21902	억께로 받찌 말라
21903	겨드랑	21903	절깁이, 제깁이, 쥘깁이
21904	등	21904	등, 등므르, 등따리. 등땡이, 등어리
21905	가슴	21905	가슴, 가스미 시끈시끈 나프다, 가슴
21906	결리다	21906	아프다
21907	갈비뼈	21907	갈빈팡, 갈빈때, 엽갈리, 엽팔리
21908	허파	21908	부에, 부에 날따, 북뿌기, 숨통
21909	쓸개	21909	실개, 썰개, 썰개 빠징 거여
21910	콩팥	21910	염통, 콩퐁
21910-0-1	-에	21910-0-1	통프시 나뻬

21910-0-2 -을	21910-0-2 *
21911 팔	21911 폴, 팔
21912 팔꿈치	21912 폴꿈찌
21913 팔짱끼다	21913 폴짱끼국, 폴짱찢찌
21914 손톱	21914 손콧, 송콧
21915 오른손	21915 ㄴ단손, ㄴ단착손
21916 왼손	21916 왼손, 왼짜손
21917 다르다	21917 따나다
21917-0-1 -아서	21917-0-1 따나서
21917-1 틀리다	21917-1 게사니 틀렐찌
21918 왼손잡이	21918 웬쟁이, 왼쟁이
21919 엄지손가락	21919 엄지송까락, 엄지라고도 헤어
21920 집게손가락	21920 인지송까락, 인지옌도 허고, 집게송까락
21921 가운데손가락	21921 가운데송까락, 상송꼬락
21922 약손가락	21922 약송까락, 요건 약찌
21923 새끼손가락	21923 이건 새끼송까락
21924 생인손	21924 베적, 베집, 소네 베집 날찌
21925 사마귀	21925 물추근 아푸진 아녀주게, 그게 말축
21926 손아귀	21926 손아귀
21927 손목	21927 폴목, 흘모기
21928 뺨	21928 혼 뺨, 뺨
21929 허리	21929 허리
21930 지팡이	21930 지팡이 지평 텅겨야주
21931 옆구리	21931 엽깔리 아래 아프다, 엽팔리 아래
21932 간지럽다	21932 제곱따게
21933 간지럼	21933 제글럼 탐저
21934 잔허리	21934 모기허리마니 현, 모기허리
21935 근육	21935 그늑, 그늑썰, 그늑쌀
21936 배꼽	21936 뺨또롱
21937 목물	21937 *

### 2.6.3. 하체

22001 복사뼈	22001 구마리, 귀마리
22002 발가락	22002 발꼬레기, 발까락, 발까레기
22003 발바닥	22003 발빠닥, 발창

22004 발톱	22004 발굽, 발톱
22005 냄새	22005 내, 내 마친다, 내움살, 냄새
22006 고란내	22006 구렁내
22007 굳은살	22007 켈이, 켈이 난져
22008 정강이	22008 정갱이
22009 종아리	22009 종아리, , 종에
22010 장딴지	22010 정갱이 주설도 아프다, 주설, 주설
22011 회초리	22011 휘추리
22012 무릎	22012 동므릅, 동므릅, 동무릅
22012-0-1 -을	22012-0-1 동무릅 다칠따
22012-0-2 -에	22012-0-2 동무리베 닥찌 전져
22013 오금	22013 오곰, 오금 아프다
22014 엉덩이	22014 엉덩이마쌌, 엉치
22015 궁둥이	22015 궁뎅이, 궁둥이
22016 볼기	22015 조름, 조름, 조름꽈
22017 멍	22016 볼기, 볼기가 궁뎅입쭈게. 잠지, 잠지꽈
22018 멍울	22017 멍 드런져
22019 가랑이	22018 멍얼 산져
22020 사이	22019 가달 버러전져, 강알
22021 살	22020 두 다리 새가 너무 버러전져, 새예
22021-0-1 -이	22021 강알
22021-0-2 -을	22021-0-1 강아리 부선져
22022 사타구니	22021-0-2 강아를 조심허라
22023 가래뚝	22022 강알, 강알살테기, 살테기
22023-0-1 -을	22023 멍얼
22024 허벅다리	22024 허벅따리
22025 넓적다리	22025 허벅따리
22026 가부좌(跏趺坐)	22026 *
22026-1 가부좌(跏趺坐)치다/앉다/트다/꼬다/하다	22026 복썩똥왕 안찌 말라

#### 2.6.4. 질병과 생리

22101 감기	22101 감기, 곧뿔
22102 기침	22102 지침
22103 재채기	22103 아이고 먹뎅 살레예 드런져, 현갱이
22104 사례	22104 살레 드런져



22104-1 (사레)들리다/만나다/걸리다	22104-1 살레 드린찌, 살레예 드린찌
22105 딸꾹질	22105 툐고지
22106 트림	22106 트림 남꾸나, 트름
22107 곰보	22107 곰보, 얼근사람
22108 천연두	22108 큰마누라, 큰한집
22109 여드름	22109 요드름
22110 학질	22110 물 멍능 거, 예 학짚
22110-1 하루거리	22110-1 하루거리
22110-2 이틀거리	22110-2 이틀거리
22110-3 매일않는학질	22110-3 물 녁는 거옌 곤꼭, 학찌리옌만 기자 곤쭈
22111 홍역	22111 조근한집, 한집
22112 볼거리	22112 거 나력
22113 땀띠	22113 땀떼기
22114 두드러기	22114 두드레기
22115 버짐	22115 군버즘, 버즘, 버즘
22115-1 마른버짐	22115-1 므른버즘
22115-2 진버짐	22115-2 구진버즘 아닌가
22115-3도장버짐	22115-3 도리버짐 도리버즘
22116 문둥이	22116 용다리
22116-1 문둥병	22116-1 용다리 용다리 허주, 용다리뺑
22117 부스럼	22117 허물
22117-1 종기	22117-1 종기 날찌, 종기
22118 고름	22118 고름, 고름
22119 곰기다	22119 골만찌
22120 난쟁이	22120 난쟁이
22121 사팔뜨기	22121 사팔떼기, 사팔뚜기
22122 언챙이	22122 얼챙이
22123 소경	22123 눈봉스, 눈봉사, 소경, 췌경, 췌경바치
22123-1 당달봉사	22123-1 툐봉스, 툐봉사
22124 애꾸	22124 왜눈베기
22125 눈곱	22125 눈뺍찌기, 눈콍찌기
22126 다래끼	22126 개쌌
22126-1 다래끼(눈위쪽)	22126-1 툐터렁 개쌌 날젠 허주
22126-2 다래끼(눈아래쪽)	22128-2 개쌌
22127 절름발이	22127 절름베기
22128 굵사등이	22128 굵쌌

22129 귀머거리	22129 귀막씨, 귀막씨우다
22130 말더듬이	22130 세다드레기, 췌다드레기
22131 병어리	22131 말모레기, 모레기, 모로기
22132 잠꾸러기	22132 줌꾸레기
22133 졸리다	22133 즈리완 모쌀키여, 즈람찌, 즈랍따, 줌 멀런
22134 하품	22134 하우염, 하위염
22135 졸음	22135 즈르믈 모츠므키여
22135-0-1 -을	22135-0-1 즈로믈 문 츠므키여
22135-0-2 -에	22135-0-2 *
22136 잠꼬대	22136 현말 ㄹ람찌

## 2.7. 육 아

22201 입덧	22201 열끼가 심허주, 입뎃뎃젠 ㄹ라
22201-0-1 -을	22201-0-1 *
22202 갓난아이	22202 물래깅쭈
22203 어린아이	22203 여근내기
22204 경기(驚氣)하다	22204 정끼 험찌
22205 눅히다	22205 구더게 눅찌그네
22206 계집아이	22206 계집빠이, 지집빠이
22207 예쁘다	22207 아이고 곱따, 애고 아기도 곱따
22208 사내아이	22208 소나눔
22209 아우	22209 아시 아시 불루주, 아시아, 우리 아시우다
22209-1 아우보다	22209-1 동생받따, 보통 아시받헛도 곱꼭
22209-2 아우타다	22209-2 아시타서 정 주럼찌, 아시탐찌
22210 야위다	22210 주런찌
22211 쌍둥이	22211 글래기, 쌍둥이
22212 오줌	22212 오줌, 오짐
22213 똥	22213 똥
22214 기저귀	22214 지성귀, 지성기, 지정기
22215 누다(排便)	22215 오조믈 그레 잘 췌아주라, 오조믈 췌아준다
22216 방귀	22216 똥뽕귀, 똥뽕기, 방구, 방귀
22216-1 꺾다	22216-1 똥 꺾지 말라, 방귀 꾸엄찌
22217 구린내	22217 구린내 남찌, 똥내라고도 하고, 방귀내

22218 구리다	22218 구리구리허다
22219 포대기	22219 뚜대기
22220 기지개	22220 잘 질딤찌, 질 트지 말라, 질트기
22220-1 기지개를켜다/하다/쓰다/펴다	22220 질 트다
22221 거짓말	22221 거진말
22222 남부끄럽다	22222 놈부치럽따, 부치럽따 부치럽따
22223 겁쟁이	22223 겁쟁이, 겁쟁이주 마
22224 불쌍하다	22224 풀쌍허다 아이고 불쌍허다
22225 죄암죄암	22225 조매, 조매조매, 조매조매허라
22226 곤지곤지	22226 곤지곤지
22227 따로따로	22227 선달허라 선달 선달
22228 도리도리	22228 마니허라 마니마니
22229 짹짹	22229 던데던데, 던데엥 헉쭈 던데
22230 부라부라	22230 *
22231 걸음마	22231 선달허라 선달허라, 선언데 서언달
22232 아장아장	22232 아이고 아장아장 거림찌 허멍
22233 넘어지다	22233 누리절찌도 국꼭, 노려절찌, 부더덜찌
22234 곤두박질	22234 곤작싸기 헨찌
22235 안기다	22235 어멍 쿠메 아남찌, 어멍 쿠메 안전찌
22236 바람개비	22236 그걸 보름뜨레기, 보름뜨레기
22237 호드기	22237 보리낭주네, 주네
22238 숨바꼭질	22238 고볼락
22239 소꿉놀이	22239 저 흑뺨, 흑뺨노리, 흑뺨노리험젠 허주마
22240 사금파리	22240 사그마치, 사금파리 조심허라
22241 연	22241 연
22241-1 방패연	22241-1 들런
22241-2 가오리연	22241-2 개오리연
22242 걸리다	22242 풍낭에 간 거러절찌
22243 고누	22243 끈 끈
22244 땅뺨기	22244 땅뺨기 땅뺨기
22245 팽이	22245 이거 팽인뜨레기, 팽이 흡니다 팽이
22246 딱지치기	22246 빠짱치기
22247 구슬	22247 구슬, 구슬치기, 다마치기 흐고
22248 그네	22248 굴멘, 굴멩쭈 굴메
22248-1 그네를뛰다/타다/구르다	22248-1 굴메 탄다, , 두린 때도 굴멜 떠날쭈
22249 밀신개	22249 굴멘뜨리, 환 굴메환

22250 굴렁쇠  
 22251 굴리다  
 22251-0-1 -고  
 22251-0-2 -어야  
 22252 자전거  
 22253 목말  
 22254 말타기  
 22255 달음박질  
 22256 썰매  
 22256-1 얼음을(썰매를)지치다/타다  
 22256-2 송곳  
 22257 업살  
 22257-1 (업살)부리다/피우다/떨다/하다  
 22258 부아

22250 굴렁쇠  
 22251 굴렁쇠를 둥구렘쨌, 굴렁쇠를 둥구립쨌  
 22251-0-1 \*  
 22251-0-2 둥구려야지  
 22252 즈정거  
 22253 고개 테왕 땡기주게  
 22254 몰타기 몰타기  
 22255 득름박질, 득름배기, 득름재기 춤 잘헤어  
 22256 썰매  
 22256-1 썰매 타는 거  
 22256-2 썰메지팽이  
 22257 업살  
 22257-1 업살 피우지 말라  
 22258 용십난 주거지키여, 부에 낭 주거지키여

## 2.8. 친 족

22301 아버지  
 22301-1 아버지(호칭)  
 22302 어머니  
 22302-1 어머니(호칭)  
 22303 할아버지  
 22303-1 할아버지(호칭)  
 22304 할머니  
 22304-1 할머니(호칭)  
 22305 남편  
 22305-1 남편(호칭)  
 22306 아내  
 22306-1 아내(호칭)  
 22307 형  
 22307-1 형(호칭)  
 22308 아우

22301 아방, 아버지영도 허곡, 우리 아방 바집따가  
 22301-1 아버님 아버지, 아부지  
 22302 어멍, 우리 어머니주게 또  
 22302-1 어멍, 어무니  
 22303 하르바지, 하르방, 하르버지  
 22303-1 하라바지, 하르바지, 하르버지, 하라바님, 하르버님  
 22304 할머니, 할마님  
 22304-1 할머니 할머님  
 22305 우리 남편이우다, 영처리 아방명이우다, 하르방이우다  
 22305-1 양, 영처리 아방  
 22306 영처리 어멍이우다, 우리 각씨우다, 우리집 싸라미우다  
 22306-1 어이, 영처리어멍, 이레 바게 어이, 할망 이레 바  
 22307 성이우다, 우리 성니무우다  
 22307-1 성님, 영처리 성, 영처리 성님, 형님  
 22308 아시 동생 우리 동생이우다, 우리 아시우다

22308-1 아우(호칭)	22308-1 동생 이레 와 봐, 아시, 아시아 이레 와 봐
22309 누나	22309 우리 누니미우다, 우리 누이우다
22309-1 누나(호칭)	22309-1 누님
22310 누이	22310 우리 누이동생이우다, 우리 누이우다, 동생이우다
22310-1 누이(호칭)	22310-1 기자 누이 이레 와 봐 허멍, 동생 이리 와 봐
22311 자식	22311 즈식, 우리 즈식드리우다, 자시기주
22312 맡아들	22312 큰나더리우다, 큰나이우덴도 허곡, 큰내우다, 큰놈
22313 막내	22313 막똥이우다, 망녕이, 이거 우리 망내우다
22314 오라버니	22314 오라버니우덴도 허곡, 우리 오라방이우다, 오라버님
22314-1 오라버니(호칭)	22314-1 오라바님
22315 오빠	22315 우리 오라방이우다, 우리 오라버니미우다
22315-1 오빠(호칭)	22315-1 오라바님, 오라방
22316 언니	22316 우리 성니미우다, 우리 성이우다
22316-1 언니(호칭)	22316-1 성, 성님
22317 아버지	22317 우리 아더리우다, 크노미우다, 큰나드리우다
22317-1 아버지(호칭)	22317-1 누구아방
22318 어머니	22318 우리 메뉴리우다
22318-1 어머니(호칭)	22318-1 메뉴리야, 메늘내기야, 영처리 어멍
22319 손자	22319 손지
22320 손녀	22320 딸손지, 손녀, 손진딸, 이거 딸손지우다
22321 사위	22321 사위 사위 허주, 우리 사위우다
22321-1 사위(호칭)	22321-1 부를 때도 사위 이레 오자
22322 외손자	22322 웨손지
22323 외손녀	22323 웨손녀, 웨손진딸, 이거 우리 웨손진뜨리우다
22324 꾸짖다	22324 무사 경 욱커미우파, 요크능 거주, 욱깝썬 헬썬
22324-0-1 -고	22324-0-1 *
22324-1 나무라다	22324-1 에에 경 나무래지 맵썬게
22325 총각	22325 무드리총각, 총가기주
22326 처녀	22326 늘근비바리, 늘근처녀 늘근처녀 헤여, 비바리,
22327 혼인	22327 혼스헬썬, 혼인헬썬도 허곡
22327-1 혼인식	22327-1 호인네 헬저, 혼스존치, 혼사잔치헬썬, 혼서잔치
22328 혼인잔치	22328 잔치
22329 장가간다	22329 장게 간다 남자의 경우엔 장게 간다
22329-1 시집간다	22329-1 여자는 씨집간다
22330 혼숫감	22330 이거 혼수 사외수게 허멍, 혼사푸미엥도 허곡, 혼숫감

22331 함	22331 함, 흙세함
22332 겹사둔	22332 겹사둔, 겹싸둔
22333 새색시	22333 새각씨
22333-1 새색시(호칭)	22333- 새애기야
22334 시아버지	22333-1 새애기, 새애기 새애기도 허고
22334-1 시아버지(호칭)	22334 씨아방이우다, 씨아버니미우다, 씨아버지우다
22335 시어머니	22334-1 아버지, 아버지
22335-1 어머니(호칭)	22335 씨어머니우다
22336 비위	22335-1 그대로 어머니주, 어머니
22337 이주버니	22336 비우를 잘 마취줘야주게
22337-1 주버니(호칭)	22337 씨아지방이우다, 씨아지버니미우다, 아지버니
22338 서방님	22337-1 씨아지버님, 아지방이주, 아지버님
22338-1 서방님(호칭)	22338 씨아지방이우다, 아지방 씨아지방이엔 흐주
22339 도련님	22338-1 아지방 아지방 부르주
22339-1 도련님(호칭)	22339 아지방
22340 형님	22339-1 아지방
22340-1 형님(호칭)	22340 성님, 우리 성님
22341 시누이	22340-1 부를 때도 성니미주마, 성님
2341-1 시누이(호칭)	22341 고모영도 헤여, 씨누이, 씨누이우다, 아시
22341-2 아가씨	22341-1 부를 때는 아시주 저건또, 예 아시야
22341-3 아가씨(호칭)	22341-2 씨누이
22342 올케	22341-3 씨누이
22342-1 올케(호칭)	22342 오라방깍씨, 우리 오라방깍씨우다, 오래미깍씨우다
22343 매형	22342-1 아시야
22343-1 매형(호칭)	22343 매부, 우리 매형이우다
22344 매제	22343-1 매제영도 허주, 부를 때도 매부
22344-1 매제(호칭)	22344 매부, 매제
22345 큰아버지	22345 큰나방, 큰나버지
22345-1 큰아버지(호칭)	22345-1 큰나버님
22345-2 (아버지의둘째형)	22345-2 썬따바지, 썬따방, 썬따버지
22345-3 (아버지의셋째형)	22345-3 말잔따버지
22346 큰어머니	22346 큰너머니, 큰너멍이우다
22346-1 큰어머니(호칭)	22346-1 큰너머니, 큰너머님
22346-2 (아버지의둘째형의아내)	22346-2 썬떠머니, 썬떠머님, 썬떠멍
22346-3 (아버지의셋째형의아내)	22346-3 말썬떠멍, 말썬떠머니, 말썬떠머님
22347 큰집	22347 큰지베, 큰지베 제사여 오늘
22348 작은아버지	22348 우리 썬 조근나방이우다, 조근나방, 조근나버지

22348-1 작은아버지(호칭)	22348-1 부를 때는 기자 조근나버지주
22349 작은어머니	22349 우리 조근너멍이우다, 조근너머니우다, 조근너멍
22349-1 작은어머니(호칭)	22349-1 조근너머니
22350 삼촌	22350 삼촌, 삼촌, 우리 조근삼추니우다
22350-1 삼촌(호칭)	22350-1 부를 때는 삼초니라, 삼촌 삼촌 경덜 부르주
22351 아저씨	22351 아지버님
22351-1 아저씨(호칭)	22351-1 부를 때 아지버님, 손나래민 아지방, 아지버니
22352 아주머니	22352 삼촌, 예칭삼촌
22352-1 아주머니(호칭)	22352-1 삼촌 삼촌 허주
22353 조카	22353 우리 조캐우다, 조캐
22354 조카딸	22354 조캐, 조캐딸
22355 고모	22355 고모, 고모님
22355-1 고모(호칭)	22355-1 고모, 고모님
22356 고모부	22356 고모부, 나메게 소개할 때 우리 고모부우다
22356-1 고모부(호칭)	22356-1 부를 때는 고모부님
22357 고종	22357 고종, 고종스촌
22358 이모	22358 이모, 이모님
22358-1 이모(호칭)	22358-1 이모님
22359 이모부	22359 우리 이모부우다, 이모부
22359-1 이모부(호칭)	22359-1 직쩍 부를 때는 이모부님 영흐고
22360 이종	22360 이종, 이종스촌
22361 외삼촌	22361 웨삼촌, 웨숙뿌, 웨숙뿌님
22361-1 외삼촌(호칭)	22361-1 우리 웨삼추니우다, 웨숙뿌님
22362 외숙모	22362 예칭 삼촌, 웨승모, 웨승몹쭈게
22362-1 외숙모(호칭)	22362-1 그냥 삼촌 영 부르쭈게
22363 외종	22363 웨종, 웨종스촌
22364 외할아버지	22364 웨하라버지, 웨하르방, 웨하르버지
22364-1 외할아버지(호칭)	22364-1 하르버님
22365 외할머니	22365 웨할망, 웨할머니, 할머님
22365-1 외할머니(호칭)	22365-1 웨할머님
22366 장인	22366 가시아방, 장이니우다, 처부, 처부우다도 허곡
22366-1 장인(호칭)	22366-1 기냥 아버지쭈게, 아버님, 아버지
22367 장모	22367 우리 처모우다 처모를 가시어멍
22367-1 장모(호칭)	22367-1 어머니, 어머님
22368 처남	22368 처나미우다, 처형이우다
22368-1 처남(호칭)	22368-1 성니미주, 아시라 아시, 처남, 형님

22369 처남택	22369 처아지망
22369-1 처남택(호칭)	22369-1 아지망
22370 홀아버	22370 홀아버, 홀리방이엔도 호고
22371 홀어미	22371 새어멍, 홀래미, 홀러멍
22372 계모	22372 계모, 다슴머멍, 새어멍
22372-1 계부	22372-1 다슴마방, 의분따방
22373 아저씨	22373 소나이어른, 이온떠루는 다 삼촌 허주
22373-1 아저씨(호칭)	22373-1 부를 때도 삼추니엥 부르코, 삼촌
22374 아주머니	22373-1 예칭삼촌, 삼추님
22374-1 아주머니(호칭)	22374 기냥 삼촌, 예칭삼촌
22375 사나이	22375 소나눔, 소나눔, 소나이
22376 영감	22376 하르방
22376-1 할망구	22376-1 이 누무 할망, 이 누무 할망구, 할망, 할미
22377 나이	22377 나, 나만 머거네
22377-0-1 -를	22377-0-1 나 나 머걸찌
22378 환갑	22378 혼갑, 한갑
22378-1 환갑잔치	22378-1 혼갑잔치
22379 사투리	22379 사투리 조사 험쭈게

## 2.9. 동 물

### 2.9.1. 물에 사는 동물

22401 물고기	22401 물궤기
22402 민물고기	22402 민물궤기
22403 피래미	22403 피래미
22404 지느러미	22404 지느래미
22405 아가미	22405 아가미, 아우생이, 아게미라고도 하여
22406 창자	22406 베설창지, 베슬, 베슬창아리, 안칩, 창지
22407 송사리	22407 송사리
22408 헤엄	22408 헤엄 치게, 휘엄 치게, 휘엄 치다
22409 메기	22409 메기엥 험니다 메기
22410 자라	22410 자라, 자라엥 힘니다, 자레, 자레엥도 허곡
22411 거북	22411 거보기, 거부기, 거북



22412 미꾸라지	22412 미꾸라지, 미꾸레기, 미꾸레기에도 너곡
22413 개구리	22413 가게비, 가게뱀쭈
22414 올챙이	22414 기자 올챙이 알 올챙이 알 호는데,
22415 두꺼비	22415 두테비, 뚜꺼비
22416 거머리	22416 거머리, 거덜
22417 다슬기	22417 다슬개,
22418 우렁이	22418 물꼬메기, 민물꼬메기
22419 고둥	22419 꺾메기
22420 달팽이	22420 들벙이, 온 빠순 들벙이
22421 새우	22421 새워, 새이
22421-1 새우(민물대)	22421-1 민물새워
22421-2 새우(민물소)	22421-2 민물새워
22421-3 새우(바다대)	22421-3 바당새워
22421-4 새우(바다소)	22421-4 바당새워
22422 새우젓	22422 새워젓
22422-0-1 -이	22422-0-1 에이고 새워져서 너무 짜다
22423 가재	22423 가재
22424 갈치	22424 갈치
22425 고등어	22425 고등에
22426 가오리	22426 가오리, 게오리
22427 가자미	22427 가재미
22428 멸치	22428 멸, 멸
22429 명태	22429 건 명태주게, 먼태
22429-1 동태	22429-1 동태
22429-2 황태	22429-2 황태
22429-3 노가리	22429-3 *
22429-4 북어	22429-4 부게
22429-5 생태	22429-5 *
22430 조기	22430 조기, 췌기
22431 도미	22431 솔라니마썸, 오테미
22432 뱀장어	22432 뱀장에, 베염장에, 장에
22433 낙시	22433 낙씨
22434 미끼	22434 니집, 니집, 미끼
22435 낙싯대	22435 낙싯때, 청때
22436 얼레	22436 왜얼레, 통얼레
22437 조개	22437 요건 조개집쭈 조개기
22438 소라	22438 구제기 구쟁기, 문둥구쟁기

## 2.9.2. 곤충과 벌레

22501 벌레	22501 버랭이, 아 벌레두 쓰주게
22502 날벌레	22502 늘벌레
22503 파리	22503 포리
22503-1 쉬파리	22503-1 쉬포리
22504 쉬슬다	22504 쉬 쌀져, 쉬 쓰러져
22505 가시	22505 건 구데기, 장빠랭이
22506 진딧물	22506 준쉬, 준시 이룬져
22506-1 (진딧물이)끼다/얹다/생기다	22506-1 준시 일러져, 진시 일러져
22507 잠자리	22507 덤버리, 아지는방석
22508 방아깨비	22508 말축, 산디말축
22508-1 암컷	22508-1 이견 암말추깅계
22508-2 수컷	22508-2 순말추기엿 허곡
22509 메뚜기	22509 툄말축
22510 여치	22510 공쟁이
22511 사마귀	22511 국쭈에기, 국쭈기
22512 벌	22512 벌
22512-1 (벌을)치다/기르다/키우다	22512-1 청버를 처야
22513 땅벌	22513 땅뺨
22514 나비	22514 이거 나비인데 이거 호랑나비 답쭈다 냥
22515 하루살이	22515 흐르사리, 누네누니 누네눈
22516 풍뎡이	22516 두메기 답쭈다, 드메기
22517 모기	22517 이거 모기
22518 장구벌레	22518 물꼬노리, 장구벌레, 장쿨래비
22519 매미	22519 곡씨약쟁, 심방쟁도 인꼬, 왕쟁, 재열, 쟈
22520 개똥벌레	22520 불란지, 불한디
22521 반딧불	22521 한딧뺨
22522 거미	22522 거미
22523 굽벙이	22523 굽벙이
22524 구더기	22524 구데기
22525 노래기	22525 구레기, 노랭이
22526 그리마	22526 *
22527 지네	22527 지냉이
22528 개미	22528 물캐미가 인꼬, 물캐염지가 인꼬, 개미,
22529 바구미	22529 *

22530 진드기	22530 진득
22531 벼룩	22531 벼루기, 벼룩
22532 이	22532 건 니마썸, 니
22532-1 서캐	22532-1 쉬
22532-2 빈대	22532-2 또 빈대엔도 허공 냥, 빈두기
22533 송충이	22533 소낭빠랭이, 송충
22534 귀뚜라미	22534 공쟁이 공쟁이 가을공쟁이엔 허는 거
22535 누에	22535 누에
22536 고치	22536 고치, 누옌꼬치 누옌꼬치
22537 번데기	22537 뿐데기
22538 지렁이	22538 게우리
22539 회충(蛔蟲)	22539 게우리우다
22540 소금쟁이	22540 열쌍시
22541 방개	22541 물방개

### 2.9.3. 가 축

22601 가축	22601 가추기엔 힙쭈 가축
22602 암소	22602 암췌
22603 송아지	22603 송애기
22604 송아지부르는소리	22604 맹매앵 흥명 불름니다게
22605 황소	22605 바깄췌, 받깄췌, 황췌
22606 길들이다	22606 저 췌 잘 질드리라
22606-1 소모는 소리(앞으로 가라)	22606-1 머썸께 측께 머썸께
22606-2 소모는 소리(그자리에 서라)	22606-2 황, 황 황 허곡
22606-3 소모는 소리(오른쪽으로 돌아)	22606-3 *
22606-4 소모는 소리(왼쪽으로 돌아)	22606-4 *
22606-5 소모는 소리(뒤로 물러나라)	22606-5 *
22607 쇠고기	22607 췌게기, 췌레기
22608 고기(肉)	22608 레기 사 오라
22609 들치	22609 지지랭이
22610 꼬리	22610 풀랑집쭈 이거, 풀랭이엔도 힘니다
22611 망아지	22611 뭇쟁이
22612 당나귀	22612 당내기

22613 갈기	22613 물갈기
22614 돼지	22614 도새기, 도야지, 돛, 산또새기
22614-1 멧돼지	22614-1 산돼지, 산똥
22615 주둥이	22615 건 주둥입쭈마, 주뎡이
22616 돼지머리	22616 돈뎡가리, 돼지머리엔 헝쭈 그런 때는
22617 돼지우리	22617 돈통, 통시엥도 홉쭈
22617-1 오래오래	22617-1 꼬룩꼬룩
22618 개(犬)	22618 개
22618-1 수개	22618-1 순개
22618-2 암개	22618-2 암개
22619 강아지	22619 강생이
22620 염소	22620 염슴송애기라도 허극, 염쇄
22621 고양이	22621 고양이
22621-1 수고양이	22621-1 순킨 순코녕이
22621-2 암고양이	22621-2 암코녕이
22622 토끼	22622 툽계, 토끼 영 불름니다
22623 거위(鵞)	22623 거위
22624 암탉	22624 암컨 암퇘, 이건 득깅쭈
22625 병아리	22625 병애기
22626 모오다	22626 모아지게 허는 거주계
22627 수탉	22627 장득
22627-0-1 -이	22627-0-1 장ㄴ기 올면 새며기 온다
22628 벼슬(鷄冠)	22628 득꼬달, 고달
22629 부리	22629 주중머립쭈 주둥머리
22630 모이	22630 건 모이엥 험니다 모이,
22630-0-1 -을	22630-1 모이를 조사 머깅쭈
22630-1 모이다	22630-1 모아지다
22631 닭털	22631 득털
22632 닭똥	22632 득똥
22633 어리	22633 득쭈렁이, 수렁이
22634 닭장	22634 득꾸리, 득꿀, 득짱, 득짹,
22635 둥우리	22634 득텅에, 텅에
22636 날개	22636 늘개
22637 깃	22637 득꿀랑지, 진, 꿀랑지
22637-0-1 -을	22637-0-1 그 늘개에 진 지슬 뽀방 그레 질르라

## 2.9.4. 들짐승과 날짐승

22701 호랑이	22701 범, 호랭이
22702 살쥘이	22702 식
22703 여우	22703 여의, 여이, 여후
22704 원숭이	22704 나비라고도 허곡, 준나비라고 허고, 원생이
22705 사슴	22705 사스미, 사슴
22706 노루	22706 노리
22706-0-1 -이	22706-0-1 노리가 꽤 마나전쭈
22706-0-2 -를	22706-0-2 노리를 자브라
22707 고슴도치	22707 고슴도치
22708 두더지	22708 두더지, 두데지, 두뉘지
22709 족제비	22709 족제비
22710 뱀	22710 배염
22711 도마뱀	22711 장쿠래기, 장쿨래기, 장쿨레비
22712 구렁이	22712 구렁이배염 다마벵게
22713 살모사	22713 물폐기
22714 생쥐	22714 쉿이
22715 박쥐	22715 드람지, 다람쥘이, 다람지
22716 거꾸로	22716 꺼꾸로 드라진다, 거꾸로 매달립니다 꺼꾸로
22717 다람쥐	22717 다람지
22718 새(鳥)	22718 늘짐승, 생이 허민 쪼끔
22719 꿩	22719 풀랑지, 풀랭이
22720 솔개	22720 똥소래기, 똥수래기, 솔개영도 허곡
22721 독수리	22721 제비, 제비생이
22722 제비(燕)	22723 뚜러미
22723 두루미	22724 소쩍새
22724 소쩍새	22725 이견 꿩이우다
22725 꿩	22726 장꿩
22726 장끼	22727 암꿩
22727 까투리	22727-1 꿩빙애기
22727-1 꺼병이	22728 종다리가 미수다
22728 종달새	22729 삿갓새
22729 삿갓새	22729 주둥머리 주둥이, 득쭈둥이, 입쭈둥이
22730 기러기	22730 그레기
22731 뜰부기	22731 뜰뽕새

22732 올빼미  
22733 까치  
22734 딱따구리  
22735 텃  
22735-0-1 -을  
22736 올가미

22732 옥뺨  
22733 까치  
22734 크낙새, 크낙쟁이  
22735 텃, 새텃, 족제비텃  
22735-0-1 이 새텃슬 뇌사협쭈  
22736 구물라니라마썸, 꿩코, , 올가미, 올게미

## 2.10. 식 물

### 2.10.1. 꽃과 풀

22801 진달래꽃  
22802 철쭉꽃  
22803 민들레  
22804 맨드라미  
22805 봉선화  
22806 파리  
22807 해바라기  
22808 꽃봉오리  
22809 시들다  
22810 질경이  
22810-1 질경이(식물이름) 름)  
22810-2 질경이(식용이름)  
22811 빨기  
22812 비름  
22813 쇠비름  
22814 씩바귀  
22815 고들빼기  
22815-1 고들빼기(식물이름)  
22815-2 고들빼기(식용이름)  
22816 고사리  
22817 고비  
22818 도깨비바늘  
22819 도꼬마리

22801 진달래꽃, 진달래마썸  
22802 꼬스 철쭉꽃, 철쭉  
22803 독꼬달, 독꼬달 민들레, 민들랜디  
22804 이건 매드라미쭈  
22805 봉선화  
22806 푸계, 푸계낭, 함박푸계가 인꼬  
22807 헤베레기  
22808 꼴똥메기, 동메기 매점쭈 경협쭈 동메기  
22809 소드라감쭈, 시드러감쭈, 주거감쭈  
22810 베체기, 질경이라고도 호고  
22810-1 베체기  
22810-2 베체기  
22811 뺨이, 뺨이라고도 허고  
22812 춤비눔, 비눔, 이건 춤비눔게마썸  
22813 개비눔론 몬 머금니다, 개비눔, 췌비눔  
22814 수에  
22815 \*  
22815-1 \*  
22815-2 \*  
22816 고사리  
22817 \*  
22818 도깨비바늘  
22819 도꼬마리

22820	억새	22820	어웁
22821	갈대	22821	꺾대
22822	이끼	22822	예 느시우다 늘
22823	아주까리	22823	피만지
22824	담쟁이	22824	담쟁입쭈 담쟁이
22825	수세미	22825	수세미왜
22826	덩굴	22826	덩굴
22827	덤불	22827	가시덤벌 저서라
22827-1	가시덤불	22827-1	가시덤벌
22828	잔디	22828	테역 이피라, 테

## 2.10.2. 나 무

22901	소나무	22901	소낭입쭈
22902	솔방울	22902	소낭또레기, 솔똥
22903	관솔	22903	솔각
22904	솔가리	22904	솔넙
22905	그러모으다	22905	솔넙 거드레 가게, 솔넙프레 가게
22906	뽕나무	22906	뽕낭
22907	오디	22907	뽕이고, 뽕이엔도 곤꼭 양
22908	도토리	22908	도토리낭 도토리낭, 여기도 도토리주
22909	떡갈나무	22909	갈낭
22910	상수리	22910	츄남, 츄낭
22911	옻	22911	온낭, 온, 칠, 칠낭이엔도 허곡
22911-0-1	-으로	22911-0-1	오스로 칠하라, 칠로 칠허라
22912	버드나무	22912	버들낭, 버디낭입쭈게
22913	느타나무	22913	굴무기, 굴무기낭 굴무기엔 힘니다
22914	그림자	22914	거 굴메
22914-1	그늘	22914-1	그느리엔 흥주 그늘
22915	숲	22915	고지
22915-0-1	-을	22915-0-1	*
22915-0-2	-에	22915-0-2	고지에 가 완쭈
22916	시원하다	22916	선선허다, 씨원허다
22917	짚레	22917	아 독꼬리낭 독꼬리낭
22918	춌	22918	끄기주게 끄

22918-0-1 -에	22918-0-1 꼬게 걸런
22919 가지(枝)	22919 가쟁이, 가지, 가지를 줄르라, 낭까지
22920 끝	22920 저 꺾테 아지라, 저 꼬테 아지라
22920-0-1 -이	22920-0-1 꼬시 거꺼진찌
22920-0-2 -에	22920-0-2 꼬세 아지라 헤야주
22920-0-3-을	22920-0-3 꼬슬 줄라불라, 꼬슬 줄르라
22921 삭정이	22921 말라 주근 거 사그랭이
22921-1 삭정이를 따다/꺾다/하다	22921-1 사그랭이 꺾겨오라
22922 나무	22922 낭 흐레 가게온도 허곡 낭 흐레 가게, 장작 켩 오게
22922-0-1 -을	22922-0-1 *
22922-0-2 -에	22922-0-2 풍낭에 걸런찌
22923 나무하다	22923 낭 흐레 가게, 낭 그치레 가게, 낭 베레 가게
22924 그루터기	22924 낭끄르
22924-1 그루터기(베어내고 남은 부분)	22924-1 그르
22925 등걸	22925 낭등치
22926 장작	22926 장작
22927 패다	22927 깨라, 장자글 깨라
22928 부스리기	22928 그 주적떨 이레, 낭쭈쩍 침 낭쭈적, 낭푸스레기, 주적
22929 솟	22929 솟
22929-0-1 -이	22929-0-1 예 수시 마니 헤연네 저 꺾기덜 구웘서라
22929-0-2 -을	22929-0-2 수슬 구어서
22929-0-3-에	22929-0-3 수세 불 부찌라
22930 불잉걸	22930 거 불평이주게, 걸 잉걸, 불평이, 불잉걸, 솟평이, 잉걸
22931 싹	22931 새순,
22932 잎	22932 씨븐 씨비주게, 이비라고도 허고, 입쟁이
22932-0-1 -을	22932-0-1 *
22932-1 잎사귀	22932-1 거 이파리
22933 가랑잎	22933 *
22934 뿌리	22934 뿌리

### 2.10.3. 과일과 열매

23001 능금	23001 능금마썸
23002 돌배	23002 돌배
23003 복숭아	23003 요건 복숭게답쭈다



23004	곶감	23004	꼬감뽕쭈, 꼭감
23005	홍시	23005	홍시
23006	고욤	23006	곶감
23007	살구	23007	살구
23008	앵두	23008	앵디
23009	자두	23009	즈두
23010	오얏	23010	왜얏
23010-0-1	-을	23010-1	*
23011	석류	23011	그냥 성뉴우다
23012	모과	23012	모과
23013	과일	23013	과실, 과일
23014	꼭지	23014	꼭떼기 따블라, 꼭찌
23015	밤	23015	밤
23015-1	밤송이	23015-1	*
23015-2	꽃밤	23015-2	*
23015-3	알밤	23015-3	*
23015-4	쌍동밤	23015-4	*
23016	보늬	23016	*
23017	호두	23017	호두
23018	가래(楸子)	23018	*
23019	개암	23019	*
23020	머루	23020	멀리
23021	다래	23021	드래
23022	청미래덩굴	23022	멩게, 멩게낭
23023	으름	23023	즐갱이, 즐갱이유름, 유르미라고도 레여
23024	참외	23024	츨뵈
23025	딸기	23025	딸기마썸, 타리라고도 홉니다
23025-1	딸기(밭,재배)	23025-1	*
23025-2	딸기(밭,야생)	23025-2	*
23025-3	딸기(들,재배)	23025-3	탈
23025-4	딸기(들,야생)	23025-4	탈
23025-5	딸기(산,재배)	23025-5	탈
23025-6	딸기(산,야생)	23025-6	탈
23026	뱀딸기	23026	뱀탈, 베염탈
23027	마름(菱)	23027	물망, 몐

## 2.11. 자연

### 2.11.1. 산과 들

23101 산꼭대기	23101 꼭대기, 봉오리, 산뿔오리
23102 기슭	23102 산나래엥 배끼 원
23102-0-1 -에	23102-0-1 *
23103 골짜기	23103 골짜기, 골챙이
23104 메아리	23104 *
23105 고함	23105 고함 고성
23105-1 (고함)치다/지르다/하다	23105 고성 질르지 말라, 고함 질르지 말라
23106 묘	23106 산니엥 홉쭈 산
23107 뫼자리	23107 산터 보레 멩긴다
23107-1 광중	23107-1 개광터, 개광터마썸
23108 구덩이	23108 구덩일 파야주게
23109 비탈	23109 산므르 산므르
23110 가파르다	23110 *
23111 언덕	23111 므루 므루엥도 허곡, 건 동산
23112 낭떠러지	23112 그정, 기정이엥도, 다 기정이주
31113 들(野)	23113 드르, 벵디
23113-0-1 -에	23113-0-1 드르에 나강 일 헤야 뉘곡, 저 벵디에 강
23114 벌	23114 아 여기도 버란니엥 썸니다
23115 갈림길	23115 네커림, 두커름짚, 세커림
31116 헤어지다	23116 여기서 갈려사게
23117 바위	23117 바우라고도 허주, 왕돌
23117-0-1 -을	23117-0-1 바이를 들런찌, 왕도를 들런찌
23117-0-2 -에	23117-0-2 왕도레 걸터 안잔찌
31118 돌(石)	23118 돌
23118-0-1 -을	23118-0-1 도레 마잔찌
23118-0-2 -에	23118-0-2 도를 골라 내사키여
23119 자갈	23119 작찌
23120 모래	23120 몰래, 모살
23120-0-1 -를	23120-0-1 모사를, 몰래를
23121 진흙	23121 진늑, 찰흙
23121-1 찰흙	23121-1 츠늑 촌흙 출흙

## 2.11.2. 강과 바다

23201 물	23201 물
23202 거품	23202 거품
23203 개운하다	23203 씨윈허다
23204 도랑	23204 고랑 고랑
23204-1 붓도랑	23204-1 도랭이
23205 독	23205 독
23206 잠기다	23206 무레 중간찌
23207 개울	23207 그냥 골챙이주마
23208 내(川)	23208 내영 허곡
23209 미역감다	23209 몸 ㄱ맘찌
23210 발가숭이	23210 맨몸 아이파 맨눔이엔도 허곡 맨몸. 벌거숭이
23211 목욕하다	23211 모곡캠찌, 몸 ㄱ맘찌
23212 수채	23212 *
23213 개글창	23213 *
23214 시궁창	23214 켜물
23215 웅덩이	23215 웅덩이 웅덩이엔 헤자 웅덩이
23216 수렁	23216 *
23217 늪	23217 누베 빠전찌
23217-0-1 -에	23217-0-1 누베 빠전찌
23218 배(船)	23218 배
23219 나루터	23219 개마세 가보라, 개마테 가보라, 개만
23220 돛	23220 돛
23220-0-1 -에	23220-0-1 도세 바람 마지민 나가는 거주
23221 돛대	23221 건머 돛뽕쭈
23222 돛배	23222 돛뽕헝 헝쭈
23223 돛줄	23223 돛뽕쭈
23224 닻줄	23224 단쭈
23225 거루	23225 *
23226 상앗대	23226 건 산때마썸
23227 개(필)	23227 퍼래 바전찌
23228 물	23228 육찌로 씨집간찌
23228-0-1 -으로	23228-0-1 육찌로 씨집간찌
23229 밀물	23229 들물
23230 썰물	23230 썰물

23231 가라앉다  
23232 그물  
23233 해녀

23231 골리아잔찌, 바당에 골리아잔찌  
23232 구물  
23233 즈너, 즈수

### 2.11.3. 시 후

23301 새벽  
23302 새벽밥  
23303 아침  
23304 아침밥  
23305 점심  
23306 저녁  
23307 설끗하다  
23308 노을  
23308-0-1 -을  
23309 불그레하다  
23310 해거름  
23311 땅거미  
23312 봄  
23313 여름  
23314 더위  
23315 추위  
23316 가을  
23316-0-1 -에  
23317 겨울  
23317-0-1 -에  
23318 얼음  
23319 오늘  
23320내일  
23321 모래  
23322 글피  
23323 그글피  
23324 어제  
23325 그저께  
23326 그그저께

23301 널 아침 새벽게라 읍써, 새벽  
23302 새벽밥 머경 읍써, 새벽빠비주마, 새벽밥  
23303 거 조바니주, 아침, 조반  
23304 조반  
23305 점심  
23306 즈낙, 저너게 지주, 저녕 머검찌  
23307 헤지근헬찌 허는  
23308 놀  
23308-0-1 놀 밤찌  
23309 노랑허다, 노리롱허다, 불구롱호다  
23310 \*  
23311 \*  
23312 봄  
23313 여름  
23314 더위  
23315 추위가 오래감찌  
23316 마스리엔 홉쭈 마슬, 가을  
23316-0-1 마슬에 득주께  
23317 저슬, 저울  
23317-0-1 저슬에  
23318 여름  
23319 오늘  
23320 내리민 널 만나께, 널  
23321 모래  
23322 글피  
23323 그글피엥도 허곡, 저녕날  
23324 어제  
23325 그전께  
23326 그그전께엥 허주 기자 그그전께

23327	훗날	23327	후제, 후제 만나게도 쓰곡 훈날
23328	하룻날	23328	헝른날, 초헝른날, 초헝르주 초헝르
23329	이튿날	23329	이튿날, 초이튿날
23330	사흘날	23330	사흘랄, 초사흘날
23331	나흘날	23331	나을날, 초나을날, 초나흔날
23332	닷셋날	23332	단쎌날, 초단쎌날
23333	엿셋날	23333	은 쎌날, 초은 쎌날
23334	이렛날	23334	일렌날, 초일렌날
23335	여드렛날	23335	으드렌날, 초으드렌날
23336	아흐렛날	23336	아으렌날, 초아으렌날
23337	열흘날	23337	열틀랄, 초열흘랄
23338	하루	23338	헝르
23339	이틀	23339	이틀
23340	사흘	23340	사흘
23341	나흘	23341	나을, 나흘
23342	닷새	23342	단쎌
23343	엿새	23343	은 쎌
23344	이레	23344	일네
23345	여드레	23345	으드레
23346	아흐레	23346	아으레
23347	열흘	23347	열틀
23348	한나절	23348	날쩨, 오느른 날쩨 일베끼 모테연
23348-1	반나절	23348-1*	
23349	그믐	23349	구믐, 구믐날, 구믐
23349-1	그믐께	23349-1	구믐께 읍써, 구믐쑤 읍써
23350	지금	23350	지금 헤불게
23351	아직	23351	아직 안 머거수다
23352	이제	23352	이제, 이제 허게
23353	이미	23353	이미 때가 느전쑤
23354	요즈음	23354	요새, 요새 어떻 지냄서
23355	금방	23355	근 머건 와수다, 근

#### 2.11.4. 날씨와 방향

23401	별	23401	벤 빠른 데서, 벤 쑤옴쑤
-------	---	-------	----------------

23401-0-1 -이	23401-0-1 베시 잘 드는 데서, 베시 잘 드는 디서
23401-0-2 -을	23401-0-2 베슬 쪼이주
23402 따스하다	23402 딱똥터다
23403 아지랑이	23403 아지랭이
23404 응달	23404 그느레서 들리라
23405 양달	23405 건 뵤차기주게, 뵤차기, 양지
23406 비(雨)	23406 비가 왁짜
23407 가랑비	23407 ㄱ랑비
23408 이슬비	23408 이슬비
23409 안개	23409 안개
23410 는개	23410 이남
23411 무지개	23411 향구지
23412 소나기	23412 췌나기
23413 갑자기	23413 급짜기
23414 홍수	23414 홍수 날찌
23415 번개	23415 번개 찜찌, 번케
23416 찬등	23416 찬등 찜찌
23417 벼락	23417 베락, 베락 떠러절찌
23418 무섭다	23418 ㅁ수와, ㅁ습쭈게
23419 함박눈	23419 흙방눈
23420 싸락눈	23420 싸래기 왁짜 경허곡, 싸래기눈
23421 발자국	23421 거 발짜구기주 발짜국
23422 진눈깨비	23422 비눈
23423 우박	23423 우박 떠러절찌
23424 고드름	23424 동곤
23425 햇무리	23425 해간
23426 달무리	23426 들간 썬찌
23427 둥글다	23427 동그랑허주게 동그랑, 둥글랑
23428 은하수	23428 미린내
23429 금성	23429 그 썬뼈리, 썬뵤
23430 가뭄	23430 ㄱ뭄날씨
23431 마르다	23431 빨렐 잘 들려전 조수다 ㄱ무란 노난
23431-0-1 -어서	23431-0-1 잘 들려져서 조타
23432 위	23432 여긴 우이 위
23433 아래	23433 아래, 알
23434 왼쪽	23434 왼쪽, 왼쪽

23435 오른쪽

23436 결

23436-0-1 -에

23437 회오리바람

23438 북풍

23439 남풍

23440 동풍

23441 서풍

23435 ㄴ단짜, 오른쪽

23436 나 여프로 오라

23436-0-1 나 저곶뜨레 오라

23437 도쟁인쭈제, 도쟁이주제

23438 하니뵈름

23439 마뵈름, 마뵈름

23440 섯뵈름, 섯뵈람

23441 건 기자 섯뵈르미엔 허곡, 섯뵈름



## 제3편 음 운

### 3.1. 음운 체계

#### 3.1.1. 단모음

31001-0-1 테(輪)-이/가	31001-0-1 나 안경테가 느 안경테보단 더 질다
31001-0-2 테(輪)-보다	31001-0-2 나 안경테는 느 안경테보단 더 솔져 솔저다
31002-0-1 태(胎)-이/가	31002-0-1 큰놈 날 때 태보다 자근놈 날 때 태가 더 길게 쫄라전쫄
31002-0-2 태(胎)-보다	31002-0-2 느네 성 날 때 애기 태보다 태보다 느 날 때 태가 더 길게 쫄라전
31003-0-1 떼(群)-이/가	31003-0-1 옴나렌 가마귀가 어떠케 마는지 가마귀 떼가 머 데 지영 땡겔쫄
31003-0-2 떼(群)-보다	31003-0-2 지러기 떼보다 가마귀 떼가 훨씬 하
31004-0-1 때(時)-이/가	31004-0-1 느 저 경 때 걸르지 말라 무사 경 자꾸 때 걸렁 거 제때 안 머겔디
31004-0-2 때(時)-보다	31004-0-2 야 정심 때가 땡쫄 밤 머거불
31005-0-1 틀(機)-이/가	31005-0-1 베크리 느네 베클보단 훨씬 더 크다
31005-0-2 틀(機)-보다	31005-0-2 우리 베크리 느네 베클보단 더 조타
31006-0-1 털(毛)-이/가	31006-0-1 나 머리터리 느 머리털보단 훨씬 더 힐 꺼여
31006-0-2 털(毛)-보다	31006-0-2 느 머리터리 경 지러신디 무사 머리 보기실케 안 가깝
31007-0-1 글(文)-이/가	31007-0-1 이 그리 저 글보단 날따
31007-0-2 글(文)-보다	31007-0-2 이 그리 저 글보단 날따
31008-0-1 걸(鬣)-이/가	31008-0-1 이번 꺼리 몬절 꺾보단 훨씬 잘 날쫄
31008-0-2 걸(鬣)-보다	31008-0-2 이번 난 거리 모녀 난 꺾보단 훨씬 잘 날쫄
31009-0-1 기(旗)-이/가	31009-0-1 이 기가 저 기보단 더 노프케 다랗쫄
31009-0-2 기(旗)-보다	31009-0-2 이 기가 저 기보단 더 노프케 다랗쫄
31010-0-1 귀(耳)-이/가	31010-0-1 느 귀가 나 귀보단 조금 더 크다
31010-0-2 귀(耳)-보다	31010-0-2 느 귀가 나 귀보단 조금 더 크다
31011-0-1 시(生時)-이/가	31011-0-1 느네 어멍 난 시가 느네 아방 난 시보단 더 조텐 근나



31011-0-2 시(生時)-보다	31011-0-2 느네 어떻 난 시가 느네 아방 난 시보단 더 조텐 근나
31012-0-1 쉬(蠅卵)-이/가	31012-0-1 우리 항에 쉬보다 느네 항에가 더 쉬 하영 싼짜
31012-0-2 쉬(蠅卵)-보다	31012-0-2 우리 항에 쉬보다 느네 항에가 더 쉬 하영 싼짜
31013-0-1 쇠(鐵)-이/가	31013-0-1 이 췌보단 저 췌가 훨씬 더 강하다
31013-0-2 쇠(鐵)-보다	31013-0-2 이 췌보단 저 췌가 훨씬 더 강하다
31014-0-1 외:국(外國)-이/가	31014-0-1 왜구기 우리만 모테
31014-0-2 외:국(外國)-보다	31014-0-2 왜국보다 우리나라가 나사
31015-0-1 왜국(倭國)-이/가	31015-0-1 왜국이 우리나라보다 모테
31015-0-2 왜국(倭國)-보다	31015-0-2 왜국보다 우리나라가 모든 머네서 날쭈
31016-0-1 쉬:다(休)-이/가	31016-0-1 *
31016-0-2 쉬:다(休)-보다	31016-0-2 *
31017-0-1 쇠:다(설을~)-이/가	31017-0-1 *
31017-0-2 쇠:다(설을~)-보다	31017-0-2 *
31018-0-1 베(布)-이/가	31018-0-1 *
31018-0-2 베(布)-보다	31018-0-2 *
31019-0-1 배(船)-이/가	31019-0-1 *
31019-0-2 배(船)-보다	31019-0-2 *
31020-0-1 배(腹)-이/가	31020-0-1 *
31020-0-2 배(腹)-보다	31020-0-2 *
31021-0-1 떡:메-이/가	31021-0-1 *
31021-0-2 떡:메-보다	31021-0-2 *
31022-0-1 매(鞭)-이/가	31022-0-1 *
31022-0-2 매(鞭)-보다	31022-0-2 *
31023-0-1 메:다(擔)-이/가	31023-0-1 *
31023-0-2 메:다(擔)-보다	31023-0-2 *
31024-0-1 매:다(繫)-이/가	31024-0-1 *
31024-0-2 매:다(繫)-보다	31024-0-2 *
31025-0-1 떼:다(分離)-이/가	31025-0-1 *
31025-0-2 떼:다(分離)-보다	31025-0-2 *
31026-0-1 떼:다(炊)-이/가	31026-0-1 *
31026-0-2 떼:다(炊)-보다	31026-0-2 *
31027-0-1 베:다(切斷)-이/가	31027-0-1 *
31027-0-2 베:다(切斷)-보다	31027-0-2 *

31028-0-1 배:다(孕胎)-이/가	31028-0-1 *
31028-0-2 배:다(孕胎)-보다	31028-0-2 *
31029-0-1 세:다(算)-이/가	31029-0-1 *
31029-0-2 세:다(算)-보다	31029-0-2 *
31030-0-1 새:다(漏泄)-이/가	31030-0-1 *
31030-0-2 새:다(漏泄)-보다	31030-0-2 *
31031-0-1 뒤(後)-이/가	31031-0-1 *
31031-0-2 뒤(後)-보다	31031-0-2 *
31032-0-1 되(升)-이/가	31032-0-1 *
31032-0-2 되(升)-보다	31032-0-2 *
31033-0-1 개:(蟹)-이/가	31033-0-1 *
31033-0-2 개:(蟹)-보다	31033-0-2 *
31034-0-1 개:(犬)-이/가	31034-0-1 *
31034-0-2 개:(犬)-보다	31034-0-2 *

### 3.1.2. 이중모음

31035-0-1 여럿(多)-이/가	31035-0-1 그 지베 간보난 여라이가 서라
31035-0-2 여럿(多)-보다	31035-0-2 여라이보다 혼자서 일하는 게 더 조아라
31035-0-3 여럿(多)-을/를	31035-0-3 저기강 여라이를 오게 허라
31036-0-1 물결(波)-이/가 3	1036-0-1 물껴리 췌연 방과제를 너멈췌
31036-0-2 물결(波)-보다	31036-0-2 우리는 물결보다 저리엔 췌서
31036-0-3 물결(波)-을/를	31036-0-3 저 물껴를 보라
31037-0-1 예:의(禮儀)-이/가	31037-0-1 저 아이는 예이가 업따
31037-0-2 예:의(禮儀)-보다	31037-0-2 예의보다 여저리엔 마를 더 잘 마니 쓰주
31037-0-3 예:의(禮儀)-을/를	31037-0-3 자이는 어름한테 예의를 잘 지켜
31038-0-1 계:획(計畵)-이/가	31038-0-1 느네 금년 김진네 허는디 집 진는 계히기 서
31038-0-2 계:획(計畵)-보다	31038-0-2 계획보다 실처니 중요허매
31038-0-3 계:획(計畵)-을/를	31038-0-3 그 일 허젠 흐민 계획글 잘 세워야 텔 거여
31039-0-1 규칙(規則)-이/가	31039-0-1 *
31039-0-2 규칙(規則)-보다	31039-0-2 *
31039-0-3 규칙(規則)-을/를	31039-0-1 정해진 규칙글 지켜야 웬다
31040-0-1 휴일(休日)-이/가	31040-0-1 아이고 요샌 춤 교통이 아주 혼잡프다
31040-0-2 휴일(休日)-보다	31040-2 차가 너무 하네, 차가 너무 혼잡페여네 교통을 마비시켄

31040-0-3 휴일(休日)-을/를	31040-0-3 차가 너무 혼잡пен 교통을 마비시켜 버렸찌
31041-0-1 교통(交通)-이/가	31041-0-1 아이고 요샌 춤 교통이 아주 혼잡쁘다
31041-0-2 교통(交通)-보다	31041-0-2 차가 너무 하네, 차가 너무 혼잡페여네 교통을 마비시킨
31041-0-3 교통(交通)-을/를	31041-0-3 차가 너무 혼잡пен 교통을 마비시켜 버렸찌
31042-0-1 효:자(孝子)-이/가	31042-0-1 그 지베 효자가 날찌
31042-0-2 효:자(孝子)-보다	31042-0-2 효자보단 효녀가 더 나사
31042-0-3 효:자(孝子)-을/를	31042-0-3 잘 ㄹ르칭 효자를 내어야 허매
31043-0-1 웬일(何事)-이/가	31044-0-1 우리 퀘가 느네 퀘보단 더 날따
31043-0-2 웬일(何事)-보다	31044-0-2 씨집갈 때 퀘 가정 가사주
31043-0-3 웬일(何事)-을/를	31044-0-3 씨집갈 때 퀘를 가정 가사주
31044-0-1 퀘:(絜)(櫃)-이/가	31044-0-1 우리 퀘가 느네 퀘보단 더 날따
31044-0-2 퀘:(絜)(櫃)-보다	31044-0-2 씨집갈 때 퀘 가정 가사주
31044-0-3 퀘:(絜)(櫃)-을/를	31044-0-3 씨집갈 때 퀘를 가정 가사주
31045-0-1 왜란(倭亂)-이/가	31045-0-1 왜라니 터졌찌
31045-0-2 왜란(倭亂)-보다	31045-0-2 왜란보다 뱅나니 먼저여
31045-0-3 왜란(倭亂)-을/를	31045-0-3 하르버지 때 왜라늘 만나서 고생들 헐찌
31046-0-1 홧대(鷄架)-이/가	31046-0-1 이 홧때가 저 홧때보단 슬지다
31046-0-2 홧대(鷄架)-보다	31046-0-1 이 홧때가 저 홧때보단 슬지다
31046-0-3 홧대(鷄架)-을/를	31046-0-3 저 홧때 치와볼라
31047-0-1 원망(怨望)-이/가	31047-0-1 는 그 사람안데 무슨 원망이 경 하니
31047-0-2 원망(怨望)-보다	31047-0-2 원망보다 칭차늘 허라
31047-0-3 원망(怨望)-을/를	31047-0-3 경 원망허지 말라
31048-0-1 권:투(拳鬪)-이/가	31048-0-1 권투가 평양 박치기만인 몬 테여
31048-0-2 권:투(拳鬪)-보다	31048-0-2 난 권투보다 추꾸보는 게 더 조아
31048-0-3 권:투(拳鬪)-을/를	31048-0-3 권투를 경 흐는 거라
31049-0-1 의논(議論)-이/가	31049-0-1 쉐 눈보다 이노니 크댕 허매
31049-0-2 의논(議論)-보다	31049-0-2 이논보다 더 좋게 업따 이논헤사 훗다
31049-0-3 의논(議論)-을/를	31049-0-3 이노늘 허당보민 다 아라진다
31050-0-1 무늬(紋)-이/가	31050-0-1 이 무늬가 춤 막 조타
31050-0-2 무늬(紋)-보다	31050-0-2 이 퀘 무늬가 느네 퀘보단 더 조타
31050-0-3 무늬(紋)-을/를	31050-0-3 이런 무늬는 머옌 곤느니
31051-0-1 왕(王)-이/가	31051-0-1 이번 왕이 먼절뻘 왕보다 업저기 더 날따
31051-0-2 왕(王)-보다	31051-0-1 이번 왕이 먼절뻘 왕보다 업저기 더 날따
31051-0-3 왕(王)-을/를	31051-0-2 이번 왕을 본 바다사 훗다
31052-0-1 과자(菓子)-이/가	31052-0-1 사탕보다 과자가 조타

31052-0-2 과자(菓子)-보다  
31052-0-3 과자(菓子)-을/를

31052-0-2 과자보다 사탕이 조타  
31052-0-3 이 도느로 과자 사 머그라

### 3.1.3. 장모음 · 성조

31053-0-1 일(一)-이/가  
31053-0-2 일(一)-보다  
31054-0-1 일:(事)-이/가  
31054-0-2 일:(事)-보다  
31055-0-1 매(鞭)-이/가  
31055-0-2 매(鞭)-보다  
31056-0-1 매:(鷺)-이/가  
31056-0-2 매:(鷺)-보다  
31057-0-1 밤(夜)-이/가  
31057-0-2 밤(夜)-보다  
31058-0-1 밤:(栗)-이/가  
31058-0-2 밤:(栗)-보다  
31059-0-1 눈(眼)-이/가  
31059-0-2 눈(眼)-보다  
31060-0-1 눈:(雪)-이/가  
31060-0-2 눈:(雪)-보다  
31061-0-1 말(馬)-이/가  
31061-0-2 말(馬)-보다  
31062-0-1 말(斗)-이/가  
31062-0-2 말(斗)-보다  
31063-0-1 말:(言)-이/가  
31063-0-2 말:(言)-보다  
31064-0-1 손(客)-이/가  
31064-0-2 손(客)-보다  
31065-0-1 손(手)-이/가  
31065-0-2 손(手)-보다  
31066-0-1 손:(孫)-이/가  
31066-0-2 손:(孫)-보다

31053-0-1 이 일보다 저 이리 조타  
31053-0-2 이 일보다 저 이리 조타  
31054-0-1 이 일보다 저 이리 조타  
31054-0-2 이 일보다 저 이리 조타  
31055-0-1 매보다 칭차니 더 조타  
31055-0-2 이 매가 저 매보단 더 아픈다  
31056-0-1 이 매가 저 매보단 사냥을 더 잘 헤여  
31056-0-2 이 매가 저 매보단 사냥을 더 잘 헤여  
31057-0-1 오늘빠미 어젯빤보단 훨씬 춥따  
31057-0-2 오늘빠미 어젯빤보단 훨씬 춥따  
31058-0-1 이 바미 저 밤보단 더 흑따  
31058-0-2 이 바미 저 밤보단 더 흑따  
31059-0-1 나 누니 느 눈보단 더 크주  
31059-0-2 나 누니 느 눈보단 더 크주  
31060-0-1 오늘 누니 어젯 눈보다 더 왁쩌  
31060-0-2 오늘 누니 어젯 눈보다 더 왁쩌  
31061-0-1 우리 므리 느네 물보다 더 잘 똬다  
31061-0-2 우리 므리 느네 물보다 더 잘 똬다  
31062-0-1 흐 마리 두 말보단 죽다  
31062-0-2 흐 마리 두 말보단 죽다  
31063-0-1 나 마리 느 말보단 날따게  
31063-0-2 나 마리 느 말보단 날따게  
31064-0-1 이 소니 저디 아진 손보단 문저 완 아잠쩌  
31064-0-2 이 소니 저디 아진 손보단 문저 완 아잠쩌  
31065-0-1 나 소니 느 손보단 훨씬 크네  
31065-0-2 나 소니 느 손보단 훨씬 크네  
31066-0-1 우리 므으른 오씨 손보다 김씨 소니 내중에  
알쩌  
31066-0-2 우리 므으른 오씨 손보다 김씨 소니 내중에  
알쩌



31084-0-1 갈:-(耕)-고	31084-0-1 지비 가그네 미 완직 허다 지비 강 날레 걷곡 명석도 잘 물곡 흐라
31084-0-2 갈:-(耕)-더라	31084-0-2 지비 가그네 미 완직 허다 지비 강 날레 걷곡 명석도 잘 물곡 흐라
31085-0-1 걷-(收)-고	31085-0-1 걷곡 거리도 몬 미치키여
31085-0-2 걷-(收)-더라	31085-0-2 걷곡 거리도 몬 미치키여
31086-0-1 걸:-(步)-고	31086-0-1 걸곡 거리도 몬 미치키여
31086-0-2 걸:-(步)-더라	31086-0-2 걸곡 거리도 몬 미치키여
31087-0-1 적-(書)-고	31087-0-1 거기 공체게 잘 적꼭 가정오라
31087-0-2 적-(書)-더라	31087-0-2 거기 공체게 잘 적꼭 가정오라
31088-0-1 적:-(小)-고	31088-0-1 우리 집 고친 아주 족꼭 먹 뽕나
31088-0-2 적:-(小)-더라	31088-0-2 우리 집 고친 아주 족꼭 먹 뽕나

## 3.2. 음운 과정

### 3.2.1. 활 용

32001-0-1 막-(防)[ㄱ]-지	32001-0-1 그레 가는 쉼 막찌 말라
32001-0-2 막-(防)[ㄱ]-고	32001-0-2 아 그 쉼 막꼭 거기 사 이스라
32001-0-3 막-(防)[ㄱ]-더라	32001-0-3 거 어린아이가 춤 쉼 잘 마가라
32001-0-4 막-(防)[ㄱ]-으니까	32001-0-4 그 쉼 마그니까 마를 잘 드러라
32001-0-5 막-(防)[ㄱ]-아/어(왔/었다)	32001-0-5 느 그디 쉼 마간 그디 시라
32002-0-1 흐르-(流)[-]-지	32002-0-1 물 흘르지 몬트게 마그라
32002-0-2 흐르-(流)[-]-고	32002-0-2 간 보난 낸무리 잘 흘럼서라
32002-0-3 흐르-(流)[-]-더라	32002-0-3 물 세게 흘러부난 막지 모터키여
32002-0-4 흐르-(流)[-]-으니까	32002-0-4 물 잘 흘러감시난 내 부런찌
32002-0-5 흐르-(流)[-]-아/어(왔/었다)	32002-0-5 무리 세게 흘러네 흘럼시난 막찌 모텐찌
32003-0-1 오-(來)[ㅇ]-지	32003-0-1 바쁘거드네 지비 오지 말라
32003-0-2 오-(來)[ㅇ]-고	32003-0-2 *
32003-0-3 오-(來)[ㅇ]-더라	32003-0-3 가인 매날 매날 지비 와라
32003-0-4 오-(來)[ㅇ]-으니까	32003-0-4 지비 매날 오나네 춤 아주 착퀸 닐 아니나
32003-0-5 오-(來)[ㅇ]-아/어(왔/었다)	32003-0-5 느 지비 왕 이시라
32004-0-1 듣-(聞)[ㄷ변]-지	32004-0-1 느 말 잘 드찌 모터키여 머시엔사 ㄱ람신디
32004-0-2 듣-(聞)[ㄷ변]-고	32004-0-2 말 잘 듣꼭 말곡 흘 나이가 업따

32004-0-3	듣-(聞)[ㄷ]변-더라	32004-0-3	가이 말 잘 드러라
32004-0-4	듣-(聞)[ㄷ]변-으니까	32004-0-4	어멍 아방 말 잘 드러난 효자주
32004-0-5	듣-(聞)[ㄷ]변-아/어(았/었다)	32004-0-5	말 잘 드러그네 손해 안 본다게
32005-0-1	많-(多)[ㄴ]ㅎ-지	32005-0-1	그디 간 보난 폰또 하지만 콩도 하라
32005-0-2	많-(多)[ㄴ]ㅎ-고	32005-0-2	*
32005-0-3	많-(多)[ㄴ]ㅎ-더라	32005-0-3	*
32005-0-4	많-(多)[ㄴ]ㅎ-으니까	32005-0-4	콩이 하난 아네드른 돈 번 거주
32005-0-5	많-(多)[ㄴ]ㅎ-아/어(았/었다)	32005-0-5	콩도 하영 버릴꾸나
32006-0-1	말-(任)[ㅌ]지	32006-0-1	이장 마트지 말라
32006-0-2	말-(任)[ㅌ]고	32006-0-2	이장 마트곡 일도 잘 해야주게
32006-0-3	말-(任)[ㅌ]더라	32006-0-3	말텐 헝명도 이장 마타라
32006-0-4	말-(任)[ㅌ]으니까	32006-0-4	이장 마트난 일 해사주게
32006-0-5	말-(任)[ㅌ]아/어(았/었다)	32006-0-5	아이고 이장 마탄 소감서 이
32007-0-1	알-(知)[ㄹ]지	32007-0-1	난 잘 알지 모터키여
32007-0-2	알-(知)[ㄹ]고	32007-0-2	잘 머 알곡 말곡 흘 꺼 이서 마
32007-0-3	알-(知)[ㄹ]더라	32007-0-3	그 사르른 몬딱 잘 아라라
32007-0-4	알-(知)[ㄹ]으니까	32007-0-4	잘 아난 선생이라 그 사람
32007-0-5	알-(知)[ㄹ]아/어(았/었다)	32007-0-5	잘 아랑 이거 바다 머거여
32008-0-1	감-(閉眼)[ㅁ]지	32008-0-1	눈 감찌 말라
32008-0-2	감-(閉眼)[ㅁ]고	32008-0-2	눈 감꼭 줌 자지 크냐 어멍 즈물 자
32008-0-3	감-(閉眼)[ㅁ]더라	32008-0-3	헝꿈 뵈나도 눈 ㅁ마라
32008-0-4	감-(閉眼)[ㅁ]으니까	32008-0-4	눈 ㅁ르난 생이 눈 답따
32008-0-5	감-(閉眼)[ㅁ]아/어(았/었다)	32008-0-5	눈 ㅁ망 시민 웬다 이 눈 ㅁ망 이시라
32009-0-1	벗-(脫)[ㅅ]지	32009-0-1	온 벌꼭 이불 더뜨곡 헤영 줌 자라 이
32009-0-2	벗-(脫)[ㅅ]고	32009-0-2	이불 더뜨곡 헤그네 잘 짜라
32009-0-3	벗-(脫)[ㅅ]더라	32009-0-3	저 사르른 술 줌 취헤가민 오슬 잘 버서라
32009-0-4	벗-(脫)[ㅅ]으니까	32009-0-4	온 버스난 게 씨원허주게
32009-0-5	벗-(脫)[ㅅ]아/어(았/었다)	32009-0-5	온 버성 사라지카
32010-0-1	옳-(可)[ㄹ]ㅎ-지	32010-0-1	말 옳코 그르물 아람서어
32010-0-2	옳-(可)[ㄹ]ㅎ-고	32010-0-2	*
32010-0-3	옳-(可)[ㄹ]ㅎ-더라	32010-0-3	*
32010-0-4	옳-(可)[ㄹ]ㅎ-으니까	32010-0-4	말 오르난 줌 천냥 비슬 갑는 거라
32010-0-5	옳-(可)[ㄹ]ㅎ-아/어(았/었다)	32011-0-5	우리 갈 때 아라네 온 띠번 지드렘서라
32011-0-1	입-(着衣)[ㅂ]지	32011-0-1	*
32011-0-2	입-(着衣)[ㅂ]고	32011-0-2	*
32011-0-3	입-(着衣)[ㅂ]더라	32011-0-3	막 큰 온또 줌 이버라

32011-0-4 입-(着衣)[ㅂ]-으니까	32011-0-4 *
32011-0-5 입-(着衣)[ㅂ]-아/어(았/었다)	32011-0-5 *
32012-0-1 바꾸-(換)[ㅌ]-지	32012-0-1 존도느로 바꾸지 마랑 이시라
32012-0-2 바꾸-(換)[ㅌ]-고	32012-0-2 돈 바꾸곡 말곡 흘 께 이수과
32012-0-3 바꾸-(換)[ㅌ]-더라	32012-0-3 낱싸 존돈도 바꾸와라
32012-0-4 바꾸-(換)[ㅌ]-으니까	32012-0-4 존돈 바꾸나네 계와에 존돈덜 하쩌
32012-0-5 바꾸-(換)[ㅌ]-아/어(았/었다)	32012-0-5 존돈 바짱 이시라
32013-0-1 덮-(覆)[ㅍ]-지	32013-0-1 더운디 이불 더프지 말라
32013-0-2 덮-(覆)[ㅍ]-고	32013-0-2 이불 더프곡 행 자라 감기 걸린다
32013-0-3 덮-(覆)[ㅍ]-더라	32013-0-3 일년내낭 일불 더핍서라
32013-0-4 덮-(覆)[ㅍ]-으니까	32013-0-4 이불 더프나네 딱똥트다
32013-0-5 덮-(覆)[ㅍ]-아/어(았/었다)	32013-0-5 경 이불 더퍼그네 추우카아
32014-0-1 묻:-(問)[ㄷ변]-지	32014-0-1 말 무찌 말라
32014-0-2 묻:-(問)[ㄷ변]-고	32014-0-2 그 사람한테 말 묻쪽 말곡 흘 이리야
32014-0-3 묻:-(問)[ㄷ변]-더라	32014-0-3 기자 늘 강 보녀는 마를 무러라
32014-0-4 묻:-(問)[ㄷ변]-으니까	32014-0-4 말 무르난 데다블 헤 줘야주게
32014-0-5 묻:-(問)[ㄷ변]-아/어(았/었다)	32014-0-5 말 무렁 손내보지 아니다
32015-0-1 낫:-(癒)[ㅅ변]-지	32015-0-1 병 빨리 낫찌 아냄수과
32015-0-2 낫:-(癒)[ㅅ변]-고	32015-0-2 병 낫쪽 빨리 이러나야 쉼 꺼시 아니파
32015-0-3 낫:-(癒)[ㅅ변]-더라	32015-0-3 부찌난 잘 나사라
32015-0-4 낫:-(癒)[ㅅ변]-으니까	32015-0-4 잘 나스난 야기주게
32015-0-5 낫:-(癒)[ㅅ변]-아/어(았/었다)	32015-0-5 병 나상 빨리 이러 나사주게
32016-0-1 닫-(閉)[ㄷ]-지	32016-0-1 문 콧콧 더끄지 말라
32016-0-2 닫-(閉)[ㄷ]-고	32016-0-2 문 더끄곡 혜영 줌 자라이 추운디
32016-0-3 닫-(閉)[ㄷ]-더라	32016-0-3 문 더꺼라
32016-0-4 닫-(閉)[ㄷ]-으니까	32016-0-4 문 더꺼그네 안장 이시라
32016-0-5 닫-(閉)[ㄷ]-아/어(았/었다)	32016-0-5 *
32017-0-1 쫓-(追)[ㅈ]-지	32017-0-1 경 어멍 조름 조치지 말라
32017-0-2 쫓-(追)[ㅈ]-고	32017-0-2 어멍 조치곡 윈 늘 우렁 몬쌀키여
32017-0-3 쫓-(追)[ㅈ]-더라	32017-0-3 가인 볼 때마다 어멍 바짝 쫓차라
32017-0-4 쫓-(追)[ㅈ]-으니까	32017-0-4 계난 게 어멍 조치난 머글 꺼시 나왓쭈게
32017-0-5 쫓-(追)[ㅈ]-아/어(았/었다)	32017-0-5 *
32018-0-1 베:-(枕)[ㄷ]-지	32018-0-1 베게 모로 베지 말라
32018-0-2 베:-(枕)[ㄷ]-고	32018-0-2 베개 베곡 이불 잘 더평 자라
32018-0-3 베:-(枕)[ㄷ]-더라	32018-0-3 가인 노픈 베게를 잘 베어라
32018-0-4 베:-(枕)[ㄷ]-으니까	32018-0-4 노픈 베게 베난 고개 아파라



32018-0-5 베:-(枕)[배]-아/어(았/었다)	32018-0-5 베게 베영 자라
32019-0-1 깨:-(破)[배]-지	32019-0-1 낭 줍지리 깨지 말라
32019-0-2 깨:-(破)[배]-고	32019-0-2 낭 깨곡 저레 데미곡 흐라
32019-0-3 깨:-(破)[배]-더라	32019-0-3 그 지비 강 보면 낭 줍지리 잘 깨여라
32019-0-4 깨:-(破)[배]-으니까	32019-0-4 낭 깨난 다 낭 깨나네 이제랑 밤 머거사주게
32019-0-5 깨:-(破)[배]-아/어(았/었다)	32019-0-5 저 사라든 낭 깨연 돈 버릴져
32020-0-1 꺾-(伸)[기]-지	32020-0-1 잘 꺾우지 모터키여
32020-0-2 꺾-(伸)[기]-고	32020-0-2 잘 꺾우곡 고비치곡 그레 흡써
32020-0-3 꺾-(伸)[기]-더라	32020-0-3 강 보면 맨날 꺾와라
32020-0-4 꺾-(伸)[기]-으니까	32020-0-4 아이고 잘 꺾우난 춤 곱딱허다
32020-0-5 꺾-(伸)[기]-아/어(았/었다)	32020-0-5 요 잘 꺾왕 안집써
32021-0-1 밝-(明)[명]-지	32021-0-1 난 복쨌 아닌쨌
32021-0-2 밝-(明)[명]-고	32021-0-2 날 복쨌 어스름헌디 완다
32021-0-3 밝-(明)[명]-더라	32021-0-3 그 때가 데민 헤 불가라
32021-0-4 밝-(明)[명]-으니까	32021-0-4 날 볼그난 빨리 가사키여
32021-0-5 밝-(明)[명]-아/어(았/었다)	32021-0-5 날 볼강 지비 아자저
32022-0-1 삶:-(烹)[삶]-지	32022-0-1 아이고 이거 솥 조가네 잘 솥지 모터키여
32022-0-2 삶:-(烹)[삶]-고	32022-0-2 이거 너무 조가네 솥쨌 말곡 흘 나이 이수과
32022-0-3 삶:-(烹)[삶]-더라	32022-0-3 간 보난 춤 쨌가 하영 슬마라
32022-0-4 삶:-(烹)[삶]-으니까	32022-0-4 경 하영 슬므나네 나맘쨌게 남쨌게
32022-0-5 삶:-(烹)[삶]-아/어(았/었다)	32022-0-5 *
32023-0-1 읊-(吟)[읊]-지	32023-0-1 이 말 저 말 그레 상 읊프지 말라
32023-0-2 읊-(吟)[읊]-고	32023-0-2 무시거 사그네 읊프곡 대곡 흘 꺼 시니
32023-0-3 읊-(吟)[읊]-더라	32023-0-3 간 보난 춤 상 잘 읊퍼라
32023-0-4 읊-(吟)[읊]-으니까	32023-0-4 *
32023-0-5 읊-(吟)[읊]-아/어(았/었다)	32023-0-5 그 글쨌 윈 매날 읊핑 도니 나오카
32024-0-1 밟:-(踏)[밟]-지	32024-0-1 그 진밭 밟쨌 말라
32024-0-2 밟:-(踏)[밟]-고	32024-0-2 발로 볼볼 띠 볼쨌 허라
32024-0-3 밟:-(踏)[밟]-더라	32024-0-3 간 보난 잘 볼바라
32024-0-4 밟:-(踏)[밟]-으니까	32024-0-4 잘 보리 잘 볼르난 곡쨌기 보리가
32024-0-5 밟:-(踏)[밟]-아/어(았/었다)	32024-0-5 보리가 잘 볼방 손해 안 본다
32025-0-1 하-(爲)[하변]-지	32025-0-1 말 하영 흐지 말라
32025-0-2 하-(爲)[하변]-고	32025-0-2 일 흐곡 말곡 흘 꺼 시냐
32025-0-3 하-(爲)[하변]-더라	32025-0-3 춤 가인 일 자 헤여
32025-0-4 하-(爲)[하변]-으니까	32025-0-4 가인 일 하영 허난 부재 똬시네
32025-0-5 하-(爲)[하변]-아/어(았/었다)	32025-0-5 일 하영 헤여그네 몬 쨌 사람 어따

32026-0-1 맺-(結)[ㅈ]-지	32026-0-1 너무 벅찬 다 일 모끄지 모트키여
32026-0-2 맺-(結)[ㅈ]-고	32026-0-2 이거 이 하치는 거 모끄곡 말 곡 흘 나이 이서 다 헤그네
32026-0-3 맺-(結)[ㅈ]-더라	32026-0-3 간 보난 일 다 모까서라게
32026-0-4 맺-(結)[ㅈ]-으니까	32026-0-4 곱딱허게 모치난 일땅도 잘 바답실 꺼여
32026-0-5 맺-(結)[ㅈ]-아/어(왔/었다)	32026-0-5 일 모깡 오라
32027-0-1 없:-(無)[* ]-지	32027-0-1 그 사라든 늘 돈 얻찌 아녕 이서
32027-0-2 없:-(無)[* ]-고	32027-0-2 돈도 업꼬 사람도 업따
32027-0-3 없:-(無)[* ]-더라	32027-0-3 *
32027-0-4 없:-(無)[* ]-으니까	32027-0-4 돈도 업꼭 사람도 업따
32027-0-5 없:-(無)[* ]-아/어(왔/었다)	32027-0-5 돈 어성 사라지카아
32028-0-1 앉-(坐)[ㅈ]-지	32028-0-1 무똥에 안찌 말라
32028-0-2 앉-(坐)[ㅈ]-고	32028-0-2 는 안쪽 서곡 헤서라
32028-0-3 앉-(坐)[ㅈ]-더라	32028-0-3 방서게 안자서라
32028-0-4 앉-(坐)[ㅈ]-으니까	32028-0-4 방석 우이 아지난 폐안 헤여
32028-0-5 앉-(坐)[ㅈ]-아/어(왔/었다)	32028-0-5 이디 아장 시라
32029-0-1 비비-(刮)[   ]-지	32029-0-1 경 손 부비지 말라
32029-0-2 비비-(刮)[   ]-고	32029-0-2 손 비비곡 발 부비곡 호명 비리서도 용서 아널 거여
32029-0-3 비비-(刮)[   ]-더라	32029-0-3 본 찍 마다 소늘 잘 부벼라
32029-0-4 비비-(刮)[   ]-으니까	32029-0-4 그거 잘 부벼그네 알맹이만 머그라
32029-0-5 비비-(刮)[   ]-아/어(왔/었다)	32029-0-5 잘 부병 머그라
32030-0-1 ㄹ-(消)[-]-지	32030-0-1 지비 보난 보난 불 ㄹ곡 어든 디 아자서라
32030-0-2 ㄹ-(消)[-]-고	32030-0-3 간 보난 불 꺾 이서라 불 꺼서라
32030-0-3 ㄹ-(消)[-]-더라	32030-0-4 불 ㄹ난 사람쥬
32030-0-4 ㄹ-(消)[-]-으니까	32030-0-5 잘 때랑 불 쟁 잠자라
32030-0-5 ㄹ-(消)[-]-아/어(왔/었다)	32030-0-5 *
32031-0-1 꺾-(折)[ㅈ]-지	32031-0-1 경 위로 꺼끄지 말라
32031-0-2 꺾-(折)[ㅈ]-고	32031-0-2 고사리 꺼꼭 슝꼭 물리곡 흐라
32031-0-3 꺾-(折)[ㅈ]-더라	32031-0-3 그 사람 고사리 잘도 꺼꺼라
32031-0-4 꺾-(折)[ㅈ]-으니까	32031-0-4 고사리 꺼경 풀게
32031-0-5 꺾-(折)[ㅈ]-아/어(왔/었다)	32031-0-5 *
32032-0-1 신:-(履)[ㄴ]-지	32032-0-1 신 신폭 어디 가젠 햄디
32032-0-2 신:-(履)[ㄴ]-고	32032-0-3 그 사름은 늘 보민 기자 초신 잘 시너러
32032-0-3 신:-(履)[ㄴ]-더라	32032-0-4 저 애긴 신 시느난 든젠만 헤여
32032-0-4 신:-(履)[ㄴ]-으니까	32032-0-4 *

32032-0-5 신-(履)[ㄴ]-아/어(왔/었다)	32032-0-5 *
32033-0-1 보-(視)[ㄱ]-지	32033-0-1 기영 보지 말라
32033-0-2 보-(視)[ㄱ]-고	32033-0-2 먹꼭 보곡 안 뵈져
32033-0-3 보-(視)[ㄱ]-더라	32033-0-3 저 사라믄 쉼을 잘 보아라
32033-0-4 보-(視)[ㄱ]-으니까	32033-0-4 어멍 보난 막 지꺼전 험저
32033-0-5 보-(視)[ㄱ]-아/어(왔/었다)	32033-0-5 온 지메 지비 강 할망 뵈 가라
32034-0-1 추-(舞)[ㅈ]-지	32034-0-1 경 나강 걸 추지 말라
32034-0-2 추-(舞)[ㅈ]-고	32034-0-2 느 전 브름 난 춤 추곡 험젠 헤라
32034-0-3 추-(舞)[ㅈ]-더라	32034-0-3 간 보난 춤 잘 추어라
32034-0-4 추-(舞)[ㅈ]-으니까	32034-0-4 춤 추난 기분 조아라
32034-0-5 추-(舞)[ㅈ]-아/어(왔/었다)	32034-0-5 춤 주어그네 기분 나빠 기분 조추
32035-0-1 피우-(吸煙)[ㅍ]-지	32035-0-1 담배 피우지 말고 술도 먹저 말라
32035-0-2 피우-(吸煙)[ㅍ]-고	32035-0-2 담배 피우곡 술 머꼭 흐지 말라
32035-0-3 피우-(吸煙)[ㅍ]-더라	32036-0-3 그 하르방은 지반에서 담배 피와라
32035-0-4 피우-(吸煙)[ㅍ]-으니까	32036-0-4 그 하르방 경 담배 피우난 용 머검쥬
32035-0-5 피우-(吸煙)[ㅍ]-아/어(왔/었다)	32036-0-5 경 담배 피완 피왕 욱 뜨림쥬
32036-0-1 서-(立)[ㅅ]-지	32037-0-1 그디 사지 말라
32036-0-2 서-(立)[ㅅ]-고	32037-0-2 그디 간 보난 사곡 안꼭 케서라
32036-0-3 서-(立)[ㅅ]-더라	32037-0-3 간 보난 무똥에 사서라
32036-0-4 서-(立)[ㅅ]-으니까	32037-0-4 경 무똥에 사난 욱 뜨림쥬 욱 드쥬
32036-0-5 서-(立)[ㅅ]-아/어(왔/었다)	32037-0-4 오 무똥에 산 베려라
32037-0-1 기-(匍腹)[ㅣ]-지	32038-0-1 기영 기지 말라
32037-0-2 기-(匍腹)[ㅣ]-고	32038-0-2 기곡 곡꼭 흐멍 크능겨여
32037-0-3 기-(匍腹)[ㅣ]-더라	32038-0-3 애기 간 보난 애기 잘 기어라
32037-0-4 기-(匍腹)[ㅣ]-으니까	32038-0-4 잘 기나네 곧 거르키여
32037-0-5 기-(匍腹)[ㅣ]-아/어(왔/었다)	32038-0-5 그디랑 경 기영 드러가지 말라
32038-0-1 이-(戴)[ㅣ]-지	32038-0-1 *
32038-0-2 이-(戴)[ㅣ]-고	32038-0-2 *
32038-0-3 이-(戴)[ㅣ]-더라	32038-0-3 *
32038-0-4 이-(戴)[ㅣ]-으니까	32038-0-4 *
32038-0-5 이-(戴)[ㅣ]-아/어(왔/었다)	32038-0-5 *
32039-0-1 아-(否)[ㅣ]-지	32039-0-1 그거 아니지 아니파
32039-0-2 아-(否)[ㅣ]-고	32039-0-2 그게 아니곡 이겨라마썸
32039-0-3 아-(否)[ㅣ]-더라	32039-0-3 소라보난 그게 아니라라
32039-0-4 아-(否)[ㅣ]-으니까	32039-0-4 소라보난 그게 아니여
32039-0-5 아-(否)[ㅣ]-아/어(왔/었다)	32039-0-5 그거 아닌 이겨 마리주게

32040-0-1 되-(升)[니]-지	32040-0-1 그 웨약찌기도 웨지 말라
32040-0-2 되-(升)[니]-고	32040-0-2 소느로도 웨서라
32040-0-3 되-(升)[니]-더라	32040-0-3 소느로도 웨어라
32040-0-4 되-(升)[니]-으니까	32040-0-4 웨로 웨난 정확힐 거여
32040-0-5 되-(升)[니]-아/어(왔/었다)	32040-0-5 웨로 웨영 아정 가라
32041-0-1 있-(有)[씨]-지	32041-0-1 도니 선 도니 선 부제주
32041-0-2 있-(有)[씨]-고	32041-0-2 지베 돈 이쪽 말고
32041-0-3 있-(有)[씨]-더라	32041-0-3 신 디 서라 간 보난 신 디 서라
32041-0-4 있-(有)[씨]-으니까	32041-0-4 지비 시난 보아점쭈
32041-0-5 있-(有)[씨]-아/어(왔/었다)	32041-0-5 지비 이시난 보아점쭈
32042-0-1 놓-(放)[ㅎ]-지	32042-0-1 세 노치 말라
32042-0-2 놓-(放)[ㅎ]-고	2042-0-2 쉼도 노콩 물도 노록
32042-0-3 놓-(放)[ㅎ]-더라	32042-0-3 거기는 기장 늘 기자 쉼도 노콩 물 노록 켕 지춘다
32042-0-4 놓-(放)[ㅎ]-으니까	32042-0-4 간 보난 그 바띠 쉼 노아서라
32042-0-5 놓-(放)[ㅎ]-아/어(왔/었다)	32042-0-5 강 쉼 저 노아그네 메기라
32043-0-1 훑-(扱)[뚜]-지	32043-0-1 기영 보리 훑트지 말라
32043-0-2 훑-(扱)[뚜]-고	32043-0-2 보리 훑트곡 데작커곡 헤사 힌다
32043-0-3 훑-(扱)[뚜]-더라	32043-0-3 간 보난 보리 보리도 훑탐서라
32043-0-4 훑-(扱)[뚜]-으니까	32043-0-4 보리 훑트난 손목 까파라
32043-0-5 훑-(扱)[뚜]-아/어(왔/었다)	32043-0-5 보리 훑탕 도께로 두르립쭈
32044-0-1 곱:-(麗)[버변]-지	32044-0-1 그 아이 곱쭈 아니다
32044-0-2 곱:-(麗)[버변]-고	32044-0-2 새각씨는 곱꼬 말곡 흘 나이 어따
32044-0-3 곱:-(麗)[버변]-더라	32044-0-3 가의 고아라
32044-0-4 곱:-(麗)[버변]-으니까	32044-0-4 가의 얼굴 보난 고아라
32044-0-5 곱:-(麗)[버변]-아/어(왔/었다)	32044-0-5 가의 얼굴 고난 씨집 존 디 갈 꺼여
32045-0-1 쥐:-(握)[기]-지	32045-0-1 팍 쉼난 빼지 모터키여
32045-0-2 쥐:-(握)[기]-고	32045-0-2 경 팍 쉼지 말라
32045-0-3 쥐:-(握)[기]-더라	32045-0-3 소느로 쉼곡 폐곡 헤 보라
32045-0-4 쥐:-(握)[기]-으니까	32045-0-4 소느로 폐우곡 쉼곡 헤 보라
32045-0-5 쥐:-(握)[기]-아/어(왔/었다)	32045-0-5 소느로 팍 쉼여라
32046-0-1 가-(去)[ㄱ]-지	32046-0-1 그디랑 가지 말라
32046-0-2 가-(去)[ㄱ]-고	32046-0-2 가곡 오곡 흥명 만남쭈
32046-0-3 가-(去)[ㄱ]-더라	32046-0-3 가의도 가서라
32046-0-4 가-(去)[ㄱ]-으니까	32046-0-4 가난 올 쭈 물 몰라라
32046-0-5 가-(去)[ㄱ]-아/어(왔/었다)	32046-0-5 그디 강 방 가라

## 2) 일반 항목

32047-0-1 먹-(食)-지,-고,-더라	32047-0-1 방 파영 먹찌 말라
32047-0-2 먹-(食)-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047-0-2 경 밥 파영 머거도 베가 고프 고프다
32048-0-1 뜯-(摘)-지,-고,-더라	32048-0-1 경 하영 트찌 말라
32048-0-2 뜯-(摘)-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048-0-2 하영 트다도 나공 나곡 험찌
32049-0-1 같-(如)-지,-고,-더라	32049-0-1 아방 제레ㅎ곡 아들 지레가 ㄱ트지 안히여
32049-0-2 같-(如)-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049-0-2 성제가 열구리 ㄱ타도 조치 아너라
32050-0-1 얕-(淺)-지,-고,-더라	32050-0-1 무리 아파라
32050-0-2 얕-(淺)-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050-0-2 무리 양광 톱 김찌 모트키여
32051-0-1 흩-(散)-지,-고,-더라	32051-0-1 경 허트지 말라
32051-0-2 흩-(散)-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051-0-2 경 허텅 데크라
32052-0-1 날-(飛)-지,-고,-더라	32052-0-1 그 제비생이 잘 놀지 모렘찌 어려부난
32052-0-2 날-(飛)-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052-0-2 그 생이 잘 노랑 강남 거뜬히 가키여
32053-0-1 울-(泣)-지,-고,-더라	32053-0-1 경 울지 말라
32053-0-2 울-(泣)-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053-0-2 경 우렁 존 날 시카
32054-0-1 일-(洵)-지,-고,-더라	32054-0-1 이제랑 일지 마랑 건집찌
32054-0-2 일-(洵)-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054-0-2 *
32055-0-1 얼-(凍)-지,-고,-더라	32055-0-1 어뻡사 추운디 물도 얼곡 땅도 얼곡 케찌
32055-0-2 얼-(凍)-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055-0-2 물 찢레 간 보난 물 어린 물 찢언 외수다
32056-0-1 넘-(越)-지,-고,-더라	32056-0-1 돌땀 경 넘찌 말라
32056-0-2 넘-(越)-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056-0-2 돌땀 너먼 도망 가수다
32057-0-1 숨-(隱)-지,-고,-더라	32057-0-1 이제랑 곱찌 말라
32057-0-2 숨-(隱)-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057-0-2 머리 봐지게 고평 춘찌 모터카
32058-0-1 쉽-(易)-지,-고,-더라	32058-0-1 만날 노는 일도 쉽지 아너다
32058-0-2 쉽-(易)-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058-0-2 그 일 보민 쉬워도 ㅎ젠 ㅎ난 어렵따
32059-0-1 눕-(臥)-지,-고,-더라	32059-0-1 멘 장파네 눅찌 말라
32059-0-2 눕-(臥)-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059-0-2 경 누영 차도 하위염만 헤염찌
32060-0-1 김-(縫)-지,-고,-더라	32060-0-1 줍찌 말라 그냥 시너도 데키여
32060-0-2 김-(縫)-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060-0-2 그걸 주영 시너사키여
32061-0-1 밍-(憎)-지,-고,-더라	32061-0-1 이제 밍쪽 궤곡 홀 나이가 이수과
32061-0-2 밍-(憎)-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061-0-2 이제도 미완 모쌀쿠다
32062-0-1 높-(高)-지,-고,-더라	32062-0-1 동산 우에 지비난 높쪽 말곡
32062-0-2 높-(高)-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062-0-2 낭이 너무 노판 모폴르키여
32063-0-1 짓-(作)-지,-고,-더라	32063-0-1 차 사곡 집 찢쪽 험수게
32063-0-2 짓-(作)-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063-0-2 이제 지집 지션 사람실 꺼우다

32064-0-1 붓:-(腫)-지,-고,-더라	32064-0-1 조금 일허민 양지도 분꼭 손도 분꼭 흠
32064-0-2 붓:-(腫)-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064-0-2 얼굴 부신 어디 나뎡기지 모터쿠다
32065-0-1 웃:-(笑)-지,-고,-더라	32065-0-1 아이구 우슴 벨탁허멍 잘도 우서라
32065-0-2 웃:-(笑)-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065-0-2 우선 나쁜 일 이수과게
32066-0-1 짓:-(呖)-지,-고,-더라	32066-0-1 개 지꾸들 경 지꾸지 말라
32066-0-2 짓:-(呖)-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066-0-2 에이구 경 지꾸엿 입또 안 나과
32067-0-1 꽃:-(插)-지,-고,-더라	32067-0-1 비눌 잘 꼬지지 모터키여
32067-0-2 꽃:-(插)-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067-0-2 이 이거 잘 꼬짱 뇌두난 자빠지곡 험쩌
32068-0-1 낱:-(産)-지,-고,-더라	32068-0-1 그 갠 새끼 나도 지꿀 쫘 몰라
32068-0-2 낱:-(産)-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068-0-2 새끼 하영 난 풀레 탕겨수다
32069-0-1 땅:-(辯)-지,-고,-더라	32069-0-1 머리 쫘란 데우지 모터키여 좀 기러야키여
32069-0-2 땅:-(辯)-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069-0-2 머리 땡기 잘 데왕 탕겨야 더 곱쩌 아너나
32070-0-1 끊:-(切)-지,-고,-더라	32070-0-1 거 먹땅 거난 끈창 머그라
32070-0-2 끊:-(切)-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070-0-2 끈창 갈랑 머그라
32071-0-1 괜참-(無妨)-지,-고,-더라	32071-0-1 이 정도민 괜치 아니다
32071-0-2 괜참-(無妨)-아/어도,-아/어서,- -왔/었다	32071-0-2 괜치 아년 조키여
32072-0-1 읽:-(讀)-지,-고,-더라	32072-0-1 이 책 어려완 익쩌 모트키여
32072-0-2 읽:-(讀)-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072-0-2 이 책 이경 외왕 탕기라
32073-0-1 뺨:-(澁)-지,-고,-더라	32073-0-1 이 가문 쫘락쩌지 아니다
32073-0-2 뺨:-(澁)-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073-0-2 이 감 너무 쫘랍쩍 먹쩌 모터키여
32074-0-1 읊:-(遷)-지,-고,-더라	32074-0-1 마근 방으로 집 웅기지 말라
32074-0-2 읊:-(遷)-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074-0-2 마근 방으로 웅경 조치 아니한다
32075-0-1 뚱:-(貫)-지,-고,-더라	32075-0-1 먹뚱레 고망 딸르지 모턴다 너무 췌영
32075-0-2 뚱:-(貫)-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075-0-2 고망 크게 딸랑 모 쓴다
32076-0-1 꿩:-(脆)-지,-고,-더라	32076-0-1 흠부로 경 무릅 풀리는 거 아니여
32076-0-2 꿩:-(脆)-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076-0-2 오래 풀렁 안지민 발 자린다
32077-0-1 닳:-(抗,연필십이)-지,-고,-더라	32077-0-1 거 하영 다이지 말게 허라
32077-0-2 닳:-(抗,연필십이)-아/어도, -아/어서-왔/었다	32077-0-2 이거 너무 다연 모쓰키여,
32078-0-1 닳:-(煎,술에서장이)-지,-고,-더라	32078-0-1 하영 딸리지 말라
32078-0-2 닳:-(煎,술에서장이)-아/어도, -아/어-왔/었다	32078-0-2 너무 하영 딸러부난 나만쩌서,
32079-0-1 짜:-(鹽)-지,-고,-더라	32079-0-1 장만또 짜곡 손만또 짜다
32079-0-2 짜:-(鹽)-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079-0-2 너무 짜네 무레 헤왕 머거사키여
32080-0-1 말:-(捲)-지,-고,-더라	32080-0-1 경 명성 돌지 말라

32080-0-2 말-(捲)-아/어도,-아/어서,-았/었다	32080-0-2 명석 툃툃니 잘 모랑 저레 세우라
32081-0-1 쓰-(書)-지,-고,-더라	32081-0-1 이젠 글 잘 쓰지 모터키여
32081-0-2 쓰-(書)-아/어도,-아/어서,-았/었다	32081-0-2 글 잘 썩 놔두라
32082-0-1 오르-(登)-지,-고,-더라	32082-0-1 낭에 오르지 말라
32082-0-2 오르-(登)-아/어도,-아/어서,-았/었다	32082-0-2 오르메 올랑 보민 가스미 씨윈 한다
32083-0-1 바쁘-(忙)-지,-고,-더라	32083-0-1 초네 살제 흥민 바쁘지 아니한 나리 시냐
32083-0-2 바쁘-(忙)-아/어도,-아/어서,-았/었다	32083-0-2 너무 바쁜 윈 정신 모 차리키여
32084-0-1 고프-(餓)-지,-고,-더라	32084-0-1 베고프지 아녀건 먹찌 말라게
32084-0-2 고프-(餓)-아/어도,-아/어서,-았/었다	32084-0-2 아이고 베 고프 거찌 모터키여다
32085-0-1 쏘-(射)-지,-고,-더라	32085-0-1 새끼 꿩덜 쏘오찌 말라
32085-0-2 쏘-(射)-아/어도,-아/어서,-았/었다	32085-0-2 총으로 쏘왕 자븐 꿩 만 쫓나
32086-0-1 꾸-(夢)-지,-고,-더라	32086-0-1 꾸메 시꾸지 아네라
32086-0-2 꾸-(夢)-아/어도,-아/어서,-았/었다	32086-0-2 꾸메 시꾸와라
32087-0-1 머무르-(留)-지,-고,-더라	32087-0-1 느 그디 가거드네 오래 머지지 마랑 오라
32087-0-2 머무르-(留)-아/어도,-아/어서,- -았/었다	32087-0-2 경 오래 머정 이익 텔게 어따
32088-0-1 다듬-(整)-지,-고,-더라	32088-0-1 베치 경 다듬찌 말라
32088-0-2 다듬-(整)-아/어도,-아/어서,-았/었다	32088-0-2 경 ㄹ크리 다드망 이파이락 멘게 나므크냐게
32089-0-1 견디-(忍)-지,-고,-더라	32089-0-1 윈 요샌 모미 약케연 오래 견디질 모터쿠다
32089-0-2 견디-(忍)-아/어도,-아/어서,-았/었다	32089-0-2 오래 견디어 볼찌
32090-0-1 말리-(裁)-지,-고,-더라	32090-0-1 잘 물리지 모터키여
32090-0-2 말리-(裁)-아/어도,-아/어서,-았/었다	32090-0-2 이거 처니 잘 물란 나물 꺼 어시키여
32091-0-1 끼-(烟鎖,안개가)-지,-고,-더라	32091-0-1 이남이 찌지 아니시민 흘 켄디 이나미 쩌 왁팍 헐찌
32091-0-2 끼-(烟鎖,안개가)-아/어도, -아/어서-았/었다	32091-0-2 이나미 찌지 아니면 흰 흘 켄디 이남찌네 왁팍 헐찌
32092-0-1 마시-(飲)-지,-고,-더라	32092-0-1 술 경 먹찌 말라
32092-0-2 마시-(飲)-아/어도,-아/어서,-았/었다	32092-0-2 술 머경 견더지크냐
32093-0-1 세-(強)-지,-고,-더라	32093-0-1 히미 경 췌지 아녀
32093-0-2 세-(強)-아/어도,-아/어서,-았/었다	32093-0-2 보름 췌연 바당에 오느른 모까쿠다
32094-0-1 포개-(重疊)-지,-고,-더라	32094-0-1 포 노록 포 노록 허당 거 씨러진다
32094-0-2 포개-(重疊)-아/어도,-아/어서,-았/었다	32094-0-2 그르슨 포 노양 먹지 아니한다엿
32095-0-1 두드리-(敲)-지,-고,-더라	32095-0-1 노픈 디랑 두드리곡 두드리곡 코라
32095-0-2 두드리-(敲)-아/어도,-아/어서,- -았/었다	32095-0-2 경 두드령 경 약카게 두드령 까지카마췌
32096-0-1 췌-(點燈)-지,-고,-더라	32096-0-1 경 흰호게 췌지 맵췌

32096-0-2 켜-(點燈)-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096-0-2 불 경 쌍 시민 나비드리 막 다마듬니께
32097-0-1 쇠:--(바람을)-지,-고,-더라	32097-0-1 노픈 디 올라상 바람 잘 췌우곡 허라
32097-0-2 쇠:--(바람을)-아/어도,-아/어서,- -왔/었다	32097-0-2 벤 췌양 방 안트레 드리라
32098-0-1 쇠-(老)-지,-고,-더라	32098-0-1 이 빈떠 세우린 세지 아니여
32098-0-2 쇠-(老)-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098-0-2 너무 세연 몬 먹키여
32099-0-1 쉬:--(籬)-지,-고,-더라	32099-0-1 밥 쉬지 말게 허라
32099-0-2 쉬:--(籬)-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099-0-2 이 밥 쉬영 몬 먹키여
32100-0-1 희-(白)-지,-고,-더라	32100-0-1 혜영희지 아니혜여
32100-0-2 희-(白)-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100-0-2 눈 하영 오난 천지가 혜영혜싱게
32101-0-1 볍-(炒)-지,-고,-더라	32101-0-1 보리 보끄지 모터키여
32101-0-2 볍-(炒)-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101-0-2 콩도 보깡 먹꼭 보리도 보깡 먹꼬 케수다
32102-0-1 안:--(抱)-지,-고,-더라	32102-0-1 안찌 모터쿠다
32102-0-2 안:--(抱)-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102-0-2 잘 아냥 이시민 텐다
32103-0-1 묻-(埋)-지,-고,-더라	32103-0-1 잘 묻찌 아느면 써겨버려
32103-0-2 묻-(埋)-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103-0-2 땅에 잘 무덩 뇌두라
32104-0-1 불:--(吹)-지,-고,-더라	32104-0-1 이브로 불곡 부체로 부끄곡 케도 불 몬 피우쿠다
32104-0-2 불:--(吹)-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104-0-2 불미 부렁 담배 먹게
32105-0-1 빨-(洗濯)-지,-고,-더라	32105-0-1 이 이불 너무 커네 빨지 모 트키여
32105-0-2 빨-(洗濯)-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105-0-2 잘 백랑 너러두라
32106-0-1 죽-(死)-지,-고,-더라	32106-0-1 이 보린 죽찌 아녀수다
32106-0-2 죽-(死)-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106-0-2 너미 거런 더 몬 거르쿠다
32107-0-1 걷:--(步)-지,-고,-더라	32107-0-1 너무 거런 걷찌 모트쿠다
32107-0-2 걷:--(步)-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107-0-2 버테 거렁 걸라
32108-0-1 가물-(旱)-지,-고,-더라	32108-0-1 오린 ㄱ물지 아네수다
32108-0-2 가물-(旱)-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108-0-2 올린 너무 ㄱ물란 농사가 안 돼수다
32109-0-1 졸:--(睡)-지,-고,-더라	32109-0-1 졸지 마랑 강 자라
32109-0-2 졸:--(睡)-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109-0-2 조랑 공부가 데크나
32110-0-1 쓸-(掃)-지,-고,-더라	32110-0-1 코 쓸곡 쓸곡 자인 험찌
32110-0-2 쓸-(掃)-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110-0-2 구굽 팡팡 나는데게 ㄱ쓰렁 무시거 험 띠게
32111-0-1 감:--(捲)-지,-고,-더라	32111-0-1 얼레 그 얼레레 썰 감꼭 감꼭 허라이
32111-0-2 감:--(捲)-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111-0-2 얼레 썰 가팡 뇌두라
32112-0-1 더듬-(摸)-지,-고,-더라	32112-0-1 이레 저레 더듬찌 말라
32112-0-2 더듬-(摸)-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112-0-2 곱찢 거 더드망 차자지민 얼마나 조니 다
32113-0-1 굽:--(炙)-지,-고,-더라	32113-0-1 이 불로 곱찌 모터키여 부리 약케에네



32113-0-2 굽:- <small>(炙)</small> -아/어도,-아/어서,-았/었다	32113-0-2 잘 구멍 머급째
32114-0-1 무겁-(重)-지,-고,-더라	32114-0-1 베지 아니민 들렁 갈 꺾디
32114-0-2 무겁-(重)-아/어도,-아/어서,-았/었다	32114-0-2 베연 저 지카
32115-0-1 잇:- <small>(連)</small> -지,-고,-더라	32115-0-1 너무 졸란 이거 인찌 모트키여
32115-0-2 잇:- <small>(連)</small> -아/어도,-아/어서,-았/었다	32115-0-2 이거 흔 가닥으로 이성 나두라
32116-0-1 빗-(梳)-지,-고,-더라	32116-0-1 얼레기 어선 머리 빗찌 모트키여
32116-0-2 빗-(梳)-아/어도,-아/어서,-았/었다	32116-0-2 머리 잘 비성 이시라
32117-0-1 까맣-(黑)-지,-고,-더라	32117-0-1 어떻 해연 머리가 는 꺼멍허지 안히다
32117-0-2 까맣-(黑)-아/어도,-아/어서,-았/었다	32117-0-2 구뚝 올라시냐 꺼멍허지 아이이다
32118-0-1 넣-(入)-지,-고,-더라	32118-0-1 노록 노록 노탄 보난 짝 차비시네
32118-0-2 넣-(入)-아/어도,-아/어서,-았/었다	32118-0-2 그레 몬 노아그네 가정가라이
32119-0-1 고:- <small>(煮)</small> -지,-고,-더라	32119-0-1 아이고 엔나렌 술 고소리술 다끄곡 풀곡 흥명 사랄찌
32119-0-2 고:- <small>(煮)</small> -아/어도,-아/어서,-았/었다	32119-0-2 고소리술 다간 술 만드란 풀명 사랄찌
32120-0-1 얹-(載)-지,-고,-더라	32120-0-1 *
32120-0-2 얹-(載)-아/어도,-아/어서,-았/었다	32120-0-2 *
32121-0-1 귀찮-(囁)-지,-고,-더라	32121-0-1 경해도 난 귀찬치 아니여
32121-0-2 귀찮-(囁)-아/어도,-아/어서,-았/었다	32121-0-2 귀차녕 헛지 말라
32122-0-1 바르-(剔,생선뼈틀)-지,-고,-더라	32122-0-1 너무 커부난 불르지 모트쿠다
32122-0-2 바르-(剔,생선뼈틀)-아/어도,-아/었다	32122-0-2 베 툴랑 소곰 험땅 구멍 머급째
32123-0-1 맑-(淸)-지,-고,-더라	32123-0-1 아이구 방당 오느를 어떻해연 목찢 아니다
32123-0-2 맑-(淸)-아/어도,-아/어서,-았/었다	32123-0-2 하느리 물간 바당도 잔잔허키여서,
32124-0-1 굵:- <small>(濃)</small> -지,-고,-더라	32124-0-1 아직 곱찌 아넛짜다
32124-0-2 굵:- <small>(濃)</small> -아/어도,-아/어서,-았/었다	32124-0-2 이제사 골만 이거 터절찌
32125-0-1 굵:- <small>(太)</small> -지,-고,-더라	32125-0-1 감저가 이덜 감전 존존헤네 혹찌 아니다
32125-0-2 굵:- <small>(太)</small> -아/어도,-아/어서,-았/었다	32125-0-2 너미 홀건 춤 베다
32126-0-1 얇:- <small>(薄)</small> -지,-고,-더라	32126-0-1 이 판데긴 알브고 지니허다
32126-0-2 얇:- <small>(薄)</small> -아/어도,-아/어서,-았/었다	32126-0-1 이 판데긴 압꼭 진진허다
32127-0-1 씩-(春)-지,-고,-더라	32127-0-1 *
32127-0-2 씩-(春)-아/어도,-아/어서,-았/었다	32127-0-2 *
32128-0-1 잃-(失)-지,-고,-더라	32128-0-1 돈 여비지 말라 멩심헤영
32128-0-2 잃-(失)-아/어도,-아/어서,-았/었다	32128-0-2 아이고 멩헤영 텡기렌 허당보난 돈 여비연 텡 감꾸나게 황당흔 거
32129-0-1 핥-(舐)-지,-고,-더라	32129-0-1 할트지 마랑 빨랑 머그라
32129-0-2 핥-(舐)-아/어도,-아/어서,-았/었다	32129-0-2 세로 할르지만 마랑 빨랑 머그라
32130-0-1 짧-(短)-지,-고,-더라	32130-0-1 쫄르곡 흥난 모쓰키여

32130-0-2 짧-(短)-아/어도,-아/어서,-았/었다	32130-0-2 너무 졸란 모 쓰키여
32131-0-1 놀라-(驚)-지,-고,-더라	32131-0-1 경 놀래지 말라
32131-0-2 놀라-(驚)-아/어도,-아/어서,-았/었다	32131-0-2 우는 소리에 놀래연 모 썰कु다
32132-0-1 자-(宿)-지,-고,-더라	32132-0-1 자지 마랑 일립써
32132-0-2 자-(宿)-아/어도,-아/어서,-았/었다	32132-0-2 경 즘만 장 어땡허젠 험수와
32133-0-1 못:하-(不爲)-지,-고,-더라	32133-0-1 일 모터곡 기냥 와수다
32133-0-2 못:하-(不爲)-아/어도,-아/어서,- -았/었다	32133-0-2 일 모터연 어땡 허코마썸/ -았/었다
32134-0-1 모르-(不知)-지,-고,-더라	32134-0-1 알카부덴 허난 경도 몰라라
32134-0-2 모르-(不知)-아/어도,-아/어서,-았/	32134-0-2 그런 건 몰랑 졸쑤다게었다
32135-0-1 아프-(痛)-지,-고,-더라	32135-0-1 아프지 맵써양
32135-0-2 아프-(痛)-아/어도,-아/어서,-았/었다	32135-0-2 아팡 조을 이리 이수과
32136-0-1 크-(大)-지,-고,-더라	32136-0-1 영 크지 아니허우다
32136-0-2 크-(大)-아/어도,-아/어서,-았/었다	32136-0-2 너무 커네 모뎨브쿠다
32137-0-1 꼬-(索,새끼를)-지,-고,-더라	32137-0-1 웬 새끼 꼬지 말라
32137-0-2 꼬-(索,새끼를)-아/어도,-아/어서,-	32137-0-2 새끼 꼬양 뇌두라왔/었다
32138-0-1 쭈-(造粥)-지,-고,-더라	32138-0-1 아직까지 미움 쭈지 모테수다
32138-0-2 쭈-(造粥)-아/어도,-아/어서,-았/었다	32138-0-2 오늘랑 폰쭈 쭈영 머급쭈
32139-0-1 맞추-(組合)-지,-고,-더라	32139-0-1 잘 맞추지 모트키여
32139-0-2 맞추-(組合)-아/어도,-아/어서,- -았/었다	32139-0-2 잘 맞추양 뇌두라
32140-0-1 테우-(燂)-지,-고,-더라	32140-0-1 테우곡 뉘우치곡 케영 먹게
32140-0-2 테우-(燂)-아/어도,-아/어서,-았/었다	32140-0-2 이싱 건만 테왕 먹게
32141-0-1 이:-(盖,지붕을)-지,-고,-더라	32141-0-1 보름 부런 집 일지 모트키여
32141-0-2 이:-(盖,지붕을)-아/어도,-아/어서,-	32141-0-2 초집 잘 이령 뇌두라왔/었다
32142-0-1 갈기-(打)-지,-고,-더라	32142-0-1 비당 버치민 ㄱ리곡 허주
32142-0-2 갈기-(打)-아/어도,-아/어서,-았/었다	32142-0-2 경 ㄱ령 힘든다
32143-0-1 기다리-(待)-지,-고,-더라	32143-0-1 경 오래 지드리지 말라 오지 아난다
32143-0-2 기다리-(待)-아/어도,-아/어서,-았/	32143-0-2 경 지드령 올 썬라미민 조케었다
32144-0-1 세:-(算)-지,-고,-더라	32144-0-1 너미 하네 세지 모트키여
32144-0-2 세:-(算)-아/어도,-아/어서,-았/었다	32144-0-2 문드리지 마랑 세영 뇌두라
32145-0-1 빼-(拔)-지,-고,-더라	32145-0-1 지피 드러가네 빼지 모트키여
32145-0-2 빼-(拔)-아/어도,-아/어서,-았/었다	32145-0-2 쉼 쉼출 무체로 빵 쉼 줍써
32146-0-1 쉼-(搥을)-지,-고,-더라	32146-0-1 너무 얹게 썬지 맵써
32146-0-2 쉼-(搥을)-아/어도,-아/어서,-았/었	32146-0-2 그냥 잘 썬 뇌 썬써다
32147-0-1 뇌:-(硬)-지,-고,-더라	32147-0-1 물 비우명 뉘지 아니게 흡써

32147-0-2 되:-(硬)-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147-0-2 32147-0-2 너무 태연 전찌도 모트쿠다
32148-0-1 쉬:-(休)-지,-고,-더라	32148-0-1 일 하네 이거 쉬지 모트쿠다
32148-0-2 쉬:-(休)-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148-0-2 이디서 쉬영 가게
32149-0-1 할퀴-(擻)-지,-고,-더라	32149-0-1 진 손토브로 국주지 말라
32149-0-2 할퀴-(擻)-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149-0-2 국주왕 텔 마리파다
32150-0-1 놀:-(爇)-지,-고,-더라	32150-0-1 놀지 모터게 저스라
32150-0-2 놀:-(爇)-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150-0-2 자꾸 누런 지지 모터키여
32151-0-1 깨달-(覺)-지,-고,-더라	32151-0-1 잘 깨달찌 모트키여
32151-0-2 깨달-(覺)-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152-0-2 오줌 므류오한 촌찌 모트키여다
32152-0-1 마렵-(오줌이)-지,-고,-더라	32152-0-1 *
32152-0-2 마렵-(오줌이)-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152-0-2 *
32153-0-1 부끄럽-(恥)-지,-고,-더라	32153-0-1 이젠 부치럽찌 아니다
32153-0-2 부끄럽-(恥)-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153-0-2 경 비치리왕 씨집 가지카
32154-0-1 가깝-(近)-지,-고,-더라	32154-0-1 가깝찌 아녀다
32154-0-2 가깝-(近)-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154-0-2 경 가차완 조쿠다
32155-0-1 깊-(深)-지,-고,-더라	32155-0-1 이 물 경 지프지 아니하다
32155-0-2 깊-(深)-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155-0-2 물 지편 몬 너무쿠다
32156-0-1 긷:-(劃)-지,-고,-더라	32156-0-1 졸바로 글찌 모트키여
32156-0-2 긷:-(劃)-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156-0-2 그문 잘 그성 뇌두라
32157-0-1 씻-(洗)-지,-고,-더라	32157-0-1 이 베추 잘 시치지 모트키여
32157-0-2 씻-(洗)-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157-0-2 잘 시청 뇌두라
32158-0-1 찡-(搗)-지,-고,-더라	32158-0-1 이젠 방에 진찌 모터키여
32158-0-2 찡-(搗)-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158-0-2 강 올 똥안 방에 지영 뇌두라
32159-0-1 긷:-(擻)-지,-고,-더라	32159-0-1 국찌 모트게 흐라
32159-0-2 긷:-(擻)-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159-0-2 글강 뇌두라, 잘 글경 뇌두라
32160-0-1 굶:-(飢)-지,-고,-더라	32160-0-1 때랑 굶찌 말라
32160-0-2 굶:-(飢)-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160-0-2 경 굴멍 사라지느냐
32161-0-1 닳:-(似)-지,-고,-더라	32161-0-1 가인 성지리 아방 답찌 아니다
32161-0-2 닳:-(似)-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161-0-2 어멍 달만 어질다
32162-0-1 싫-(厭)-지,-고,-더라	32162-0-1 일 실프지 아니민 부제로 산다
32162-0-2 싫-(厭)-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162-0-2 일 실편 어딘 느네 어멍 살코
3216-0-1 굶:-(飢)-지,-고,-더라	32163-0-1 소곰 약혜사 장물도 고린다
3216-0-2 굶:-(飢)-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163-0-2 이 장 고런 몬 머키여

32164-0-1	붓-(注)-지,-고,-더라	32164-0-1	물 잘 비우지 모터키여
32164-0-2	붓-(注)-아/어도,-아/어서, -왔었다	32164-0-2	물 그레 몬 비왕 뇌두라
32165-0-1	타-(乘)-지,-고,-더라	32165-0-1	이 물 잘 툃지 모터키여
32165-0-2	타-(乘)-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165-0-2	물 잘 탕 가라
32166-0-1	마르-(乾)-지,-고,-더라	32166-0-1	비가 완 물리지 모트키여
32166-0-2	마르-(乾)-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166-0-2	잘 물류왕 그레 다므라다
32167-0-1	쓰-(苦)-지,-고,-더라	32167-0-1	이 야근 쓰지 아니다
32167-0-2	쓰-(苦)-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167-0-2	이 야근 이베 썩 조은 야기여
32168-0-1	슬프-(哀)-지,-고,-더라	32168-0-1	*
32168-0-2	슬프-(哀)-아/어도,-아/어서, -왔었다	32168-0-2	*
32169-0-1	기쁘-(喜)-지,-고,-더라	32169-0-1	막 쯤쨌지 아니파 영 허주
32169-0-2	기쁘-(喜)-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169-0-2	막 지뻔 추미라도 추어지키여
32170-0-1	쏘-(蝨,벌이)-지,-고,-더라	32170-0-1	벌초 같땅 버레 췌지 말라
32170-0-2	쏘-(蝨,벌이)-아/어도,-아/어서, -왔었다	32170-0-2	벌 췌완 모쌀쿠다
32171-0-1	주-(與)-지,-고,-더라	32171-0-1	하영 주지 모트키여
32171-0-2	주-(與)-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171-0-2	하영 췌 뇌두민 다 도라온다
32172-0-1	키우-(飼育)-지,-고,-더라	32172-0-1	이젠 버천 키우지 모터키여
32172-0-2	키우-(飼育)-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172-0-2	잘 키와그네 프라살 꺼디었다
32173-0-1	가두-(囚)-지,-고,-더라	32173-0-1	도새기 귀어난 가두지 모트키여
32173-0-2	가두-(囚)-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173-0-2	잘 가두완 뇌두민 잘 기어난다
32174-0-1	부수-(碎)-지,-고,-더라	32174-0-1	이 돌 잘 부수지 모터키여 도리 췌연
32174-0-2	부수-(碎)-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174-0-2	잘 부수왕 뇌두라
32175-0-1	나누-(分)-지,-고,-더라	32175-0-1	골고루 노누지 모터키여
32175-0-2	나누-(分)-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175-0-2	골고루 노냥 녹 듣찌 아니한다
32176-0-1	속아-(欺)-지,-고,-더라	32176-0-1	늬 췌기지 말라
32176-0-2	속아-(欺)-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176-0-2	뵤 췌경 프랑 잘 데는 이리 업따
32177-0-1	끼-(插)-지,-고,-더라	32177-0-1	그 추게 끼지 모테연
32177-0-2	끼-(插)-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177-0-2	그 추게 끼영 졸 이리 시냐
32178-0-1	튀-(跳)-지,-고,-더라	32178-0-1	잘 튀지 모트키여
32178-0-2	튀-(跳)-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178-0-2	경 튀영 도망처 바도 소용업따
32179-0-1	괴-(淳)-지,-고,-더라	32179-0-1	물 췌지 아니다
32179-0-2	괴-(淳)-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179-0-2	물 하영 췌영 뇌두민 췌덜 멩는다
32180-0-1	여위-(癩)-지,-고,-더라	32180-0-1	가이 경 줄지 아년췌

32180-0-2	여위-(羶)-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180-0-2	경 주렁 사라지느냐
32181-0-1	맵-(辛)-지,-고,-더라	32181-0-1	이 고치 경 맵찌 아니다
32181-0-2	맵-(辛)-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181-0-2	너미 메왕 몬 머꾸다
32182-0-1	뀌:-(屍)-지,-고,-더라	32182-0-1	경 똥 꾸지 말라
32182-0-2	뀌:-(屍)-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182-0-2	똥 귀영 씨윈 허키여
32183-0-1	고치-(改)-지,-고,-더라	32183-0-1	잘 꼬지지 모트키여
32183-0-2	고치-(改)-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183-0-2	잘 고정 쓰라
32184-0-1	살:-(載)-지,-고,-더라	32184-0-1	잘 실르지 모트키여
32184-0-2	살:-(載)-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184-0-2	잘 시경 가라
32185-0-1	얻:-(得)-지,-고,-더라	32185-0-1	이젠 어서부난 얻찌 모트키여
32185-0-2	얻:-(得)-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185-0-2	거 어덩 무시거 허꾸과
32186-0-1	뽕-(粉碎)-지,-고,-더라	32186-0-1	복삭헝게 뽕찌 모터키여도 허곡
32186-0-2	뽕-(粉碎)-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186-0-2	꺄르로 잘 뽕상 머급써
32187-0-1	파랑-(碧)-지,-고,-더라	32187-0-1	경 파랑하지 아니다
32187-0-2	파랑-(碧)-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187-0-2	참 그 치메 파랑해연 춤 곱따
32188-0-1	다르-(異)-지,-고,-더라	32188-0-1	생가기 나광 똥나지 아니다
32188-0-2	다르-(異)-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188-0-2	생가기 똥난 똥꾸과
32189-0-1	푸-(汲)-지,-고,-더라	32189-0-1	물 잘 푸지 모터꾸다
32189-0-2	푸-(汲)-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189-0-2	물 그레 잘 평 갑써
32190-0-1	누-(尿)-지,-고,-더라	32190-0-1	머궁거 잘 싸지 모트키여
32190-0-2	누-(尿)-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190-0-2	잘 싸똥 잡써
32191-0-1	더:럽-(汚)-지,-고,-더라	32191-0-1	이 물 더럽찌 아녀다
32191-0-2	더:럽-(汚)-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191-0-2	너무 더러완 입찌 모트키여
32192-0-1	거두-(收)-지,-고,-더라	32192-0-1	잘 거두지 모트키여
32192-0-2	거두-(收)-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192-0-2	잘 거두왕 뇌두라
32193-0-1	끓-(沸)-지,-고,-더라	32193-0-1	*
32193-0-2	끓-(沸)-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193-0-2	*
32194-0-1	이기-(勝)-지,-고,-더라	32194-0-1	자식 이기지 모트다
32194-0-2	이기-(勝)-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194-0-2	자식 기경 머 혈 꺼라
32195-0-1	부시-(照)-지,-고,-더라	32195-0-1	이 여름 빼시라도 저급찌 아니다
32195-0-2	부시-(照)-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195-0-2	눈 제구완 눈 모뜨키여
32196-0-1	자빠지-(後倒)-지,-고,-더라	32196-0-1	세왕 뇌두민 잘 자빠지지 아닌다
32196-0-2	자빠지-(後倒)-아/어도,-아/어서,- -왔/었다	32196-0-2	자꾸 자빠전 몬 췌우키여
32197-0-1	일으키-(使起)-지,-고,-더라	32197-0-1	경 빨리 일리지 말라
32197-0-2	일으키-(使起)-아/어도,-아/어서,-	32197-0-2	빨리 일령 안찌두민 또 자 분다

32198-0-1 당기-(弓)-지,-고,-더라	32198-0-1 바짝허게 등기지 모터키여
32198-0-2 당기-(弓)-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198-0-2 잘 등경 무끄라
32199-0-1 버리-(捨)-지,-고,-더라	32199-0-1 이거랑 버리지 마랑 시라
32199-0-2 버리-(捨)-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199-0-2 이거랑 버려그네 새걸로 사게
32200-0-1 훔치-(盜)-지,-고,-더라	32200-0-1 노미 거 훔치지 말라
32200-0-2 훔치-(盜)-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200-0-2 노미 거 훔칭 잘 못 썬다
32201-0-1 지-(負)-지,-고,-더라	32201-0-1 문딱 지계에 지지 모터키여
32201-0-2 지-(負)-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201-0-2 문딱 정 가라
32202-0-1 외:-(暗誦)-지,-고,-더라	32202-0-1 글 잘 외우지 모터키여
32202-0-2 외:-(暗誦)-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202-0-2 외웁 잘 이저분자 잘다
32203-0-1 사귀-(交際)-지,-고,-더라	32203-0-1 놈광 잘 사기지 모턴다 가이는
32203-0-2 사귀-(交際)-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203-0-2 벌뜰 벌뜰광 잘 사겨두라
32204-0-1 썩-(腐)-지,-고,-더라	32204-0-1 소곰무레 잘 저령 놔두민 썩찌 아년다
32204-0-2 썩-(腐)-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204-0-2 썩경 존 게 시카
32205-0-1 질-(泥)-지,-고,-더라	32205-0-1 비가 마니 와도 이 바슨 질지 아니다
32205-0-2 질-(泥)-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205-0-2 반 너무 지런 못 깔키여
32206-0-1 까불-(箕)-지,-고,-더라	32206-0-1 보름 어성 부끄지 모터키여
32206-0-2 까불-(箕)-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206-0-2 보름 어서네 부끄지 모터키여
32207-0-1 드물-(稀)-지,-고,-더라	32207-0-1 콩이 경 드물지 아니다
32207-0-2 드물-(稀)-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207-0-2 농사 잘 데키여 콩 잘 데키여
32208-0-1 줄:-(縮)-지,-고,-더라	32208-0-1 머거도 머거도 줄지 아념찌
32208-0-2 줄:-(縮)-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208-0-2 하영 주령 인찌
32209-0-1 심:-(植)-지,-고,-더라	32209-0-1 이 낭 머무 커부난 잘 싱그지 모트키여
32209-0-2 심:-(植)-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209-0-2 이 낭 싱경 잘 키우게
32210-0-1 쓰다듬-(撫)-지,-고,-더라	32210-0-1 아이고 아까운 애기여 머리 쓰러주라
32210-0-2 쓰다듬-(撫)-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210-0-2 머리 쓰령 말텨 허카
32211-0-1 사:납-(猛)-지,-고,-더라	32211-0-1 경 싸무랍찌 아니다 그 사라문
32211-0-2 사:납-(猛)-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211-0-2 경 싸무랑 씨집 가지카
32212-0-1 가벼운-(輕)-지,-고,-더라	32212-0-1 게벼운카부텐 허난 지영 보난 게릅찌 아니허다
32212-0-2 가벼운-(輕)-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212-0-2 너무 가벼와네 모미 항걸허다
32213-0-1 젓:-(撈)-지,-고,-더라	32213-0-1 경 막 전찌 말라
32213-0-2 젓:-(撈)-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213-0-2 경 저서그네 놀지 아녀카
32214-0-1 두껍-(厚)-지,-고,-더라	32214-0-1 이 낭 경 두덥찌 아니허다
32214-0-2 두껍-(厚)-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214-0-2 두더왕 어디 드러가크나 드러가지 아년다

32215-0-1 무르-(軟)-지,-고,-더라	32215-0-1 경 무르지 아니다 에 사라미 물린 모 쓰키여
32215-0-2 무르-(軟)-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215-0-2 물렁 모쓰키여 성지리 너무 물린 어디
32216-0-1 분지르-(折)-지,-고,-더라	32216-0-1 두 개로 분지르지 모터키여
32216-0-2 분지르-(折)-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216-0-2 둘로 딱 분지런 가버런게
32217-0-1 배우-(學)-지,-고,-더라	32217-0-1 저 사라믄 배우지 모턴 사라미로고
32217-0-2 배우-(學)-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217-0-2 글 배왕 논 주지 아니한다
32218-0-1 다리-(躰)-지,-고,-더라	32218-0-1 이 온 잘 다리지 모트키여
32218-0-2 다리-(躰)-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218-0-2 이 온 잘 다령 이브라
32219-0-1 후비-(窠,귀를)-지,-고,-더라	32219-0-1 귀 경 깃쭝기 부비지 말라
32219-0-2 후비-(窠,귀를)-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219-0-2 짚렁 줌 귀 비비리
32220-0-1 아리-(痛)-지,-고,-더라	32220-0-1 귀 알리지 아녀수과
32220-0-2 아리-(痛)-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220-0-2 귀 알런 밤 새낭 아판 혼니수다
32221-0-1 그리-(畫)-지,-고,-더라	32221-0-1 그림 잘 그리지 모트키여
32221-0-2 그리-(畫)-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221-0-2 그림 잘 그려근네 저 벽떼레 걸라
32222-0-1 지리-(癱)-지,-고,-더라	32222-0-1 경 오래 아잔 다리 자리지 아니나
32222-0-2 지리-(癱)-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222-0-2 흥끔허민 다리 자령 모쌀쿠다
32223-0-1 불리-(增)-지,-고,-더라	32223-0-1 수정 불리지 모터키여
32223-0-2 불리-(增)-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223-0-2 수정 늘령 머 혈꺼니
32224-0-1 뜨시-(濇)-지,-고,-더라	32224-0-1 구드리 경 뜯찌 아니하다
32224-0-2 뜨시-(濇)-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224-0-2 나리 뜨산 굴묵 질찌 아니도 데키여
32225-0-1 끓이-(使沸)-지,-고,-더라	32225-0-1 무리 부족켄 잘 끌지 모트키여
32225-0-2 끓이-(使沸)-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225-0-2 물 끄령 오라
32226-0-1 누비-(縫)-지,-고,-더라	32226-0-1 온 잘 누비지 모터키여
32226-0-2 누비-(縫)-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226-0-2 온 잘 누병 이브라
32227-0-1 구기-(皺)-지,-고,-더라	32227-0-1 구치지 말라 이레 놔두난 문 구겨질찌
32227-0-2 구기-(皺)-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227-0-2 구견 아데키여
32228-0-1 비:-(空)-지,-고,-더라	32228-0-1 그 집 아직 비지 아년찌 사름 사람찌
32228-0-2 비:-(空)-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228-0-2 집 비왕 나텡기지 말라
32229-0-1 식히-(使冷)-지,-고,-더라	32229-0-1 물 시키지 마랑 머그라
32229-0-2 식히-(使冷)-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229-0-2 물 잘 시켜 머거사주
32230-0-1 매-(除草)-지,-고,-더라	32230-0-1 조침아잔 검질 매지 모트키여
32230-0-2 매-(除草)-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230-0-2 재기 검질 메영 가게

32231-0-1 매:-(結)-지,-고,-더라	32231-0-1 잘 묻찌 모트키여
32231-0-2 매:-(結)-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231-0-2 잘 매영 뇌두라
32232-0-1 뛰-(走)-지,-고,-더라	32232-0-1 경 뛰지 말라
32232-0-2 뛰-(走)-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232-0-2 경 뛰영 조아할 사람 언따
32233-0-1 담:-(盛)-지,-고,-더라	32233-0-1 경 하영 담찌 말라
32233-0-2 담:-(盛)-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233-0-2 경 다망 지어지카
32234-0-1 가렵-(癢)-지,-고,-더라	32234-0-1 경 ㄱ렵지 아난다
32234-0-2 가렵-(癢)-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234-0-2 막 ㄱ <sup>ㅅ</sup> 완 모쌀키여
32235-0-1 때리-(打)-지,-고,-더라	32235-0-1 경 딱리지 말라
32235-0-2 때리-(打)-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235-0-2 경 딱령 아프느냐
32236-0-1 어둡-(暗)-지,-고,-더라	32236-0-1 아직 경 어둡찌 아년찌
32236-0-2 어둡-(暗)-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236-0-2 눈 어두원 잘 베리지 모터키여
32237-0-1 잡-(執)-지,-고,-더라	32237-0-1 소네 하영 시명 몬명나
32237-0-2 잡-(執)-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237-0-2 소네 하영 심찌 모터키여
32238-0-1 차-(蹴)-지,-고,-더라	32238-0-1 멀리 차지 모터키여
32238-0-2 차-(蹴)-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238-0-2 멀리 창 드르라
32239-0-1 모자라-(不足)-지,-고,-더라	32239-0-1 하영 모지레지 아니다
32239-0-2 모자라-(不足)-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239-0-2 흥뎡 모지레연 좀 부족캠직 헛다
32240-0-1 부르-(呼)-지,-고,-더라	32240-0-1 노래 잘 부르지 모터키여
32240-0-2 부르-(呼)-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240-0-2 저지 느네 변떨 불령 오라
32241-0-1 따르-(注)-지,-고,-더라	32241-0-1 주루룩헝게 잘 따르지 모터키여
32241-0-2 따르-(注)-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242-0-2 술 잘 딸랑 가정 오라
32242-0-1 쪼:-(啄)-지,-고,-더라	32243-0-1 잘 조찌 모템싱계
32242-0-2 쪼:-(啄)-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243-0-2 잘 조상 머그라
32243-0-1 두-(置)-지,-고,-더라	32243-0-1 *
32243-0-2 두-(置)-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243-0-2 *
32244-0-1 시키-(使)-지,-고,-더라	32244-0-1 아이엥 나무령 경 시키지 말라다
32244-0-2 시키-(使)-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244-0-2 잘 시경 드랑 살라오춤 싸노난 원
32245-0-1 지리-(漏,오춤을)-지,-고,-더라	32245-0-1 사근 오주미라도 경 지지지 아니
32245-0-2 지리-(漏,오춤을)-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245-0-2 오춤 냄새 지령 모쌀키여 매날
32246-0-1 던지-(投)-지,-고,-더라	32246-0-1 멀리 데끼지 말라
32246-0-2 던지-(投)-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246-0-2 멀리 데경 가그네 가정 오라다
32247-0-1 모아-(集)-지,-고,-더라	32247-0-1 하영 모두지 모터키여



32247-0-2 모아-(集)-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247-0-2 하영 모두왕 지영 가게
32248-0-1 만지-(搨)-지,-고,-더라	32248-0-1 기영 문직찌 말라
32248-0-2 만지-(搨)-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248-0-2 경 문지강 게 저금 타느냐게
32249-0-1 째:--(曬)-지,-고,-더라	32249-0-1 썬 불 가차이해서 불 추지 말라
32249-0-2 째:--(曬)-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249-0-2 이디왕 불 추왕 가라
32250-0-1 비틀-(捻)-지,-고,-더라	32250-0-1 손 경 데우지 말라게
32250-0-2 비틀-(捻)-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250-0-2 손 막 데왕 모습니다
32251-0-1 돕:--(助)-지,-고,-더라	32251-0-1 오래 도웨이 모터쿠다
32251-0-2 돕:--(助)-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251-0-2 하영 도왜줍써
32252-0-1 씹-(咀)-지,-고,-더라	32252-0-1 질강거 씹지 맵써
32252-0-2 씹-(咀)-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252-0-2 경 씨멍 기카지카마썬
32253-0-1 미끄럽-(滑)-지,-고,-더라	32253-0-1 능길 닝끼럽찌 말게 허라
32253-0-2 미끄럽-(滑)-아/어도,-아/어서,- -왔/었다	32253-0-2 닝끼리완 물 거르키여
32254-0-1 닿-(接)-지,-고,-더라	32254-0-1 그 ㄱ때 달찌 말게 허라
32254-0-2 닿-(接)-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254-0-2 다연 대열찌
32255-0-1 누르-(壓)-지,-고,-더라	32255-0-1 경 누르뜨지 말라
32255-0-2 누르-(壓)-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255-0-2 경 누르땡 안 나프느냐
32256-0-1 주무르-(揉)-지,-고,-더라	32256-0-1 저금타게 주물르지 말라
32256-0-2 주무르-(揉)-아/어도,-아/어서,- -왔/었다	32256-0-2 저금타게 주물런 온썬썬
32257-0-1 메우-(填)-지,-고,-더라	32257-0-1 잘 메우지 모터키여
32257-0-2 메우-(填)-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257-0-2 그레 잘 메왕 가라
32258-0-1 꼬시-(香味)-지,-고,-더라	32258-0-1 춤지르미 경 쿠시지 아니다
32258-0-2 꼬시-(香味)-아/어도,-아/어서,- -왔/었다	32258-0-2 집이 꽤 쿠션 조쿠다
32259-0-1 내리-(降)-지,-고,-더라	32259-0-1 너무 노판 혼자만 느리지 모터키여
32259-0-2 내리-(降)-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259-0-2 혼자 그레 느령 이십써 그레
32260-0-1 구르-(轉)-지,-고,-더라	32260-0-1 경 둥굴지 맵써
32260-0-2 구르-(轉)-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260-0-2 저레 둥구렁 갑써
32261-0-1 만들-(作)-지,-고,-더라	32261-0-1 잘 맨들지 모터키여
32261-0-2 만들-(作)-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261-0-2 잘 맨드랑 프라사주게
32262-0-1 늙-(老)-지,-고,-더라	32262-0-1 이 사라마 늙찌 마라
32262-0-2 늙-(老)-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262-0-2 늘경 돈 이서사
32263-0-1 앓-(痛)-지,-고,-더라	32263-0-1 언치냐 밤새낭 알리지 아니나
32263-0-2 앓-(痛)-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263-0-2 밤새낭 알란 줌 모짜서

32264-0-1 따르-(隨)-지,-고,-더라	32264-0-1 어멍 뒤 돌르지 말게 허라
32264-0-2 따르-(隨)-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264-0-2 어멍 들란 자인
32265-0-1 사-(買)-지,-고,-더라	32265-0-1 너무 비싼 사지 모트키여
32265-0-2 사-(買)-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265-0-2 비싸도 상 가삽쥬
32266-0-1 치우-(除)-지,-고,-더라	32266-0-1 더러 냉경 먼 치우지 맵쥬
32266-0-2 치우-(除)-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266-0-2 먼 치왕 갑쥬
32267-0-1 부러지-(被折)-지,-고,-더라	32267-0-1 두 도막으로 부러지지 말게 험쥬
32267-0-2 부러지-(被折)-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267-0-2 이거 부러진 모쓰쿠다 이거
32268-0-1 다치-(傷)-지,-고,-더라	32268-0-1 크게 다치지 말게 험쥬
32268-0-2 다치-(傷)-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268-0-2 손 다친 일 모트쿠다
32269-0-1 느리-(緩)-지,-고,-더라	32269-0-1 시름 따랑 느리지 백르곡 험니다
32269-0-2 느리-(緩)-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269-0-2 그 사라든 너미 느런 모쌀쿠다
32270-0-1 무치-(和,나물을)-지,-고,-더라	32270-0-1 짜게 무치지 말라
32270-0-2 무치-(和,나물을)-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270-0-2 녹물 장에 무침 머그라
32271-0-1 죄-(締)-지,-고,-더라	32271-0-1 확 쥬우지 맵쥬
32271-0-2 죄-(締)-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271-0-2 확 쥬영 아사 갑쥬
32272-0-1 팔-(賣)-지,-고,-더라	32272-0-1 너무 싸게랑 풀지 맵쥬
32272-0-2 팔-(賣)-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272-0-2 이거 싸게 푼랑 갑쥬
32273-0-1 뽑-(選)-지,-고,-더라	32273-0-1 아프게 뽑쥬 맵쥬
32273-0-2 뽑-(選)-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273-0-2 니빨 뽑방 저 지봉 우트레 던저뽑쥬
32274-0-1 뒤지-(索)-지,-고,-더라	32274-0-1 막 뒤지 맵쥬
32274-0-2 뒤지-(索)-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274-0-2 이시카부텐 여기저기 막 뒤전 가서라
32275-0-1 마치-(終)-지,-고,-더라	32275-0-1 이리 하네 오늘 다 멉치지 모터키여
32275-0-2 마치-(終)-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275-0-2 경 헤도 멉황 가사쥬
32276-0-1 절아-(鹽)-지,-고,-더라	32276-0-1 소곰 어션 잘 저리지 모터키여
32276-0-2 절아-(鹽)-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276-0-2 배추 잘 저령 짐치 험쥬
32277-0-1 휘-(曲)-지,-고,-더라	32277-0-1 낭 휘지 모터게 허라
32277-0-2 휘-(曲)-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277-0-2 낭 휘영 자바 무깝쥬
32278-0-1 줍-(拾)-지,-고,-더라	32278-0-1 이석 카영 줍쥬 모터키여
32278-0-2 줍-(拾)-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278-0-2 하영 주성 거릅쥬
32279-0-1 빼앗-(奪)-지,-고,-더라	32279-0-1 빼스지 말도 허곡
32279-0-2 빼앗-(奪)-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279-0-2 아이고 아인꺼 배산 가미파
32280-0-1 기울-(傾)-지,-고,-더라	32280-0-1 중을지 말게 흡쥬
32280-0-2 기울-(傾)-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280-0-2 이레 잘 중을령 비우라

32281-0-1 아깝-(惜)-지,-고,-더라	32281-0-1 웨아드리난 아깝찌 아느우파
32281-0-2 아깝-(惜)-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281-0-2 웨아드리난 막 아까완 주거지쿠다
32282-0-1 반갑-(歡)-지,-고,-더라	32282-0-1 늘 만나난 방갑찌 아느다
32282-0-2 반갑-(歡)-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282-0-2 반가왕 마당까지 나와네 인사햐네
32283-0-1 찌-(蒸)-지,-고,-더라	32283-0-1 *
32283-0-2 찌-(蒸)-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283-0-2 *
32284-0-1 노랑-(黃)-지,-고,-더라	32284-0-1 꼬치 노랑허지 아니다
32284-0-2 노랑-(黃)-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284-0-2 꼬치 노랑헨 막 꼽따
32285-0-1 푸르-(靑)-지,-고,-더라	32285-0-1 꼬치 푸리지 아니다
32285-0-2 푸르-(靑)-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285-0-2 막 푸런 어땡 이상하다
32286-0-1 서두르-(忙)-지,-고,-더라	32286-0-1 경 서들리지 맙찌
32286-0-2 서두르-(忙)-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286-0-2 경 서들렁 텔 리리파
32287-0-1 서투르-(不熟)-지,-고,-더라	32287-0-1 일 하는게 경 서틀지 아니하다
32287-0-2 서투르-(不熟)-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287-0-2 일 서투런 시키지 모트키여
32288-0-1 게으르-(怠)-지,-고,-더라	32288-0-1 게을러네 일 시키지 모트키여
32288-0-2 게으르-(怠)-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288-0-2 게을런 일 시키지 모트키여
32289-0-1 따뜻하-(溫)-지,-고,-더라	32289-0-1 벨또 딱뜨토고 보름도 얻찌리라
32289-0-2 따뜻하-(溫)-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289-0-2 등이 딱뜨테연 조름이 완찌
32290-0-1 춥-(寒)-지,-고,-더라	32290-0-1 지성기로 얼지 아니게 애기 잘
32290-0-2 춥-(寒)-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290-0-2 막 어린 모쌀키여
32291-0-1 뜨겁-(極熱)-지,-고,-더라	32291-0-1 물 막 뜨겁찌 아니허다
32291-0-2 뜨겁-(極熱)-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291-0-2 너미 뜨거완 몬 먹키여
32292-0-1 미지근하-(微溫)-지,-고,-더라	32292-0-1 *
32292-0-2 미지근하-(微溫)-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292-0-2 *
32293-0-1 차갑-(寒)-지,-고,-더라	32293-0-1 막 실렵찌 말게 허라
32293-0-2 차갑-(寒)-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293-0-2 너미 실르완 몬 먹키여
32294-0-1 부럽-(羨)-지,-고,-더라	32294-0-1 이제 살마니 사라전 놈 부럽찌 아니다
32294-0-2 부럽-(羨)-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294-0-2 그 사람 부러완 춤 주거 지크라라
32295-0-1 알밋-(憎)-지,-고,-더라	32295-0-1 너미 알밋찌 아니민 조키여 마는
32295-0-2 알밋-(憎)-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295-0-2 너미 알미완 주거지키여

32296-0-1 비슷하(類似)-지,-고,-더라	32296-0-1 요걸짱 비슷터지 아니꽈
32296-0-2 비슷하(類似)-아/어도,-아/어서,3 -았/었다	2296-0-2 너무 비슷테연 다릉 걸로 바짱 가키여
32297-0-1 새롭(新)-지,-고,-더라	32297-0-1 *
32297-0-2 새롭(新)-아/어도,-아/어서,-았/었다	32297-0-2 새 사라미나네 새로완 조추게
32298-0-1 서:럽(悲痛)-지,-고,-더라	32298-0-1 누구나 설름찌 말게 허라
32298-0-2 서:럽(悲痛)-아/어도,-아/어서, -았/었다	32298-0-2 너무 설루완 모쌀키여
32299-0-1 까다롭(難)-지,-고,-더라	32299-0-1 경 까다롭찌 말랭 허란 너무 까다로완 그 사람
32299-0-2 까다롭(難)-아/어도,-아/어서, -았/었다	32299-0-2 저 사람 너무 까다로완 어디 테크나
32300-0-1 외롭(孤)-지,-고,-더라	32300-0-1 *
32300-0-2 외롭(孤)-아/어도,-아/어서,-았/었다	32300-0-2 너무 웨로완 모쌀कु다
32301-0-1 아쉽(不滿)-지,-고,-더라	32301-0-1 *
32301-0-2 아쉽(不滿)-아/어도,-아/어서, -았/었다	32301-0-2 *
32302-0-1 단단하(固)-지,-고,-더라	32302-0-1 간수ㅎ능 게 든든ㅎ지 아니허다
32302-0-2 단단하(固)-아/어도,-아/어서, -았/었다	32302-0-2 든든ㅎ영 몸싸는 사람 언찌
32303-0-1 늦(晚)-지,-고,-더라	32303-0-1 늦찌 말게 오라
32303-0-2 늦(晚)-아/어도,-아/어서,-았/었다	32303-0-2 너무 느진 미안허우다
32304-0-1 남:(餘)-지,-고,-더라	32304-0-1
32304-0-2 남:(餘)-아/어도,-아/어서,-았/었다	32304-0-2 반 테우단 나마네 어린나이덜안테 주어수다
32305-0-1 남기(使餘)-지,-고,-더라	32305-0-1 먹당 냉기지 말라
32305-0-2 남기(使餘)-아/어도,-아/어서, -았/었다	32305-0-2 하영 냉경 옥뜯나
32306-0-1 넘어뜨리(使倒)-지,-고,-더라	32306-0-1 너머뜨리지 말게 홉써
32306-0-2 넘어뜨리(使倒)-아/어도,-아/어서, -았/었다	32306-0-2 낭 너머뜨런 가지비연 외수다
32307-0-1 쭈그러뜨리(使凹)-지,-고,-더라	32307-0-1 경 멜르지 말라
32307-0-2 쭈그러뜨리(使凹)-아/어도,-아/어서, -았/었다	32307-0-2 경 멜랑 써지느냐
32308-0-1 견주(比)-지,-고,-더라	32308-0-1 그 두른 전주지 모터키여
32308-0-2 견주(比)-아/어도,-아/어서,-았/었다	32308-0-2 두를 전주왕 조은 노모로 글렁 글러줍써
32309-0-1 외우(誦)-지,-고,-더라	32309-0-1 글 잘 외우지 모터키여
32309-0-2 외우(誦)-아/어도,-아/어서,-았/었다	32309-0-2 가인 글 외완 상 탄찌

32310-0-1 문지르-(摩)-지,-고,-더라	32310-0-1 경 머무 문질르지 말라
32310-0-2 문지르-(摩)-아/어도,-아/어서, -왔/었다	32310-0-2 버문 세디븐 잘 문질렁 뻘라야 험다
32311-0-1 가리키-(指)-지,-고,-더라	32311-0-1 아피 캉감 왁팍케여네 꺾리치지 모트키여
32311-0-2 가리키-(指)-아/어도,-아/어서, -왔/었다	32311-0-2 좇바로 꺾리칭 읍써
32312-0-1 가르치-(教)-지,-고,-더라	32312-0-1 아이들 잘 꺾리치지 모트키여
32312-0-2 가르치-(教)-아/어도,-아/어서, -왔/었다	32312-0-2 아이들 잘 꺾리치 주어도 몰라마씀
32313-0-1 겨누-(照準)-지,-고,-더라	32313-0-1 잘 장역케도 만찌 아니여
32313-0-2 겨누-(照準)-아/어도,-아/어서, -왔/었다	32313-0-2 잘 장예경 쏘으라
32314-0-1 겨루-(競)-지,-고,-더라	32314-0-1 성제끼린 심백커지 말라
32314-0-2 겨루-(競)-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314-0-2 *
32315-0-1 달래-(慰撫)-지,-고,-더라	32315-0-1 너무 우렁 달래지 모터키여
32315-0-2 달래-(慰撫)-아/어도,-아/어서, -왔/었다	32315-0-2 잘 달래영 도랑가라
32316-0-1 본받-(效)-지,-고,-더라	32316-0-1 본받찌 말라
32316-0-2 본받-(效)-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316-0-2 그 사람 본바당 안덴다
32317-0-1 어지르-(散)-지,-고,-더라	32317-0-1 경 어지리지 말라
32317-0-2 어지르-(散)-아/어도,-아/어서, -왔/었다	32317-0-2 경 어지렁 욱 뜬나
32318-0-1 달리-(走)-지,-고,-더라	32318-0-1 이젠 뜰찌 모터키여
32318-0-2 달리-(走)-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318-0-2 막 드란 재기 와수다
32319-0-1 우기-(拗)-지,-고,-더라	32319-0-1 경 데기지 맵써
32319-0-2 우기-(拗)-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319-0-2 경 데경 이겨지카마썸
32320-0-1 중얼거리-(獨言)-지,-고,-더라	32320-0-1 혼자 중얼거리지 맵써
32320-0-2 중얼거리-(獨言)-아/어도,-아/어서, -왔/었다	32320-0-2 중얼거렁 아랑 알 싸람 업썸다
32321-0-1 지껄이-(騷)-지,-고,-더라	32321-0-1 경 찌그리지 말라
32321-0-2 지껄이-(騷)-아/어도,-아/어서, -왔/었다	32321-0-2 경 찌끄렁 조아할 싸라미 어디 이시니
32322-0-1 다니-(行)-지,-고,-더라	32322-0-1 경 나텡기지 말라
32322-0-2 다니-(行)-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322-0-2 나 텡경 꿩 잘 무러온다 꿩
32323-0-1 떨어뜨리-(使落)-지,-고,-더라	32323-0-1 찰찰 흘치지 말라
32323-0-2 떨어뜨리-(使落)-아/어도,-아/어서,	32323-0-2 경 흘청 가민 테느냐

-왔/었다

32324-0-1	깨-(覺)-지,-고,-더라	32324-0-1	콩깨역가튼 즈 자는 데 완 느 깨와부만 즈 깨시네
32324-0-2	깨-(覺)-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324-0-2	즈 깨왕 일리라
32325-0-1	시-(酸)-지,-고,-더라	32325-0-1	너무 시지 말게 흡써
32325-0-2	시-(酸)-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325-0-2	짐치 너무 시언 몬 먹쿠다
32326-0-1	숫-(湧)-지,-고,-더라	32326-0-1	너무 숫지 모터게허라 물 너무 숫찌 모트게 허라
32326-0-2	숫-(湧)-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326-0-2	물 너미 노피 소산 막찌 모터키여
32327-0-1	좋:-(好)-지,-고,-더라	32327-0-1	이 정도민 조치 아닌가
32327-0-2	좋:-(好)-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327-0-2	너미 조안 주거지키여
32328-0-1	빨강-(赤)-지,-고,-더라	32328-0-1	이건 빨강허지 아니다
32328-0-2	빨강-(赤)-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328-0-2	이 꼴 빵강헤연 너무 곱따
32329-0-1	끝:-(曳)-지,-고,-더라	32329-0-1	이 쉼 잘 끝찌 모트키여
32329-0-2	끝:-(曳)-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329-0-2	쉼 잘 끄성 감찌
32330-0-1	얇:-(薄)-지,-고,-더라	32330-0-1	이 널 알롭찌 아느다게
32330-0-2	얇:-(薄)-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330-0-2	이거 막 알루완 모쓰키여
32331-0-1	하얗-(白)-지,-고,-더라	32331-0-1	눈도 하영 하얗허지 아녀다
32331-0-2	하얗-(白)-아/어도,-아/어서,-왔/었다	32331-0-2	하얗헤연 약커게 보냄찌 약커게 보염찌

### 3.2.2. 곡 용

32332-0-1	국(羹)-이/가	32332-0-1	이 구기 짜다
32332-0-2	국(羹)-을/를	32332-0-2	이 구글 머거라
32332-0-3	국(羹)-에(서)	32332-0-3	이 구게 소곰 노아시냐
32332-0-4	국(羹)-으로	32332-0-4	이 무를 구그로 머거라
32332-0-5	국(羹)-도	32332-0-5	밥또 먹꼭 국또 머거라
32333-0-1	논(沓)-이/가	32333-0-1	노니 너르다
32333-0-2	논(沓)-을/를	32333-0-2	노늘 잘 달루라
32333-0-3	논(沓)-에(서)	32333-0-3	노네 물 대라
32333-0-4	논(沓)-으로	32333-0-4	노느로 가라
32333-0-5	논(沓)-도	32333-0-5	노도 널르다
32334-0-1	쌀(米)-이/가	32334-0-1	쓰리 하영 인찌
32334-0-2	쌀(米)-을/를	32334-0-2	쓰를 다끄라
32334-0-3	쌀(米)-에(서)	32334-0-3	쓰레 니 인찌
32334-0-4	쌀(米)-으로	32334-0-4	츨로 떡커라

32334-0-5 쌀(米)-도	32334-0-5 쓸도 하다
32335-0-1 봄(春)-이/가	32335-0-1 보미 왈찌
32335-0-2 봄(春)-을/를	32335-0-2 이 보믈 잘 냉겨사 한다
32335-0-3 봄(春)-에(서)	32335-0-3 보메 고장 핀다
32335-0-4 봄(春)-으로	32335-0-4 보므로 ㄱ슬꺼지 간다
32335-0-5 봄(春)-도	32335-0-5 봄도 여름도 게저리여
32336-0-1 집(家)-이/가	32336-0-1 지비 크다
32336-0-2 집(家)-을/를	32336-0-2 저 지블 보라
32336-0-3 집(家)-에(서)	32336-0-3 지베 이서나
32336-0-4 집(家)-으로	32336-0-4 지브로 걸라
32336-0-5 집(家)-도	32336-0-5 집또 크다
32337-0-1 옷(衣)-이/가	32337-0-1 이 오시 크다
32337-0-2 옷(衣)-을/를	32337-0-2 이 오슬 이버 보라
32337-0-3 옷(衣)-에(서)	32337-0-3 오세 무니가 인찌
32337-0-4 옷(衣)-으로	32337-0-4 오스로 더프라
32337-0-5 옷(衣)-도	32337-0-5 온또 신도 인찌
32338-0-1 방(房)-이/가	32338-0-1 이 방이 크다
32338-0-2 방(房)-을/를	32338-0-2 방을 너르게 헤야키여
32338-0-3 방(房)-에(서)	32338-0-3 방에 드리오라
32338-0-4 방(房)-으로	32338-0-4 저 방으로 가라
32338-0-5 방(房)-도	32338-0-5 방도 널르다
32339-0-1 낮(晝)-이/가	32339-0-1 나시 질다
32339-0-2 낮(晝)-을/를	32339-0-2 나슬 바므로 사마
32339-0-3 낮(晝)-에(서)	32339-0-3 나슬 바므로 아랑
32339-0-4 낮(晝)-으로	32339-0-4 나스로 밤까지 일만 일 헤염찌
32339-0-5 낮(晝)-도	32339-0-5 날또 질다
32340-0-1 낮(顔)-이/가	32340-0-1 이 아니 노시 곱따
32340-0-2 낮(顔)-을/를	32340-0-2 ㄴ슬 잘 다끄라
32340-0-3 낮(顔)-에(서)	32340-0-3 ㄴ세 밥풀 부뎀찌
32340-0-4 낮(顔)-으로	32340-0-4 ㄴ스로 밤 머거저
32340-0-5 낮(顔)-도	32340-0-5 ㄴ또 교아라
32341-0-1 부엌(廚)-이/가	32341-0-1 정제가 너르다
32341-0-2 부엌(廚)-을/를	32341-0-2 정제를 잘 썰라
32341-0-3 부엌(廚)-에(서)	32341-0-3 정제에 강 보라
32341-0-4 부엌(廚)-으로	32341-0-4 정제로 가라
32341-0-5 부엌(廚)-도	32341-0-5 정제도 너르다

32342-0-1 밭(田)-이/가	32342-0-1 바시 크다
32342-0-2 밭(田)-을/를	32342-0-2 이 바슬 잘 가라
32342-0-3 밭(田)-에(서)	32342-0-3 바세 콩 시므로
32342-0-4 밭(田)-으로	32342-0-4 저 바스로 가라
32342-0-5 밭(田)-도	32342-0-5 이 받또 크다
32343-0-1 앞(前)-이/가	32343-0-1 아피 흰허다
32343-0-2 앞(前)-을/를	32343-0-2 아플 보라
32343-0-3 앞(前)-에(서)	32343-0-3 아페 걸라
32343-0-4 앞(前)-으로	32343-0-4 아프로 가라
32343-0-5 앞(前)-도	32343-0-5 그 압또 잘 보아라
32344-0-1 녁(魂)-이/가	32344-0-1 자이 너기 나간찌
32344-0-2 녁(魂)-을/를	32344-0-2 너글 드러사키여
32344-0-3 녁(魂)-에(서)	32344-0-3 *
32344-0-4 녁(魂)-으로	32344-0-4 *
32344-0-5 녁(魂)-도	32344-0-5 녁또 드러사키여
32345-0-1 흙(土)-이/가	32345-0-1 هنگ 조타
32345-0-2 흙(土)-을/를	32345-0-2 هنگ 더프라
32345-0-3 흙(土)-에(서)	32345-0-3 이 هنگ 노라
32345-0-4 흙(土)-으로	32345-0-4 *
32345-0-5 흙(土)-도	32345-0-5 이 흑또 조타
32346-0-1 여덟(八)-이/가	32346-0-1 으다비 아홉보다 족따
32346-0-2 여덟(八)-을/를	32346-0-2 으다블 세여보라
32346-0-3 여덟(八)-에(서)	32346-0-3 으다베 드를 더허라
32346-0-4 여덟(八)-으로	32346-0-4 *
32346-0-5 여덟(八)-도	32346-0-5 으답또 하다
32347-0-1 돌(週歲)-이/가	32347-0-1 느 도리 데언찌
32347-0-2 돌(週歲)-을/를	32347-0-2 큰나이 도를 멩심허라
32347-0-3 돌(週歲)-에(서)	32347-0-3 큰나이 도레랑 떡케영 먹께
32347-0-4 돌(週歲)-으로	32347-0-4 *
32347-0-5 돌(週歲)-도	32347-0-5 돌도 생이리고 돈또 생이리여
32348-0-1 값(價)-이/가	32348-0-1 까비 빈싸다
32348-0-2 값(價)-을/를	32348-0-2 까블 흥꿈 내립씨
32348-0-3 값(價)-에(서)	32348-0-3 *
32348-0-4 값(價)-으로	32348-0-4 낀 갑쓰로 말 석 꿩
32348-0-5 값(價)-도	32348-0-5 갑또 빈싸다
32349-0-1 속:(內)-이/가	32349-0-1 그 사람 소기 지픈 사라미여



32349-0-2 속:(內)-을/를	32349-0-2 쏘글 놉 주지 모튼다 우리
32349-0-3 속:(內)-에(서)	32349-0-3 쏘게 그 사람 쏘게 먼짜 드러사산디 모른다
32349-0-4 속:(內)-으로	32349-0-4 쏘그로 생각카라
32349-0-5 속:(內)-도	32349-0-5 쏘또 기푸다
32350-0-1 돈:(錢)-이/가	32350-0-1 도니 하영 인찌
32350-0-2 돈:(錢)-을/를	32350-0-2 도늘 하영 버스런찌
32350-0-3 돈:(錢)-에(서)	32350-0-3 도네 돈 부튼다
32350-0-4 돈:(錢)-으로	32350-0-4 도느로 살 쏘 인찌
32350-0-5 돈:(錢)-도	32350-0-5 돈도 하영 버런찌
32351-0-1 발(足)-이/가	32351-0-1 바리 아프다
32351-0-2 발(足)-을/를	32351-0-2 바를 잘 시성 오라
32351-0-3 발(足)-에(서)	32351-0-3 바레 헐리 날찌
32351-0-4 발(足)-으로	32351-0-4 발로 차라
32351-0-5 발(足)-도	32351-0-5 발도 크다
32352-0-1 짐(荷物)-이/가	32352-0-1 지미 무겁따
32352-0-2 짐(荷物)-을/를	32352-0-2 이 지믈 싸라
32352-0-3 짐(荷物)-에(서)	32352-0-3 이 지메 먼짜 드러산
32352-0-4 짐(荷物)-으로	32352-0-4 지므로 지영 걸라
32352-0-5 짐(荷物)-도	32352-0-5 짐도 베다
32353-0-1 입(口)-이/가	32353-0-1 저 사람 이비 싸다
32353-0-2 입(口)-을/를	32353-0-2 이블 잘 놀리라
32353-0-3 입(口)-에(서)	32353-0-3 이베 풀칠 허키여
32353-0-4 입(口)-으로	32353-0-4 이브로 ㄱ른 마른 담찌 모튼다
32353-0-5 입(口)-도	32353-0-5 입또 크다
32354-0-1 낫(鎌)-이/가	32354-0-1 이 장나시 크다
32354-0-2 낫(鎌)-을/를	32354-0-2 이 장나슬 골라
32354-0-3 낫(鎌)-에(서)	32354-0-3 이 힘벽 장나세 가무라
32354-0-4 낫(鎌)-으로	32354-0-4 장나스로 비라
32354-0-5 낫(鎌)-도	32354-0-5 장날또 크다
32355-0-1 강(江)-이/가	32355-0-1 강이 크다
32355-0-2 강(江)-을/를	32355-0-2 강을 보라
32355-0-3 강(江)-에(서)	32355-0-3 강에 례기 하영 인찌
32355-0-4 강(江)-으로	32355-0-4 강으로 오라
32355-0-5 강(江)-도	32355-0-5 강도 크다
32356-0-1 젓(乳)-이/가	32356-0-1 어멍 저시 크다
32356-0-2 젓(乳)-을/를	32356-0-2 어멍 애기 저슬 메기

32356-0-3 젓(乳)-에(서)	32356-0-3 어멍 저세 물리라
32356-0-4 젓(乳)-으로	32356-0-4 저스로 달래라
32356-0-5 젓(乳)-도	32356-0-5 진또 메기라
32357-0-1 꽃(花)-이/가	32357-0-1 꼬시 곱따
32357-0-2 꽃(花)-을/를	32357-0-2 꼬슬 보라
32357-0-3 꽃(花)-에(서)	32357-0-3 꼬세 물 주라
32357-0-4 꽃(花)-으로	32357-0-4 꼬스로 멘드랴찌
32357-0-5 꽃(花)-도	32357-0-5 꼴또 곱따
32358-0-1 팔(赤豆)-이/가	32358-0-1 폭시 북따
32358-0-2 팔(赤豆)-을/를	32358-0-2 폭슬 갈라
32358-0-3 팔(赤豆)-에(서)	32358-0-3 폭세 베랭이 이련찌
32358-0-4 팔(赤豆)-으로	32358-0-4 폭스로 폰쪽 쏜다
32358-0-5 팔(赤豆)-도	32358-0-5 폰또 콩도 얻찌
32359-0-1 옆(側)-이/가	32359-0-1 마당 여피 너르다
32359-0-2 옆(側)-을/를	32359-0-2 여플 보라
32359-0-3 옆(側)-에(서)	32359-0-3 여폐 사라 나 여폐 사
32359-0-4 옆(側)-으로	32359-0-4 여프로 걸라
32359-0-5 옆(側)-도	32359-0-5 엽또 보라
32360-0-1 샅(賃金)-이/가	32360-0-1 쿠미 빔싸다
32360-0-2 샅(賃金)-을/를	32360-0-2 쿠물 잘 주라
32360-0-3 샅(賃金)-에(서)	32360-0-3 쿠메 콤 부뜨카
32360-0-4 샅(賃金)-으로	32360-0-4 쿠므로 바등겨여
32360-0-5 샅(賃金)-도	32360-0-5 콤도 빔싸다
32361-0-1 닭(鷄)-이/가	32361-0-1 그 득기 크다
32361-0-2 닭(鷄)-을/를	32361-0-2 그 득글 자브라
32361-0-3 닭(鷄)-에(서)	32361-0-3 그 득게 고달 인찌
32361-0-4 닭(鷄)-으로	32361-0-4 득그로 여슬 만들라
32361-0-5 닭(鷄)-도	32361-0-5 이 득또 크다
32362-0-1 밖(外)-이/가	32362-0-1 박끼 흰허다
32362-0-2 밖(外)-을/를	32362-0-2 바끌 보라
32362-0-3 밖(外)-에(서)	32362-0-3 바께 걸라
32362-0-4밖(外)-으로	32362-0-4 박끄로 나걸라
32362-0-5밖(外)-도	32362-0-5 바까떼도 너르다



# 제4편 문 법

## 4.1. 대명사

### 1) 인칭대명사

40101 나	40101 나
40101-0-1 내-가	40101-0-1 나가 머거수다
40101-0-2 내	40101-0-2 나 거여
40101-0-3 나-를	40101-0-3 날 만나레 완찌
40101-0-4 나-에게	40101-0-4 나신디 주어라, 나안테 주어라, 나한테 주얼찌
40101-0-5 나-와	40101-0-5 나영
40101-0-6 나-는	40101-0-6 나는 안다
40101-0-7 나-도	40101-0-7 나도 안다
40102 저/제-가	40102 나 외수다, 저 완쭈다도 흥곡 계
40102-0-1 저-가	40102-0-1 나가 머거수다
40102-0-2 저-의	40102-0-2 이거 나 거우다 이거
40102-0-3 저-을/를	40102-0-3 *
40102-0-4 저-에게	40102-0-4 나안티 줍쨌 헐 꺼주
40102-0-5 저-와/과	40102-0-5 이거 나영 ㄱ찌 갈르게마쑤
40102-0-6 저-는	40102-0-6 난 마우다, 난 안 ㄱ지쿠다
40102-0-7 저-도	40102-0-7 나도 이수다, 이거 나안티도 이수다
40103 우리	40103 우리 아방
40104 저희	40104 우리 아방, 우리 아버지엔도 흥곡 계
40105 너	40105 너주게 너,느가 허라
40105-0-1 -가	40105-0-1 느
40105-0-2 -의	40105-0-2 느 꺼여, 느꺼여, 느네거여
40105-0-3 -을/를	40105-0-3 이걸 느 주마
40105-0-4 -에게	40105-0-4 이거 느안테 주마, 느신디 주마
40105-0-5 -와/과	40105-0-5 느영 이거 ㄱ찌 갈라 안게
40105-0-6 -는	40105-0-6 느 노래도 춤 잘헤여 이 는
40105-0-7 -도	40105-0-7 느도 머그라
40106 자네	40106 느 이제랑 가 보라

40107 당신	40107 이너기 가 바, 지 지 가 바 계, 지너기
40108 너희	40108 느네 이방 건 느네 이방
40109 개	40109 가이
40109-1 애	40109-1 야이
40109-2 채	40109-2 자이
40110 자기	40110 기자 항상 이녕 말만 올텐 허곡, 지 말만 마리엔 허곡
40111 당신	40111 당신 빵에서만 자, 우리 하르방은 기자 항상 당신 빵에만 서만 자

## 2) 의문대명사

40112 누구-요/누구십니까	40112 그기 누게 와수과, 누겔파
40112-0-1 누-가	40112-0-1 누게 불란 계수과, 누게 왈쭈과 , 누겔파
40112-0-2 누구-의	40112-0-2 이 돈 누게 것파
40112-0-3 누구-를	40112-0-3 누겔 만납디가도 허곡, 서울 간 누게 만나집떼가
40112-0-4 누구-에게	40112-0-4 누게신디, 누게안티
40112-0-5 누구-와	40112-0-5 누게광 겨론 험서, 누게영
40113 무엇-이냐/입니까	40113 그 보채기에 무시거 드러시니, 그 보채기에 미시거 미시거 드러시니
40113-0-1 무엇-이	40113-0-1 그 안네 미시거 미시거 드러수과, 주벵기에 미시거 드러수과
40113-0-2 무슨	40113-0-2 요새 느 미시거 험디 원원, 요새 미시거 허명 지내미니, 요새 미싱거 험서
40113-0-3 무엇-을	40113-0-3 미시거 머쿠과, 미싱거 머쿠과 영도 허곡, 미싱 걸 머크라 걷도 허곡
40113-0-4 무엇-과	40113-0-4 미싱거영 답따미는

## 3) 그 밖의 의문사

40114 어디	40114 어디 감수과
40115 언제	40115 어른 식계는 언제라
40116 어느	40116 어느 지비 맞으메 드우파
40117 왜	40117 무사 우럽디

40118 얼마나  
40119 어떻게

40118 얼마나 걸리느니  
40119 요새 어떻 지남서

#### 4) 지시대명사, 지시부사

40120 이것  
40121 그것  
40122 저것  
40123 여기  
40124 거기  
40125 저기  
40126 이리  
40127 그리  
40128 저리

40120 이거 먼꼬  
40121 그거랑 놔두라, 저어거  
40122 저어거  
40123 요디, 이디 떠러절찌  
40124 거기  
40125 저기  
40126 이레왕 아지라 이레왕  
40127 그레 가라 그레 그웬드레 가보라  
40128 저레 강 아지라

## 4.2. 조 사

### 1) 격조사

40201 -이/가  
40202 -이/가  
40203 -을/를  
40204 -을/를  
40205 -에게/게  
  
40206 보고/더러  
  
40207 -보고/더러  
  
40208 에  
40209 -에  
40210 -에서  
40211 -에서

40201 갑씨 비싸뎡 흐주 머  
40202 코가 커, 코가 크다게 흐주게  
40203 콜 때련따고 허주머  
40204 무를 주어야 허주  
40205 이거 이거 저 사름신디 주젠 가진 온 거여, 저 사람  
신디레 주라, 저 사람신데 주라  
40206 너 누게신디 경 함부로 당신 당신 허냐 이거지 거만  
하게시리  
40207 누게안티 저영 용심난 저영 헤염니, 저거 누구신디  
저영 용심난 정 험니  
40208 나 저 지베 감찌, 지베 감찌 어디, 지비 감찌  
40209 내중에 만나게  
40210 큰지베 시께여, 큰지비서 시께여  
40211 서울서 만나게

40212 -에서	40212 이디서 서울꺄장 비영기로
40213 -으로	40213 쓸로
40214 -으로	40214 찌그로 짜주게
40215 -으로	40215 스끼로 무끄주 스끼, 베로 무끄주 베
40216 -으로	40216 어드레 감시니, 어디 어딜 감시니
40217 -와/과	40217 수바기영 춤웨영 잘 먹쭈마
40218 -와/과	40218 나영 꺄찌 가켄 헨게 무사 느만 헤네 그 사름이영만 행 간디
40219 -보다	40219 아시가 성보단 지레가 훗썬 커
40220-처럼	40220 도세기처럼 슬겘썬
40221 -만큼	40221 나 키도 느 키쳐록 커져시민 조키여, 느만큼, 니키초롬 커져시민 조키여
40222 -만큼	40222 머글 머글만치만 머그라, 머글만큼 머그라, 머글만큼만 머그라
40223 -아/야	40223 봉남아
40224 -아/야	40224 어이 봉남이
40225 -아/야	40225 영수야
40226 -아/야	40226 누님
40226-1 -예	40226-1 누님양, 누님예 나 말 드리봅썬
40227 -아/야	40227 하러부지, 하르버지
40227-1 -요	40227-1 하르버지 예
40228 -이랑	40228 수리영 퀘기영 하영 머겘썬
40229 -커녕	40229 마워니랑 마랑

## 2) 보조사

40230 -은/는	40230 수를 머거도 난 담베는 안 피운다
40231 -만	40231 툇만
40232 -도	40232 저 사르른 지레도 크고 얼굴도 잘 생겘썬
40233 -마다	40233 날마다 술만 머거
40234 -부터	40234 나 오늘부터 담베 끄느젠 험수다
40235 -까지	40235 널꺄장 믈치쿠다, 널꺄지
40236-조차	40236 몸 꺄물 무리랑 마랑 머글 물도 어따
40236-1 -할라	40236-1 머글 물 아올라 어썬, 비아올라 오느디 어디 나사젠게

40237 -이야/야  
40238 -을랑  
40239 -이라도  
40240 -밖에  
40241 -가지고

40237 도니사 만추  
40238 그런 말랑 다시랑 허지 말라  
40239 그 사라믄 부재라도 그런 건 사지 아니다  
40240 나 생각해주는 사르믄 느베끼 어찌  
40241 싸아정 강, 쌍아정 강, 포떼기에 쌍가정강 플라

### 3) 문장 뒤 조사

40242 오라-고한다  
40243 알았어-요  
40244 했지-요?

40242 야 하르방 이레 오렌 햄네게  
40243 아람수다, 예 아라수다  
40244 누게 헤수과, 하르방 이거 누게 헤싱고 냥, 누게  
헤싱고 냥

## 4.3. 종결어미

### 1) 명령법

40301 -아라  
40302 -게  
40303 -으오  
40304 -으십시오  
40305 -세요

40301 아이민 야 이리 왕 아지라, 야 이디 왕 아지라, 이디  
왕 아지라, 이레 왕 아지라  
40302 사위 이레 왕 아자 봐, 이레 아자 이디왕  
40303 형님 이리 왕 아집써  
40304 아버지 이레 왕 아집써  
40305 어머니 이레 왕 아집써, 어머님 이리 왕 아집써

### 2) 청유법

40306 -자  
40307 -세  
40308 -으오  
40309 -십시다  
40310 -세요

40306 야 나영 ㄴ찌 가게  
40307 사위 ㄴ찌 가게, 사위 ㄴ찌 거러  
40308 성님 ㄴ찌 거릅써  
40309 아버지 ㄴ찌 거릅써  
40310 어머니 ㄴ찌 거릅써

### 3) 의문법

40311 -니	40311 야 베꼈떠 비 왁시냐
40312 -나	40312 사위 베꼈떠 비 왁서
40313 -오	40313 형님 베꼈떠 비 왁수과
40314 -습니까	40314 아버지 베꼈떠 비 왁수과
40315 -나요	40315 어머니 베꼈떠 비 왁수과
40316 -니	40316 느 어디 감디, 야 야 어디 감디
40317 -나	40317 사위 어드레 어디 가미라
40318 -시오	40318 성님 어디 감수과
40319 -십니까	40319 아버님 어디 감수과
40320 -세요	40320 어머니안테는 어머니 어디 감수과

### 4) 서술법

40321 -는다	40321 느 밤 잘 머검쨌
40322 -네	40322 가이 밥 잘 머검서
40323 -오	40323 성님 밥 잘 머검수다
40324 -습니다	40324 아버님 밥 잘 머검수다, 아버지 밥 잘 잡쨌웁수다
40325 -네요	40325 어머니 밥 잘 잡쨌웁수다
40326 -다	40326 오시 뽀짜켄 죽다 느
40327 -네	40327 아이 거 사위 오시 너무 뽀짜켄 조근게
40328 -소	40328 성님 거 온 뽀짜켄 죽쨌다
40329 -으십니까	40329 *
40330 -으세요	40330 *

### 5) 반 말

40331 -아	40331 *
40332 -지	40332 *

### 6) '이다'의 종결어미

40333 -이다	40333 넬 느 쟁이리여
40334 -이니	40334 넬 느 느 세이린 줄 아람다



40335 -이네	40335 사위 널 생이리라
40336 -인가	40336 사위 널 생이린 줄 아랍서
40337 -이오	40337 성님 널 생이리우다
40338 -이오	40338 성님 냉 생이린 줄 아랍수과
40339 -입니다	40339 생이리파도 허곡, 아버님 널 세이리우다, 아버님 널 생일리우다
40340 -입니까	40340 널 아버님 생이리파, 아버님 세이린 줄 아랍수과
40341 -이시지요	40341 널 생이리파, 널 어머님 생이리파, 어머님 널 생이리우다, 어머님 널 생이리우다
40342-이시지요	40342 *
40343 -이나?	40343 그 소네 췌 거 미시거니, 느 그 손네 췌 거 미시거니
40344 -인가?	40344 그 소네 췌 거 미시거라 사위, 미시거 췌디가, 미시거파, 사위 그 소네 췌 거 미시거라
40345 -이오?	40345 아버님 그 소네 췌 거 머시파
40346 -입니까?	40346 아버님 소네 미시거 췌디가, 췌게 미시거파
40347 -인가요?	40347 어머님 소네 췌 거 미시겔파
40348 -이야?	40348 당신 소네 미시거 췌여서, 당신 소네 미시거 췌여수과, 당신 소네 췌 거 미시거
40349 -이어요?	40349 당신 거 소네 췌 거 미시겔파, 당신 소네 미시거 췌연, 당신 손네 췌 거 미시거

## 7) 그 밖의 종결어미

40350 -습니다	40350 하우다
40351 -습디다	40351 게나제나 자동차도 합디다, 서울 간 보난 자동차도 합디다
40352 -는구나/구나	40352 거슬 잘 멩네 이, 잘 멩네 이
40353 -는구먼/구먼	40353 느네 췌는 주글 잘 머겔췌, 느네 췌는 주글 잘 먹네 이 이거
40354 -일세	40354 아이고 오래간마네이, 야 오랜마니 만나난 반갑다이, 오래간마니네이, 오래마니네
40355 -으마	40355 나 널기진 꼭 가프나, 널기진 꼭 가프마
40356-음세	40356 가프마도 허곡, 널기진 꼭 가프크라
40357 -을라	40357 다치키여 조심허라, 다친다 장난 허지 말라 다치키여

## 4.4. 연결어미

40401 -고/-고서	40401 밤 머거네 테레비 밤서라, 밤 머경 테레비 밤서라
40402 -으면서	40402 아이구 밤 머그멍 테레미 밤꾸나게, 테레비 보멍 밤 머겁다
40403 -어/-어서	40403 어떻헤연 스정 이선 못똥디다, 어제 오단 못똥디다
40404 -으니/-으니까	40404 산네 누네 막 와부나네 저 차 못똥겨네 못똥수게, 야인 저 추운디 일따네 방에 멘도롱혼디 드리오안 꼬박꼬박 조람쩌
40405 -관데	40405 미신 이룬디 정 사람들 하영 모여싱고
40406 -다가	40406 어 지비 오단 요기 오난 기냥 비가 흘런히 비가 와네 이거 비 마잔 와서네
40407 -거든	40407 그 사람 만나거든 나 안부 전해주어
40408 -더라도	40408 머거도 조경 머그라
40409 -으려고	40409 먹젠 사쭈게, 아이드리영 이거 갈라먹젠 허나네게
40410 -도록	40410 죽또록, 죽또록 일만 헤도 이거 윈
40411 -을수록	40411 나로근 이글쭈록 고개를 수킨다
40412 -듯이	40412 돈 물쓰든 경 쓰는 사라미, 저 사람은 도늘 물 쓰든
40413 -지	40413 난 연송꼭만 보주 다른 건 안 바

## 4.5. 주체존대

40501 -셔	40501 딱똥트우다 이디 왕 아집써, 이디 왕 아집써, 이레왕 안집써
40502 -셨소	40502 나록 다덜 싱거수과

## 4.6. 시제

40601 웃는다	40601 애기 잘도 우섬쩌, 애기 잘도 우섬쩌게
40602 기어간다	40602 애기 잘 기엄쩌, 잘 기엄쩌
40603 크다	40603 아고 애기 눈도 바롱헝게 크다

40604 생일이다	40604 널 나 세이리메 놀레들 와, 널 나 생이리여
40605 오고 있다	40605 지금 바께 미 왁져
40606 먹었니?/잡수셨습니까?	40606 밤 머거서, 밤 머급떼가
40607 왔었다	40607 그 췌는 췌죽을 춤 잘 머거라, 장녀네도 이 금강사네 와 날져
40608 먹더라	40608 그 집 췌 췌 췌죽 잘 머거나
40609 먹더냐	40609 *
40610 만나는 친구	40610 이 사르른 나 나영 날마다 만나는 칭구라
40611만난 친구	40611 어제 만난 칭구라, 이 버슨 오년 마네 만난 칭구라, 이 사라른 또 어제 나영 만난 칭구라
40612 만났던 친구	40612 이 버슨 나 널 만날 매날 만나난 널 만날 칭구라
40613 만날 친구	40613 야이는 키가 크주 키가 큰 나이라
40614 큰 아이	40614 자이는 지레가 큰 나이라
40615 크던 아이	40614 *
40616 컸던 아이	40616 자이는 지레가 절른 떼영 한창 떼 커뎀 사라미라, 한창 떼는 자이 지레가 커뎀 아이라
40617 마시지 않겠다	40617 술 췌정을 헤지고 헤서 아프론 절때 술 안 벵젠험췌, 절때로 술 먹찌 말젠 험췌
40618 비가 오겠다	40618 아니고 하느리 췌커메연 곧 비가 왁직커다, 췌커메 간 비가 왁직커다

## 4.7. 부정

40701 안 먹었어/먹지 않았어	40701 아니 아직 안 머거서
40702 안 좋다/좋지 않다	40702 날씨가 조치 안타
40703 안 깨끗하다/깨끗하지 않다/깨끗 안하다	40703 깨끄터지 안타
40704 장가 안 갔다/장가 가지 않았다	40704 깨끈 모터다, 아직 장게 양 가서
40705 만나보지 않았다/안만나 보았다 /만나 안 보았다	40705 아니 만나바서, 아직 안 만나바서,아직 아니 만나바서
40706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40706 *
40706-1 먹도 않고	40706-1 무시거 먹또 아년 즘만 잠져, 야긴 원 무시거 먹찌도 아년 즘만 잠져
40707 못 마신다/마시지 못한다	40707 나는 술 먹찌 모테여, 난 술 머글 췌 몰라
40708 맞잖소?/안 맞소?	40708 나 마리 마잔짜나께, 내 마리 머 너 강 바 머

## 4.8. 피동과 사동

### 1. 사동

40801	살리다	40801	무례 사라문 나가 건너넌져 건전 살려 넌져
40802	늘리다	40802	늘루야 돼키여 학생수를 늘루야 데키여, 학생수를 불려야 돼키여
40803	말리다	40803	물류와사키여, 고찌 마당 고치 너렁 물류와사키여1
40804	말리다	40804	싸우물 멀리라 싸우물 멀려야 데키여
40805	얼리다	40805	냉동실에 낱 얼리라
40806	녹이다	40806	그 어르물 뜨거운 무례 낱 노기라
40807	신기다	40807	그 얘기 신 신져 주라
40808	보이다	40808	나 갈 때 게 야 그 시게 나신디 좀 베와도라게, 나 이거 베와주마 느신디, 베워 주라
40809	알리다	40809	친척드른 게 알려주라
40810	입히다	40810	오슬 입퍼주라, 입퍼주라
40811	얹히다	40811	이자에 안치게 안치게 허라
40812	2벗기다	40812	옷 베끼라
40813	웃기다	40813	노물 우끼라, 우끼라 우찌게 허라
40814	씩히다	40814	단지에 다망 씨끼라
40815	숨기다	40815	그레 곱찌 곱찌라
40816	끓기다	40816	굳찌라 굳끼라, 그 아이 밥 쭈지 마랑 굳끼라
40817	깨우다	40817	즘 자이 즘 깨우라
40818	둔우다	40818	거기 또 흑 올리라, 그 부리 어둡따 씌지를 씌지를 즘 올리라

### 2) 피동

40819	잡히다	40819	난 도망가다가 자피고라 자펼따
40820	깎이다	40820	내 월그비 까끼열져, 내 월그비 삼천위니나 깨결져
40821	끼이다	40821	내 송까라기 문트메 접쩐 다철져, 송까라기 무트메 접쩐져, 접쩐 이거 상처 날져
40822	떼이다	40822	돈 떼엔 돈 떼열져
40823	채이다	40823	새바레 채열져, 세 바레 채열져

40824 닫히다	40824 즈여니 무니 더꺼전져, 무니 저절 바라메 더꺼전져
40825 들리다	40825 잘 들렷져
40826 업히다	40826 애기는 엄마 등에 업편져, 엄마 등에 업쩨져
40827 바꾸다	40827 바꾸와전져
40828 씹히다	40828 모래가 모래가 씨핼져, 모래가 씨버집져, 씨버집져 씨핼져
40829 얹히다	40829 밤 머궁 거시 연철져, 밤 머궁 거시 체연져
40830 찍히다	40830 나 발등이 저 사람 켱이지레 찌켸져, 찌켸져
40831 놀리다	40831 놀러진 놀런, 놀러정, 흑떠미에 놀러진 이러나지 모터키여
40832 실리다	40832 구급차에 실런 병위네 간쭈, 구급차에 실런 병위느로 간쭈
40833 끊기다	40833 소시기 끈켸져, 소식이 쪼너전져
40834 긁히다	40834 가시에 글거진, 가시에 글켸, 가시에 글켸 요거 상처 날져, 글거진

## 4.9. 보조용언

40901 싫다	40901 박꼬 시픈 게 머라, 생일 기너므로 박꼬 시픈 거시 미시거라
40902 싫다	40902 강생이가 바블 잘 머검시카부텐 허난 요센 통 안 머건
40903 보다	40903 이 온 어땡허우파 흥번 이버봄써
40904 버리다	40904 누게 다 머거버런
40905 대다	40905 재여리 낭에서 오랜 시간 우러땡져
40906 -나/는가보다	40906 곧 베가 내려 비가 왓쩍 허다
40907 -나/는가보다	40907 아이드리 다 잠싱구라 조용허다
40908 -나/는가보다	40908 추옹가푸다 자네덜, 추웘직허다

## 4.10. 부 사

41001 실컷	41001 실피 머그라, 이거 하영 시메 느 머꾸저 헌냥 실피 머그라
----------	---

41002 많이	41002 하영 머그민 베가 불르고
41003 너무	41003 너미 머그면 모메 해롭따
41004 조금	41004 조끔만 머거도, 조끔만 머거도 취헤진다, 조끔만 머거도 취헤진다
41005 자주	41005 즈주 즈주 가진다
41006 빨리	41006 다른 사라미 보기 저네 재기 머거불라, 빨리 왁꾸나, 재기 왁꾸나
41007 얼른	41007 얼른 머거야지
41008 기어코	41008 경 가지 말렌 헤도 우겨대연 가더니, 기어이 가더니 사고가 나수다
41009 가끔	41009 간가니, 두멍두멍도 쓰곡
41010 먼저	41010 먼저 가자 먼저 가라, 먼저 가라 먼저 가라, 느랑 먼저 가라
41011 나중에	41011 원그미랑 내주에 마드라
41012 가득	41012 무를 ㄱ득 채우라
41013 몽땅	41013 문딱 모다가 아니고 문딱 가져오라, 헝나도 뵙기지 마랑 죄다 가져오라
41014 모조리	41014 모다 가져오라, 전부 다 비어부렷찌, 죄다 가져오라 문딱 가져오라
41015 혼자	41015 나만 혼즈 혼자, 나만 혼자 인꾸나게
41016 항상	41016 홀 이리 만나서 항상 바쁘다
41017 똑똑히	41017 똑또기 바라, 똑또기 바라
41018 겨우	41018 툇꼭찌를 제우 츄말찌, 저우저우 츄말찌, 제우제우 츄말찌
41019 늘	41019 볼 때마다 느랑 즈만 잔다 느랑
41020 저절로	41020 나도 모르케 절로 하푸미 나왓찌 , 절로 난다
41021 자꾸	41021 조르미 자꾸 와 이 , 하푸미 자꾸 난다
41022 설마	41022 그 친구가 츄마 날 쏘길리가 이서
41023 하마터면	41023 헝마트면
41024 함께	41024 온 식꾸가 혼디 여행을 가나수다
41025 걸핏하면	41025 *
41026 공연히	41026 공연시레 기자 트집잡킬 잘 헤어
41027 그냥	41027 그냥 나왓따, 안 사고 기냥 기냥 나왓따
41028 매우	41028 *
41029 곧장	41029 곧짱 간따 오라, 곧짱 오라, 막 췌메
41030 벌써	41030 벌써 벌써 벌써 끈나시나

41031 가장  
41032 가만히  
41033 미리  
41034 이따금

41031 켈로  
41032 지베 ㄱ마니 안자 이시라  
41033 미를 잘  
41034 두망두망 온다

## 4.11. 관용적 표현

### 1) 관용어구

41101 여보  
41102 여보세요  
41103 들어가세요  
  
41104 수고하세요  
41105 오랜만에 만난 친구 사이의 인사말  
41106 아침 출근길에 마주친 동네 어른에게  
하는 인사말  
41107 오랜만에 찾아뵈 어른에게 큰절을  
올리면서 하는 말  
41108 여기 있습니다  
41109 예  
41110 아니  
41111 아무렇지도 않다  
41112 내버려둬  
41113 개나소나, 개나소나 차를 몰고 다닌다

41101 애기어멍  
41102 양  
41103 잘 이십썬 영도 허곡 전나 ㄸ넙수다 전봐 낚수다  
허주 미시거엿 ㄱ라  
41104 쏘기수다  
41105 아이고 반갑네  
41106 어디 감수가주 원  
41107 폐난허우파  
41108 돈 여기수다 깎 얼마파 헤그네  
41109 예  
41110 아니주  
41111 아명도 아녀 아명도 아년 요새 건강헤여  
41112 뇌두라 느 상관헐 니리 아니여  
41113 탱거 안 탱건뜰 다 이제 일바느로 다 탱거 아 탱건  
다들 차 ㄱ랑

### 2) 속담

41114 밭 빠진 독에 물붓기  
41115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  
41116 아니 뎌 굴뚝에 연기 나라

41114 도와줘 바도 소용 무슨 소용이 이시니 터진 항에 물  
비우기여  
41115 바늘 도도기 썬 도둑 된다 영허주게, 바늘 또도기  
소 도둑 뎌  
41116 아니 뎌 굴뜨게 연기 나느냐



## 국립국어원 지역어 조사 추진 위원회

- ◆ 위원장 **이기갑** (목 포 대 학 교)
- ◆ 위 원 **강영봉** (제 주 대 학 교)
- ◆ 위 원 **김무식** (경 성 대 학 교)
- ◆ 위 원 **김봉국** (부산교육대학교)
- ◆ 위 원 **김정대** (경 남 대 학 교)
- ◆ 위 원 **박경래** (세 명 대 학 교)
- ◆ 위 원 **소강춘** (전 주 대 학 교)
- ◆ 위 원 **한영목** (충 남 대 학 교)
- ◆ 위 원 **최명옥** (서 울 대 학 교)
- ◆ 위 원 **홍윤표** (연 세 대 학 교)

